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김지영, 김기수, 송지현, 전수빈, 유선아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책임연구원

김지영(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공동연구원

김기수(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

송지현(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

전수빈(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 연구원)

유선아(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 위촉연구원)

연구보조원

조정하(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 연구보조원)

자문위원

김문규(대전대덕구시니어클럽 관장)

김미영(대전시민대학 학사운영팀장)

민진암(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부지역본부 본부장)

송인주(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 연구위원)

임진섭(배재대학교 실버보건학과 교수)

주혜진(대전여성가족센터장)

.. 차례 ..

요 약	ix
제1장 연구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1. 연구대상	5
2. 연구방법	9
3. 분석대상 베이비부머의 특성	11
4. 연구의 제한점	21
제2장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삶과 복지인식	22
제1절 소득 및 생활수준	22
1. 소득 및 지출 규모	22
2. 부채여부 및 사유	29
3. 소득 및 소비생활 만족도	33
4. 거처의 종류 및 주택점유형태	37
5. 계층적 귀속 의식	40
제2절 경제활동 및 고용	43
1. 경제활동	43
2. 구직현황	61
제3절 신체 및 정신건강	62
1. 건강관리	62
2.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67
3.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 경험	70
제4절 가족	77
1. 가족생활	77
2. 가족관계	79

제5절 교육 및 여가생활	82
1. 평생교육	82
2. 문화예술 활동 및 여가생활	88
3. 노후생활 계획	96
제6절 사회참여 및 공동체	99
1. 자원봉사기부	99
2. 사회적 관계	103
3. 지역사회 참여	111
제7절 복지인식	118
1.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에 대한 인식	118
2. 대상별 복지인식	124
3. 사회적 포용	131
4. 가족정책에 대한 인식	138
제3장 결론 및 제언	141
제1절 주요 결과	141
1. 소득 및 생활수준	141
2. 경제활동 및 고용	146
3. 생활만족도	148
4. 평생교육 및 여가활동	149
5. 사회참여 및 공동체	152
6. 복지인식	155
제2절 베이비부머 지원정책의 방향	159
1. 고용 및 노후 설계 지원	159
2. 평생교육 및 여가활동 활성화	170
3.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175
참고문헌	178
부록. 2013 대전광역시 사회조사(가구주) 설문지	181
2014 대전광역시 사회조사(가구주) 설문지	192

.. 표 차례 ..

〈 표 1-2-1 〉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인구현황(2014년)	6
〈 표 1-2-2 〉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 인구현황(2014년)	8
〈 표 1-2-3 〉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개요(2013년, 2014년)	9
〈 표 1-2-4 〉 분석영역 및 해당 문항	10
〈 표 1-2-5 〉 성별	12
〈 표 1-2-6 〉 출생년도	12
〈 표 1-2-7 〉 교육수준	13
〈 표 1-2-8 〉 성별과 출생년도에 따른 교육수준	14
〈 표 1-2-9 〉 혼인상태	14
〈 표 1-2-10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혼인상태	15
〈 표 1-2-11 〉 거주지역	16
〈 표 1-2-12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거주지역	17
〈 표 1-2-13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전지역 거주기간(2013년)	18
〈 표 1-2-14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현 거주지 거주기간(2013년)	20
〈 표 1-2-15 〉 가구주와의 관계	21
〈 표 2-1-1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가구소득	22
〈 표 2-1-2 〉 성별에 따른 가구원 수 및 월평균 가구소득	23
〈 표 2-1-3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가구지출(2013년)	25
〈 표 2-1-4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저축률(2013년)	26
〈 표 2-1-5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경조사비(2013년)	27
〈 표 2-1-6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통신비(2013년)	28
〈 표 2-1-7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채유무	30
〈 표 2-1-8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채사유	32
〈 표 2-1-9 〉 소득수준 만족도	34
〈 표 2-1-10 〉 소비생활 만족도	36
〈 표 2-1-11 〉 거처의 종류	37

〈 표 2-1-12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거처의 종류	38
〈 표 2-1-13 〉 주택점유형태	39
〈 표 2-1-14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택소유여부	39
〈 표 2-1-15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계층적 귀속 의식	41
〈 표 2-1-16 〉 계층적 귀속 의식	42
〈 표 2-1-17 〉 계층적 귀속 의식 차이	42
〈 표 2-2-1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의 유무	44
〈 표 2-2-2 〉 직업 유무에 따른 월평균 가구소득	45
〈 표 2-2-3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종(2013년)	47
〈 표 2-2-4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종(2014년)	48
〈 표 2-2-5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장 유형(2013년)	49
〈 표 2-2-6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장 유형(2014년)	51
〈 표 2-2-7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 종사상 지위(2013년)	52
〈 표 2-2-8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 종사상 지위(2014년)	53
〈 표 2-2-9 〉 직업이 없는 사유	54
〈 표 2-2-10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는 일 만족도(2013년)	56
〈 표 2-2-11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금수준 만족도(2013년)	57
〈 표 2-2-12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용안정성 만족도(2013년)	58
〈 표 2-2-13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 만족도(2013년)	59
〈 표 2-2-14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 만족도(2013년)	60
〈 표 2-2-15 〉 구직활동 여부(2013년)	61
〈 표 2-2-16 〉 구직 시 고려사항(2013년)	61
〈 표 2-3-1 〉 운동 여부(2014년)	63
〈 표 2-3-2 〉 주로 하는 운동(2014년)	64
〈 표 2-3-3 〉 주로 하는 운동 1순위(2014년)	65
〈 표 2-3-4 〉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2014년)	67
〈 표 2-3-5 〉 지난 1년간 이용한 의료시설(2014년)	68
〈 표 2-3-6 〉 의료서비스 만족도(2014년)	69
〈 표 2-3-7 〉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2014년)	70

〈 표 2-3-8 〉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경험	71
〈 표 2-3-9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차이	72
〈 표 2-3-10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심 또는 걱정 차이	73
〈 표 2-3-11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 차이	74
〈 표 2-3-12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	75
〈 표 2-3-13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는 일에 대한 가치 차이	76
〈 표 2-4-1 〉 타 지역 가족 유무(2013년)	77
〈 표 2-4-2 〉 분거 이유(2013년)	77
〈 표 2-4-3 〉 분거기간(2013년)	78
〈 표 2-4-4 〉 가사 분담 현황(2013년)	78
〈 표 2-4-5 〉 직업이 없는 경우 가사 분담 현황(2013년)	79
〈 표 2-4-6 〉 가족관계 만족도(2013년)	80
〈 표 2-4-7 〉 가족관계 만족도 차이(2013년)	80
〈 표 2-4-8 〉 가족 간의 식사횟수(2014년)	81
〈 표 2-5-1 〉 교육기회 충족도(2013년)	83
〈 표 2-5-2 〉 교육기회 미충족 이유(2013년)	84
〈 표 2-5-3 〉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이용실태(2013년)	85
〈 표 2-5-4 〉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이용실태 1순위(2013년)	86
〈 표 2-5-5 〉 향후 평생교육 희망강좌(2013년)	87
〈 표 2-5-6 〉 향후 평생교육 희망강좌 1순위(2013년)	88
〈 표 2-5-7 〉 지난 1년간 문화예술 활동 참여(2014년)	89
〈 표 2-5-8 〉 학교교육 이외의 강좌강습 참여종류(2014년)(다중응답)	89
〈 표 2-5-9 〉 주말·휴일 여가활용 종류(2014년)	90
〈 표 2-5-10 〉 주말·휴일 여가활용 종류 1순위(2014년)	92
〈 표 2-5-11 〉 여가생활 만족도(2014년)	93
〈 표 2-5-12 〉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2014년)	94
〈 표 2-5-13 〉 평소 시간부족을 느끼는 정도 - 평일(2014년)	95
〈 표 2-5-14 〉 평소 시간부족을 느끼는 정도 - 주말(2014년)	95
〈 표 2-5-15 〉 노후생활 계획	97

〈 표 2-5-16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후생활 계획 1순위	98
〈 표 2-6-1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99
〈 표 2-6-2 〉 기부참여현황	101
〈 표 2-6-3 〉 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102
〈 표 2-6-4 〉 기부를 하는 이유(2013년)	103
〈 표 2-6-5 〉 지갑 분실시 기대감	104
〈 표 2-6-6 〉 가족 간 소통	105
〈 표 2-6-7 〉 직장구성원 간 소통	106
〈 표 2-6-8 〉 이웃 간 소통	107
〈 표 2-6-9 〉 세대 간 소통	108
〈 표 2-6-10 〉 세대 간 소통 차이	109
〈 표 2-6-11 〉 사회적 관계망	110
〈 표 2-6-12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	110
〈 표 2-6-13 〉 대전시민이라는 자부심	111
〈 표 2-6-14 〉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 참여 의향	112
〈 표 2-6-15 〉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 참여 의향 차이	113
〈 표 2-6-16 〉 지역행사가 많다는 생각 정도(2014년)	114
〈 표 2-6-17 〉 지역주민들이 지역행사에 활발히 참여한다는 생각 정도(2014년)	114
〈 표 2-6-18 〉 지역문제에 잘 협력한다는 생각 정도(2014년)	115
〈 표 2-6-19 〉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생각 정도(2014년)	116
〈 표 2-6-20 〉 사회적 경제 인지도(2014년)	117
〈 표 2-6-21 〉 사회적 경제 기업 유형 인지도(2014년)	117
〈 표 2-7-1 〉 자신의 노력에 의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상관 정도	119
〈 표 2-7-2 〉 자신의 노력에 의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상관 정도 차이	120
〈 표 2-7-3 〉 자녀의 노력에 의한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	122
〈 표 2-7-4 〉 자녀의 노력에 의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상관 정도 차이	123
〈 표 2-7-5 〉 자신과 자녀의 노력에 의한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대응표본 t검증) ..	124
〈 표 2-7-6 〉 여성복지서비스 선호도(2014년)	124
〈 표 2-7-7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성복지서비스 선호도 1순위(2014년)	125

〈 표 2-7-8 〉 장애인복지서비스 선호도(2014년)	126
〈 표 2-7-9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복지서비스 선호도 1순위(2014년)	127
〈 표 2-7-10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 고충문제	128
〈 표 2-7-11 〉 노인복지서비스 선호도(2014년)	129
〈 표 2-7-12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선호도 1순위(2014년)	130
〈 표 2-7-13 〉 사회적 포용	131
〈 표 2-7-14 〉 사회적 포용 - 장애인	132
〈 표 2-7-15 〉 사회적 포용 - 결손가정의 자녀	133
〈 표 2-7-16 〉 사회적 포용 -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134
〈 표 2-7-17 〉 사회적 포용 - 전과자	135
〈 표 2-7-18 〉 사회적 포용 - 동성애자	136
〈 표 2-7-19 〉 사회적 포용 - 북한이탈주민	137
〈 표 2-7-20 〉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2013년)	138
〈 표 2-7-21 〉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1순위(2013년)	139
〈 표 2-7-22 〉 다문화 가구원을 위한 지원(2013년)	139
〈 표 2-7-23 〉 다문화 가구원을 위한 지원 1순위(2013년)	140

.. 그림 차례 ..

[그림 3-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가구소득	141
[그림 3-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가구지출(2013년)	142
[그림 3-1-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채사유	143
[그림 3-1-4] 성별에 따른 월평균 가구소득(2013년)	145
[그림 3-1-5] 성별에 따른 월평균 가구소득(2014년)	145
[그림 3-1-6] 직업 있는 사람의 월평균 가구소득	146
[그림 3-1-7] 구직 시 고려사항(2013년)	148
[그림 3-1-8] 향후 평생교육 희망강좌 1순위(2013년)	150
[그림 3-1-9]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2014년)	151
[그림 3-1-10] 노후생활 계획	152
[그림 3-1-11]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153
[그림 3-1-12]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 인지도(2014년)	154
[그림 3-1-13] 여성복지서비스 선호도(2014년)	156
[그림 3-1-14] 장애인복지서비스 선호도(2014년)	156
[그림 3-1-15] 노인복지서비스 선호도(2014년)	157
[그림 3-1-16] 사회적 포용(2013년)	158
[그림 3-1-17] 사회적 포용(2014년)	158

요 약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2013년, 2014년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함으로써 포괄적인 베이비부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베이비부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제언을 이끌어내는데 목적이 있음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견지함
 - 첫째, 베이비부머를 ‘예비노인’이라기보다는 적절한 지원만 따라준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예비 지역인재’로 바라봄
 - 둘째, 노후준비에 대한 다차원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베이비부머의 다양한 삶의 측면을 포괄함
 - 베이비부머의 현재 삶의 모습과 복지에 대한 인식은 베이비부머가 지나온 삶의 전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생애사적 관점에 입각해서 자료를 분석함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제언은 인생이모작센터 운영 등 베이비부머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물론 일자리, 평생교육, 사회참여 등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임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연구 대상

- 2014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약 51,328천명이며, 이 중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

- 출생)는 약 7,378천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4.4%임
- 2014년 12월 말 기준 대전광역시 인구 약 1,532천명 중 베이비부머는 약 213천명으로 13.9%임. 이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2015년 6월 말 현재 16만2천352명)보다도 많은 규모임
 - 대전광역시의 베이비부머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구규모와 총 인구 대비 베이비부머의 인구 비중 모두 13번째임
 -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고착되면서 아동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있어 베이비부머의 인구 비중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대전시 총 인구 중 베이비부머의 비율은 2013년 13.7%에서 2014년 13.9%로 2%p 증가함

□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실시된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데이터 중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응답자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활용함
- 사회복지와 소득·소비, 보건, 문화·여가, 공동체 등 복지정책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문항들만을 선정하여 활용함
- 정책적인 시사점의 도출을 용이하게 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된 문항들을 베이비부머의 삶의 영역 중심으로 재구성함

□ 자료의 처리 및 분석

- 자료는 SPSS 20.0을 활용하여 분석함
- 사용한 모든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항에 대해서는 관련 변인(성별, 출생년도, 교육수준, 거주 자치구, 소득 등)을 중심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T 검증이나 F 검증 등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함

□ 분석대상 베이비부머의 특성

- 성비는 2013년 조사에서는 남성이 47.4%, 여성이 52.6%였고, 2014년 조사에서는 남성이 48.0%, 여성이 52.0%로 2개년도 모두 여성의 비율이 조금 높았음
- 출생년도를 살펴보면, 2013년 조사에서는 1958년생이 가장 많았고, 2014년 조사에서는 1960년생이 가장 많았음

-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아서 2013년도에는 53.6%, 2014년도에는 41.2%였음
- 혼인상태는 기혼이 대부분으로 2013년 조사와 2014년 조사에서 각각 84.9%, 84.5%였음. 사별과 이혼 등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3.2%, 12.0%였고, 미혼인 경우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9%, 3.5%였음
- 거주지역은 2013년 조사에서는 서구가 2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동구 20.2%, 대덕구 18.8%, 중구 18.5%, 유성구 16.5%의 순이었음. 2014년 조사에서도 서구가 2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구 19.4%, 대덕구 19.0%, 유성구 18.4%, 동구 17.4%의 순이었음
- 대전광역시 거주기간은 평균 32.2년임. 거주기간별로는 50년 이상이 2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20년 미만이 21.9%, 20~30년 미만이 20.7%, 30~40년 미만이 20.4%, 40~50년 미만이 9.0%의 순이었음
- 현 거주지의 거주기간은 평균 9.9년임. 이를 거주기간별로 살펴보면 5년 미만이 28.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5년 이상이 25.1%, 5~10년 미만이 24.6%, 10~15년 미만이 21.4%의 순이었음
-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2013년 조사에서는 가구주 본인인 경우(58.1%)와 배우자인 경우(38.6%)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남

□ 연구의 제한점

-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본 연구를 위해 설계된 조사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데이터 중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응답내용만을 추출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인구학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분석한 조사내용 또한 대전광역시 사회조사를 위해 개발한 조사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각 장 및 절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다소 부자연스러운 분류가 발견될 수 있음

제2장.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삶과 복지인식

1. 소득 및 생활수준

□ 소득 및 지출규모

-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3년도에는 ‘300~400만 원 미만’이 24.0%로 가장 높았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남성의 소득수준이 여성보다 더 높았음. 2014년도 조사에서는 2013년도에 비해 ‘200만 원 미만’과 ‘600만 원 이상’의 비율은 높아지고 ‘200~600만 원 미만’의 비율은 낮아졌음
-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총 소비 지출액은 ‘100~200만 원 미만’이 32.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200~300만 원 미만’ 29.6%, ‘300~400만 원 미만’ 15.0%, ‘100만 원 미만’ 13.3% 등의 순이었음
-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저축률은 ‘10% 미만’이 48.9%로 가장 높았으며, 성별로는 여성은 ‘10% 미만’에서 높았으며, 남성은 ‘10% 이상’의 모든 분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지난 1년 간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월평균 경조사비는 14만 8천 원임. 지출한 금액은 ‘10~15만 원 미만’이 31.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0만 원 미만’ 28.2%, ‘25만 원 이상’ 16.4%, ‘20~25만 원 미만’ 14.9% 등의 순이었음.
- 지난 1년 간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월평균 통신비는 18만 6천 원임. 지출한 금액은 ‘25만 원 이상’이 28.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0~25만 원 미만’ 23.4%, ‘15~20만 원 미만’ 17.4% 등의 순이었음

□ 부채여부 및 사유

-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가계 부채 유무를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39.7%가 가계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10가구 중 4가구는 가계 부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성별로 보면 남성(41.0%)이 여성(35.1%)보다 가계 부채가 높음. 2014년 베이비부머의 44.1%가 가계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44.2%)과 여성(43.9%)이 큰 차이가 없었음
- 2013년 베이비부머의 가계 부채 발생 이유는 ‘주택 임차 및 구입’이 5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비’ 16.6%,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생활비’ 13.8%, ‘재테크 투자’ 8.3% 등의 순이었음. 성별로는 남성(58.8%)과 여성(51.7%) 모두 ‘주택 임차 및 구입’에서 높았으며,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 생활비’는 여성(20.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2014년도 베이비부머의 가계 부채 발생 이유는 ‘주택 임차 및 구입’이 50.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 생활비’ 16.2%, ‘교육비’ 13.5%, ‘재테크 투자’ 9.7% 등의 순이었음. 성별로 ‘교육비’는 남성(14.7%),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생활비’는 여성(22.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2013년과 2014년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가계 부채 발생 이유를 살펴보면, ‘주택임차 및 구입’ (7.3%p)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생활비’ (2.4%p)와 ‘재테크 투자’ (1.4%p)는 증가함

□ 소득 및 소비생활 만족도

- 소득수준 만족도는 2013년도 조사에서 평균이 5점 만점에서 2.9점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이 2.91점, 여성이 2.89점으로 남성이 근소하게 만족도가 높았음. 2014년도에는 평균 5점 만점에서 2.71점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2.72점)의 만족도가 남성(2.70점)보다 근소하게 높았음. 2013년과 2014년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음
- 2013년도와 2014년도 소득수준 만족도를 살펴보면 ‘불만족’이 전반적으로 증가(10.1%p)하고 있으며, 소득수준 ‘만족’은 하락(4.4%p)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도 조사에서는, 소비생활 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서 2.94점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도 소비생활 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서 2.80점이었음. 2013년도와 2014년도 소비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 ‘불만족’이 전반적으로 증가(6.2%p)하고 있으며, 소비생활 ‘만족’은 하락(5.0%p)한 것으로 나타남

□ 거처의 종류 및 주택점유형태

- 조사대상 베이비부머의 거처의 종류를 살펴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2013년 조사와 2014년 조사에서 각각 54.6%, 56.1%로 절반을 약간 넘었음. 2013년 조사에서는 아파트 다음으로 단독주택이 22.6%, 연립·다세대 주택이 22.5%이며, 2014년 조사에서는 아파트 다음으로 단독주택이 23.8%, 연립·다세대 주택이 15.7%의 순이었음

- 주택점유형태를 살펴보면, 201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가 71.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세 16.8%, 보증부 월세 8.0%, 월세 2.5%의 순이었다. 2014년 조사 결과는 자가 7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세가 13.6%, 보증부 월세가 9.7%, 월세 1.9%의 순이었음. 즉, 조사대상 베이비부머 10명 중 7명은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나머지 3명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계층적 귀속의식

- 2013년도 조사에서는 중하라는 응답이 53.3%로 가장 많고, 중상이 23.8%로 중간 정도 수준으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77.1%였으며, 2014년 조사에서도 2013년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중하가 44.9%, 중상이 31.0%로 나타나 중간 정도 수준으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75.9%였음
- 전반적으로 베이비부머는 현재 자신의 경제·사회적 위치를 3/4정도는 중간 정도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고, 1/5정도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는 3% 미만으로 매우 낮았음
- 대전 시민 전체에 비교해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중상이나 중하에 속한다는 응답이 약간 많아 상대적으로 자신의 계층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임을 볼 수 있음

2. 경제활동 및 고용

□ 경제활동

- 2013년도 베이비부머 66.7%가 ‘직업 있음’으로 33.3%가 ‘직업 없음’으로 응답했음.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남성은 94.4%가 일을 하고 있었으나, 여성은 41.8%만이 일을 하고 있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의 1/2에도 미치지 못했음.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아져서 중학교 졸업 이하 베이비부머의 53.6%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초대졸 이상의 베이비부머는 79.1%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음
- 2014년도에는 베이비부머 68.3%가 ‘직업 있음’으로 응답하였으며, ‘직업 없음’은 31.7%로 나타났음.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남성은 87.6%가 일을 하고 있었으나, 여성은 그 비율이 50.5%에 불과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았음

- 종사 직종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서비스 종사자가 21.8%, 사무 종사자 19.9%, 판매 종사자 17.0%로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가 38.8%를 차지하고 있었음. 2014년도에는 서비스 종사자 26.4%, 판매 종사자 10.6%로 서비스·판매직 직업계층의 비율이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37.0%를 차지하고 있었음. 2014년도 조사에서는 2013년도에 비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등은 더 많았고, 판매 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등은 더 적었음
- 2013년도 조사에서는 직업이 있는 응답자의 80.0%가 민간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기업 7.5%, 정부 4.7%, 비영리기관 2.8% 순이었음. 2014년도에는 직업이 있는 응답자의 32.9%가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소기업 28.5%, 중소기업 12.6%, 공무원 6.6%, 기타 공공기관 5.7%, 대기업 4.9% 등의 순이었음
- 2013년도에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베이비부머의 74.7%가 임금·봉급 근로자이며, 그 다음으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8.6%, 고용원을 둔 사업주 5.8%, 무급가족 종사자 1.3% 순이었음. 2013년 베이비부머의 종사상 지위는 여성이, 후기 베이비부머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덕구에서 임금·봉급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음
- 2014년도에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베이비부머의 47.8%가 상용근로자였고, 그 다음으로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 18.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6.6%, 고용주 12.4%, 무급가족종사자 3.7% 등의 순이었음. 2014년 베이비부머의 종사상 지위는 남성의 경우, 후기 베이비부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성구에서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았음
-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묻은 결과, 2013년도에는 87.9%가 주부, 12.1%는 무직·은퇴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014년도에는 주부가 79.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무직·은퇴 19.0%, 학생 1.3% 순이었음
-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52.6%가 현재 하는 일에 만족(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9.6%에 비해 다수의 사람들이 현재 하는 일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성의 만족도 평균 점수(3.60점)가 여성의 점수(3.32점)보다 높았음
-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34.1%(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가 현재 임금수준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24.0%(매우 불만족 또는 약간 불만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임금수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성의 만족도 평균 점수(3.21점)가 여성의 점수(2.93점)보다 높았음

-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44.8%(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가 고용 안정성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16.5%(매우 불만족 또는 약간 불만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고용안정성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46.8%(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가 근무환경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14.8%(매우 불만족 또는 약간 불만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근무환경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43.7%(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가 근로시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16.2%(매우 불만족 또는 약간 불만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근로시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구직현황

- 직장이 없는 베이비부머의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 비율은 8.8%에 불과하며, 91.2%가 ‘구해본 적 없다’ 라고 응답하였음.
- ‘구해본 적 있다’ 라고 응답한 베이비부머 중 ‘대전 지역 내 일자리만 구해봤다’ 는 비율이 89.0%로 지역 내 일자리를 선호도가 매우 높았음
- 구직 시 고려사항으로는 34.5%가 ‘보수는 낮더라도 업무시간이 짧은 일’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흥미와 적성이 맞는 일’ 16.4%, ‘소득이 더 높은 일’ 18.2%, ‘고용이 안정된 일’ 과 ‘이전에 하던 일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일’ 이 각각 9.1% 등의 순이었음
-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 구직자는 보수보다도 업무시간이나 흥미·적성 등의 요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음

3. 신체 및 정신건강

□ 건강관리

- 1주일 동안 신체건강을 위해 시행한 운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62.6%가 평소보다 숨이 차거나 약간의 땀이 나는 정도의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함.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1주일 평균 운동일수는 3.2일이며, 1회 운동 시 평균 67.2분 정도를 할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반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4%였음
- 대전지역 베이비부머의 평소 주로 하는 운동(체육활동) 1순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한 것은 걷기(54.6%)였으며, 그 다음은 등산 17.8%, 헬스·에어로빅 9.2%, 자전거 4.7%, 수영 4.1% 등의 순이었음

-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61.9%)였고, 그 다음은 귀찮고 하기 싫어서(24.9%), 건강문제(7.6%), 가까운 체육시설이 없어서(2.4%),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어서(1.4%),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0.9%) 등의 순이었음

□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 지난 1년간 이용한 의료시설은 병(의)원이 73.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종합병원 12.6%, 약국 5.2%, 한의원(한방병원) 4.5%, 치과 병(의)원 3.0%, 보건소 0.7% 등이었음
-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3점으로 ‘다소 만족’ 수준이었음
-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이유 중 1순위로는 27.7%가 ‘높은 의료비(약값)’을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미흡한 치료결과 20.5%, 불성실한 진료 15.7%, 불친절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 경험

- 주관적 행복감의 경우 2013년은 10점 만점 기준 평균 6.81점으로 ‘다소 그렇다’ 수준이었고, 2014년의 주관적 행복감은 평균 5.79점으로 2013년보다 하락한 ‘보통’ 수준이었음
- 근심 또는 걱정 정도의 경우 2013년은 10점 만점 평균 3.59점으로 ‘그렇지 않다’ 수준이었고, 2014년은 평균 4.22점으로 2013년보다는 약간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다’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
- 우울감을 살펴보면, 2013년은 10점 만점 기준 평균 3.40점으로 ‘그렇지 않다’ 수준에 해당하였고, 2014년의 우울감은 평균 3.80점으로 근심 또는 걱정과 마찬가지로 2013년보다는 약간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다’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
- 대전지역 베이비부머의 삶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보면, 2013년의 경우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정도는 10점 만점 기준 평균 6.33점으로 ‘다소 그렇다’의 수준이었고, 2014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5.51점으로 2013년보다 하락한 ‘보통’ 수준의 결과를 보였음
- 일에 대한 가치를 느끼는 정도를 살펴보면, 2013년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느끼는 정도가 10점 만점 평균 기준 6.49점으로 ‘다소 그렇다’ 수준이었고,

2014년은 그 평균점이 2013년보다 하락한 5.66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음

4. 가족

□ 가족생활

- 분거 유무를 살펴보면, 분거가족 있음이 18.7%, 없음이 81.3%로 대부분의 베이비부머가 분거 가족이 없었음
- 배우자의 경우, 분거의 가장 큰 이유는 직장(직업)이 19.0%로 가장 높았고, 가족 간 불화(별거 등)와 자녀교육 지원이 각각 10.7% 순이었으며, 자녀의 분거 이유 역시 직장(직업)이 47.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학업(학교, 취직 준비 등) 36.8%, 군대 12.0% 순이었음
- 가사 분담 현황을 살펴보면,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가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77.7%가 가족관계에 만족(매우 만족, 약간 만족)하고 있으며, 5점 만점 평균 4.03점으로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대전 시민 전체보다 높음
- 가족 간의 식사 횟수를 알아본 결과, 매일 1끼 이상이 44.5%로 가장 많았고, 1주일에 2~3회가 26.1%, 1달에 2~3회 8.5%, 거의 없음이 8.3% 순이었음

5. 교육 및 여가생활

□ 평생교육

- 자신이 원하는 수준까지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63.3%,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 받았다는 응답은 9.6%인 반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였다는 비율은 27.2%로 나타났음
- 원하는 수준까지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학비 마련의 어려움이 44.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모의 전근대적 교육관 때문에 24.5%, 입학시험 실패 또는 학업부진 18.4%, 본인이 가사를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8.0%, 가까운 곳에 학교가 없어서 3.3% 등의 순이었음
- 지난 1년 간 받은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63.2%를 차지함
- 지난 1년 간 받아본 평생교육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직장에서 받은 교육 및 훈련(18.0%)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공공기관의 평생교육원 강좌 8.6%, 지역 및

백화점 문화센터 강좌 7.1%의 순이었음

- 향후 희망하는 평생교육의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취미·문화·교양·여가선용 관련 교육(38.3%)이었고, 그 다음은 받고 싶은 교육이 없음 27.6%, 컴퓨터 교육 14.7%, 어학교육 8.4% 등의 순으로 나타나,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베이비부머 중에서는 여가 관련 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을 보여주었음

□ 문화예술 활동 및 여가생활

- 가장 많이 참여한 문화예술관련 활동은 영화관(48.6%, 평균 참여 횟수 4.08회)이었고, 그 밖에 연주회·무용·연극 등 공연장 11.3%(평균 참여 횟수 2.52회), 스포츠 경기 관람 9.4%(평균 참여 횟수 2.60회), 미술전시회·미술관 9.1%(평균 참여 횟수 1.80회), 박물관 8.2%(평균 참여 횟수 1.86회) 등은 매우 저조하여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문화예술 활동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 분석대상 베이비부머 중 83.7%가 학교교육 이외의 강좌강습을 받아본 적 없다고 응답하여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문화활동 참여율이 매우 저조함을 보여주었음
- 주말·휴일 여가를 활용하는 방법 1순위로는 TV 및 DVD 시청이 3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가사(장보기, 청소 포함) 14.1%, 종교활동 13.1%, 휴식(수면, 사우나 등) 12.6% 등의 순이었음
- 여가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09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음
-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경제적 부담(42.0%)’이었음. 그 다음으로는 시간 부족 38.3%, 체력이나 건강 문제 7.3%, 여가활동에 대한 능숙한 기술 부족 4.3% 등의 순이었음
- 평일과 주말의 생활시간 압박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일은 전체 응답자의 64.8%, 주말은 55.9%가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음

□ 노후생활 계획

- 노후생활 계획에 대해서는 2013년과 2014년 모두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활동을 하면서 보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2013년에는 노후에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활동을 하면서 보내겠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많았고, 학습과 같은 자아 개발을 위한 활동이 19.3%,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득 창출을

- 위한 일을 하면서 17.5%,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가 14.3%의 순이었음
- 2014년에는 노후에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활동을 하면서 보내겠다는 응답이 37.2%로 가장 높았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득 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보내겠다는 34.3%,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보내겠다는 17.3%, 학습과 같은 자아 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보내겠다는 5.7%였음

6. 사회참여 및 공동체

□ 자원봉사기부

-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는 활동(2013년 42.1%, 2014년 40.6%)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자신의 기술, 물질, 시간을 활용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2013년 32.2%, 2014년 39.5%),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2013년 13.0%, 2014년 7.5%),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의미 있는 여가활동(2013년 12.5%, 2014년 11.7%)의 순으로 2013년과 2014년이 비슷하게 나타남
- 기부참여 현황은 기부한 적 없다가 2013년에는 81.9%, 2014년에는 70.5%로 기부 참여율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 기부에 참여한 경우에는 2013년과 2014년 모두 현금(ARS, 계좌이체 등) 기부가 각각 11.4%, 16.0%로 가장 많았음
- 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부족해서가 2013년에 48.2%, 2014년에 62.5%로 가장 많았고, 관심이 없어서가 2013년에 20.4%, 2014년 17.3%로 동일하게 2순위로 나타났음
- 기부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가 43.2%로 가장 많았고, 타인을 돕고 살아야 한다는 개인적 신념 때문인가 23.8%, 기부단체, 직장,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가 20.3%순으로 나타났음

□ 사회적 관계

- 베이비부머의 일반인에 대한 신뢰수준을 지갑 분실시 회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측정한 결과, 2013년에 5점 만점 평균 1.91점, 2014년 1.79점으로 조금 낮은 부정 수준이었으며,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가 42.0%,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고 38.8%에 이르러 사회적 신뢰 수준이 높지 않음을 보여줌

- 2013년 가족 간의 소통은 5점 만점 평균 4.03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그에 비해 약간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2014년에도 3.91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음
- 직장구성원 간 소통은 5점 만점에 2013년 3.68점, 2014년 3.61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음
- 이웃 간 소통은 5점 만점에 2013년 2.99점, 2014년 2.95점으로 보통 이하의 수준을 보였음
- 세대 간 소통은 5점 만점에 2013년 3.07점, 2014년 3.17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음
- 사회적 관계망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지로 측정하였는데, 2013년도 조사에서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81.9%,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65.6%,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89.2%가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음. 2014년도 조사에서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74.1%,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48.1%,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 82.0%가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함

□ 지역사회 참여

- 대전시민으로서 자부심은 2013년에 5점 만점에 평균 3.78점, 2014년은 3.59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으로 2013년에는 평균 3.21점, 2014년에는 평균 3.05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음
- 우리 지역에 지역행사가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는 5점 만점에 평균 2.88점으로 보통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음
- 지역주민이 지역행사에 활발히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평균 2.52점으로 낮은 편이었음
- 지역의 주민들이 공사소음, 쓰레기 배출문제, 도로시설 등의 지역문제가 있을 때 잘 협력하는가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평균 2.94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 지역주민들이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5점 만점으로는 2.68점으로 약간 낮은 수준이었음
- 사회적 경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 경제를 인지하고 있다가 47.9%, 모르고 있다가 52.2%로 나타남.

- 사회적 경제 기업 유형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협동조합을 21.8%로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기업 12.5%, 마을기업 9.9%, 자활기업 9.1% 순으로 인지도가 조사되었음

7. 복지인식

□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에 대한 인식

- 2013년도 조사에서는 57.6%가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7.1%는 열심히 노력해도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5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2점으로 긍정의 수준이었음
- 2014년도 조사에서는 44.9%가 계층상승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17.2%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5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35점으로 다소 긍정의 수준으로 나타났다음. 2013년도와 2014년도를 비교해 보면 자신이 노력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크게 감소(12.9%p)하였음
- ‘자녀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대해 2013년도 조사에서는 69.4%가 계층상승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4.3%는 내 자녀가 열심히 노력해도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없다고 응답하여, 5점 만점에 3.85점으로 긍정의 수준이었음.
- 2014년도 조사에서는 63.4%가 자녀의 노력에 따라 지위가 향상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9.1%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5점 만점에 3.73점으로 긍정의 수준으로 나타났다음. 2013년도와 2014년도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자녀의 노력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은 감소(6.0%p)한 반면, 부정적인 생각은 증가(4.8%p)하였음

□ 대상별 복지인식

- 여성복지서비스 선호도(1+2순위)를 살펴보면 여성 일자리 확대가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여성 문화·여가 활동 지원 26.5%, 육아 및 출산 지원 21.4%, 여성의 사회적 보호 11.6% 순이었음
- 장애인복지서비스 선호도(1+2순위)를 살펴보면, 생활안정이 40.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자리지원 16.3%, 의료재활 15.5%, 장애인이용시설 12.7%, 가족지

원 6.1% 등의 순이었음

-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2013년도 조사에서는 47.6%가 경제적 문제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외로움·고독의 문제 20.7%, 사회적 소외 10.2%, 소일거리 부족 8.4% 등의 순이었음. 2014년도에는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경제적 문제라는 응답이 52.6%로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으로는 외로움·고독의 문제 19.0%, 건강문제 17.7%, 소일거리 부족 5.7% 등의 순으로 2013년도와 다소 비슷한 결과였음
- 노인복지서비스 선호도(1+2순위)는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가 36.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인일자리 제공 33.5%,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가·취미 프로그램 확대 8.9%, 소외노인지원강화 8.7% 등의 순이었음

□ 사회적 포용

-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포용 정도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우자나 친구로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가를 통해 측정하였음
- 2013년도 조사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장애인은 2.5%, 결손가정의 자녀 2.6%,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는 8.0%에 그쳤고 북한이탈 주민은 15.1%였으나, 전과자와 동성애자는 각각 71.4%와 62.6%에 이르렀음. 2014년도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전과자와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각각 72.3%, 73.3%로 매우 높았음
- 2013년도에 비해 2014년도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저학력 베이비부머 표집이 늘어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가족정책에 대한 인식

-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의 1순위로는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가 2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임신·출산 지원 확대(17.4%), 육아휴직제도 활성화(17.2%), 유연근무제 확산 (16.1%), 직장 내 보육교육시설 설치 활성화(10.6%)순이었음
- 다문화 가구원을 위한 지원방안의 1순위로는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28.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등 경제적 지원이 24.1%, 사회 적응을 위한 한글문화교육 서비스가 20.1%, 다문화 가구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분위기 조성 20.0% 순이었음

제3장. 결론 및 제언

1. 베이비부머 지원정책의 방향

□ 고용 및 노후설계지원

○ 고령자 고용유지 정책강화

- 중고령층의 고용율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현재 일하고 있는 중고령자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임. 정부와 지자체들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인생이모작센터 등을 통해 중장년을 위한 취업 및 전직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취업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취업이 되더라도 생애를 거쳐 쌓아온 경력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음
- 베이비부머들이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퇴직으로 인한 소득의 급격한 감소와 경력단절을 방지해야 함. 궁극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법제 정비가 있어야 하겠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연령을 배려한 고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역 기업에 고령자 고용의 장점과 불가피성을 널리 알리려는 노력을 해야함

○ 전직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 및 지원 강화

- 대전고용센터 및 대전지역 내 폴리텍 대학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대전시민대학,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베이비부머 재취업 교육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함. 또한 중장년층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산업이나 틈새직업 등을 예측하여 이를 토대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수요를 매칭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이미 운영하고 있는 중장년층 대상 고용지원사업을 변화하는 직업수요와 베이비부머들의 욕구에 맞추어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고용주와 노인에게 적극 홍보하여 베이비부머가 은퇴 직후부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다양한 형태의 지역일자리 창출

- 직업이 없는 베이비부머의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 비율은 8.8%에 불과했고, 구직경험이 있는 베이비부머 중에서는 ‘대전 지역 내 일자리만 구해봤다’는 비율이

89.0%로 대다수가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베이비부머의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대전지역 내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에 대한 한 가지 대안은 취업유발효과가 매우 큰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공공분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임
- 지역에 기반을 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 것도 베이비부머를 위한 효과적인 지역일자리 창출 방안이 될 수 있음. 베이비부머의 높은 교육수준과 풍부한 사회경험을 이러한 전통과 결합하여 대전지역의 사회적·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활성화한다면, 베이비부머의 일자리 문제 해결은 물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노후 재무설계 교육 강화

-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경제적 대책은 직장에 계속 남아있거나 재취업을 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겠지만, 질 좋은 노인 일자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현하기 쉽지 않은 방법임. 이러한 현실 때문에 노후대비를 위한 재무설계의 필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음
- 베이비부머들의 재무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자산을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하는 것임
- 부동산에 쏠린 자산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소득에 맞추어 지출을 조정하여 가계 부채를 줄이지 않으면 노후에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수 있음. 대전광역시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의 금융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대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올 7월부터 운영 중이며, 앞으로 센터의 활동영역을 확장하여 저소득층은 물론 중고령층의 노후설계를 위한 재무설계와 재무교육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가계부채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령층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교육 및 여가활동 활성화

○ 평생교육 참여 확대

-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생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베이비부머들에게 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이와 함께 미처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을 위해서는 평

생학습의 가치와 즐거움을 깨달아 평생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어야 함

-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지자체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함. 현재 베이비부머의 연령층인 50대는 직장을 떠나 지역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나이이며, 자녀의 교육, 결혼이나 취업 등에 의한 지역 간 이동도 줄어드는 나이이므로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책임지는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함.
- 둘째, 베이비부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특히 대다수가 장기간의 공식교육을 받았고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한 베이비부머를 위한 교육은 베이비부머들의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 셋째, 베이비부머의 눈높이에 맞춘 통합정보제공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아직 활동적인 세대인 베이비부머들은 원하는 프로그램만 있다면 다른 동이나 자치구로 이동하여 교육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어디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정보 네트워크가 있다면 베이비부머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일과 여가의 균형 추구

- 베이비부머는 일 중심으로 살아왔고 아직도 경제활동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여가생활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은퇴 후 시간을 확보하게 되더라도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여가를 향유하기는 어려움
- 즐기고자 하는 여가활동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은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임. 대전지역의 평생교육 기관에서는 다양한 취미, 예술, 건강 관련 강좌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에 개설 중임. 또한 대전지역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공연장이나 전시장, 박물관 등 문화예술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임

□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개선과 수요처의 다양화

- 길어진 노년기를 보다 활기차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중고령층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이 필요함

- 먼저,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함. 자원봉사나 기부활동은 큰 활동이거나 거액의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작은 소액기부나 자신의 주변에게 도움을 주는 작은 행위도 사회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생산적인 활동임을 알려주는 인식개선 과정이 필요함
 - 또한 자원봉사 수요처를 다양화 하는 것 역시 중요함. 사회복지기관시설뿐만 아니라 경제, 예술, 교육 등으로 자원봉사의 수요처를 다양화하고 베이비부머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단순 봉사활동에서 더 나아가 전문적 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율을 높여야 할 것임
-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참여 활성화
-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와 비슷한 일본의 단카이 세대를 거치면서 이들의 사회참여 지원 정책을 앞서 실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여가 및 자원봉사 등을 원하는 은퇴자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쉽게 사회참여가 가능한 노인클럽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한 것임
 - 우리나라도 일본의 노인클럽 등과 같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참여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야 함. 더 나아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베이비부머와 그렇지 않은 베이비부머를 고려한 자원봉사 등의 사회참여 활동영역을 개발하고, 일원화된 운영체계를 가진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베이비부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변화와 성장의 시대를 이끌어 온 세대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나 히피문화와 반전운동으로 대표되는 사회변혁을 이끌어온 미국의 베이비부머들이 잘 보여주듯이, 인구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와는 다른 사회적·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부머는 6.25 전쟁 이후인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세대로 2015년 현재 52세에서 60세에 해당한다. 2014년 현재 전국적으로 737만 명에 이르러, 약 640만 명인 65세 이상 노인 인구보다 100만 명 가까이 많다. 70%가 고교 이상을 졸업했고 90% 이상이 경제활동을 경험한, 이전 세대에 비해 매우 높은 교육수준과 폭넓은 사회적 경험을 가진 세대이기도 하다(정경희, 2011).

이러한 강점들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대상으로서 베이비부머는 다분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온 것이 사실이다. 대중매체에 공공연하게 등장하는 ‘은퇴 폭탄(KBS, 2015)’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베이비부머가 정책의 주요대상으로 떠오르게 된 계기 자체가 이들의 은퇴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 대한 우려였기 때문이다. 이들이 노년층으로 편입되면 미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노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적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베이비부머에 대한 조사와 정책 연구가 활성화된 것은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된 2010년이었고, 올 2015년 들어 이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베이비부머 정책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베이비부머는 우리나라 인구의 14%가 넘는 거대한 집단이자 산업화를 일구고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한 역동적인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이 자신의 경력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극심한 저출산 현상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의 급감이 불러올 소위 ‘인구절벽’과 그에 따른 노동인력 부족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은퇴를 사회적 퇴장이 아닌 ‘지역사회로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마을은 풍부한 경험과 이제는 시간까지 갖춘 지역활동가를 대거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베이비부머가 사회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게 할 것인지는 다가오는 인구변동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베이비부머의 정책적 중요성에 주목하여, 지난 5년 동안 정부와 여러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베이비부머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2012년 7월 5일 정부는 베이비부머의 은퇴문제를 주제로 한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열고 노후생활지원법 제정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2013년 5월에는 ‘노후설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마침내 2015년 6월 22일 ‘노후준비 지원법’이 공포되었다.

노후준비 지원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노후준비 지원사업의 실시,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구성,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운영 등이다. 노후준비는 베이비부머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65세 또는 60세 이상에게만 집중되던 기존의 노인복지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이른 시기부터 노후를 준비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갖추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자체로는 서울시가 2013년 2월 베이비부머의 인생설계와 사회참여를 돕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관했다. 이어 2014년 4월에는 베이비부머의 교육, 일자리, 사회공헌, 건강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담은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확충과 문화여가, 건강, 연구학습,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갖춘 50+캠퍼스의 설치, 50대 이상을 위한 시니어포털 「50+서울」 운영, 베이비부머 전용 직업교육센터 신설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함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나갈 베이비부머 전담 부서를 서울시청 내에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2015년 초 조직개편을 통해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어르신복지과와는 별도로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위한 정책을 담당하는 인생이모작지원과를 설치했다.

대전광역시는 올해부터 베이비부머 지원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올 초부터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50세 이상 예비노년층의 직업교육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지난 4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근거로 민간위탁 기관을 공모하여, 2015년 7월에는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듯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베이비부머 지원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정책의 초점은 약간 다르다.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중고령자를 위한 지원의 법적 토대를 이루는 노후준비 지원법 상의 ‘노후준비서비스’는 재무영역은 물론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생활영역 전반을

포괄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중앙센터를 국민연금공단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한데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중앙정부의 베이비부머 지원정책은 여전히 경제적인 노후 준비에 맞추어져 있다. 이는 베이비부머를 활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보기보다는 은퇴와 그 이후의 노년을 준비하는 ‘예비노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강함을 보여준다.

이에 비하여 지자체들은 건강, 교육, 문화, 여가 등을 포함한 더 포괄적인 베이비부머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는 마을만들기를 비롯한 지자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이 활발해지면서, 직장을 떠나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베이비부머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는 인식확산이 영향을 미쳤다. 점점 더 많은 지자체들이 시니어활동가 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베이비부머의 지역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형태의 자원봉사는 물론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베이비부머들도 늘어나고 있다.

노인빈곤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계속 수위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를 위한 사회보장이 부족한 현실에서 베이비부머 지원정책의 초점이 고용 및 소득창출에 맞추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베이비부머는 단일한 집단이 아니다(정경희 외, 2011). 어느 연령대나 그러하겠지만 특히 베이비부머들은 그들이 살아온 시대의 특성에 의해 생활형편이나 사고방식에서 이전 세대에 비해서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1980년대 고도성장기 속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직업세계에 발을 디뎠으나, 중견 직장인으로 자리를 잡아가야 할 40대에 들어서부터는 외환위기, 카드대란, 금융위기 등 연이은 경제위기와 뒤를 이은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휘말리면서 삶의 궤적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간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일터에서 확고한 위치에 올라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한참 일할 나이인 40대 중반에 직장을 떠나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자녀들을 독립시킨 후 그 동안 축적해 온 자산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자기계발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로 악화되는 청년실업 속에서 미처 취업하지 못한 자녀들을 부양하느라 노동시장을 떠날 수가 없는 사람도 있다.

다양한 처지만큼이나 다양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지원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베이비부머들의 욕구들을 반영해야 한다. 베이비부머 정책이 일자리 창출이나 재정적 측면에서의 노후대비에만 집중한다면 베이비부머의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역량을 활용할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노후설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노년기의 다차원적인 삶의 영역들을 포괄한 노후준비 개념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제시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예를 들어 재무설계, 건강설계, 여가설계, 대인관계(홍백의, 2012), 재무, 건강, 사회적 관계, 심리적 안정(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2)이 제안되고 있다. 소득이나 재무설계 같은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후생활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함으로써 포괄적인 베이비부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베이비부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제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견지하려고 한다. 첫째, 베이비부머를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예비노인’이라기보다는, 적절한 지원만 따라준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예비 지역인재’로 바라본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노후준비에 대한 다차원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베이비부머의 다양한 삶의 측면을 포괄한다. 즉 재정상황이나 소득수준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건강, 가족생활, 평생교육, 여가생활, 지역사회 참여 등 베이비부머의 광범위한 삶을 반영할 수 있는 영역들까지 함께 살펴본다. 셋째, 베이비부머의 현재 삶의 모습과 복지에 대한 인식은 베이비부머가 지나온 삶의 전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생애사적 관점에 입각해서 자료를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제언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등 베이비부머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물론 일자리, 평생교육, 사회참여 등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1)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우리나라 인구는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51,328천명이다. 이 중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 출생)는 약 7,378천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4.4%에 이른다. 1955년에서 1959년까지 출생자를 전기 베이비부머, 1960년에서 1963년까지를 후기 베이비부머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기 베이비부머는 약 3,846천명으로 총 베이비부머 인구의 52.1%이자 전체인구의 7.5%이고, 후기 베이비부머는 약 3,533천명으로 전체인구의 6.9%이자 총 베이비부머 인구의 47.9%를 차지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인구수가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로 약 1,686천명이다. 그 다음으로 서울이 약 1,443천명, 부산이 약 574천명, 경남이 약 490천명, 경북이 약 409천명, 대구가 약 373천명의 순이다. 전국적으로 볼 때 베이비부머 인구는 서울지역에 19.6%, 인천·경기지역에 28.7%, 대전·충청·세종지역에 10.1%, 광주·전라지역에 9.9%, 대구·경북지역에 10.6%, 부산·울산·경남지역에 16.8%, 강원·제주지역에 4.4%로 분포하고 있어, 전국 베이비부머의 반수에 육박하는 48.2%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총 인구 대비 베이비부머의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1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강원 15.7%, 경북 15.1%, 울산 15.0%의 순이다.

〈 표 1-2-1 〉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인구현황(2014년)

(단위 : 명, %)

시도	총 인구수 (A)	베이비부머 인구수			베이비부머 인구비율			베이비부머 내 인구비율	
		계 (B)	전기 베이비부머 (C)	후기 베이비부머 (D)	전체 (A/B)	전기 베이비 부머 (A/C)	후기 베이비 부머 (A/D)	전기 베이비 부머 (B/C)	후기 베이비 부머 (B/D)
전국	51,327,916	7,378,238	3,845,570	3,532,668	14.4	7.5	6.9	52.1	47.9
서울	10,103,233	1,443,120	773,183	669,937	14.3	7.7	6.6	53.6	46.4
부산	3,519,401	574,046	313,172	260,874	16.3	8.9	7.4	54.6	45.4
대구	2,493,264	372,614	192,756	179,858	14.9	7.7	7.2	51.7	48.3
인천	2,902,608	430,592	217,535	213,057	14.8	7.5	7.3	50.5	49.5
광주	1,475,884	190,214	96,569	93,645	12.9	6.5	6.3	50.8	49.2
대전	1,531,809	212,827	109,463	103,364	13.9	7.1	6.7	51.4	48.6
울산	1,166,377	175,139	88,465	86,674	15.0	7.6	7.4	50.5	49.5
세종	156,125	18,674	9,717	8,957	12.0	6.2	5.7	52.0	48.0
경기	12,357,830	1,685,805	845,167	840,638	13.6	6.8	6.8	50.1	49.9
강원	1,544,442	243,111	131,118	111,993	15.7	8.5	7.3	53.9	46.1
충북	1,578,933	230,392	121,752	108,640	14.6	7.7	6.9	52.8	47.2
충남	2,062,273	281,361	146,970	134,391	13.6	7.1	6.5	52.2	47.8
전북	1,871,560	264,661	139,428	125,233	14.1	7.4	6.7	52.7	47.3
전남	1,905,780	274,645	145,208	129,437	14.4	7.6	6.8	52.9	47.1
경북	2,700,794	408,637	218,334	190,303	15.1	8.1	7.0	53.4	46.6
경남	3,350,257	489,925	254,102	235,823	14.6	7.6	7.0	51.9	48.1
제주	607,346	82,475	42,631	39,844	13.6	7.0	6.6	51.7	48.3

*출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

2014년 12월 말 기준 대전광역시 인구 약 1,532천명 중 베이비부머는 약 213천명으로 13.9%에 이른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2015년 6월 말 현재 16만2천352명)보다도 많은 규모이다.

이 중 전기 베이비부머는 약 109천명, 후기 베이비부머 약 103천명으로, 총 베이비부머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기 베이비부머가 51.4%, 후기 베이비부머가 48.6%이다. 총 인구에서 베이비부머가 차지하는 비율은 13.9%로 전기 베이비부머가 7.1%, 후기 베이비부머가 6.7%이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로 대전광역시의 베이비부머 인구규모와 총 인구 대비 베이비부머의 인구 비중은 모두 13번째이다. 대전광역시의 베이비부머 인구 비중이 비교적 낮은 것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가능연령 인구가 많고 고령인구가 적은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고령인구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13.1%인데 비해 대전은 10.6%로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노령화지수 또한 전국이 94.1인데 비해, 대전은 70.5로 낮은 편이다¹⁾.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고착되면서 아동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있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구비중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실제로 대전시 총 인구 중 베이비부머의 비율은 2013년 13.7%에서 2014년 13.9%로 2%p 증가했다.

베이비부머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서구 68,866명이고, 그 다음으로는 유성구 40,063명, 중구 37,559명, 동구 36,286명, 대덕구 30,053명의 순이다. 전기 베이비부머의 인구는 서구, 중구, 유성구, 동구, 대덕구 순이고, 후기 베이비부머의 인구는 서구, 유성구, 중구, 동구, 대덕구 순이다. 베이비부머의 인구 비율은 대덕구가 14.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동구 14.8%, 중구 14.4%, 서구 13.9%, 유성구 12.2%의 순이다. 전기 베이비부머의 비율은 동구, 중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의 순이고, 후기 베이비부머의 비율은 유성구, 서구, 대덕구, 중구, 동구의 순이다. 이러한 자치구간 차이는 도시계획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²⁾.

1) 장래인구추계 시도편(통계청, 2014. 12.)

2) 1985년 4월 10일 대전행정구역상 중심지인 둔산지구 225만 5천 평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되면서 신흥 둔산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착수되었다. 1988년 1월 1일 서구가 생겼고, 같은 해에 정부대전청사가 들어왔다. 서구에 있는 대전정부청사에는 중앙행정기관이 다수 있으며, 대전광역시청과 대전고등법원,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경찰청 등의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다.

유성구는 1973년 대덕연구단지(현 대덕연구개발특구)조성사업이 시작되면서 28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포함한 79개 기관과 667개 중소기업, 443개 벤처기업이 입주했다. 또한 KAIST를 비롯한 10개의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1993년 대전엑스포와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검색일:2015. 7. 11.).

〈 표 1-2-2 〉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 인구현황(2014년)

(단위 : 명, %)

시도		총 인구수 (A)	베이비부머 인구수			베이비부머 인구비율			베이비부머 내 인구비율	
			계 (B)	전기 베이비부머 (C)	후기 베이비부머 (D)	전체 (A/B)	전기 베이비부 머 (A/C)	후기 베이비부 머 (A/D)	전기 베이비부 머 (B/C)	후기 베이비부 머 (B/D)
전체	계	1,531,809	212,827	109,463	103,364	13.9	7.1	6.7	51.4	48.6
	남	766,497	106,211	54,575	51,636	13.9	7.1	6.7	51.4	48.6
	여	765,312	106,616	54,888	51,728	13.9	7.2	6.8	51.5	48.5
동구	계	245,493	36,286	19,424	16,862	14.8	7.9	6.9	53.5	46.5
	남	124,263	18,025	9,596	8,429	14.5	7.7	6.8	53.2	46.8
	여	121,230	18,261	9,828	8,433	15.1	8.1	7.0	53.8	46.2
중구	계	261,165	37,559	20,068	17,491	14.4	7.7	6.7	53.4	46.6
	남	129,937	18,500	9,766	8,734	14.2	7.5	6.7	52.8	47.2
	여	131,228	19,059	10,302	8,757	14.5	7.9	6.7	54.1	45.9
서구	계	496,132	68,866	34,781	34,085	13.9	7.0	6.9	50.5	49.5
	남	244,544	33,951	17,224	16,727	13.9	7.0	6.8	50.7	49.3
	여	251,588	34,915	17,557	17,358	13.9	7.0	6.9	50.3	49.7
유성구	계	327,461	40,063	19,763	20,300	12.2	6.0	6.2	49.3	50.7
	남	165,264	20,462	10,134	10,328	12.4	6.1	6.2	49.5	50.5
	여	162,197	19,601	9,629	9,972	12.1	5.9	6.1	49.1	50.9
대덕구	계	201,558	30,053	15,427	14,626	14.9	7.7	7.3	51.3	48.7
	남	102,489	15,273	7,855	7,418	14.9	7.7	7.2	51.4	48.6
	여	99,069	14,780	7,572	7,208	14.9	7.6	7.3	51.2	48.8

*출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실시된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데이터 중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1955년에서 1963년에 출생한 응답자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활용했다. 「대전광역시 사회조사」는 대전시민의 주관적 의식 및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서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사이다. 조사결과는 매년 발간하는 「대전의 사회지표」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각 부문별로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어 짝수해와 홀수해의 조사 영역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다양한 삶의 측면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3년(제3회)과 2014년(제4회) 자료를 함께 활용하였다. 2013년과 2014년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표 1-2-3 〉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개요(2013년, 2014년)

구분		2013	2014
조사기간	조사 기준 시점	2013. 9. 1. 0시 현재	2014. 9. 1. 0시 현재
	조사 실시 기간	2013. 9. 1. ~ 9. 30. (30일간)	2014. 9. 11. ~ 9. 30. (20일간)
조사대상	대상가구	대전지역의 5,000개 표본가구	대전지역의 5,000개 표본가구
	대상자	표본가구 내 만15세 이상 가구원 11,012명	표본가구 내 만15세 이상 가구원 10,194명
	베이비부머	대상자 중 1955~1963년 출생 가구원 1,882명	대상자 중 1955~1963년 출생 가구원 1,760명
조사부문		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주거교통, 사회 복지, 공동체	소득소비, 보건, 과학기술, 환경, 사회복지, 문화여가, 안전, 공동체 및 5개구 특성

2) 분석내용

대전광역시 사회조사는 대전시정 전반에 관련된 영역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환경, 안전 등 복지정책 소관 부서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문항들도 포함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한다는 연구목적에 고려하여 사회복지와 소득·소비, 보건, 문화·여가, 공동체 등 복지정책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문항들만을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정책적인 시사점의 도출을 용이하게 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된 문항들을 베이비부머의 삶의 영역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 표 1-2-4 > 분석영역 및 해당 문항

영역	항목	해당문항			
		년도	문항번호	해당부문	문항내용
소득 및 생활수준	소득 및 지출 규모	2013	33, 34, 35, 36	소득소비	월평균 가구소득, 가구지출, 저축률, 경조사비, 통신비
		2014	47		
	부채여부 및 사유	2013	37	소득소비	부채유무, 부채사유
		2014	26, 26-1		
	소득 및 소비생활 만족도	2013	38, 39	소득소비	소득수준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2014	24, 25		
	거처의 종류 및 주택점유형태	2013	표지-거처의 종류, 점유형태	주거	거처의 종류, 점유형태
		2014	표지-거처의 종류, 점유형태		
경제활동 및 고용	경제활동	2013	19, 19-1-1, 19-1-2, 19-1-3	노동	직업유무, 직종, 직장유형, 직업종사상 지위, 직업이 없는 사유, 직업만족도
		2014	42, 43, 44		
	구직현황	2013	19-2-1, 19-2-2	노동	구직활동여부, 구직시 고려요인
신체 및 정신건강	건강관리	2014	1, 1-1, 1-2	보건	운동 여부 및 주로 하는 운동, 운동하지 않는 이유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2014	2, 2-1, 2-2	보건	이용 의료시설, 의료서비스 만족도,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 경험	2013	31	공동체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경험
		2014	35		
가족	가족생활	2013	1, 3	가족	분거가족 유무, 분거이유, 분거 기간, 가사 분담 현황
	가족관계	2013	4	가족	가족관계 만족도
		2014	30	공동체	가족 간의 식사횟수
교육 및 여가생활	평생교육	2013	15, 15-1, 17, 18	교육	교육기회 충족도, 교육기회 미충족 이유, 평생교육 이용실태, 향후 평생교육 희망강좌
	문화예술활동 및 여가생활	2014	12, 13, 14, 15, 15-1, 16	문화여가	문화예술 참여, 강좌강습 참여, 주말휴일 여가활동 종류,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 평사 시간부족을 느끼는 정도
	노후생활 계획	2013	23	사회복지	노후생활 계획
		2014	10		

영역	항목	해당문항			
		년도	문항번호	해당부문	문항내용
사회참여 및 공동체	자원봉사기부	2013	24, 25, 25-1, 25-3	공동체	기부참여현황, 기부하지 않는 이유, 기부하는 이유
		2014	27, 28, 28-1		
	사회적 관계	2013	26, 27, 29	공동체	지갑 분실 시 기대감, 집단 간 소통, 사회적 관계망
		2014	31, 33, 37		
	지역사회 참여	2013	28-1, 28-2	공동체	대전시민으로서 자부심, 지역발전 활동 참여의향, 지역사회 참여 정도,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경제 기업 유형 인지도
		2014	32-1, 32-2, 36, 38, 39		
복지인식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가능성에 대한 인식	2013	28-3, 28-4	공동체	본인자녀의 계층상승 가능성 인식정도
		2014	32-3, 32-4		
	대상별 복지인식	2013	22, 30	사회복지	여성, 장애인, 노인복지서비스 선호도, 노인 고충문제
		2014	6, 7, 8, 9		
	사회적 포용	2014	34	공동체	사회적 포용
	가족정책에 대한 인식	2013	5, 6	가족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다문화 가구원을 위한 지원

※ 해당문항의 상세한 내용은 부록 1.2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2013년도, 2014년도 설문지 참조

3) 자료의 처리 및 분석

자료는 SPSS 20.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용한 모든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항에 대해서는 관련 변인(성별, 출생년도, 교육수준, 거주 자치구, 소득 등)을 중심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T 검정이나 F 검정 등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3. 분석대상 베이비부머의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성별

분석대상 베이비부머의 성비는 2013년 조사에서는 남성이 47.4%, 여성이 52.6%였고, 2014년 조사에서는 남성이 48.0%, 여성이 52.0%로 2개년도 모두 여성의 비율이 조금 높았다. 2014년 주민등록인구현황에 의하면 전국의 베이비부머는 남성이 50.3%, 여성이 49.7%로 남성의 비율이 약간 높았으나,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남성이 49.9%, 여성이 50.1%로 여성이 약간 높았다. 대전광역시 사회조사에 참여한 여성 베이비부머의 비율이 실

제 대전광역시 여성 베이비부머의 비율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년도에 따라 1955~1959년생을 전기 베이비부머, 1960~1963년생을 후기 베이비부머로 나눌 수 있는데,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3년 조사의 경우, 전기 베이비부머 중 남성이 47.8%, 여성이 52.2%로 여성의 비율이 약간 높았고, 후기 베이비부머 또한 남성이 47.1%, 여성이 52.9%로 여성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2014년 조사의 경우, 전기 베이비부머는 남성이 46.8%, 여성이 53.2%였고, 후기 베이비부머는 남성이 49.4%, 여성이 50.6%로 모두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 표 1-2-5 〉 성별

(단위 : %, 명)

구분	2013			2014		
	전체	전기 베이비부머 (1955-1959)	후기 베이비부머 (1960-1963)	전체	전기 베이비부머 (1955-1959)	후기 베이비부머 (1960-1963)
전체	100.0(1,882)	100.0(1,000)	100.0(882)	100.0(1,760)	100.0(943)	100.0(817)
남성	47.4	47.8	47.1	48.0	46.8	49.4
여성	52.6	52.2	52.9	52.0	53.2	50.6

(2) 출생년도

2013년 조사에서는 1958년생이 가장 많았고, 2014년 조사에서는 1960년생이 가장 많았다.

〈 표 1-2-6 〉 출생년도

구분	2013		201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955년	205	10.9	192	10.9
1956년	178	9.5	162	9.2
1957년	170	9.0	189	10.7
1958년	268	14.2	204	11.6
1959년	179	9.5	196	11.1
1960년	263	14.0	227	12.9
1961년	204	10.8	192	10.9
1962년	194	10.3	207	11.8
1963년	221	11.7	191	10.9
전체	1,882	100.0	1,760	100.0

(3) 교육수준

분석대상 베이비부머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아서 2013년도에는 53.6%, 2014년도에는 41.2%였다. 2013년 조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다음으로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이 19.2%, 중학교 졸업이 11.6%, 대학(4년제 미만) 졸업이 10.4%의 순이었다. 2014년 조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이 18.2%,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이 15.8%, 대학(4년제 미만) 졸업이 9.4%, 초등학교 졸업이 8.5% 순이었다. 이를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의 세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중학교 졸업 이하가 14.2%, 고등학교 졸업이 53.6%, 대학 이상이 32.3%인데 비해 2014년도에는 중학교 졸업 이하가 28.8%, 고등학교 졸업이 41.2%, 대학 이상이 30.1%로 나타나, 2013년도에 비해 2014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자가 더 적게 표집된 것을 알 수 있다.

정경희 외(2010a)의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이하가 10.5%, 중학교 20.7%, 고등학교 44.0%, 전문대학 이상 24.8%로 나타났다. 전기 베이비부머는 초등학교 이하가 14.1%, 중학교가 24.0%, 고등학교가 42.8%, 전문대학 이상이 19.1%였고, 후기 베이비부머는 초등학교 이하가 6.4%, 중학교가 16.8%, 고등학교가 45.4%, 전문대학 이상이 31.4%로 나타났다. 이는 70년대부터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온 것을 반영한다.

분석대상 베이비부머의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정경희 외(2010a)의 결과보다 더 높는데 이는 사무직이나 전문직이 많이 거주하는 대도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 1-2-7 〉 교육수준

구분	2013		201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무학	4	0.2	35	2.0
초등학교 졸업	44	2.3	150	8.5
중학교 졸업	219	11.6	321	18.2
고등학교 졸업	1,008	53.6	725	41.2
대학(4년제 미만) 졸업	196	10.4	166	9.4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361	19.2	278	15.8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30	1.6	64	3.6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20	1.1	21	1.2
전체	1,882	100.0	1,760	100.0

베이비부머의 교육수준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2013년도 조사와 2014년 조사 모두에서 남성의 교육수준이 높았다. 이는 여성의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2014년도 기준으로 전기 베이비부머는 고등학교 졸업이 38.9%, 중학교 졸업 이하가 37.2%인데 비하여 후기 베이비부머는 고등학교 졸업이 43.8%, 대학 졸업 이상이 37.2%로 나타나 후기 베이비부머의 교육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조사결과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 표 1-2-8 〉 성별과 출생년도에 따른 교육수준

(단위 : %, 명)

구분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이상	전체	
2013	전체	14.2(267)	53.6(1,008)	32.3(607)	100.0(1,882)	
	성별	남성	9.0	44.7	46.4	100.0(893)
		여성	18.9	61.6	19.5	100.0(989)
	출생년도	1955~1959	18.3	55.5	26.2	100.0(1,000)
		1960~1963	9.5	51.4	39.1	100.0(882)
2014	전체	28.8(506)	41.2(725)	30.1(529)	100.0(1,760)	
	성별	남성	18.7	38.7	42.6	100.0(845)
		여성	38.0	43.5	18.5	100.0(915)
	출생년도	1955~1959	37.2	38.9	23.9	100.0(943)
		1960~1963	19.0	43.8	37.2	100.0(817)

(4) 혼인상태

분석대상 베이비부머는 기혼이 대부분으로 2013년 조사와 2014년 조사에서 각각 84.9%, 84.5%였다. 사별과 이혼 등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3.2%, 12.0%였고, 미혼인 경우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9%, 3.5%였다.

〈 표 1-2-9 〉 혼인상태

(단위 : %, 명)

구분	2013		201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미혼	36	1.9	61	3.5
기혼	1,598	84.9	1,487	84.5
사별	111	5.9	90	5.1
이혼	137	7.3	122	6.9
전체	1,882	100.0	1,760	100.0

베이비부머의 유배우율은 2013년 조사에서는 84.9%, 2014년 조사에서는 84.5%로 비슷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유배우율을 살펴보면, 2014년 조사에서는 남성의 유배우율이 87.5%인데 비하여 여성은 81.7%로 나타나 여성의 유배우율이 낮았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전기 베이비부머의 유배우율은 84.3%, 후기 베이비부머의 유배우율은 84.7%로 비슷했다. 2013년과 2014년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배우율이 높았다.

〈 표 1-2-10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혼인상태

(단위 : %, 명)

구분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2013	전체		84.9(1,598)	15.1(284)	100.0(1,882)
	성별	남성	91.3	8.7	100.0(893)
		여성	79.2	20.8	100.0(989)
	출생년도	1955~1959	84.1	15.9	100.0(1,000)
		1960~1963	85.8	14.2	100.0(882)
	교육수준	중졸 이하	68.5	31.5	100.0(267)
		고졸	84.7	15.3	100.0(1,008)
		초대졸 이상	92.4	7.6	100.0(607)
2014	전체		84.5(1,487)	15.5(273)	100.0(1,760)
	성별	남성	87.5	12.5	100.0(845)
		여성	81.7	18.3	100.0(915)
	출생년도	1955~1959	84.3	15.7	100.0(943)
		1960~1963	84.7	15.3	100.0(817)
	교육수준	중졸 이하	78.7	21.3	100.0(506)
		고졸	85.4	14.6	100.0(725)
		초대졸 이상	88.8	11.2	100.0(529)

2)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1) 거주지역

분석대상 베이비부머의 거주지역은 2013년 조사에서는 서구가 2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동구 20.2%, 대덕구 18.8%, 중구 18.5%, 유성구 16.5%의 순이었다. 2014년 조사에서도 서구가 2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구 19.4%, 대덕구 19.0%, 유성구 18.4%, 동구 17.4%의 순이었다.

〈 표 1-2-11 〉 거주지역

구분	2013		201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동구	381	20.2	307	17.4
중구	348	18.5	341	19.4
서구	489	26.0	455	25.9
유성구	310	16.5	323	18.4
대덕구	354	18.8	334	19.0
전체	1,882	100.0	1,760	100.0

베이비부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2014년 조사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서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각각 25.4%, 26.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남성은 중구, 유성구, 대덕구, 동구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중구, 대덕구, 동구, 유성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전기 베이비부머와 후기 베이비부머 모두 서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각각 24.7%, 27.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기 베이비부머는 중구, 동구, 대덕구, 유성구의 순이었으나 후기 베이비부머는 중구, 대덕구, 유성구, 동구의 순이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중학교 졸업 이하의 베이비부머의 거주지역은 동구가 2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구, 서구, 대덕구, 유성구의 순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베이비부머의 비율은 서구가 27.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덕구, 중구, 동구, 유성구의 순이었다. 대학 이상 졸업 베이비부머는 서구가 2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유성구, 중구, 대덕구, 동구의 순이었다.

〈 표 1-2-12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거주지역

(단위 : %, 명)

구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전체
2013	전체		20.2(381)	18.5(348)	26.0(489)	16.5(310)	18.8(354)	100.0(1,882)
	성별	남성	19.4	18.3	25.6	17.7	19.0	100.0(893)
		여성	21.0	18.7	26.3	15.4	18.6	100.0(989)
	출생년도	1955~1959	19.9	19.7	26.7	15.6	18.1	100.0(1,000)
		1960~1963	20.6	17.1	25.2	17.5	19.6	100.0(882)
	교육수준	중졸 이하	21.7	24.0	18.7	10.1	25.5	100.0(267)
		고졸	22.5	18.1	25.3	14.7	19.4	100.0(1,008)
		초대졸 이상	15.8	16.8	30.3	22.2	14.8	100.0(607)
2014	전체		17.4(307)	19.4(341)	25.9(455)	18.4(323)	19.0(334)	100.0(1,760)
	성별	남성	16.7	19.4	25.4	19.3	19.2	100.0(845)
		여성	18.1	19.3	26.2	17.5	18.8	100.0(915)
	출생년도	1955~1959	19.1	19.4	24.7	17.9	18.9	100.0(943)
		1960~1963	15.5	19.3	27.2	18.8	19.1	100.0(817)
	교육수준	중졸 이하	27.9	22.1	20.0	12.3	17.8	100.0(506)
		고졸	16.6	19.3	27.2	15.2	21.8	100.0(725)
		초대졸 이상	8.7	16.8	29.7	28.5	16.3	100.0(529)

(2) 대전광역시 거주기간

분석대상 베이비부머의 대전광역시 거주기간은 평균 32.2년이였다. 거주기간별로는 50년 이상이 2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20년 미만이 21.9%, 20~30년 미만이 20.7%, 30~40년 미만이 20.4%, 40~50년 미만이 9.0%의 순이였다.

이를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평균 32.7년, 여성은 평균 31.7년을 대전광역시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50년 이상 거주한 비율이 각각 31.2%, 25.1%로 가장 높았으나, 남성은 20년 미만, 20~30년 미만의 순이였고, 여성은 30~40년 미만, 20~30년 미만의 순이였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전기 베이비부머와 후기 베이비부머 모두 평균 32.2년을 대전광역시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별로는 전기 베이비부머와 후기 베이비부머 모두 50년 이상 거주한 비율이 각각 24.1%, 32.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기 베이비부머는 30~40년 미만, 20~30년 미만, 20년 미만의 순이였고, 후기 베이비부머는 20년 미만, 20~30년 미만의 순이였다.

< 표 1-2-13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전지역 거주기간(2013년)

(단위 : %, 명, 년)

구분		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40년 미만	40~50년 미만	50년 이상	전체	평균 거주기간
전체		21.9(411)	20.7(390)	20.4(384)	9.0(169)	28.0(526)	100.0(1,880)	32.12
성별	남성	23.3	19.7	15.9	9.9	31.2	100.0(892)	32.7
	여성	20.5	21.7	24.5	8.2	25.1	100.0(988)	31.7
출생년도	1955~1959	20.7	20.9	24.5	9.8	24.1	100.0(1,000)	32.2
	1960~1963	23.2	20.6	15.8	8.1	32.4	100.0(880)	32.2
교육수준	중졸 이하	16.9	19.2	32.7	11.7	19.5	100.0(266)	31.9
	고졸	20.8	21.3	20.2	8.1	29.7	100.0(1,007)	32.7
	초대졸 이상	25.9	20.6	15.5	9.2	28.8	100.0(607)	31.5
구	동구	19.7	17.6	21.3	8.9	32.5	100.0(381)	33.5
	중구	13.2	17.2	25.0	12.9	31.6	100.0(348)	35.8
	서구	26.6	25.6	20.0	7.6	20.2	100.0(489)	29.0
	유성구	30.5	20.8	16.6	9.1	23.1	100.0(308)	29.5
	대덕구	18.6	20.9	18.9	7.1	34.5	100.0(354)	34.0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중학교 졸업 이하 베이비부머는 평균 31.9년, 고등학교 졸업 베이비부머는 평균 32.7년, 대학 이상 졸업 베이비부머는 평균 31.5년을 대전광역시에 거주했다. 거주기간별로는 중학교 졸업 이하 베이비부머는 30~40년 미만이 3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50년 이상, 20~30년 미만의 순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베이비부머는 50년 이상이 2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20~30년 미만, 20년 미만의 순이었다. 대학 이상 졸업한 베이비부머는 50년 이상이 28.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20년 미만, 20~30년 미만의 순이었다.

구에 따라서는 동구는 평균 33.5년, 중구는 평균 35.8년, 서구는 평균 29.2년, 유성구는 평균 29.5년, 대덕구는 평균 34.0년으로 대규모 개발이 있었던 서구와 유성구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의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거주기간별로는 동구는 50년 이상이 32.5%, 30~40년 미만이 21.3%의 순으로, 중구는 50년 이상이 31.6%, 30~40년 미만이 25.0%의

순으로, 서구는 20년 미만이 26.6%, 20~30년 미만이 25.6%의 순으로, 유성구는 20년 미만이 30.5%, 50년 이상이 23.1%의 순으로, 대덕구는 50년 이상이 34.5%, 20~30년 미만이 20.9%의 순으로 나타났다.

(3) 현 거주지 거주기간

현 거주지의 거주기간은 평균 9.9년이였다. 이를 거주기간별로 살펴보면 5년 미만이 28.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5년 이상이 25.1%, 5~10년 미만이 24.6%, 10~15년 미만이 21.4%의 순이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평균 10.0년, 여성은 평균 9.8년을 현 거주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거주지 기간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5년 미만이 각각 28.7%, 29.1%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전기 베이비부머는 평균 10.2년, 후기 베이비부머는 평균 9.6년으로 나타났다. 현 거주지 거주기간별로는 전기 베이비부머와 후기 베이비부머 모두 5년 미만이 28.9%, 29.0%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중학교 졸업 이하 베이비부머는 평균 11.6년, 고등학교 졸업 베이비부머는 평균 10.1년, 대학 이상 졸업 베이비부머는 평균 8.8년이였다. 현 거주지 거주기간별로는 중학교 졸업 이하 베이비부머는 15년 이상이 36.2%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이상 졸업한 베이비부머는 5년 미만이 각각 26.3%, 33.8%로 가장 많았다. 구에 따라서는 동구는 평균 9.3년, 중구는 평균 10.5년, 서구는 평균 9.4년, 유성구는 평균 8.2년, 대덕구는 평균 12.1년이였다. 이를 현 거주지 기간별로 살펴보면 동구는 5~10년 미만이 30.4%로 가장 많았고, 중구, 서구, 유성구는 5년 미만이 각각 29.9%, 36.2%, 34.1%로 가장 많았고, 대덕구는 15년 이상이 34.5%로 가장 많았다.

〈 표 1-2-14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현 거주지 거주기간(2013년)

(단위 : %, 명, 년)

구분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년 이상	전체	평균 거주기간
전체		28.9(542)	24.6(461)	21.4(401)	25.1(470)	100.0(1,874)	9.9
성별	남성	28.7	25.0	21.7	24.6	100.0(891)	10.0
	여성	29.1	24.2	21.2	25.5	100.0(983)	9.8
출생년도	1955~1959	28.9	22.4	22.7	26.1	100.0(997)	10.2
	1960~1963	29.0	27.1	20.0	23.9	100.0(877)	9.6
교육수준	중졸 이하	27.5	19.2	17.0	36.2	100.0(265)	11.6
	고졸	26.3	25.5	23.8	24.3	100.0(1,003)	10.1
	초대졸 이상	33.8	25.4	19.3	21.5	100.0(606)	8.8
구	동구	23.6	30.4	22.8	23.1	100.0(381)	9.3
	중구	29.9	22.1	23.3	24.7	100.0(348)	10.5
	서구	36.2	18.0	19.7	26.1	100.0(483)	9.4
	유성구	34.1	32.5	17.9	15.6	100.0(308)	8.2
	대덕구	19.2	22.9	23.4	34.5	100.0(354)	12.1

3) 가구주와의 관계

분석대상 베이비부머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2013년 조사에서는 가구주 본인인 경우(58.1%)와 배우자인 경우(38.6%)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 표 1-2-15 〉 가구주와의 관계

구분	2013		201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가구주	1,094	58.1	1,008	57.3
배우자	727	38.6	670	38.1
미혼 자녀	4	0.2	10	0.6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5	0.3	17	1.0
부모(배우자쪽 포함)	44	2.3	46	2.6
미혼 형제자매	4	0.2	1	0.1
기타 친인척	3	0.2	4	0.2
기타 동거인	1	0.1	4	0.2
전체	1,882	100.0	1,760	100.0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본 연구를 위해 설계된 조사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데이터 중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응답내용만을 추출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인구학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2013년과 2014년 조사결과 간에 성비, 교육수준 등의 일반적인 특성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조사내용 또한 대전광역시 사회조사를 위해 개발한 조사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각 장 및 절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다소 부자연스러운 분류가 발견될 수 있다.

제2장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삶과 복지인식

제1절 소득 및 생활수준

1. 소득 및 지출 규모

1) 월평균 가구소득

2013년도에는 ‘300~400만 원 미만’이 24.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200~300만 원 미만’ 23.3%, ‘100~200만 원 미만’ 16.1%, ‘400~500만 원 미만’ 15.9%, ‘500~600만 원 미만’ 8.9% 등의 순이었다(표2-1-1).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의 소득수준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 후기 베이비부머는 전기 베이비부머에 비해 500만원 미만 이상의 고소득층이 많았고,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적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은 더 높았다. 구별로는 유성구와 서구의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다(표2-1-1). 2014년도 조사에서는 2013년도에 비해 ‘200만 원 미만’과 ‘600만 원 이상’의 비율은 높아지고 ‘200~600만 원 미만’의 비율은 낮아졌다.

〈 표 2-1-1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명)

구분 ³⁾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전체	
2013	전체	4.8(52)	16.1(176)	23.3(255)	24.0(263)	15.9(174)	8.9(97)	7.0(77)	100.0(1,094)	
	성별	남성	2.6	9.7	22.8	27.0	18.6	10.6	8.7	100.0(846)
		여성	12.1	37.9	25.0	14.1	6.9	2.8	1.2	100.0(248)
	출생 년도	1955~1959	6.8	17.7	20.7	24.6	14.6	7.6	8.0	100.0(589)
		1960~1963	2.4	14.3	26.3	23.4	17.4	10.3	5.9	100.0(50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8.2	40.9	20.5	9.1	9.1	1.5	0.8	100.0(132)
		고졸	4.4	19.0	29.8	23.0	13.1	6.7	4.0	100.0(521)
		초대졸 이상	1.1	5.2	16.6	29.7	21.3	13.6	12.5	100.0(441)
	구	동구	7.0	18.9	23.2	25.0	13.6	7.5	4.8	100.0(228)
		중구	7.2	17.9	15.4	27.2	14.4	8.7	9.2	100.0(195)
		서구	3.6	16.0	26.9	22.2	15.3	6.5	9.5	100.0(275)
		유성구	4.3	9.7	15.1	25.8	23.7	13.4	8.1	100.0(186)
		대덕구	1.9	17.1	33.3	21.0	13.8	9.5	3.3	100.0(210)

구분 ³⁾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전체
2014	전체	10.7(108)	20.2(204)	21.6(218)	19.5(197)	11.7(118)	6.8(69)	9.3(94)	100.0(1,008)
	성별	남성	7.7	15.0	22.9	22.1	14.2	7.7	100.0(755)
		여성	19.8	36.0	17.8	11.9	4.3	5.9	100.0(253)
	출생 년도	1955~1959	11.1	22.9	22.9	18.6	10.9	5.6	100.0(532)
		1960~1963	10.3	17.2	20.2	20.6	12.6	8.2	100.0(47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3	33.5	23.0	13.0	3.5	3.0	100.0(230)
		고졸	10.5	22.7	25.2	23.0	8.6	4.4	100.0(409)
		초대졸 이상	4.3	9.2	16.8	19.8	20.3	11.9	100.0(369)
	구	동구	15.1	23.5	24.1	17.5	8.4	4.8	100.0(166)
		중구	11.8	23.1	27.7	16.9	8.7	5.6	100.0(195)
		서구	8.7	17.7	21.7	18.1	14.6	9.4	100.0(254)
		유성구	8.0	11.8	12.8	24.1	16.6	9.1	100.0(187)
		대덕구	11.2	25.7	21.8	21.4	9.2	4.4	100.0(206)

〈 표 2-1-2 〉 성별에 따른 가구원 수 및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 명)

구분 ⁴⁾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전체
2013	전체	4.8(52)	16.1(176)	23.3(255)	24.0(263)	15.9(174)	8.9(97)	7.0(77)	100.0(1,094)
	남성	전체	2.6(22)	9.7(82)	22.8(193)	27.0(228)	18.6(157)	10.6(90)	100.0(846)
		1인 가구	20.0	73.3	3.3	3.3	0.0	0.0	100.0(30)
		2인 가구	9.2	23.5	32.7	16.3	12.2	3.1	100.0(98)
		3인 가구	0.9	7.2	27.2	30.9	18.8	10.0	100.0(320)
		4인 가구	0.9	3.1	18.5	29.0	21.9	13.3	100.0(324)
		5인 가구 이상	1.4	5.4	17.6	24.3	18.9	16.2	100.0(74)
	여성	전체	12.1(30)	37.9(94)	25.0(62)	14.1(35)	6.9(17)	2.8(7)	100.0(248)
		1인 가구	24.6	63.2	8.8	1.8	1.8	0.0	100.0(57)
		2인 가구	13.7	39.7	38.4	5.5	2.7	0.0	100.0(73)
		3인 가구	2.4	29.3	26.8	24.4	11.0	3.7	100.0(82)
		4인 가구	13.3	13.3	20.0	23.3	16.7	10.0	100.0(30)
		5인 가구 이상	0.0	16.7	16.7	50.0	0.0	16.7	100.0(6)

3) 귀댁의 지난 1년 동안,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2013년 문항 33번, 2014년 문항 47번)

구분 ⁴⁾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전체
2014	전체	10.7(108)	20.2(204)	21.6(218)	19.5(197)	11.7(118)	6.8(69)	9.3(94)	100.0(1,008)
	남성	7.7(58)	15.0(113)	22.9(173)	22.1(167)	14.2(107)	7.7(58)	10.5(79)	100.0(755)
	1인 가구	20.3	23.7	22.0	11.9	10.2	0.0	11.9	100.0(59)
	2인 가구	10.1	19.7	33.1	17.4	10.1	6.2	3.4	100.0(178)
	3인 가구	7.0	13.6	16.9	25.9	15.6	8.6	12.3	100.0(243)
	4인 가구	4.3	13.3	20.5	23.8	14.3	9.5	14.3	100.0(210)
	5인 가구 이상	3.1	4.6	26.2	24.6	23.1	9.2	9.2	100.0(65)
	여성	19.8(50)	36.0(91)	17.8(45)	11.9(30)	4.3(11)	4.3(11)	5.9(15)	100.0(253)
	1인 가구	30.1	50.7	11.0	4.1	0.0	1.4	2.7	100.0(73)
	2인 가구	15.2	34.8	21.7	15.2	5.4	3.3	4.3	100.0(92)
	3인 가구	9.8	27.9	23.0	16.4	4.9	6.6	11.5	100.0(61)
	4인 가구	35.3	11.8	11.8	11.8	5.9	17.6	5.9	100.0(17)
	5인 가구 이상	20.0	30.0	10.0	10.0	20.0	0.0	10.0	100.0(10)

2) 월평균 소비 지출액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총 소비 지출액은 ‘100~200만 원 미만’이 32.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200~300만 원 미만’ 29.6%, ‘300~400만 원 미만’ 15.0%, ‘100만 원 미만’ 13.3% 등의 순이었다(표2-1-3).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200만 원 미만’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200만 원 이상’의 모든 지출 분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출생년도별로 보면, 전기 베이비부머는 ‘200만 원 미만’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후기 베이비부머는 ‘200~500만 원 미만’의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200만 원 이상’의 지출을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초대졸 이상의 경우 ‘400~500만 원 미만’ 지출하는 비율도 10.0%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동구가 ‘100만 원 미만’으로 지출하는 비율이 17.5%로 가장 높았으며, 유성구는 ‘300만 원 이상’ 모든 지출 분포에서 높게 나타났다.

4) 귀댁의 지난 1년 동안,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2013년 문항 33번, 2014년 문항 47번)

〈 표 2-1-3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가구지출(2013년)

(단위: %, 명)

구분 ⁵⁾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전체
전체		2.3(25)	13.3(145)	32.0(350)	29.6(324)	15.0(164)	5.8(63)	0.9(10)	1.2(13)	100.0(1,094)
성별	남성	0.9	8.9	29.8	32.3	18.3	7.2	1.2	1.4	100.0(846)
	여성	6.9	28.2	39.5	20.6	3.6	0.8	0.0	0.4	100.0(248)
출생 년도	1955~1959	3.4	15.3	32.6	27.2	14.4	4.8	1.4	1.0	100.0(589)
	1960~1963	1.0	10.9	31.3	32.5	15.6	6.9	0.4	1.4	100.0(50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9.8	34.8	35.6	14.4	4.5	0.0	0.8	0.0	100.0(132)
	고졸	1.7	13.8	38.2	30.5	11.7	3.6	0.0	0.4	100.0(521)
	초대졸 이상	0.7	6.1	23.6	33.1	22.0	10.0	2.0	2.5	100.0(441)
구	동구	3.1	17.5	36.4	28.5	11.0	3.1	0.4	0.0	100.0(228)
	중구	2.1	13.8	29.7	28.7	13.8	7.2	1.0	3.6	100.0(195)
	서구	2.9	11.6	35.3	29.8	13.5	4.4	1.5	1.1	100.0(275)
	유성구	1.6	9.7	21.5	36.0	20.4	8.1	1.6	1.1	100.0(186)
	대덕구	1.4	13.3	34.3	25.7	17.6	7.1	0.0	0.5	100.0(210)
소득	100만 원 미만	30.8	69.2	0.0	0.0	0.0	0.0	0.0	0.0	100.0(52)
	200만 원 미만	3.4	46.6	50.0	0.0	0.0	0.0	0.0	0.0	100.0(176)
	300만 원 미만	0.8	7.5	63.1	28.2	0.4	0.0	0.0	0.0	100.0(255)
	400만 원 미만	0.4	1.1	30.0	54.4	14.1	0.0	0.0	0.0	100.0(263)
	500만 원 미만	0.0	2.3	9.2	43.1	36.2	8.6	0.6	0.0	100.0(174)
	600만 원 미만	0.0	0.0	4.1	24.7	48.5	22.7	0.0	0.0	100.0(97)
	600만 원 이상	0.0	1.3	2.6	13.0	20.8	33.8	11.7	16.9	100.0(77)

3) 월평균 저축률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저축률은 ‘10% 미만’이 48.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20% 미만’ 25.4%, ‘30% 미만’ 17.6%, ‘40% 미만’ 5.7% 등의 순이었다(표2-1-4). 성별로는 여성은 ‘10% 미만’에서 높았으며, 남성은 ‘10% 이상’의 모든 분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출생년도별로 보면, 전기 베이비부머는 ‘30% 미만’(18.0%)과 ‘40% 미만’(7.8%)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후기 베이비부머는 ‘20% 미만’(27.1%)과 ‘40%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중졸이하 65.2%가 ‘10%미만’으로 저축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20%미만’과 ‘30%미만’의 저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모든 구에서 ‘10% 미만’의 저축률이 높

5) 귀댁의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총 소비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문항 35번)

았으며, 동구 9.6%가 ‘40% 미만’으로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500~600만 원 미만’ (30.9%)과 ‘600만 원 이상’ (40.3%)에서 저축률 30% 미만의 비율이 높았으며, 소득 ‘500~600만 원 미만’은 소득의 ‘40% 이상’을 저축한다는 비율도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소득 ‘100만 원 미만’의 가구 88.5%가 소득의 10% 미만을 저축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저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표 2-1-4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저축률(2013년)

(단위 : %, 명)

구분 ⁶⁾		10% 미만	20% 미만	30% 미만	40% 미만	40% 이상	전체
전체		48.9(535)	25.4(278)	17.6(193)	5.7(62)	2.3(26)	100.0(1,094)
성별	남성	46.1	26.6	18.6	6.3	2.5	100.0(846)
	여성	58.5	21.4	14.5	3.6	2.0	100.0(248)
출생년도	1955~1959	48.4	23.9	18.0	7.8	1.9	100.0(589)
	1960~1963	49.5	27.1	17.2	3.2	3.0	100.0(505)
교육수준	중졸 이하	65.2	18.9	7.6	5.3	3.0	100.0(132)
	고졸	53.7	24.0	14.8	5.0	2.5	100.0(521)
	초대졸 이상	38.3	29.0	24.0	6.6	2.1	100.0(441)
구	동구	43.0	23.2	21.9	9.6	2.2	100.0(228)
	중구	53.3	29.2	11.8	4.1	1.5	100.0(195)
	서구	45.8	25.8	18.5	6.9	2.9	100.0(275)
	유성구	43.0	28.5	22.0	3.8	2.7	100.0(186)
	대덕구	60.5	21.0	13.3	2.9	2.4	100.0(210)
소득	100만 원 미만	88.5	7.7	3.8	0.0	0.0	100.0(52)
	200만 원 미만	72.7	18.2	4.0	2.8	2.3	100.0(176)
	300만 원 미만	58.8	26.3	11.4	2.4	1.2	100.0(255)
	400만 원 미만	43.7	28.5	20.5	6.5	0.8	100.0(263)
	500만 원 미만	35.1	29.9	23.0	10.3	1.7	100.0(174)
	600만 원 미만	16.5	35.1	30.9	9.3	8.3	100.0(97)
	600만 원 이상	24.7	18.2	40.3	9.1	7.8	100.0(77)

4) 월평균 경조사비 지출

지난 1년 간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가 경조사비로 지출한 금액은 ‘10~15만 원 미만’이 31.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0만 원 미만’ 28.2%, ‘25만 원 이상’ 16.4%, ‘20~25만 원 미만’ 14.9% 등의 순이었다. 월평균 경조사비는 14만 8천 원이었다. 성별로

6) 귀댁의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저축률은 얼마입니까? (문항 34번)

는 여성은 9만 7천 원을 지출한 반면, 남성은 16만 3천 원을 지출하였다. 출생년도별로 보면, 전기 베이비부머는 14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후기 베이비부머는 15만 원을 지출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중학교 졸업 이하는 월평균 경조사비로 1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별로 보면, 동구에서는 10만 6천 원으로 5개 구 중 가장 적게 지출하는 반면, 월평균 경조사비로 18만 2천 원을 지출한 서구가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하였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소득수준이 '100만 원 미만' 인 가구에서는 월평균 경조사비로 4만원을 지출하였다.

〈 표 2-1-5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경조사비(2013년)

(단위 : %, 명, 만원)

구분		10만 원 미만	10만 원 이상-15만 원 미만	15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	20만 원 이상-25만 원 미만	25만 원 이상	전체	월평균 경조사비
전체		28.2(309)	31.7(347)	8.8(96)	14.9(163)	16.4(179)	100.0(1,094)	14.8
성별	남성	21.9	32.6	10.2	16.7	18.7	100.0(846)	16.3
	여성	50.0	28.6	4.0	8.9	8.5	100.0(248)	9.7
출생 년도	1955~1959	29.4	31.9	9.0	13.9	15.8	100.0(589)	14.7
	1960~1963	26.9	31.5	8.5	16.0	17.0	100.0(505)	15.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3.9	35.6	4.5	8.3	7.6	100.0(132)	10.0
	고졸	33.0	31.1	8.6	13.2	14.0	100.0(521)	13.5
	초대졸 이상	17.9	31.3	10.2	18.8	21.8	100.0(441)	17.9
구	동구	53.5	22.8	5.3	7.9	10.5	100.0(228)	10.6
	중구	26.2	31.3	6.2	14.9	21.5	100.0(195)	17.0
	서구	16.7	31.6	8.7	16.7	26.2	100.0(275)	18.2
	유성구	15.1	34.4	11.3	24.2	15.1	100.0(186)	16.9
	대덕구	29.5	39.5	12.9	11.9	6.2	100.0(210)	11.2
소득	100만원 미만	78.8	15.4	3.8	1.9	0.0	100.0(52)	4.0
	200만원 미만	55.7	31.8	0.6	4.0	8.0	100.0(176)	8.6
	300만원 미만	29.8	40.4	10.6	11.4	7.8	100.0(255)	12.1
	400만원 미만	18.6	37.3	8.7	18.3	17.1	100.0(263)	15.9
	500만원 미만	16.1	26.4	17.8	21.3	18.4	100.0(174)	17.0
	600만원 미만	11.3	23.7	7.2	25.8	32.0	100.0(97)	21.9
	600만원 이상	7.8	16.9	6.5	20.8	48.1	100.0(77)	28.3

5) 월평균 통신비 지출

지난 1년 간 베이비부머가 통신비로 지출한 금액은 '25만 원 이상'이 28.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0~25만 원 미만' 23.4%, '15~20만 원 미만' 17.4% 등의 순이었

7) 귀댁의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경조사비는 얼마입니까? (문항 36번)

다. 베이비부머는 통신비로 월평균 18만 6천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남성은 월평균 통신비로 20만 3천 원을 지출하는 반면, 여성은 통신비로 12만 8천 원을 지출하였다. 출생년도별로 보면, 전기 베이비부머는 17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후기 베이비부머는 통신비로 20만 원을 지출하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통신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높으며, 초대졸 이상의 경우 월평균 통신비로 21만 5천 원을 지출했다. 구별로 보면, 월평균 통신비로 동구 16만 1천 원, 중구 18만 6천 원, 서구 19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유성구, 대덕구는 19만 5천 원을 지출하였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월평균 통신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높게 나타났으며, '100만 원 미만'의 가구에서는 월평균 통신비로 6만 7천 원을 지출했다.

〈 표 2-1-6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통신비(2013년)

(단위 : %, 명, 만원)

구분 ⁸⁾		10만 원 미만	10만 원 이상-15만 원 미만	15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	20만 원 이상-25만 원 미만	25만 원 이상	전체	월평균 통신비
전체		14.7(161)	16.5(180)	17.4(190)	23.4(256)	28.1(307)	100.0(1,094)	18.6
성별	남성	9.6	13.5	17.5	25.8	33.7	100.0(846)	20.3
	여성	32.3	26.6	16.9	15.3	8.9	100.0(248)	12.8
출생 년도	1955~1959	18.5	16.8	18.7	21.1	25.0	100.0(589)	17.4
	1960~1963	10.3	16.0	15.8	26.1	31.7	100.0(505)	2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3.2	17.4	12.1	15.2	12.1	100.0(132)	12.3
	고졸	14.0	20.7	18.0	21.9	25.3	100.0(521)	17.8
	초대졸 이상	7.0	11.1	18.1	27.7	36.1	100.0(441)	21.5
구	동구	19.3	16.2	23.2	24.6	16.7	100.0(228)	16.1
	중구	17.4	14.9	15.9	21.5	30.3	100.0(195)	18.6
	서구	13.1	19.6	14.9	22.5	29.8	100.0(275)	19.4
	유성구	15.1	11.8	16.1	24.7	32.3	100.0(186)	19.5
	대덕구	9.0	18.1	16.7	23.8	32.4	100.0(210)	19.5
소득	100만원 미만	73.1	21.2	1.9	0.0	3.8	100.0(52)	6.7
	200만원 미만	47.2	30.1	12.5	6.3	4.0	100.0(176)	10.2
	300만원 미만	9.8	27.5	22.0	25.9	14.9	100.0(255)	16.7
	400만원 미만	3.4	8.7	25.9	27.8	34.2	100.0(263)	20.8
	500만원 미만	2.3	8.6	16.7	30.5	42.0	100.0(174)	23.0
	600만원 미만	1.0	4.1	11.3	36.1	47.4	100.0(97)	23.7
	600만원 이상	1.3	5.2	3.9	23.4	66.2	100.0(77)	28.7

8) 귀댁의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통신비는 얼마입니까? (문항 36번)

2. 부채여부 및 사유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가계 부채 유무를 살펴보면, 2013년도 베이비부머의 39.7%는 가계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10가구 중 4가구는 가계 부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1-6). 성별로 보면 남성(41.0%)이 여성(35.1%)보다 가계 부채가 높으며, 전기 베이비부머(37.2%)보다 후기 베이비부머(42.6%)가 가계 부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구별로는 대덕구가 다른 구에 비해 부채 비율이 26.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4년 베이비부머의 44.1%가 가계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의 가계 부채는 성별로 큰 차이가 없으며(남성 44.2%, 여성 43.9%), 전기 베이비부머(42.3%)에 비해 후기 베이비부머(46.2%)가 가계 부채의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초대졸 이상(47.7%)이 타 집단에 비해 가계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별로 모든 구에서 40% 이상이 가계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구는 가계 부채 비율이 49.2%로 가장 높았다.

〈 표 2-1-7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채유무

(단위 : %, 명)

구분 ⁹⁾			부채가 있다	부채가 없다	전체
2013	전체		39.7(434)	60.3(660)	100.0(1,094)
	성별	남성	41.0	59.0	100.0(846)
		여성	35.1	64.9	100.0(248)
	출생년도	1955~1959	37.2	62.8	100.0(589)
		1960~1963	42.6	57.4	100.0(505)
	교육수준	중졸 이하	32.6	67.4	100.0(132)
		고졸	37.4	62.6	100.0(521)
		초대졸 이상	44.4	55.6	100.0(441)
	구	동구	45.6	54.4	100.0(228)
		중구	42.1	57.9	100.0(195)
		서구	42.9	57.1	100.0(275)
		유성구	40.3	59.7	100.0(186)
		대덕구	26.2	73.8	100.0(210)
	소득	100만원 미만	19.2	80.8	100.0(52)
		200만원 미만	29.0	71.0	100.0(176)
		300만원 미만	35.3	64.7	100.0(255)
		400만원 미만	43.3	56.7	100.0(263)
500만원 미만		48.3	51.7	100.0(174)	
600만원 미만		52.6	47.4	100.0(97)	
600만원 이상		44.2	55.8	100.0(77)	
2014	전체		44.1(445)	55.9(563)	100.0(1,008)
	성별	남성	44.2	55.8	100.0(755)
		여성	43.9	56.1	100.0(253)
	출생년도	1955~1959	42.3	57.7	100.0(532)
		1960~1963	46.2	53.8	100.0(476)
	교육수준	중졸 이하	42.2	57.8	100.0(230)
		고졸	42.1	57.9	100.0(409)
		초대졸 이상	47.7	52.3	100.0(369)
	구	동구	39.8	60.2	100.0(166)
		중구	49.2	50.8	100.0(195)
		서구	40.2	59.8	100.0(254)
		유성구	48.1	51.9	100.0(187)
		대덕구	44.2	55.8	100.0(206)
	소득	100만원 미만	42.6	57.4	100.0(108)
		200만원 미만	39.2	60.8	100.0(204)
		300만원 미만	43.6	56.4	100.0(218)
		400만원 미만	48.7	51.3	100.0(197)
500만원 미만		50.0	50.0	100.0(118)	
600만원 미만		42.0	58.0	100.0(69)	
600만원 이상		42.6	57.4	100.0(94)	

2013년 베이비부머의 가계 부채 발생이유는 ‘주택 임차 및 구입’이 5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교육비’ 16.6%,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생활비’ 13.8%, ‘재테크 투자’ 8.3% 등의 순이었다(표2-1-8). 성별로는 남성(58.8%)과 여성(51.7%) 모두 ‘주택 임차 및 구입’에서 높았으며,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 생활비’는 여성(20.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출생년도별로는 후기 베이비부머가 전기 베이비부머에 비해 ‘교육비’(18.1%)와 ‘교육비를 제외한 기타 생활비’(15.3%)에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초대졸 이상(63.3%)은 ‘주택 임차 및 구입’에서 높았으며, 중학교 졸업 이하(25.6%)는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 생활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구별로 유성구(66.7%)는 ‘주택 임차 및 구입’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덕구(40.0%)는 ‘교육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14년도 베이비부머의 가계 부채 발생 이유는 ‘주택 임차 및 구입’이 50.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생활비’ 16.2%, ‘교육비’ 13.5%, ‘재테크 투자’ 9.7%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교육비’는 남성(14.7%),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생활비’는 여성(22.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출생년도별로 ‘주택 임차 및 구입’은 후기 베이비부머(52.7%),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생활비’는 전기 베이비부머(16.4%)에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생활비’를 위한 부채비율이 높으며, 초대졸 이상의 경우 ‘재테크 투자’가 14.2%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구별로 유성구(62.2%)는 ‘주택 임차 및 구입’의 비율이 높았으며, 대덕구(25.3%)는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생활비’에서 부채 비율이 높았다.

2013년과 2014년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가계 부채 발생 이유를 살펴보면, ‘주택임차 및 구입’(7.3%p)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생활비’(2.4%p)와 ‘재테크 투자’(1.4%p)는 증가하였다.

9) 귀댁에 부채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3년 문항 37번, 2014년 문항 26번)

〈 표 2-1-8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채사유

(단위 : %, 명)

구분 ¹⁰⁾		주택 임차 및 구입	교육비	의료비	기타 생활비	재테크 투자	기타	전체
2013	전체	57.4(249)	16.6(72)	1.2(5)	13.8(60)	8.3(36)	2.8(12)	100.0(434)
	성별	남성	58.8	15.9	1.4	12.1	9.2	100.0(347)
		여성	51.7	19.5	0.0	20.7	4.6	100.0(87)
	출생년도	1955~1959	58.0	15.1	1.4	12.3	9.6	100.0(219)
		1960~1963	56.7	18.1	0.9	15.3	7.0	100.0(215)
	교육수준	중졸 이하	58.1	4.7	2.3	25.6	2.3	100.0(43)
		고졸	51.3	15.9	1.0	19.5	8.2	100.0(195)
		초대졸 이상	63.3	19.9	1.0	5.6	9.7	100.0(196)
	구	동구	53.8	20.2	1.0	16.3	8.7	100.0(104)
		중구	65.9	17.1	1.2	7.3	3.7	100.0(82)
		서구	61.9	9.3	0.8	13.6	13.6	100.0(118)
		유성구	66.7	5.3	2.7	13.3	4.0	100.0(75)
		대덕구	29.1	40.0	0.0	20.0	9.1	100.0(55)
	소득	100만원 미만	50.0	20.0	10.0	10.0	0.0	100.0(10)
		200만원 미만	47.1	11.8	2.0	35.3	3.9	100.0(51)
		300만원 미만	51.1	18.9	1.1	17.8	6.7	100.0(90)
		400만원 미만	61.4	18.4	1.8	7.9	8.8	100.0(114)
		500만원 미만	70.2	8.3	0.0	13.1	7.1	100.0(84)
		600만원 미만	51.0	27.5	0.0	7.8	11.8	100.0(51)
		600만원 이상	55.9	14.7	0.0	2.9	17.6	100.0(34)
2014	전체	50.1(223)	13.5(60)	3.1(14)	16.2(72)	9.7(43)	7.4(33)	100.0(445)
	성별	남성	48.8	14.7	3.6	14.1	9.9	100.0(334)
		여성	54.1	9.9	1.8	22.5	9.0	100.0(111)
	출생년도	1955~1959	47.6	13.3	3.6	16.4	11.1	100.0(225)
		1960~1963	52.7	13.6	2.7	15.9	8.2	100.0(220)
	교육수준	중졸 이하	52.6	9.3	2.1	24.7	4.1	100.0(97)
		고졸	45.3	18.0	3.5	18.6	8.1	100.0(172)
		초대졸 이상	53.4	11.4	3.4	9.1	14.2	100.0(176)
	구	동구	45.5	16.7	1.5	13.6	12.1	100.0(66)
		중구	47.9	17.7	4.2	13.5	7.3	100.0(96)
		서구	52.9	10.8	3.9	16.7	8.8	100.0(102)
		유성구	62.2	8.9	1.1	11.1	14.4	100.0(90)
		대덕구	40.7	14.3	4.4	25.3	6.6	100.0(91)
	소득	100만원 미만	60.9	8.7	2.2	17.4	4.3	100.0(46)
		200만원 미만	38.8	17.5	3.8	26.3	6.3	100.0(80)
		300만원 미만	45.3	12.6	2.1	20.0	9.5	100.0(95)
		400만원 미만	46.9	19.8	2.1	18.8	8.3	100.0(96)
		500만원 미만	57.6	11.9	3.4	3.4	15.3	100.0(59)
		600만원 미만	62.1	6.9	6.9	10.3	6.9	100.0(29)
		600만원 이상	60.0	5.0	5.0	2.5	20.0	100.0(40)

3. 소득 및 소비생활 만족도

(1) 소득수준 만족도

2013년도 조사에서는, 소득수준 만족도의 평균이 5점 만점에서 2.9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2.91점, 여성이 2.89점으로 남성이 근소하게 만족도가 높았다. 출생년도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구별로는 동구의 소득수준 만족도가 2.9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구 2.95점, 서구 2.95점, 유성구 2.90점으로 2.90점 이상의 만족도가 나타났다. 반면에, 대덕구는 2.73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100만원 미만'이 2.1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600만원 이상'이 3.49점으로 가장 높았다.

2014년도 조사에서는, 소득수준 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서 2.71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2.72점)의 만족도가 남성(2.70점)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며, 전기 베이비부머(2.72점)가 후기 베이비부머(2.70점)보다 조금 더 만족하였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 만족도가 높은 반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낮았다. 구별로는 서구(2.81점)에서 소득수준 만족도가 높았으며, 중구(2.53점)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소득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3년도와 2014년도 소득수준 만족도를 살펴보면 '불만족'이 전반적으로 증가(10.1%p)하고 있으며, 소득수준 '만족'은 하락(4.4%p)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귀책에 부채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3년 문항 37번, 2014년 문항 26-1번)

〈 표 2-1-9 〉 소득수준 만족도

(단위 : %, 명, 점)

구분 ¹⁾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이다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5점 평균*	
2013	전체		3.1(44)	17.7(247)	53.5(748)	17.7(247)	8.1(113)	100.0(1,399)	2.90
	성별	남성	2.9	19.6	51.4	17.5	8.6	100.0(862)	2.91
		여성	3.5	14.5	56.8	17.9	7.3	100.0(537)	2.89
	출생 년도	1955~1959	3.1	16.5	53.3	19.2	7.9	100.0(720)	2.88
		1960~1963	3.2	18.9	53.6	16.1	8.2	100.0(679)	2.9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4	10.7	48.8	26.8	11.3	100.0(168)	2.66
		고졸	2.6	13.1	56.5	17.8	9.9	100.0(718)	2.81
		초대졸 이상	4.1	26.3	50.7	14.4	4.5	100.0(513)	3.11
	구	동구	4.3	19.7	50.0	20.5	5.5	100.0(254)	2.97
		중구	4.0	17.2	55.8	15.7	7.3	100.0(274)	2.95
		서구	4.0	19.4	50.3	19.9	6.5	100.0(372)	2.95
		유성구	0.9	20.3	53.7	17.7	7.4	100.0(231)	2.90
		대덕구	1.9	11.6	58.6	13.8	14.2	100.0(268)	2.73
	소득	전체	2.7(29)	18.5(196)	51.2(542)	18.3(194)	9.2(97)	100.0(1,058)	2.87
		100만원 미만	2.9	8.6	28.6	22.9	37.1	100.0(35)	2.17
		200만원 미만	2.4	8.2	52.4	25.9	11.2	100.0(170)	2.65
		300만원 미만	0.8	14.2	52.8	23.2	8.9	100.0(246)	2.75
		400만원 미만	1.5	19.9	53.3	16.9	8.4	100.0(261)	2.89
		500만원 미만	2.9	20.7	54.0	14.4	8.0	100.0(174)	2.96
		600만원 미만	4.2	26.0	54.2	12.5	3.1	100.0(96)	3.16
		600만원 이상	11.8	40.8	36.8	5.3	5.3	100.0(76)	3.49
2014	전체		2.2(34)	14.2(219)	47.6(734)	24.3(375)	11.6(179)	100.0(1,541)	2.71
	성별	남성	1.9	13.1	50.1	23.3	11.6	100.0(802)	2.70
		여성	2.6	15.4	44.9	25.4	11.6	100.0(739)	2.72
	출생 년도	1955~1959	1.8	15.1	47.8	23.7	11.4	100.0(813)	2.72
		1960~1963	2.6	13.2	47.4	25.0	11.8	100.0(728)	2.7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7	10.4	39.3	32.5	16.0	100.0(412)	2.49
		고졸	2.0	11.4	50.0	24.9	11.6	100.0(638)	2.67
		초대졸 이상	2.9	21.0	51.5	16.7	7.9	100.0(491)	2.94
	구	동구	1.9	14.4	43.7	22.8	17.1	100.0(263)	2.61
		중구	1.7	10.3	40.7	34.3	13.0	100.0(300)	2.53
		서구	2.5	15.9	50.1	22.5	8.9	100.0(395)	2.81
		유성구	2.1	18.8	47.6	18.5	13.0	100.0(292)	2.78
		대덕구	2.7	11.0	55.0	23.7	7.6	100.0(291)	2.78
	소득	전체	1.9(18)	12.4(118)	49.1(465)	24.8(235)	11.8(112)	100.0(948)	2.68
		100만원 미만	2.4	4.8	37.3	24.1	31.3	100.0(83)	2.23
		200만원 미만	0.5	5.3	40.7	32.8	20.6	100.0(189)	2.32
		300만원 미만	1.9	6.7	46.2	31.0	14.3	100.0(210)	2.51
		400만원 미만	0.5	12.3	59.0	23.6	4.6	100.0(195)	2.81
		500만원 미만	2.6	18.4	53.5	21.1	4.4	100.0(114)	2.94
		600만원 미만	1.5	24.2	57.6	13.6	3.0	100.0(66)	3.08
		600만원 이상	6.6	31.9	50.5	9.9	1.1	100.0(91)	3.33

*매우 만족은 5점, 약간 만족은 4점, 보통은 3점, 약간 불만족은 2점, 매우 불만족은 1점으로 환산.

(2) 소비생활 만족도

2013년도 조사에서는, 소비생활 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서 2.94점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소비생활 만족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남성 2.92점, 여성 2.95점), 전기 베이비부머(2.89점)에 비해 후기 베이비부머(2.99점)가 소비생활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동구가 소비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3.13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대덕구(2.68점)는 소비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았다. 소득별로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생활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100만원 미만'의 가구의 절반(51.9%)이 불만족이라고 응답하였다.

2014년도 소비생활 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서 2.80점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2.77점)이 남성(2.82점)에 비해 소비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았다. 출생년도별로는 전기 베이비부머(2.81점)가 후기 베이비부머(2.78점)보다 소비생활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구별로는 서구의 만족도가 2.8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구는 2.67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생활 만족도가 높았으며, 소득의 '1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불만족 비율이 49.1%로 가장 높았다.

2013년도와 2014년도 소비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 '불만족'이 전반적으로 증가(6.2%p)하고 있으며, 소비생활 '만족'은 하락(4.2%p)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귀하는 본인의 소득수준에 만족하십니까? (2013년 문항 38번, 2014년 문항 24번)

〈 표 2-1-10 〉 소비생활 만족도

(단위 : %, 명, 점)

구분 ¹²⁾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이다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5점 평균*
2013	전체	2.9(55)	17.0(319)	55.8(1,051)	19.3(363)	5.0(94)	100.0(1,882)	2.94
	성별							
	남성	2.4	17.8	55.0	18.8	6.0	100.0(893)	2.92
	여성	3.4	16.2	56.6	19.7	4.0	100.0(989)	2.95
	출생							
	년도							
	1955~1959	2.7	14.9	56.3	20.9	5.2	100.0(1,000)	2.89
	1960~1963	3.2	19.3	55.3	17.5	4.8	100.0(882)	2.99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7	12.4	49.4	30.0	4.5	100.0(267)	2.81
	고졸	2.6	14.9	56.8	19.4	6.3	100.0(1,008)	2.88
	초대졸 이상	3.1	22.4	57.0	14.3	3.1	100.0(607)	3.08
	구							
	동구	6.8	22.3	49.6	19.2	2.1	100.0(381)	3.13
	중구	2.3	14.7	64.9	14.7	3.4	100.0(348)	2.98
	서구	3.1	17.2	53.4	22.5	3.9	100.0(489)	2.93
	유성구	1.0	22.3	54.2	16.5	6.1	100.0(310)	2.95
	대덕구	0.8	8.5	58.5	22.0	10.2	100.0(354)	2.68
2014	전체	2.7(29)	17.5(191)	52.8(578)	20.1(220)	6.9(76)	100.0(1,094)	2.89
	소득							
	100만 원 미만	0.0	7.7	40.4	36.5	15.4	100.0(52)	2.40
	200만 원 미만	2.3	10.2	51.1	27.8	8.5	100.0(176)	2.70
	300만 원 미만	0.8	12.9	52.2	26.7	7.5	100.0(255)	2.73
	400만 원 미만	2.3	19.4	55.1	17.1	6.1	100.0(263)	2.95
	500만 원 미만	4.0	16.1	61.5	12.1	6.3	100.0(174)	2.99
	600만 원 미만	6.2	21.6	57.7	11.3	3.1	100.0(97)	3.16
	600만 원 이상	5.2	46.8	33.8	9.1	5.2	100.0(77)	3.38
	전체	2.2(39)	13.5(238)	53.8(946)	22.9(403)	7.6(134)	100.0(1,760)	2.80
	성별							
	남성	2.4	13.7	55.4	20.9	7.6	100.0(845)	2.82
	여성	2.1	13.3	52.2	24.7	7.7	100.0(915)	2.77
	출생							
	년도							
	1955~1959	1.8	14.6	53.6	23.0	7.0	100.0(943)	2.81
	1960~1963	2.7	12.2	54.0	22.8	8.3	100.0(817)	2.7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0	10.3	46.6	31.6	9.5	100.0(506)	2.64
	고졸	1.5	12.8	54.3	22.9	8.4	100.0(725)	2.76
	초대졸 이상	3.4	17.6	59.7	14.6	4.7	100.0(529)	3.00
	구							
	동구	1.6	16.6	50.8	19.5	11.4	100.0(307)	2.78
	중구	1.8	8.8	51.9	29.6	7.9	100.0(341)	2.67
	서구	2.2	14.3	57.4	21.8	4.4	100.0(455)	2.88
	유성구	2.5	17.3	51.7	21.1	7.4	100.0(323)	2.86
	대덕구	3.0	10.8	55.4	22.5	8.4	100.0(334)	2.78
	소득							
	전체	2.5(25)	13.6(137)	54.9(553)	22.2(224)	6.8(69)	100.0(1,008)	2.83
	100만 원 미만	5.6	6.5	38.9	24.1	25.0	100.0(108)	2.44
	200만 원 미만	1.0	8.3	49.0	29.4	12.3	100.0(204)	2.56
	300만 원 미만	1.4	10.1	55.5	28.0	5.0	100.0(218)	2.75
	400만 원 미만	1.0	13.2	63.5	21.3	1.0	100.0(197)	2.92
	500만 원 미만	2.5	16.1	62.7	16.1	2.5	100.0(118)	3.00
	600만 원 미만	0.0	26.1	59.4	13.0	1.4	100.0(69)	3.10
	600만 원 이상	9.6	29.8	53.2	7.4	0.0	100.0(94)	3.41

*매우 만족은 5점, 약간 만족은 4점, 보통은 3점, 약간 불만족은 2점, 매우 불만족은 1점으로 환산.

4. 거처의 종류 및 주택점유형태

(1) 거처의 종류

조사대상 베이비부머의 거처의 종류를 살펴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2013년 조사와 2014년 조사에서 각각 54.6%, 56.1%로 절반을 약간 넘었다. 2013년 조사에서는 아파트 다음으로 단독주택이 22.6%, 연립·다세대 주택이 22.5%이며, 2014년 조사에서는 아파트 다음으로 단독주택이 23.8%, 연립·다세대 주택이 15.7%의 순이었다.

〈 표 2-1-11 〉 거처의 종류

구분	2013		201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단독주택	247	22.6	418	23.8
아파트	597	54.6	988	56.1
연립, 다세대주택	246	22.5	277	15.7
기타(오피스텔 등)	4	0.4	77	4.4
전체	1,094	100.0	1,760	100.0

베이비부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거처의 종류를 살펴보면 우선, 2014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아파트 거주 비율이 각각 56.2%, 56.1%로 가장 많아서 전체적인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출생년도에 따라서는 전기 베이비부머와 후기 베이비부머 모두 아파트 거주 비율이 각각 54.5%, 58.0%로 가장 많지만 전기 베이비부머는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26.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모든 교육수준에서 아파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초대졸 이상 베이비부머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70.9%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졸업 이하 베이비부머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42.1%,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32.2%, 다세대 등 거주비율이 25.7%로 나타나 고른 분포를 보였다. 구에 따라서는 모든 구에서 아파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지만 특히 유성구가 69.0%로 가장 높았다.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은 곳은 동구, 대덕구, 중구이며, 다세대 등의 거주비율이 높은 곳은 중구와 서구였다.

12) 귀하는 소비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2013년 문항 39번, 2014년 문항 25번)

〈 표 2-1-12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거처의 종류

(단위 : %, 명)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 기타	전체
2013	전체		22.6(247)	54.6(597)	22.9(250)	100.0(1,094)
	성별	남성	21.9	57.2	20.9	100.0(846)
		여성	25.0	45.6	29.4	100.0(248)
	출생년도	1955~1959	25.5	53.0	21.6	100.0(589)
		1960~1963	19.2	56.4	24.4	100.0(505)
	교육수준	중졸 이하	22.0	38.6	39.4	100.0(132)
		고졸	27.1	47.0	25.9	100.0(521)
		초대졸 이상	17.5	68.3	14.3	100.0(441)
	구	동구	29.4	52.2	18.4	100.0(228)
		중구	32.3	45.1	22.6	100.0(195)
		서구	17.8	54.9	27.3	100.0(275)
		유성구	10.2	72.6	17.2	100.0(186)
		대덕구	23.3	49.5	27.1	100.0(210)
2014	전체		23.8(418)	56.1(988)	20.1(354)	100.0(1,760)
	성별	남성	22.5	56.2	21.3	100.0(845)
		여성	24.9	56.1	19.0	100.0(915)
	출생년도	1955~1959	26.4	54.5	19.1	100.0(943)
		1960~1963	20.7	58.0	21.3	100.0(817)
	교육수준	중졸 이하	32.2	42.1	25.7	100.0(506)
		고졸	23.9	55.2	21.0	100.0(725)
		초대졸 이상	15.5	70.9	13.6	100.0(529)
	구	동구	34.5	53.7	11.7	100.0(307)
		중구	24.3	48.4	27.3	100.0(341)
		서구	20.7	56.0	23.3	100.0(455)
		유성구	15.8	69.0	15.2	100.0(323)
		대덕구	25.1	53.9	21.0	100.0(334)

(2) 주택점유형태

조사대상 베이비부머의 주택점유형태를 살펴보면, 201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가 71.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세 16.8%, 보증부 월세 8.0%, 월세 2.5%의 순이었다. 2014년 조사결과는 자가 7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세가 13.6%, 보증부 월세가 9.7%, 월세 1.9%의 순이었다. 즉, 조사대상 베이비부머 10명 중 7명은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나머지 3명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베이비부머 10명 중 1명은 보증부 월세, 월세 등 매월 주택 임대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1-13 〉 주택점유형태

구분	2013		201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자가	781	71.4	1,296	73.6
전세	184	16.8	239	13.6
보증부 월세	87	8.0	171	9.7
월세	27	2.5	34	1.9
무상 및 기타	15	1.4	20	1.1
전체	1,094	100.0	1,760	100.0

주택점유형태를 소유 여부로 살펴보면, 주택을 소유하는 있는 경우는 2013년 조사에서는 72.4%, 2014년 조사에서는 74.5%로 나타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성별로는 남성은 소유한 경우가 73.6%, 여성은 75.3%로 나타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출생년도에 따라서는 주택 소유 비율이 전기 베이비부머는 76.7%, 후기 베이비부머는 71.9%로 전기 베이비부머의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중학교 졸업 이하 베이비부머는 72.5%, 고등학교 졸업은 73.5%, 초대졸 이상은 77.6%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비부머 집단이 상대적으로 주택 소유 비율이 높았다. 구에 따른 주택 소유 비율은 유성구가 79.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동구 76.1%, 서구 75.6%, 대덕구 74.2%, 중구 67.6%의 순이었다.

〈 표 2-1-14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택소유여부

(단위 : % 명)

구분			있음	없음	전체
2013	전체		72.4(781)	27.6(298)	100.0(1,079)
	성별	남성	76.7	23.3	100.0(833)
		여성	57.7	42.3	100.0(246)
	출생년도	1955~1959	74.2	25.8	100.0(582)
		1960~1963	70.2	29.8	100.0(497)
	교육수준	중졸 이하	62.8	37.2	100.0(129)
		고졸	69.4	30.6	100.0(520)
		초대졸 이상	78.8	21.2	100.0(430)
	구	동구	77.0	23.0	100.0(226)
		중구	71.6	28.4	100.0(194)
		서구	65.8	34.2	100.0(272)
		유성구	71.5	28.5	100.0(179)
		대덕구	77.4	22.6	100.0(208)

구분			있음	없음	전체
2014	전체		74.5(1,296)	25.5(444)	100.0(1,740)
	성별	남성	73.6	26.4	100.0(833)
		여성	75.3	24.7	100.0(907)
	출생년도	1955~1959	76.7	23.3	100.0(935)
		1960~1963	71.9	28.1	100.0(805)
	교육수준	중졸 이하	72.5	27.5	100.0(499)
		고졸	73.5	26.5	100.0(718)
		초대졸 이상	77.6	22.4	100.0(523)
	구	동구	76.1	23.9	100.0(305)
		중구	67.6	32.4	100.0(339)
		서구	75.6	24.4	100.0(447)
유성구		79.1	20.9	100.0(320)	
대덕구		74.2	25.8	100.0(329)	

5. 계층적 귀속 의식

조사대상 베이비부머의 계층적 귀속 의식을 살펴보면, 2013년도 조사에서는 중하라는 응답이 53.3%로 가장 많고, 중상이 23.8%로 중간 정도 수준으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77.1%였다. 상상과 상하 등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는 2.8%에 불과하며, 하상과 하하 등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20.1%였다. 2014년 조사에서도 2013년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중하가 44.9%, 중상이 31.0%로 나타나 중간 정도 수준으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75.9%, 상상과 상하 등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2.1%, 하상과 하하 등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22.0%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베이비부머는 현재 자신의 경제·사회적 위치를 3/4정도는 중간 정도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고, 1/5정도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는 3%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베이비부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계층적 귀속의식을 살펴보면, 2014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중간 정도로 평가하고 있으나, 여성이 낮은 위치로 평가하는 비율이 23.1%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출생년도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경향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중학교 졸업 이하 베이비부머는 낮은 위치라고 응답한 비율이 38.1%나 되었다. 구에 따라서는 낮은 위치로 평가하고 있는 비율이 동구가 3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구 26.1%, 서구 19.3%, 대덕구 19.2%, 유성구 14.2%의 순으로 동구와 중구

의 베이비부머가 서구, 유성구, 대덕구의 베이비부머에 비하여 사회·경제적 위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2-1-15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계층적 귀속 의식

(단위 : %, 명)

구분			상	중	하	전체
2013	전체		2.8(53)	77.1(1,451)	20.1(378)	100.0(1,882)
	성별	남성	3.7	78.6	17.7	100.0(893)
		여성	2.0	75.7	22.2	100.0(989)
	출생년도	1955~1959	2.5	76.2	21.3	100.0(1,000)
		1960~1963	3.2	78.1	18.7	100.0(882)
	교육수준	중졸 이하	0.0	62.9	37.1	100.0(267)
		고졸	1.9	76.8	21.3	100.0(1,008)
		초대졸 이상	5.6	83.9	10.5	100.0(607)
	구	동구	0.8	79.3	19.9	100.0(381)
		중구	8.9	76.1	14.9	100.0(348)
		서구	3.5	76.9	19.6	100.0(489)
		유성구	0.6	88.1	11.3	100.0(310)
		대덕구	0.0	66.4	33.6	100.0(354)
2014	전체		2.2(38)	75.9(1,336)	21.9(386)	100.0(1,760)
	성별	남성	2.2	77.0	20.7	100.0(845)
		여성	2.1	74.9	23.1	100.0(915)
	출생년도	1955~1959	1.8	75.6	22.6	100.0(943)
		1960~1963	2.6	76.3	21.2	100.0(817)
	교육수준	중졸 이하	1.4	60.5	38.1	100.0(506)
		고졸	1.5	78.3	20.1	100.0(725)
		초대졸 이상	3.8	87.3	8.9	100.0(529)
	구	동구	2.0	65.8	32.2	100.0(307)
		중구	2.1	71.8	26.1	100.0(341)
		서구	1.3	79.3	19.3	100.0(455)
		유성구	4.3	81.4	14.2	100.0(323)
		대덕구	1.5	79.3	19.2	100.0(334)

대전시민 전체에 비교해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중상이나 중하에 속한다는 응답이 약간 많아 상대적으로 자신의 계층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임을 볼 수 있다.

〈 표 2-1-16 〉 계층적 귀속 의식

(단위 : %, 명)

구분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	전체	χ^2
2013	전체	0.1(13)	2.7(292)	20.5(2,255)	52.2(5,747)	20.9(2,302)	3.7(403)	100.0(11,012)	34.708***
	베이비부머	0.1	2.7	23.8	53.3	17.8	2.3	100.0(1,882)	
	대전 시민	0.1	2.6	19.8	51.9	21.5	3.9	100.0(9,130)	
2014	전체	0.3(31)	1.2(125)	26.1(2,661)	46.6(4,753)	18.5(1,881)	7.3(743)	100.0(10,194)	41.604***
	베이비부머	0.2	1.9	31.0	44.9	15.7	6.3	100.0(1,760)	
	대전 시민	0.3	1.1	25.1	47.0	19.0	7.5	100.0(8,434)	

*p<.05, **p<.01, ***p<.001

주1) 대전 시민은 베이비부머를 제외한 응답자.

주2) 전체 통계수치는 「2013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2014 대전광역시 사회조사」의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이는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은 통계수치임.

〈 표 2-1-17 〉 계층적 귀속 의식 차이

구분		n	평균	S.D.	t
2013	전체	11,012	2.98	0.823	-5.341***
	베이비부머	1,882	3.07	0.787	
	대전 시민	9,130	2.96	0.828	
2014	전체	10,194	2.96	0.901	-5.581***
	베이비부머	1,760	3.07	0.900	
	대전 시민	8,434	2.94	0.900	

*p<.05, **p<.01, ***p<.001

주1) 대전 시민은 베이비부머를 제외한 응답자.

주2)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은 데이터를 분석함.

제2절 경제활동 및 고용

1. 경제활동

1) 직업생활

(1) 경제활동 참가율

분석대상 베이비부머의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2013년도 베이비부머 66.7%가 ‘직업 있음’으로 33.3%가 ‘직업 없음’으로 응답했다(표2-2-1).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남성은 94.4%가 일을 하고 있었으나, 여성은 41.8%만이 일을 하고 있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의 1/2에도 미치지 못했다. 출생년도별로는 전기 베이비부머 62.9%, 후기 베이비부머 71.1%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서, 연령이 낮을수록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아져서 중학교 졸업 이하 베이비부머의 53.6%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초대졸 이상의 베이비부머는 79.1%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구별로 살펴보면 베이비부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대덕구 70.6%, 유성구 70.0%, 중구 68.1%, 서구 65.4%, 동구 60.9%로 나타났다.

2014년도에는 베이비부머 68.3%가 ‘직업 있음’으로 응답하였으며, ‘직장 없음’은 31.7%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남성은 87.6%가 일을 하고 있었으나, 여성은 그 비율이 50.5%에 불과했다. 출생년도별로는 전기 베이비부머 64.5%, 후기 베이비부머 72.7%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율은 낮아졌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초대졸 이상 79.0%, 고졸 66.8%, 중졸 이하 59.3%가 현재 일을 하고 있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았다. 구별로 살펴보면, 베이비부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대덕구 73.7%, 유성구 70.3%, 중구 70.1%, 동구 65.1%, 서구 63.7%였다.

2013년도와 2014년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베이비부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8.3%로 전년대비 1.6%p 증가하였다.

< 표 2-2-1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의 유무

(단위 : %, 명)

구분13)		있다	없다	전체	
2013	전체	66.7(1,256)	33.3(626)	100.0(1,882)	
	성별	남성	94.4	5.6	100.0(893)
		여성	41.8	58.2	100.0(989)
	출생년도	1955~1959	62.9	37.1	100.0(1,000)
		1960~1963	71.1	28.9	100.0(882)
	교육수준	중졸 이하	53.6	46.4	100.0(267)
		고졸	62.8	37.2	100.0(1,008)
		초대졸 이상	79.1	20.9	100.0(607)
	구	동구	60.9	39.1	100.0(381)
		중구	68.1	31.9	100.0(348)
		서구	65.4	34.6	100.0(489)
		유성구	70.0	30.0	100.0(310)
		대덕구	70.6	29.4	100.0(354)
	소득	전체	95.0(1,039)	5.0(55)	100.0(1,094)
		100만원 미만	55.8	44.2	100.0(52)
		200만원 미만	92.0	8.0	100.0(176)
300만원 미만		96.1	3.9	100.0(255)	
400만원 미만		98.5	1.5	100.0(263)	
500만원 미만		99.4	0.6	100.0(174)	
600만원 미만		97.9	2.1	100.0(97)	
600만원 이상		98.7	1.3	100.0(77)	
2014	전체	68.3(1,202)	31.7(558)	100.0(1,760)	
	성별	남성	87.6	12.4	100.0(845)
		여성	50.5	49.5	100.0(915)
	출생년도	1955~1959	64.5	35.5	100.0(943)
		1960~1963	72.7	27.3	100.0(817)
	교육수준	중졸 이하	59.3	40.7	100.0(506)
		고졸	66.8	33.2	100.0(725)
		초대졸 이상	79.0	21.0	100.0(529)
	구	동구	65.1	34.9	100.0(307)
		중구	70.1	29.9	100.0(341)
		서구	63.7	36.3	100.0(455)
		유성구	70.3	29.7	100.0(323)
		대덕구	73.7	26.3	100.0(334)
	소득	전체	82.6(833)	17.4(175)	100.0(1,008)
		100만원 미만	52.8	47.2	100.0(108)
		200만원 미만	79.4	20.6	100.0(204)
300만원 미만		80.7	19.3	100.0(218)	
400만원 미만		92.4	7.6	100.0(197)	
500만원 미만		94.1	5.9	100.0(118)	
600만원 미만		91.3	8.7	100.0(69)	
600만원 이상		87.2	12.8	100.0(94)	

〈 표 2-2-2 〉 직업 유무에 따른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 명)

구분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전체	χ^2
2013	전체	4.8(52)	16.1(176)	23.3(255)	24.0(263)	15.9(174)	8.9(97)	7.0(77)	100.0(1,094)	189.219***
	직업 있음	2.8	15.6	23.6	24.9	16.7	9.1	7.3	100.0(1,039)	
	직업 없음	41.8	25.5	18.2	7.3	1.8	3.6	1.8	100.0(55)	
2014	전체	10.7(108)	20.2(204)	21.6(218)	19.5(197)	11.7(118)	6.8(69)	9.3(94)	100.0(1,008)	97.938***
	직업 있음	6.8	19.4	21.1	21.8	13.3	7.6	9.8	100.0(833)	
	직업 없음	29.1	24.0	24.0	8.6	4.0	3.4	6.9	100.0(175)	

*p<.05, **p<.01, ***p<.001

(2) 종사 직종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종사 직종을 살펴보면, 2013년도 베이비부머의 종사 직종은 서비스 종사자가 21.8%, 사무 종사자 19.9%, 판매 종사자 17.0%로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가 38.8%를 차지하고 있었다(표2-2-3). 다음으로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4.4%, 단순노무 종사자 9.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9%, 관리자 3.9%, 농업·림업·축·수산업 종사자 1.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사무·전문직과 기능·노무직 직업계층의 비율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종사 직종은 남성은 사무 종사자(24.4%)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8.5%)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은 서비스 종사자(37.8%)와 판매 종사자(25.7%)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출생년도별 종사 직종은 전기 베이비부머에 비해 후기 베이비부머가 사무 종사자(21.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8.0%), 관리자(4.6%) 등 사무·전문직 직업계층의 비율이 높은 반면 서비스종사자(24.9%), 단순노무 종사자(10.9%), 농업·림업·축·수산업 종사자(1.6%) 등의 비율이 낮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사무 종사자(38.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6.0%), 관리자(7.7%)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의 경우 서비스 종사자(33.6%), 단순노무 종사자(29.4%)의 비율이 높았다. 구별로 살펴보면, 동구는 판매 종사자(22.8%), 중구(22.4%)와 서구(27.2%)는 서비스 종사자, 유성구는 사무 종사자(21.2%), 대덕구는 서비스 종사자(20.0%)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4년도 전체 베이비부머의 종사 직종은 서비스 종사자 26.4%, 판매 종사자 10.6%로 서비스·판매직 직업계층의 비율이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37.0%를

1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2013년 문항 19번, 2014년 문항 42번)

차지하고 있었다(표2-2-4). 다음으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6%, 사무 종사자 12.2%, 관리자 6.4%와 단순노무 종사자 12.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9.3%,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7%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종사 직종은 남성은 관리자(8.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6.4%), 사무 종사자(15.3%)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2.2%)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은 서비스 종사자(41.6%)와 판매 종사자(14.3%)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출생년도별로 보면 후기 베이비부머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4.3%), 사무 종사자(13.3%), 관리자(7.1%) 등 사무·전문직 직업계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기 베이비부머는 단순노무 종사자(14.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2.3%), 서비스 종사자(27.8%) 등의 직업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수준별로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6.6%), 사무 종사자(23.2%), 관리자(12.7%)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의 경우 서비스 종사자(38.7%), 단순노무 종사자(25.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2.0%)의 비율이 높았다. 구별로 살펴보면, 동구(33.5%), 중구(28.9%), 서구(25.5%)와 대덕구(26.8%)는 서비스 종사자, 유성구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2.0%)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4년도 조사에서는 2013년도에 비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등은 더 많았고 판매 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등은 더 적었다.

〈 표 2-2-3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종(2013년)

(단위 : %, 명)

구분 ¹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	기타	전체
전체		3.9 (49)	6.9 (87)	19.9 (250)	21.8 (274)	17.0 (213)	1.2 (15)	14.4 (181)	4.9 (62)	9.3 (117)	0.1 (1)	0.6 (7)	100.0(1,256)
성별	남성	5.5	8.2	24.4	14.0	12.7	1.5	18.5	6.4	7.9	0.1	0.7	100.0(843)
	여성	0.7	4.4	10.7	37.8	25.7	0.5	6.1	1.9	12.1	0.0	0.2	100.0(413)
출생 년도	1955~1959	3.2	5.9	18.3	22.6	16.4	1.1	15.6	5.6	11.0	0.2	0.3	100.0(629)
	1960~1963	4.6	8.0	21.5	21.1	17.5	1.3	13.2	4.3	7.7	0.0	0.8	100.0(62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0.0	1.4	4.2	33.6	11.9	2.1	11.9	4.2	29.4	0.0	1.4	100.0(143)
	고졸	1.9	1.3	9.3	23.4	23.9	1.4	20.4	6.8	11.2	0.0	0.5	100.0(633)
	초대졸 이상	7.7	16.0	38.5	16.3	9.4	0.6	7.3	2.7	0.8	0.2	0.4	100.0(480)
구	동구	0.9	3.9	20.3	16.8	22.8	1.7	18.5	4.7	10.3	0.0	0.0	100.0(232)
	중구	7.2	5.5	18.6	22.4	15.6	1.7	14.8	1.7	12.7	0.0	0.0	100.0(237)
	서구	5.3	8.8	22.2	27.2	10.9	0.6	13.1	4.1	5.6	0.3	1.9	100.0(320)
	유성구	4.6	16.1	21.2	20.7	20.7	1.4	6.5	4.1	4.6	0.0	0.0	100.0(217)
	대덕구	1.2	0.8	16.8	20.0	17.2	0.8	18.8	10.0	14.0	0.0	0.4	100.0(250)
소득	전체	4.5 (47)	7.2 (75)	21.7 (225)	19.0 (197)	14.9 (155)	1.3 (13)	16.1 (167)	5.6 (58)	9.0 (94)	0.1 (1)	0.7 (7)	100.0(1,039)
	100만원 미만	3.4	3.4	3.4	24.1	10.3	3.4	3.4	3.4	44.8	0.0	0.0	100.0(29)
	200만원 미만	1.2	0.6	9.9	26.5	19.1	1.9	13.6	3.7	22.8	0.0	0.6	100.0(162)
	300만원 미만	0.8	4.5	17.1	19.6	10.6	1.2	24.9	10.2	10.2	0.0	0.8	100.0(245)
	400만원 미만	5.0	5.0	27.4	18.5	15.8	1.9	16.6	5.0	4.2	0.0	0.4	100.0(259)
	500만원 미만	3.5	11.0	27.2	14.5	16.8	0.0	16.8	5.8	2.9	0.0	1.7	100.0(173)
	600만원 미만	9.5	12.6	29.5	18.9	18.9	0.0	7.4	1.1	2.1	0.0	0.0	100.0(95)
	600만원 이상	18.4	23.7	26.3	10.5	9.2	1.3	5.3	2.6	1.3	1.3	0.0	100.0(76)

1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2013년 문항 19번, 2014년 문항 42번)

< 표 2-2-4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종(2014년)

(단위 : %, 명)

구분 ¹⁵⁾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	기타	전체
전체		6.4 (77)	13.6 (163)	12.2 (147)	26.4 (317)	10.6 (127)	1.7 (20)	9.3 (112)	4.7 (56)	12.7 (153)	0.2 (3)	2.2 (27)	100.0(1,202)
성별	남성	8.6	16.4	15.3	16.9	8.2	1.5	12.2	7.2	11.1	0.4	2.3	100.0(740)
	여성	2.8	9.1	7.4	41.6	14.3	1.9	4.8	0.6	15.4	0.0	2.2	100.0(462)
출생 년도	1955~1959	5.8	12.8	11.2	27.8	10.7	2.3	9.5	3.5	14.5	0.2	1.8	100.0(608)
	1960~1963	7.1	14.3	13.3	24.9	10.4	1.0	9.1	5.9	10.9	0.3	2.7	100.0(59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0	3.0	2.0	38.7	9.3	2.0	12.0	3.0	25.0	0.0	2.0	100.0(300)
	고졸	3.1	8.9	9.1	31.4	12.8	2.5	9.9	6.8	13.6	0.2	1.7	100.0(484)
	초대졸 이상	12.7	26.6	23.2	11.7	8.9	0.5	6.7	3.3	2.9	0.5	3.1	100.0(418)
구	동구	4.5	9.0	7.0	33.5	12.0	0.5	12.5	3.5	15.0	0.0	2.5	100.0(200)
	중구	6.7	9.6	11.7	28.9	12.1	1.7	8.4	3.8	15.5	0.0	1.7	100.0(239)
	서구	3.4	12.4	17.6	25.5	14.5	1.0	10.7	6.2	7.6	0.7	0.3	100.0(290)
	유성구	11.9	22.0	16.3	18.1	8.8	4.0	4.0	1.3	8.8	0.4	4.4	100.0(227)
	대덕구	6.1	14.6	6.9	26.8	4.9	1.2	11.0	7.7	17.9	0.0	2.8	100.0(246)
소득	전체	7.9 (66)	14.9 (124)	13.3 (111)	23.2 (193)	8.8 (73)	1.4 (12)	10.4 (87)	5.6 (47)	11.5 (96)	0.4 (3)	2.5 (21)	100.0 (833)
	100만원 미만	0.0	3.5	3.5	42.1	10.5	1.8	5.3	0.0	26.3	1.8	5.3	100.0(57)
	200만원 미만	3.1	6.2	5.6	35.2	6.8	2.5	9.3	3.1	25.3	0.0	3.1	100.0(162)
	300만원 미만	5.1	14.2	8.5	23.9	7.4	0.0	13.6	7.4	17.6	0.0	2.3	100.0(176)
	400만원 미만	3.8	13.2	16.5	20.9	13.7	2.2	14.3	9.9	2.7	0.5	2.2	100.0(182)
	500만원 미만	11.7	19.8	27.0	14.4	6.3	2.7	8.1	5.4	2.7	0.0	1.8	100.0(111)
	600만원 미만	17.5	23.8	23.8	15.9	9.5	0.0	6.3	3.2	0.0	0.0	0.0	100.0(63)
	600만원 이상	25.6	31.7	12.2	7.3	6.1	0.0	7.3	3.7	1.2	1.2	3.7	100.0(82)

(3) 직장 유형

2013년도 조사에서는 직업이 있는 응답자의 80.0%가 민간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기업 7.5%, 정부 4.7%, 비영리기관 2.8% 순이었다(표2-2-5).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77.7%)과 여성(84.7%)이 공통적으로 민간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공기업(남성 9.7%, 여성 2.9%)과 정부(남성 5.5%, 여성 3.1%)에서 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여성의 경우 비영리기관의 비율이

1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2013년 문항 19번, 2014년 문항 42번)

3.4%로서 남성의 2.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출생년도별로 살펴보면 전기 베이비부머와 후기 베이비부머 모두 민간기업(전기 베이비부머 81.4%, 후기 베이비부머 78.6%)에서 일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기업(전기 베이비부머 6.4%, 후기 베이비부머 8.6%), 정부(전기 베이비부머 3.7%, 후기 베이비부머 5.7%), 비영리기관(전기 베이비부머 3.0%, 후기 베이비부머 2.6%) 순으로 나타났다. 후기 베이비부머는 전기 베이비부머에 비해 공기업과 정부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전기 베이비부머의 경우 민간기업과 비영리기관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공기업(16.0%), 정부(9.4%)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기업(67.3%)에서 일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구별로는 모든 구에서 민간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유성구(11.1%)는 다른 구에 비해 정부에서 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베이비부머의 직장유형은 여성, 전기 베이비부머, 고등학교 졸업, 대덕구에서 ‘민간기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2-2-5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장 유형(2013년)

(단위 : %, 명)

구분 ¹⁶⁾		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비영리기관	해당 없음	전체
전체		4.7(59)	7.5(94)	80.0(1,005)	2.8(35)	5.0(63)	100.0(1,256)
성별	남성	5.5	9.7	77.7	2.5	4.6	100.0(843)
	여성	3.1	2.9	84.7	3.4	5.8	100.0(413)
출생년도	1955~1959	3.7	6.4	81.4	3.0	5.6	100.0(629)
	1960~1963	5.7	8.6	78.6	2.6	4.5	100.0(627)
교육수준	중졸 이하	2.1	1.4	83.9	0.7	11.9	100.0(143)
	고졸	1.7	2.4	88.8	2.2	4.9	100.0(633)
	초대졸 이상	9.4	16.0	67.3	4.2	3.1	100.0(480)
구	동구	2.6	8.6	77.2	5.6	6.0	100.0(232)
	중구	3.0	6.3	82.7	0.8	7.2	100.0(237)
	서구	5.3	9.7	79.1	1.6	4.4	100.0(320)
	유성구	11.1	6.9	73.7	3.7	4.6	100.0(217)
	대덕구	2.0	5.2	86.8	2.8	3.2	100.0(250)
소득	전체	4.9(51)	8.3(86)	79.6(827)	2.4(25)	4.8(50)	100.0(1,039)
	100만원 미만	3.4	0.0	79.3	0.0	17.2	100.0(29)
	200만원 미만	0.6	1.9	83.3	2.5	11.7	100.0(162)
	300만원 미만	2.0	3.7	87.8	3.3	3.3	100.0(245)
	400만원 미만	4.2	10.4	78.4	1.9	5.0	100.0(259)
	500만원 미만	7.5	10.4	78.6	1.7	1.7	100.0(173)
	600만원 미만	9.5	12.6	73.7	3.2	1.1	100.0(95)
	600만원 이상	14.5	22.4	59.2	2.6	1.3	100.0(76)

16) 귀하의 직장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문항 19-1-1번)

2014년도 조사에서는, 직업이 있는 응답자의 32.9%가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소기업 28.5%, 중소기업 12.6%, 공무원 6.6%, 기타 공공기관 5.7%, 대기업 4.9% 등의 순이었다(표2-2-6).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이 공통적으로 자영업자(남성 33.5%, 여성 31.8%)와 소기업(남성 23.9%, 여성 35.9%)에서 일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남성은 여성에 비해 공무원(남성 8.0%, 여성 4.3%)과 정부투자, 출연기관(남성 4.1%, 여성 1.5%), 대기업(남성 6.4%, 여성 2.6%)에서 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출생년도별로 살펴보면 전기 베이비부머와 후기 베이비부머 모두 자영업자(전기 베이비부머 35.4%, 후기 베이비부머 30.3%)로 일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후기 베이비부머는 전기 베이비부머에 비해 공기업과 정부,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전기 베이비부머는 자영업과 소기업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공무원(13.6%), 정부투자, 출연기관(6.2%), 대기업(8.6%)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자영업자(25.4%), 소기업(15.3%)에서 일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구별로는 모든 구에서 자영업자와 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시청 등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서구(11.7%)는 공무원과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는 유성구는 정부 투자·출연기관과 대기업 종사자가 많아서 직장 유형이 지역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14년도 조사에서는 2013년도에 비해 공무원, 공공기관과 같은 정부와 공기업 등은 더 많았고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등 민간 기업은 더 적었다.

〈 표 2-2-6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장 유형(2014년)

(단위 : %, 명)

구분 ¹⁷⁾		공무원	정부투자 출연기관	기타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자	기타	전체
전체		6.6(79)	3.1(37)	5.7(69)	4.9(59)	12.6(152)	28.5(343)	32.9(395)	5.7(68)	100.0(1,202)
성별	남성	8.0	4.1	5.1	6.4	14.5	23.9	33.5	4.6	100.0(740)
	여성	4.3	1.5	6.7	2.6	9.7	35.9	31.8	7.4	100.0(462)
출생 년도	1955~1959	5.8	2.5	4.9	3.5	12.3	30.1	35.4	5.6	100.0(608)
	1960~1963	7.4	3.7	6.6	6.4	13.0	26.9	30.3	5.7	100.0(59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3	1.3	3.3	1.0	9.3	38.3	37.0	7.3	100.0(300)
	고졸	3.1	1.4	4.5	4.1	10.7	33.9	36.8	5.4	100.0(484)
	초대졸 이상	13.6	6.2	8.9	8.6	17.2	15.3	25.4	4.8	100.0(418)
구	동구	2.0	2.0	3.0	2.0	12.5	36.5	34.5	7.5	100.0(200)
	중구	4.6	0.8	6.7	2.1	9.6	33.5	37.2	5.4	100.0(239)
	서구	11.7	1.7	7.2	5.9	9.7	22.1	38.6	3.1	100.0(290)
	유성구	9.7	9.3	6.2	7.9	10.6	21.1	27.8	7.5	100.0(227)
	대덕구	3.3	2.0	4.9	6.1	21.1	31.7	25.2	5.7	100.0(246)
전체		6.7(56)	3.6(30)	5.5(46)	5.8(48)	13.1(109)	26.8(223)	32.8(273)	5.8(48)	100.0(833)
소득	100만원 미만	1.8	0.0	10.5	0.0	3.5	38.6	36.8	8.8	100.0(57)
	200만원 미만	1.9	1.2	3.7	0.6	8.6	41.4	30.9	11.7	100.0(162)
	300만원 미만	2.3	0.0	1.7	3.4	13.6	35.8	37.5	5.7	100.0(176)
	400만원 미만	6.6	0.0	8.2	4.4	19.2	19.8	39.0	2.7	100.0(182)
	500만원 미만	17.1	2.7	9.9	6.3	16.2	18.9	27.0	1.8	100.0(111)
	600만원 미만	17.5	15.9	1.6	20.6	4.8	7.9	25.4	6.3	100.0(63)
	600만원 이상	7.3	18.3	4.9	15.9	15.9	11.0	23.2	3.7	100.0(82)

(4) 종사상 지위

2013년도 조사에서는,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베이비부머의 74.7%가 임금·봉급 근로자이며, 그 다음으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8.6%, 고용원을 둔 사업주 5.8%, 무급가족 종사자 1.3% 순이었다(표2-2-7).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고용원을 둔 사업주(남성 6.4%, 여성 4.6%)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남성 19.3%, 여성 16.9%)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임금·봉급 근로자(남성 73.4%, 여성 76.3%)와 무급가족 종사자(남성 0.8%, 여성 2.2%)는 낮았다. 출생년도에 따르면, 후기 베이비부머가 전기 베이비부머에 비해 임금·봉급 근로자(전기 베이비부머 72.3%, 후기 베이비부머 76.4%)의 비율이 높은 반면, 고용원을 둔 사업주(전기 베이비부머 6.7%, 후기 베이비부머 4.9%)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전기 베이비부머 19.7%, 후기 베이비부머 17.4%)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임금·봉급 근로자와 고용원을 둔

17) (직업이 있는 경우만) 귀하께서 일하는 직장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문항 43번)

사업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24.2%), 중학교 졸업 이하는 무급가족 종사자(2.1%)의 비율이 높았다. 구별로는 대덕구가 다른 구에 비해 임금·봉급 근로자의 비율이 79.6%로 높았으며, 고용원을 둔 사업주(2.8%)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6.4%)의 비율은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2013년 베이비부머의 종사상 지위는 여성이, 후기 베이비부머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덕구에서 임금·봉급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

〈 표 2-2-7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 종사상 지위(2013년)

(단위 : %, 명)

구분 ¹⁸⁾		임금·봉급 근로자	고용원을 둔 사업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전체
전체		74.4(934)	5.8(73)	18.6(233)	1.3(16)	100.0(1,256)
성별	남성	73.4	6.4	19.3	0.8	100.0(843)
	여성	76.3	4.6	16.9	2.2	100.0(413)
출생년도	1955~1959	72.3	6.7	19.7	1.3	100.0(629)
	1960~1963	76.4	4.9	17.4	1.3	100.0(627)
교육수준	중졸 이하	74.8	3.5	19.6	2.1	100.0(143)
	고졸	70.0	4.7	24.2	1.1	100.0(633)
	초대졸 이상	80.0	7.9	10.8	1.3	100.0(480)
구	동구	72.8	5.2	21.6	0.4	100.0(232)
	중구	70.9	7.2	20.3	1.7	100.0(237)
	서구	75.9	5.6	17.2	1.3	100.0(320)
	유성구	71.4	8.8	18.0	1.8	100.0(217)
	대덕구	79.6	2.8	16.4	1.2	100.0(250)
소득	전체	74.0(769)	6.4(66)	19.3(201)	0.3(3)	100.0(1,039)
	100만원 미만	86.2	3.4	10.3	0.0	100.0(29)
	200만원 미만	80.2	1.9	16.7	1.2	100.0(162)
	300만원 미만	72.7	6.5	20.8	0.0	100.0(245)
	400만원 미만	74.5	3.5	21.6	0.4	100.0(259)
	500만원 미만	68.8	8.7	22.5	0.0	100.0(173)
	600만원 미만	72.6	9.5	17.9	0.0	100.0(95)
	600만원 이상	72.4	17.1	10.5	0.0	100.0(76)

2014년도 조사에서는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베이비부머의 47.8%가 상용근로자였고, 그 다음으로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 18.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6.6%, 고용주 12.4%, 무급가족종사자 3.7% 등의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종사상 지위를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용주(남성 15.0%, 여성 8.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남성 18.6%, 여성

18) 귀하의 직장에서 지위는 무엇입니까? (문항 19-1-2번)

13.2%), 상용근로자(남성 51.5%, 여성 41.8%)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여성은 임시 및 일용근로자(남성 13.2%, 여성 27.1%)와 무급가족종사자(남성 0.7%, 여성 8.4%)와 같은 불안정한 종사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출생년도별로는 후기 베이비부머가 상용근로자(51.9%)의 비율이 높았으며, 전기 베이비부머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8.9%), 임시 및 일용근로자(19.1%), 무급가족종사자(4.3%) 등의 비율이 높았다.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상용근로자(62.9%)의 비율이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임시 및 일용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높았다. 구별로는 유성구에서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55.1%로 가장 높았으며, 동구와 대덕구는 각각 26.0%로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4년 베이비부머의 종사상 지위는 남성의 경우, 후기 베이비부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성구에서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

2014년도 조사에서는 2013년도에 비해 고용주 비율은 더 높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더 낮았다.

〈 표 2-2-8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 종사상 지위(2014년)

(단위 : %, 명)

구분 ¹⁹⁾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전체
전체		12.4(149)	16.6(199)	47.8(574)	18.6(223)	3.7(44)	1.1(13)	100.0(1,202)
성별	남성	15.0	18.6	51.5	13.2	0.7	0.9	100.0(740)
	여성	8.2	13.2	41.8	27.1	8.4	1.3	100.0(462)
출생 년도	1955~1959	12.8	18.9	43.8	19.1	4.3	1.2	100.0(608)
	1960~1963	12.0	14.1	51.9	18.0	3.0	1.0	100.0(59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0	22.0	30.0	32.7	5.0	0.3	100.0(300)
	고졸	11.4	18.6	45.7	19.4	4.1	0.8	100.0(484)
	초대졸 이상	15.3	10.3	62.9	7.4	2.2	1.9	100.0(418)
구	동구	10.0	19.5	43.0	26.0	1.5	0.0	100.0(200)
	중구	13.8	20.9	38.9	20.1	5.0	1.3	100.0(239)
	서구	11.7	16.2	53.1	12.8	5.9	0.3	100.0(290)
	유성구	15.0	13.7	55.1	9.7	3.1	3.5	100.0(227)
	대덕구	11.4	13.0	47.2	26.0	2.0	0.4	100.0(246)
소득	전체	14.3(119)	17.6(147)	49.9(416)	16.0(133)	1.1(9)	1.1(9)	100.0(833)
	100만원 미만	10.5	22.8	28.1	31.6	5.3	1.8	100.0(57)
	200만원 미만	10.5	17.3	29.0	40.1	1.9	1.2	100.0(162)
	300만원 미만	11.4	19.3	47.7	19.9	1.1	0.6	100.0(176)
	400만원 미만	12.6	24.2	57.1	5.5	0.5	0.0	100.0(182)
	500만원 미만	18.0	11.7	68.5	0.9	0.0	0.9	100.0(111)
	600만원 미만	19.0	12.7	61.9	3.2	0.0	3.2	100.0(63)
	600만원 이상	25.6	8.5	61.0	2.4	0.0	2.4	100.0(82)

(5) 비경제활동 사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물은 결과, 2013년도에는 87.9%가 주부, 12.1%는 무직·은퇴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2014년도에는 주부가 79.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무직·은퇴 19.0%, 학생 1.3% 순이었다. 2014년도에는 2013년도에 비해 주부의 비율은 8.2%p 낮아졌고 무직·은퇴의 비율은 6.9%p 높아졌다. 이는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전기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남성 베이비부머의 취업률은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표 2-2-9 〉 직업이 없는 사유

(단위 : %, 명)

구분 ²⁰⁾		학생	주부	무직·은퇴	전체
2013	전체	0.0(0)	87.9(550)	12.1(76)	100.0(626)
	성별	남성	0.0	0.0	100.0(50)
		여성	0.0	95.5	100.0(576)
	출생년도	1955~1959	0.0	84.9	100.0(371)
		1960~1963	0.0	92.2	100.0(255)
	교육수준	중졸 이하	0.0	85.5	100.0(124)
		고졸	0.0	88.5	100.0(375)
		초대졸 이상	0.0	88.2	100.0(127)
	구	동구	0.0	89.3	100.0(149)
		중구	0.0	81.1	100.0(111)
		서구	0.0	87.6	100.0(169)
		유성구	0.0	89.2	100.0(93)
		대덕구	0.0	92.3	100.0(104)
	소득	전체	0.0(0)	41.8(23)	58.2(32)
		100만원 미만	0.0	30.4	69.6
		200만원 미만	0.0	35.7	64.3
		300만원 미만	0.0	60.0	40.0
		400만원 미만	0.0	75.0	25.0
		500만원 미만	0.0	100.0	0.0
		600만원 미만	0.0	50.0	50.0
		600만원 이상	0.0	0.0	100.0

19) (직업이 있는 경우만) 귀하의 직업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문항 44번)

20)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2013년 문항 19번, 2014년 문항 42번)

구분 ²⁰⁾		학생	주부	무직·은퇴	전체
2014	전체	1.3(7)	79.7(445)	19.0(106)	100.0(558)
	성별	남성	6.7	92.4	100.0(105)
		여성	96.7	2.0	100.0(453)
	출생년도	1955~1959	80.6	18.2	100.0(335)
		1960~1963	78.5	20.2	100.0(223)
	교육수준	중졸 이하	79.6	19.4	100.0(206)
		고졸	84.6	14.1	100.0(241)
		초대졸 이상	69.4	28.8	100.0(111)
	구	동구	72.9	25.2	100.0(107)
		중구	79.4	20.6	100.0(102)
		서구	80.0	17.6	100.0(165)
		유성구	86.5	12.5	100.0(96)
		대덕구	80.7	19.3	100.0(88)
	소득	전체	53.1(93)	46.3(81)	100.0(175)
		100만원 미만	49.0	51.0	100.0(51)
		200만원 미만	54.8	45.2	100.0(42)
		300만원 미만	50.0	47.6	100.0(42)
		400만원 미만	53.3	46.7	100.0(15)
		500만원 미만	42.9	57.1	100.0(7)
		600만원 미만	66.7	33.3	100.0(6)
		600만원 이상	75.0	25.0	100.0(12)

2) 근로여건 만족도

(1) 직업만족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52.6%가 현재 하는 일에 만족(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9.6%에 비해 다수의 사람들이 현재 하는 일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2-10).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성의 만족도 평균 점수(3.60점)가 여성의 점수(3.32점)보다 높았다. 출생년도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하는 일에 만족도가 높아져 초대졸 이상 베이비부머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구별로 살펴보면 동구가 의 평균 점수(3.66점)가 가장 높았다.

< 표 2-2-10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는 일 만족도(2013년)

(단위 : %, 명, 점)

구분 ²¹⁾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5점 평균*
전체		9.0(113)	43.6(548)	37.8(475)	8.7(109)	0.9(11)	100.0(1,256)	3.51
성별	남성	10.6	47.9	33.7	7.1	0.7	100.0(843)	3.60
	여성	5.8	34.9	46.2	11.9	1.2	100.0(413)	3.32
출생년도	1955~1959	8.1	43.9	38.0	9.4	0.6	100.0(629)	3.49
	1960~1963	9.9	43.4	37.6	8.0	1.1	100.0(627)	3.53
교육수준	중졸 이하	4.2	27.3	46.9	19.6	2.1	100.0(143)	3.12
	고졸	5.8	42.5	40.8	9.6	1.3	100.0(633)	3.42
	초대졸 이상	14.6	50.0	31.3	4.2	0.0	100.0(480)	3.75
구	동구	15.1	45.7	30.2	8.6	0.4	100.0(232)	3.66
	중구	7.2	47.3	38.4	6.3	0.8	100.0(237)	3.54
	서구	9.1	37.2	41.9	10.3	1.6	100.0(320)	3.42
	유성구	6.0	38.7	41.0	12.9	1.4	100.0(217)	3.35
	대덕구	7.6	50.8	36.4	5.2	0.0	100.0(250)	3.61
소득	전체	9.6(100)	45.8(476)	35.5(369)	8.3(86)	0.8(8)	100.0(1,039)	3.55
	100만원 미만	0.0	10.3	55.2	34.5	0.0	100.0(29)	2.76
	200만원 미만	1.2	40.7	44.4	12.3	1.2	100.0(162)	3.28
	300만원 미만	6.1	48.6	34.3	9.4	1.6	100.0(245)	3.48
	400만원 미만	11.6	45.2	35.5	7.3	0.4	100.0(259)	3.60
	500만원 미만	11.6	53.8	30.1	4.6	0.0	100.0(173)	3.72
	600만원 미만	14.7	48.4	33.7	2.1	1.1	100.0(95)	3.74
	600만원 이상	25.0	42.1	27.6	5.3	0.0	100.0(76)	3.87

*매우 만족은 5점, 약간 만족은 4점, 보통은 3점, 약간 불만족은 2점, 매우 불만족은 1점으로 환산.

(2) 임금수준 만족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34.1%(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가 현재 임금수준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24.0%(매우 불만족 또는 약간 불만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임금수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2-11).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성의 만족도 평균 점수(3.21점)가 여성의 점수(2.93점)보다 높았다. 남성과 여성의 점수 차이가 직업만족도 차이보다 커서 여성의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낮음을 보여주었다. 출생년도별로는 후기 베이비부머 36.3%, 전기 베이비부머 31.9%가 임금수준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임금수준 만족도가 높았으며, 초대졸 이상 베이비부머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구별로 살펴보면 대덕구의 평균 점수(3.29점)가 가장 높았다.

21) 귀하가 다니는 직장의 근로여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문항 19-1-3번)

〈 표 2-2-11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금수준 만족도(2013년)

(단위 : %, 명, 점)

구분 ²²⁾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5점 평균*
전체		4.0(47)	30.1(357)	42.0(498)	21.7(257)	2.3(27)	100.0(1,186)	3.12
성별	남성	4.8	34.3	40.4	18.3	2.3	100.0(799)	3.21
	여성	2.3	21.4	45.2	28.7	2.3	100.0(387)	2.93
출생년도	1955~1959	2.9	29.0	42.0	23.6	2.5	100.0(593)	3.06
	1960~1963	5.1	31.2	42.0	19.7	2.0	100.0(593)	3.18
교육수준	중졸 이하	0.7	12.5	39.0	41.2	6.6	100.0(136)	2.60
	고졸	1.7	27.4	46.1	22.8	1.9	100.0(583)	3.04
	초대졸 이상	7.7	38.5	37.7	14.6	1.5	100.0(467)	3.36
구	동구	5.8	26.7	46.1	20.4	1.0	100.0(206)	3.16
	중구	4.0	26.5	47.1	19.7	2.7	100.0(223)	3.09
	서구	3.6	24.8	44.6	25.1	2.0	100.0(307)	3.03
	유성구	2.9	30.6	38.3	23.4	4.8	100.0(209)	3.03
	대덕구	3.7	42.7	33.6	18.7	1.2	100.0(241)	3.29
소득	전체	4.1(40)	32.6(321)	41.5(409)	19.7(194)	2.1(21)	100.0(985)	3.17
	100만원 미만	0.0	14.3	32.1	50.0	3.6	100.0(28)	2.57
	200만원 미만	1.3	18.7	47.7	27.7	4.5	100.0(155)	2.85
	300만원 미만	1.3	27.2	47.2	23.0	1.3	100.0(235)	3.04
	400만원 미만	2.1	36.2	43.6	15.6	2.5	100.0(243)	3.20
	500만원 미만	2.5	42.9	37.9	14.3	2.5	100.0(161)	3.29
	600만원 미만	12.4	41.6	30.3	15.7	0.0	100.0(89)	3.51
	600만원 이상	20.3	40.5	28.4	10.8	0.0	100.0(74)	3.70

*매우 만족은 5점, 약간 만족은 4점, 보통은 3점, 약간 불만족은 2점, 매우 불만족은 1점으로 환산.

(3) 고용안정성 만족도

먼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44.8%(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가 고용안정성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16.5%(매우 불만족 또는 약간 불만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고용안정성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2-12).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성의 만족도 평균 점수(3.40점)가 여성의 점수(3.22점)에 비해 약간 높았다. 출생년도별로는 후기 베이비부머 47.2%가 고용안정성에 만족하는 반면, 전기 베이비부머의 경우 42.5%가 만족하고 있어 연령대가 낮을수록 고용안정성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용안정성 만족도가 높았으며, 초대졸 이상 베이비부머의 평균 점수(3.59점)가 가장 높았다. 구별로 살펴보면 대덕구의 평균 점수(3.51점)가 가장 높았다.

22) 귀하가 다니는 직장의 근로여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문항 19-1-3번)

< 표 2-2-12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용안정성 만족도(2013년)

(단위 : %, 명, 점)

구분 ²³⁾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5점 평균*
전체		9.0(113)	35.8(450)	38.7(486)	13.6(171)	2.9(36)	100.0(1,256)	3.34
성별	남성	11.2	36.5	36.7	12.9	2.7	100.0(843)	3.40
	여성	4.6	34.4	42.9	15.0	3.1	100.0(413)	3.22
출생년도	1955~1959	8.6	33.9	39.7	15.4	2.4	100.0(629)	3.31
	1960~1963	9.4	37.8	37.6	11.8	3.3	100.0(627)	3.38
교육수준	중졸 이하	4.2	23.8	30.8	33.6	7.7	100.0(143)	2.83
	고졸	5.4	35.2	43.8	12.6	3.0	100.0(633)	3.27
	초대졸 이상	15.2	40.2	34.4	9.0	1.3	100.0(480)	3.59
구	동구	7.8	31.5	43.5	15.5	1.7	100.0(232)	3.28
	중구	11.4	32.9	38.0	15.6	2.1	100.0(237)	3.36
	서구	6.3	33.8	41.3	14.7	4.1	100.0(320)	3.23
	유성구	11.1	36.9	34.6	13.4	4.1	100.0(217)	3.37
	대덕구	9.6	44.4	35.2	8.8	2.0	100.0(250)	3.51
소득	전체	9.7(101)	35.9(373)	38.3(398)	13.3(138)	2.8(29)	100.0(1,039)	3.36
	100만원 미만	0.0	10.3	37.9	37.9	13.8	100.0(29)	2.45
	200만원 미만	1.2	21.0	51.2	23.5	3.1	100.0(162)	2.94
	300만원 미만	4.9	32.2	42.0	16.3	4.5	100.0(245)	3.17
	400만원 미만	7.3	39.0	40.2	12.0	1.5	100.0(259)	3.39
	500만원 미만	9.2	48.6	34.7	6.4	1.2	100.0(173)	3.58
	600만원 미만	28.4	45.3	21.1	3.2	2.1	100.0(95)	3.95
	600만원 이상	32.9	38.2	22.4	5.3	1.3	100.0(76)	3.96

*매우 만족은 5점, 약간 만족은 4점, 보통은 3점, 약간 불만족은 2점, 매우 불만족은 1점으로 환산.

(4) 근무환경 만족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46.8%(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가 근무환경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14.8%(매우 불만족 또는 약간 불만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근무환경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근로환경 만족도의 차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전기 베이비부머 46.0%, 후기 베이비부머 47.6%). 남성의 만족도 평균 점수(3.45점)가 여성의 점수(3.27점)보다 높았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무환경 만족도가 높아서 초대졸 이상 베이비부머의 평균 점수(3.64점)가 가장 높았다. 구별로 살펴보면 대덕구의 평균 점수(3.55점)가 가장 높았다.

23) 귀하가 다니는 직장의 근로여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문항 19-1-3번)

〈 표 2-2-13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 만족도(2013년)

(단위 : %, 명, 점)

구분 ²⁴⁾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5점 평균*
전체		9.3(116)	37.5(466)	38.4(477)	12.5(155)	2.3(29)	100.0(1,243)	3.39
성별	남성	10.8	39.0	37.0	10.5	2.6	100.0(835)	3.45
	여성	6.4	34.3	41.2	16.4	1.7	100.0(408)	3.27
출생년도	1955~1959	9.1	36.9	37.9	13.2	2.9	100.0(623)	3.36
	1960~1963	9.5	38.1	38.9	11.8	1.8	100.0(620)	3.42
교육수준	중졸 이하	2.8	25.4	43.0	21.1	7.7	100.0(142)	2.94
	고졸	6.6	36.6	40.0	14.3	2.6	100.0(623)	3.30
	초대졸 이상	14.9	42.3	34.9	7.5	0.4	100.0(478)	3.64
구	동구	6.6	33.8	47.8	9.2	2.6	100.0(228)	3.32
	중구	11.3	33.3	37.7	15.6	2.2	100.0(231)	3.36
	서구	8.8	33.6	39.3	16.0	2.2	100.0(318)	3.31
	유성구	9.2	41.9	35.0	10.1	3.7	100.0(217)	3.43
	대덕구	10.8	45.8	32.1	10.0	1.2	100.0(249)	3.55
전체		9.5(98)	37.9(389)	38.8(398)	11.3(116)	2.5(26)	100.0(1,027)	3.41
소득	100만원 미만	0.0	14.3	39.3	32.1	14.3	100.0(28)	2.54
	200만원 미만	0.0	24.8	50.3	21.1	3.7	100.0(161)	2.96
	300만원 미만	3.3	34.0	46.9	12.0	3.7	100.0(241)	3.21
	400만원 미만	9.0	38.8	40.8	10.2	1.2	100.0(255)	3.44
	500만원 미만	12.2	48.3	32.6	5.2	1.7	100.0(172)	3.64
	600만원 미만	24.2	50.5	18.9	5.3	1.1	100.0(95)	3.92
	600만원 이상	30.7	44.0	20.0	5.3	0.0	100.0(75)	4.00

*매우 만족은 5점, 약간 만족은 4점, 보통은 3점, 약간 불만족은 2점, 매우 불만족은 1점으로 환산.

(5) 근로시간 만족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43.7%(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가 근로시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16.2%(매우 불만족 또는 약간 불만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근로시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2-14). 남성의 만족도 평균 점수(3.41점)가 여성(3.18점)보다 높았다. 출생년도별로는 후기 베이비부머 46.1%가 근로시간에 만족하는 반면, 전기 베이비부머의 경우 41.3%가 만족하고 있어 연령대가 낮을수록 근로시간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시간 만족도가 높아서 초대졸 이상 베이비부머의 평균 점수(3.56점)가 가장 높았다. 구별로 살펴보면 대덕구의 평균 점수(3.54점)가 가장 높았다.

24) 귀하가 다니는 직장의 근로여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문항 19-1-3번)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하는 일’이 5점 만점 평균 3.5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근무환경’ 3.39점, ‘고용안정성’ 3.34점, ‘근로시간’ 3.33점, ‘임금수준’ 3.12점 순이었다.

직업에 대한 만족 비율을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하는 일’의 만족 비율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근무환경’ 46.8%, ‘고용안정성’ 44.8%, ‘근로시간’ 43.7%, ‘임금수준’ 34.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업 만족도의 불만족 요소로는 ‘임금수준’의 불만족 비율이 24.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고용안정성’ 16.5%, ‘근로시간’ 16.2%, ‘근무환경’ 14.8% 등의 순이었다.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직업 만족도는 남성의 경우, 후기 베이비부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덕구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 표 2-2-14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 만족도(2013년)

(단위 : %, 명, 점)

구분 ²⁵⁾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5점 평균*
전체		8.8(111)	34.9(438)	40.1(503)	13.1(165)	3.1(39)	100.0(1,256)	3.33
성별	남성	10.3	37.1	38.4	11.2	3.0	100.0(843)	3.41
	여성	5.8	30.3	43.3	17.2	3.4	100.0(413)	3.18
출생년도	1955~1959	8.4	32.9	41.7	12.9	4.1	100.0(629)	3.29
	1960~1963	9.3	36.8	38.4	13.4	2.1	100.0(627)	3.38
교육수준	중졸 이하	2.1	21.0	43.4	26.6	7.0	100.0(143)	2.85
	고졸	7.0	33.6	42.2	13.6	3.6	100.0(633)	3.27
	초대졸 이상	13.3	40.6	36.3	8.5	1.3	100.0(480)	3.56
구	동구	7.8	29.3	49.1	12.1	1.7	100.0(232)	3.29
	중구	10.5	30.8	41.4	14.8	2.5	100.0(237)	3.32
	서구	7.2	31.9	41.6	14.4	5.0	100.0(320)	3.22
	유성구	8.3	38.2	35.5	12.4	5.5	100.0(217)	3.31
	대덕구	10.8	44.8	32.4	11.6	0.4	100.0(250)	3.54
소득	전체	9.1(95)	34.9(363)	40.3(419)	12.6(131)	3.0(31)	100.0(1,039)	3.35
	100만원 미만	0.0	6.9	41.4	34.5	17.2	100.0(29)	2.38
	200만원 미만	0.0	18.5	57.4	19.8	4.3	100.0(162)	2.90
	300만원 미만	3.3	32.2	46.9	15.1	2.4	100.0(245)	3.19
	400만원 미만	6.6	40.2	40.9	10.0	2.3	100.0(259)	3.39
	500만원 미만	8.7	48.0	32.9	8.1	2.3	100.0(173)	3.53
	600만원 미만	31.6	37.9	20.0	8.4	2.1	100.0(95)	3.88
	600만원 이상	32.9	38.2	22.4	5.3	1.3	100.0(76)	3.96

*매우 만족은 5점, 약간 만족은 4점, 보통은 3점, 약간 불만족은 2점, 매우 불만족은 1점으로 환산.

25) 귀하가 다니는 직장의 근로여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문항 19-1-3번)

2. 구직현황

직장이 없는 베이비부머의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 비율은 8.8%에 불과하며, 91.2%가 ‘구해본 적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구해본 적 있다’라고 응답한 베이비부머 중 ‘대전 지역 내 일자지만 구해봤다’는 비율이 89.0%로 지역 내 일자리를 선호도가 매우 높았다.

〈 표 2-2-15 〉 구직활동 여부(2013년)

구분 ²⁶⁾	빈도	백분율
구해본 적 있다	55	8.8
대전 지역 내 일자지만 구해봤다	49	7.8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 일자리도 구해봤다	4	0.6
타 지역의 일자리만 구해봤다	2	0.3
구해본 적 없다	571	91.2
전체	626	100.0

구직 시 고려사항으로는 34.5%가 ‘보수는 낮더라도 업무시간이 짧은 일’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흥미와 적성이 맞는 일’ 16.4%, ‘소득이 더 높은 일’ 18.2%, ‘고용이 안정된 일’과 ‘이전에 하던 일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일’이 각각 9.1% 등의 순이었다(표2-2-16).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 구직자는 보수보다도 업무시간이나 흥미·적성 등의 요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베이비부머 중 여성과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전기 베이비부머가 많은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 표 2-2-16 〉 구직 시 고려사항(2013년)

구분 ²⁷⁾	빈도	백분율
보수는 낮더라도 업무시간이 짧은 일	19	34.5
소득이 더 높은 일	10	18.2
탄력적인 근로가 더 가능한 일	2	3.6
향후 경력에 도움이 되는 일	1	1.8
재택 근무가 가능한 일	3	5.5
흥미와 적성이 맞는 일	9	16.4
고용이 안정된 일	5	9.1
이전에 하던 일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일	5	9.1
기타	1	1.8
전체	55	100.0

26) 귀하는 최근 한 달간(2013년 8월 1일 ~ 2013년 8월 31일) 일자리를 구해보셨습니까? (문항 19-2-1번)

제3절 신체 및 정신건강

1. 건강관리

1주일 동안 신체건강을 위해 시행한 운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62.6%가 평소보다 숨이 차거나 약간의 땀이 나는 정도의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1주일 평균 운동일수는 3.2일이며, 1회 운동 시 평균 67.2분 정도를 할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4%였다.

성별에 따른 운동여부를 살펴보면,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남성 62.5%, 여성 62.6%로 비슷했다. 1주일 평균 운동일수는 남성 3.0일, 여성 3.4일이었으며, 1회 평균 운동시간은 남성 71.0분, 여성 63.6분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1주일 평균 운동일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지만, 1회 평균 투입하는 운동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출생년도별로 보면, 전기 베이비부머 63.1%, 후기 베이비부머 61.9%가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과 초대졸 이상은 운동을 한다는 비율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중졸 이하의 경우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50.8%)이 운동을 한다는 비율(49.2%)보다 높았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운동을 하고 있는 비율 역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1주일 평균 운동일수는 중졸 이하 3.6일, 고졸 3.2일, 초대졸 이상 3.0일로 나타나 중졸 이하의 1주일 평균 운동일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회 평균 운동시간은 중졸 이하 63.7분, 고졸 66.8분, 초대졸 이상 69.8분으로 초대졸 이상이 다른 교육수준군보다 상대적으로 운동 1회에 투입하는 시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구별로 살펴보면, 5개 구 모두 운동을 하고 있다는 비율이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보다 높았다. 유성구 70.9%, 대덕구 64.7%, 중구 61.6%, 동구 59.0%, 서구 58.2%로 유성구가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다른 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1주일 평균 운동일수는 5개 구 중 동구(3.4일)와 대덕구(3.4일)가 다른 구에 비해 많았다. 1회 평균 운동시간은 동구(70.6분)가 다른 구에 비해 길었다.

27) 귀하가 일자리를 구할 때 고려하는 것은? (문항 19-2-2번)

〈 표 2-3-1 〉 운동 여부(2014년)

(단위 : %, 명, 회, 분)

구분 ²⁸⁾		전체	하지 않는다	한다	1주 평균(일)	1회 평균(분)	χ^2
전체		100.0(1,760)	37.4(659)	62.6(1,101)	3.2	67.2	
성별	남성	100.0(845)	37.5	62.5	3.0	71.0	0.004
	여성	100.0(915)	37.4	62.6	3.4	63.6	
출생년도	1955~1959	100.0(943)	36.9	63.1	3.3	68.2	0.253
	1960~1963	100.0(817)	38.1	61.9	3.1	66.0	
교육수준	중졸 이하	100.0(506)	50.8	49.2	3.6	63.7	72.696***
	고졸	100.0(725)	37.1	62.9	3.2	66.8	
	초대졸 이상	100.0(529)	25.1	74.9	3.0	69.8	
구	동구	100.0(307)	41.0	59.0	3.4	70.6	15.684**
	중구	100.0(341)	38.4	61.6	3.2	69.7	
	서구	100.0(455)	41.8	58.2	3.0	64.0	
	유성구	100.0(323)	29.1	70.9	3.1	63.5	
	대덕구	100.0(334)	35.3	64.7	3.4	69.6	

*p<.05, **p<.01, ***p<.001

대전지역 베이비부머의 평소 주로 하는 운동(체육활동) 1순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걷기(54.6%)였다. 그 다음은 등산 17.8%, 헬스·에어로빅 9.2%, 자전거 4.7%, 수영 4.1% 등의 순이었다.

2순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등산(34.4%)이었다. 그 다음은 걷기 24.3%, 헬스·에어로빅 11.3%, 자전거 7.9%, 달리기 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에 2점, 2순위에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한 총점에 따르면, 걷기가 1,359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등산 614점, 헬스·에어로빅 275점, 자전거 155점, 수영 106점 등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대전지역 베이비부머는 평소에 걷거나 등산과 같은 야외 운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 지난 1주일 동안 평소보다 숨이 차거나 약간의 땀이 나는 정도의 운동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문항 1번)

〈 표 2-3-2 〉 주로 하는 운동(2014년)

구분 ²⁹⁾	1순위		2순위		총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총점	순위
걷기	601	54.6	157	24.3	1,359	1
헬스·에어로빅	101	9.2	73	11.3	275	3
등산	196	17.8	222	34.4	614	2
달리기	12	1.1	33	5.1	57	7
수영	45	4.1	16	2.5	106	5
배드민턴·테니스	12	1.1	9	1.4	33	11
요가	10	0.9	22	3.4	42	9
자전거	52	4.7	51	7.9	155	4
인라인	0	0.0	1	0.2	1	15
줄넘기·홀라후프	2	0.2	7	1.1	11	13
축구	14	1.3	8	1.2	36	10
농구	0	0.0	2	0.3	2	14
탁구	7	0.6	5	0.8	19	12
골프(연습포함)	32	2.9	24	3.7	88	6
기타	17	1.5	16	2.5	50	8

*총점=(1순위 빈도×2점)+(2순위 빈도×1점)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가 평소에 주로 하는 운동 1순위를 일반적 특성별로 자세히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주 운동 유형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걷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는데, 여성(61.4%)이 남성(47.2%)보다 평소에 걷기를 운동으로 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그 외에, 수영과 기타를 제외한 운동에서는 남성이 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전기 및 후기 베이비부머 모두 평소 걷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모든 교육수준군에서 걷기를 주 운동으로 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중졸 이하 67.9%, 고졸 52.9%, 초대졸 이상 48.2%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걷기를 운동으로 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아졌다. 헬스·에어로빅의 경우 초대졸 이상이 10.4%로 중졸 이하(6.8%), 고졸(9.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골프는 초대졸 이상의 비율(5.3%)이 중졸 이하(0.8%), 고졸(2.0%)보다 높았다.

구별로 살펴보면, 모든 구에서 걷기를 주 운동으로 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중구(63.8%)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 걷기를 주 운동으로 하고 있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대덕구는 등산(26.4%), 서구는 헬스·에어로빅(14.3%), 유성구는 골프(5.7%)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 내 체육시설과 소득 수준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9) 평소에 주로 하시는 운동(체육활동)은 무엇입니까? (문항 1-1번)

〈 표 2-3-3 〉 주로 하는 운동 1순위(2014년)

(단위 : % 명)

구분 ³⁰⁾		걷기	헬스· 에어로빅	등산	달리기	수영	배드민턴· 테니스	자전거	축구	골프	기타	전체	χ^2
전체		54.6 (601)	9.2 (101)	17.8 (196)	1.1 (12)	4.1 (45)	1.1 (12)	4.7 (52)	1.3 (14)	2.9 (32)	3.3 (36)	100.0 (1,101)	
성별	남성	47.2	9.3	20.5	1.9	2.5	1.5	7.2	2.7	5.3	2.1	100.0 (528)	81.289***
	여성	61.4	9.1	15.4	0.3	5.6	0.7	2.4	0.0	0.7	4.4	100.0 (573)	
출생 년도	1955~1959	56.1	8.6	17.5	0.8	4.4	0.5	5.0	0.7	2.5	3.9	100.0 (595)	12.227
	1960~1963	52.8	9.9	18.2	1.4	3.8	1.8	4.3	2.0	3.4	2.6	100.0 (50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7.9	6.8	11.2	1.2	4.0	1.2	3.2	0.0	0.8	3.6	100.0 (249)	44.935***
	고졸	52.9	9.4	19.5	0.9	4.4	0.4	5.3	1.5	2.0	3.7	100.0 (456)	
	초대졸 이상	48.2	10.4	19.9	1.3	3.8	1.8	5.1	1.8	5.3	2.5	100.0 (396)	
구	등구	56.9	7.7	17.1	2.8	2.8	1.1	7.2	1.1	1.1	2.2	100.0 (181)	77.863***
	중구	63.8	8.1	12.4	1.0	2.9	0.5	5.7	1.9	1.4	2.4	100.0 (210)	
	서구	52.5	14.3	18.1	0.0	4.9	0.4	3.8	1.5	1.5	3.0	100.0 (265)	
	유성구	54.6	6.6	14.8	1.7	4.8	3.1	4.4	0.0	5.7	4.4	100.0 (229)	
	대덕구	46.3	7.9	26.4	0.5	4.6	0.5	3.2	1.9	4.6	4.2	100.0 (216)	

*p<.05, **p<.01, ***p<.001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61.9%)였다. 그 다음은 귀찮고 하기 싫어서(24.9%), 건강문제(7.6%), 가까운 체육시설이 없어서(2.4%),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어서(1.4%),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0.9%) 등의 순이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녀 모두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 65.0%, 여성 59.1%로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귀찮고 하기 싫어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 역시 남성(25.2%)이 여성(24.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할 수 있는 운동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에서도 남성(1.9%)이 여성(0.9%)보다 높았

30) 평소에 주로 하시는 운동(체육활동)은 무엇입니까? (문항 1-1번)

다. 반면, 개인적인 건강문제로 인해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여성(9.4%)이 남성(5.7%)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가까운 체육시설이 없다는 물리적 이유로 인해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 역시 여성(3.5%)이 남성(1.3%)보다 높았다.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에서도 여성(1.5%)이 남성(0.3%)보다 높았다.

출생년도별로 보면, 전기 및 후기 베이비부머 모두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전기 베이비부머 63.2%, 후기 베이비부머 60.5%로 전기 베이비부머가 후기 베이비부머보다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귀찮고 하기 싫어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후기 베이비부머(29.3%)가 전기 베이비부머(21.0%)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특히 개인적인 건강문제로 인해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전기 베이비부머 9.2%, 후기 베이비부머 5.8%로 나타나, 베이비부머 내에서도 연령대가 높은 전기 베이비부머가 후기 베이비부머보다 상대적으로 건강문제로 인한 운동 활동의 제한이 더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모든 교육수준에서 바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고졸(65.1%)의 경우 바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귀찮고 하기 싫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초대졸 이상 30.1%, 고졸 24.9%, 중졸 이하 22.2%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개인적인 건강문제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졸 이하가 13.2%로 고졸 4.5%, 초대졸 이상 3.0%의 결과를 보여 중졸 이하가 다른 교육수준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구별로 살펴보면, 모든 구에서 바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구의 경우 바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69.5%로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귀찮고 하기 싫어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개 구 중 서구가 34.7%로 가장 높았다. 같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 역시 서구가 2.1%로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개인적인 건강문제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동구(12.7%)가 5개 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표 2-3-4 〉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2014년)

(단위 : %, 명)

구분 ³¹⁾	귀찮고 하기 싫어서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가까운 체육시설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어서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건강문제로	기타	전체
전체	24.9(164)	61.9(408)	2.4(16)	1.4(9)	0.9(6)	7.6(50)	0.9(6)	100.0(659)
성별								
남성	25.2	65.0	1.3	1.9	0.3	5.7	0.6	100.0(317)
여성	24.6	59.1	3.5	0.9	1.5	9.4	1.2	100.0(342)
출생 년도								
1955~1959	21.0	63.2	3.4	1.4	1.1	9.2	0.6	100.0(348)
1960~1963	29.3	60.5	1.3	1.3	0.6	5.8	1.3	100.0(31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2.2	57.6	3.1	1.9	1.2	13.2	0.8	100.0(257)
고졸	24.9	65.1	2.6	1.5	0.4	4.5	1.1	100.0(269)
초대졸 이상	30.1	63.9	0.8	0.0	1.5	3.0	0.8	100.0(133)
구								
동구	19.8	60.3	4.8	0.8	0.8	12.7	0.8	100.0(126)
중구	18.3	69.5	3.1	0.0	0.8	7.6	0.8	100.0(131)
서구	34.7	53.7	1.1	2.1	2.1	5.8	0.5	100.0(190)
유성구	26.6	62.8	2.1	2.1	0.0	4.3	2.1	100.0(94)
대덕구	20.3	67.8	1.7	1.7	0.0	7.6	0.8	100.0(118)

2.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1) 의료시설 이용

지난 1년간 이용한 의료시설은 병(의)원이 73.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종합병원 12.6%, 약국 5.2%, 한의원(한방병원) 4.5%, 치과 병(의)원 3.0%, 보건소 0.7% 등이었다.

성별에 따른 주 이용 의료시설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지난 1년간 병(의)원을 가장 많이 이용했는데, 주 이용 의료시설을 약국으로 응답한 비율은 남성 6.6%, 여성 3.9%로 남성이 상대적으로 약국을 더 많이 이용하였다.

출생년도별로 보면, 전기 및 후기 베이비부머 모두 병(의)원을 주 이용 의료시설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 비율은 전기 베이비부머가 약간 더 높았다(전기 베이비부머 74.7%, 후기 베이비부머 72.3%).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 고졸, 초대졸 이상 베이비부머 모두 병(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는데, 중졸 이하 75.9%, 고졸 75%, 초대졸 이상 69.4%로 교육수준이 낮을

31) 그림 운동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 1-2번)

수록 병(의)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치과 병(의)원 이용률은 중졸 이하 1.6%, 고졸 2.1%, 초대졸 이상 5.7%로 초대졸 이상 베이비부머의 치과 병(의)원 이용률이 다른 교육수준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치아관리를 빈번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약국 이용률 역시 중졸 이하 4.3%, 고졸 4.3%, 초대졸 이상 7.4%로 초대졸 이상이 다른 교육수준군보다 상대적으로 약국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별로 살펴보면, 5개 구 모두 병(의)원 이용률이 높았다. 병(의)원 이용률은 대덕구 80.2%, 서구 76.7%, 중구 72.1%, 동구 69.7%, 유성구 67.5%로 대덕구의 병(의)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모든 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이용률을 보인 것은 종합병원이었다. 종합병원 이용률은 유성구 14.9%, 중구 14.4%, 동구 14.3%, 서구 12.3%, 대덕구 7.5%로 유성구가 가장 높았다. 또한 약국의 경우 동구가 10.1%로 다른 구에 비해 그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2-3-5 〉 지난 1년간 이용한 의료시설(2014년)

(단위 : %, 명)

구분 ³²⁾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 병(의)원	한의원 (한방병원)	보건소	약국	기타	전체
전체		12.6(222)	73.6(1,295)	3.0(53)	4.5(79)	0.7(12)	5.2(92)	0.4(7)	100.0(1,760)
성별	남성	13.8	70.8	4.0	3.7	0.6	6.6	0.5	100.0(845)
	여성	11.5	76.2	2.1	5.2	0.8	3.9	0.3	100.0(915)
출생 년도	1955~1959	11.9	74.7	2.1	5.2	1.1	4.7	0.4	100.0(943)
	1960~1963	13.5	72.3	4.0	3.7	0.2	5.9	0.4	100.0(81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2.5	75.9	1.6	4.5	1.2	4.3	0.0	100.0(506)
	고졸	12.8	75.0	2.1	5.1	0.0	4.3	0.7	100.0(725)
	초대졸 이상	12.5	69.4	5.7	3.6	1.1	7.4	0.4	100.0(529)
구	동구	14.3	69.7	1.3	4.6	0.0	10.1	0.0	100.0(307)
	중구	14.4	72.1	3.8	4.1	0.9	4.4	0.3	100.0(341)
	서구	12.3	76.7	2.9	3.5	0.4	4.2	0.0	100.0(455)
	유성구	14.9	67.5	4.6	4.6	2.2	5.3	0.9	100.0(323)
	대덕구	7.5	80.2	2.4	6.0	0.0	3.0	0.9	100.0(334)

2) 의료서비스 만족도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3점으로 ‘다소 만족’ 수준이었다.

32) 귀하가 대전시 내에서 주로 이용하시는 의료시설은 무엇입니까? (문항 2번)

성별에 따른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평균 3.61점, 여성은 3.64점인 것으로 나타나, 평균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여성의 만족도가 좀 더 높았다.

출생년도별로 살펴보면, 전기 베이비부머는 평균 3.67점, 후기 베이비부머는 3.57점으로 전기 베이비부머의 만족도가 약간 높았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는 평균 3.67점, 고졸은 3.61점, 초대졸 이상은 3.61점으로 평균점 기준으로 중졸 이하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구별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덕구는 평균 3.69점으로 5개 구 중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서구(3.65점), 중구(3.60점), 동구와 유성구(3.59점)였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만족 비율은 동구 52.4%, 중구 51.3%, 서구 57.3%, 유성구 52.4%, 대덕구 57.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5개 구 중 서구 베이비부머들의 의료서비스 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표 2-3-6 〉 의료서비스 만족도(2014년)

(단위: %, 명, 점)

구분 ³³⁾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이다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5점 평균*
전체		13.4(236)	41.0(721)	40.9(720)	4.3(75)	0.5(8)	100.0(1,760)	3.63
성별	남성	12.7	40.1	42.8	4.0	0.4	100.0(845)	3.61
	여성	14.1	41.7	39.1	4.5	0.5	100.0(915)	3.64
출생년도	1955~1959	15.9	40.3	39.2	4.3	0.2	100.0(943)	3.67
	1960~1963	10.5	41.7	42.8	4.2	0.7	100.0(817)	3.57
교육수준	중졸 이하	17.0	39.5	37.9	4.9	0.6	100.0(506)	3.67
	고졸	13.2	40.1	41.4	4.6	0.7	100.0(725)	3.61
	초대졸 이상	10.2	43.5	43.1	3.2	0.0	100.0(529)	3.61
구	동구	12.7	39.7	41.7	5.5	0.3	100.0(307)	3.59
	중구	11.7	39.6	45.7	2.3	0.6	100.0(341)	3.60
	서구	13.8	43.5	36.7	5.3	0.7	100.0(455)	3.65
	유성구	11.5	40.9	43.7	3.7	0.3	100.0(323)	3.59
	대덕구	17.1	40.1	38.3	4.2	0.3	100.0(334)	3.69

*매우 만족은 5점, 약간 만족은 4점, 보통이다는 3점, 약간 불만족은 2점, 매우 불만족은 1점으로 환산.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이유 중 1순위로는 27.7%가 ‘높은 의료비(약값)’을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미흡한 치료결과 20.5%, 불성실한 진료 15.7%, 불친절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높은 의료비(약값) 문제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대전지

33) 주 이용 의료시설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항 2-1번)

역 베이비부머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대전 시민 복지욕구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대전복지재단 소식지 2015년 7월호 “연구, 업사이클링 : 메르스 사태가 보여준 공공의료서비스의 중요성”).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중 2순위를 묻는 조사결과에서는 ‘미흡한 치료결과’가 26.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필요이상의 진료(검사 등) 16.7%, 긴 진료대기 및 입원대기 시간 15.0%, 낙후되거나 미비한 의료서비스 15.0% 등의 순이었다. 이를 통해 대전지역 베이비부머는 의료서비스 이용 대비 치료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1순위에 2점, 2순위에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한 총점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로는 ‘높은 의료비(약값)’가 51점으로 총점 기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미흡한 치료결과(50점), 불성실한 진료(32점), 불친절(21점) 등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대전지역 베이비부머는 높은 의료비(약값)와 미흡한 치료결과 등의 이유로 의료서비스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2-3-7 〉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2014년)

구분 ³⁴⁾	1순위		2순위		총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총점	순위
불친절하다	10	12.0	1	1.7	21	4
의료비(약값)가 높다	23	27.7	5	8.3	51	1
치료결과가 미흡하다	17	20.5	16	26.7	50	2
진료가 불성실하다	13	15.7	6	10.0	32	3
진료대기 및 입원대기 시간이 길다	5	6.0	9	15.0	19	6
의료시설이 낙후되거나 미비하다	5	6.0	9	15.0	19	6
필요이상으로 진료(검사 등)를 많이 한다	5	6.0	10	16.7	20	5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2	2.4	3	5.0	7	8
기타	3	3.6	1	1.7	7	8

*총점=(1순위 빈도×2점)+(2순위 빈도×1점)

3.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 경험

대전지역 베이비부머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경험에 대한 10점 만점 기준 평균점은 다음과 같다(표 2-3-8). 먼저 주관적 행복감의 경우 2013년은 10점 만점 기준 평균 6.81점으로 ‘다소 그렇다’ 수준이었고, 2014년의 주관적 행복감은 평균 5.79점으로 2013년보다

34)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 2-2)

하락한 ‘보통’ 수준이었다.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 경험을 묻는 문항 중 대전지역 베이비부머의 근심 또는 걱정 정도의 경우 2013년은 10점 만점 평균 3.59점으로 ‘그렇지 않다’ 수준이었다. 2014년은 평균 4.22점으로 2013년보다는 약간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다’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 경험을 묻는 문항 중 대전지역 베이비부머의 우울감을 살펴보면, 2013년은 10점 만점 기준 평균 3.40점으로 ‘그렇지 않다’ 수준에 해당하였다. 2014년의 우울감은 평균 3.80점으로 근심 또는 걱정과 마찬가지로 2013년보다는 약간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다’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대전지역 베이비부머의 삶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보면, 2013년의 경우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정도는 10점 만점 기준 평균 6.33점으로 ‘다소 그렇다’ 의 수준이었다. 2014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5.51점으로 2013년보다 하락한 ‘보통’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대전지역 베이비부머의 일에 대한 가치를 느끼는 정도를 살펴보면, 2013년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느끼는 정도가 10점 만점 평균 기준 6.49점으로 ‘다소 그렇다’ 수준이었다. 2014년은 그 평균점이 2013년보다 하락한 5.66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 표 2-3-8 〉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경험

(단위: 점수)

구분 ³⁵⁾	주관적 행복감	근심 또는 걱정	우울감	삶에 대한 만족도	하는 일에 대한 가치
2013	6.81	3.59	3.40	6.33	6.49
2014	5.79	4.22	3.80	5.51	5.66

주) 점/10점 만점 평균

35)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셨습니까?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십니까?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3' 31번, 2014' 35번 동일문항)

〈 표 2-3-9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차이

구분 ³⁶⁾		n	평균	S. D.	t/F
2013	전체	1,882	6.81	1.391	
	성별	남성	893	6.90	2.850**
		여성	989	6.72	
	출생 년도	1955~1959	1,000	6.77	-1.315
		1960~1963	882	6.85	
	교육 수준	중졸 이하(a)	267	6.43	16.948*** [a<b<c]
		고졸(b)	1,008	6.78	
		초대졸 이상(c)	607	7.02	
	구	동구(a)	381	7.12	12.875*** [a>b, c, d c<e]
		중구(b)	348	6.73	
		서구(c)	489	6.51	
		유성구(d)	310	6.75	
		대덕구(e)	354	7.01	
2014	전체	1,760	5.79	1.850	
	성별	남성	845	5.73	-1.271
		여성	915	5.85	
	출생 년도	1955~1959	943	5.82	0.700
		1960~1963	817	5.76	
	교육 수준	중졸 이하(a)	506	5.61	17.606*** [c>a, b]
		고졸(b)	725	5.63	
		초대졸 이상(c)	529	6.19	
	구	동구(a)	307	6.11	6.626*** [a, c>b, e]
		중구(b)	341	5.53	
		서구(c)	455	5.98	
		유성구(d)	323	5.72	
		대덕구(e)	334	5.57	

*p<.05, **p<.01, ***p<.001

36) 귀하는 가족관계에 있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4번)

〈 표 2-3-10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심 또는 걱정 차이

구분 ³⁷⁾		n	평균	S.D.	t/F
2013	전체	1,882	3.59	1.875	
	성별	남성	893	3.61	0.508
		여성	989	3.57	
	출생 년도	1955~1959	1,000	3.60	0.367
		1960~1963	882	3.57	
	교육 수준	중졸 이하(a)	267	3.75	1.620
		고졸(b)	1,008	3.59	
		초대졸 이상(c)	607	3.50	
	구	동구(a)	381	3.05	19.562*** [a<c, d<b, e]
		중구(b)	348	4.16	
		서구(c)	489	3.44	
		유성구(d)	310	3.50	
		대덕구(e)	354	3.87	
2014	전체	1,760	4.22	2.077	
	성별	남성	845	4.33	2.144*
		여성	915	4.12	
	출생 년도	1955~1959	943	4.13	-1.899
		1960~1963	817	4.32	
	교육 수준	중졸 이하(a)	506	4.19	1.413
		고졸(b)	725	4.32	
		초대졸 이상(c)	529	4.12	
	구	동구(a)	307	3.94	13.418*** [a, b, c<d, e]
		중구(b)	341	4.20	
		서구(c)	455	3.81	
		유성구(d)	323	4.61	
		대덕구(e)	334	4.69	

*p<.05, **p<.01, ***p<.001

37) 귀하는 가족관계에 있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4번)

〈 표 2-3-11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 차이

구분 ³⁸⁾		n	평균	S.D.	t/F
2013	전체	1,882	3.40	1.860	
	성별				
	남성	893	3.36	1.864	-0.804
	여성	989	3.43	1.857	
	출생 년도				
	1955~1959	1,000	3.43	1.859	0.770
	1960~1963	882	3.36	1.862	
	교육 수준				
	중졸 이하(a)	267	3.52	1.872	1.494
	고졸(b)	1,008	3.42	1.828	
	초대졸 이상(c)	607	3.30	1.904	
2014	구				
	동구(a)	381	3.08	1.453	14.257*** [b]a, c, d e]a, c]
	중구(b)	348	3.94	2.217	
	서구(c)	489	3.18	1.945	
	유성구(d)	310	3.25	1.761	
	대덕구(e)	354	3.64	1.686	
	전체	1,760	3.80	2.256	
	성별				
	남성	845	3.80	2.260	0.071
	여성	915	3.79	2.254	
	출생 년도				
	1955~1959	943	3.69	2.268	-2.156*
	1960~1963	817	3.92	2.237	
	교육 수준				
	중졸 이하(a)	506	3.90	2.177	5.246** [c]a, b]
	고졸(b)	725	3.92	2.262	
	초대졸 이상(c)	529	3.53	2.304	
	구				
	동구(a)	307	3.42	2.331	14.919*** [a, c]b, d, e]
	중구(b)	341	3.94	2.382	
	서구(c)	455	3.30	2.064	
	유성구(d)	323	4.19	2.095	
	대덕구(e)	334	4.30	2.272	

*p<.05, **p<.01, ***p<.001

38) 귀하는 가족관계에 있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4번)

〈 표 2-3-12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

구분 ³⁹⁾		n	평균	S. D.	t/F
2013	전체	1,882	6.33	1.447	
	성별	남성	893	6.42	2.755**
		여성	989	6.24	
	출생 년도	1955~1959	1,000	6.27	-1.750
		1960~1963	882	6.39	
	교육 수준	중졸 이하(a)	267	6.06	8.887*** [c>a, b]
		고졸(b)	1,008	6.29	
		초대졸 이상(c)	607	6.50	
	구	동구(a)	381	6.45	13.209*** [a>c e>b, c, d]
		중구(b)	348	6.14	
		서구(c)	489	6.06	
		유성구(d)	310	6.35	
		대덕구(e)	354	6.72	
2014	전체	1,760	5.51	1.843	
	성별	남성	845	5.48	-0.565
		여성	915	5.53	
	출생 년도	1955~1959	943	5.56	1.444
		1960~1963	817	5.44	
	교육 수준	중졸 이하(a)	506	5.28	19.346*** [c>a, b]
		고졸(b)	725	5.36	
		초대졸 이상(c)	529	5.91	
	구	동구(a)	307	5.77	5.402*** [a>b, e]
		중구(b)	341	5.23	
		서구(c)	455	5.64	
		유성구(d)	323	5.59	
		대덕구(e)	334	5.28	

*p<.05, **p<.01, ***p<.001

39) 귀하는 가족관계에 있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4번)

< 표 2-3-13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는 일에 대한 가치 차이

구분 ⁴⁰⁾		n	평균	S. D.	t/F
2013	전체	1,882	6.49	1.439	
	성별	남성	893	6.64	4.243***
		여성	989	6.36	
	출생 년도	1955~1959	1,000	6.46	-0.932
		1960~1963	882	6.52	
	교육 수준	중졸 이하(a)	267	6.05	29.807*** [a<b<c]
		고졸(b)	1,008	6.42	
		초대졸 이상(c)	607	6.81	
	구	동구(a)	381	6.51	15.858*** [e>a, b, c, d]
		중구(b)	348	6.34	
		서구(c)	489	6.22	
		유성구(d)	310	6.52	
		대덕구(e)	354	6.97	
2014	전체	1,760	5.66	1.918	
	성별	남성	845	5.69	0.595
		여성	915	5.63	
	출생 년도	1955~1959	943	5.69	0.663
		1960~1963	817	5.62	
	교육 수준	중졸 이하(a)	506	5.38	21.264*** [c>a, b]
		고졸(b)	725	5.53	
		초대졸 이상(c)	529	6.10	
	구	동구(a)	307	5.91	3.889** [a>e]
		중구(b)	341	5.51	
		서구(c)	455	5.82	
		유성구(d)	323	5.57	
		대덕구(e)	334	5.44	

*p<.05, **p<.01, ***p<.001

40) 귀하는 가족관계에 있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4번)

제4절 가족

1. 가족생활

1) 분거 가족

분거 유무를 살펴보면, 분거가족 있음이 18.7%, 없음이 81.3%로 대부분의 베이비부머가 분거 가족이 없었다.

배우자의 경우, 분거의 가장 큰 이유는 직장(직업)이 67.9%로 가장 높았고, 가족 간 불화(별거 등)와 자녀교육 지원이 각각 10.7% 순이었다. 자녀의 분거 이유 역시 직장(직업)이 47.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학업(학교, 취직 준비 등) 36.8%, 군대 12.0% 순이었다.

분거 기간은 배우자의 경우, 5년 이상이 32.1%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의 분거 기간은 12개월 미만이 27.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2년 미만(23.4%), 3년 미만(15.9%), 5년 미만(12.3%) 순이었다.

〈 표 2-4-1 〉 타 지역 가족 유무(2013년)

구분 ⁴¹⁾	빈도	백분율
있다	205	18.7
없다	889	81.3
전체	1,094	100.0

〈 표 2-4-2 〉 분거 이유(2013년)

구분 ⁴²⁾	배우자		자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직장(직업)	19	67.9	118	47.2
학업(학교, 취직준비 등)	1	3.6	92	36.8
가족 간 불화(별거 등)	3	10.7	4	1.6
건강상의 이유(요양 등)	1	3.6	3	1.2
자녀교육 지원	3	10.7	0	0.0
군대	0	0.0	30	12.0
기타	1	3.6	3	1.2
전체	28	100.0	250	100.0

주)자녀는 다중응답.

41)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사는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있습니까? (1번)

〈 표 2-4-3 〉 분거기간(2013년)

구분 ⁴³⁾	배우자		자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6개월 미만	2	7.1	25	9.9
12개월 미만	2	7.1	68	27.0
2년 미만	3	10.7	59	23.4
3년 미만	6	21.4	40	15.9
5년 미만	6	21.4	31	12.3
5년 이상	9	32.1	29	11.5
전체	28	100.0	252	100.0

주)자녀는 다중응답.

2) 가사 분담 현황

가사 분담 현황을 살펴보면,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가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보면, 남성의 경우에 부인이 주로하고 도와준다가 44.1%, 여성의 경우에는 본인이 주로하고 남편이 도와준다가 50.1%로 나타나 대부분의 집안일을 부인이 주로하거나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가 많았고, 구별로는 서구가 40.1%로 가장 높고, 대덕구가 22.0%로 가장 낮았다.

〈 표 2-4-4 〉 가사 분담 현황(2013년)

(단위 : %, 명)

구분 ⁴⁴⁾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공평하게 분담한다	내가 주로하고 부인(남편)이 도와준다	부인(남편)이 주로하고 내가 도와준다	해당없음	전체	χ^2
전체	32.8(617)	0.7(13)	8.1(152)	28.0(527)	22.5(423)	8.0(150)	100.0(1,882)	
성별								754.876***
남성	37.6	1.1	8.7	3.6	44.1	4.8	100.0(893)	
여성	28.4	0.3	7.5	50.1	2.9	10.8	100.0(989)	
출생								5.827
1955~1959	35.0	0.7	7.5	26.5	22.3	8.0	100.0(1,000)	
1960~1963	30.3	0.7	8.7	29.7	22.7	7.9	100.0(882)	
교육								101.345***
수준								
중졸 이하	30.0	0.7	8.6	34.1	9.4	17.2	100.0(267)	
고졸	31.2	0.8	8.7	30.8	21.0	7.5	100.0(1,008)	
초대졸 이상	36.7	0.5	6.8	20.8	30.6	4.6	100.0(607)	
구								94.511***
동구	23.6	0.5	9.2	31.0	24.7	11.0	100.0(381)	
중구	37.6	1.4	4.9	26.7	21.6	7.8	100.0(348)	
서구	40.1	0.4	11.5	23.9	17.2	7.0	100.0(489)	
유성구	39.4	0.6	5.8	29.4	17.1	7.7	100.0(310)	
대덕구	22.0	0.6	7.3	30.5	33.1	6.5	100.0(354)	

*p<.05, **p<.01, ***p<.001

42)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1-2번)

43)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기간(1-3번)

〈 표 2-4-5 〉 직업이 없는 경우 가사 분담 현황(2013년)

(단위 : %, 명)

구분 ⁴⁵⁾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공평하게 분담한다	내가 주로하고 부인(남편)이 도와준다	부인(남편)이 주로하고 내가 도와준다	해당없음	전체
전체	26.7(167)	0.5(3)	6.1(38)	56.1(351)	5.9(37)	4.8(30)	100.0(626)
주부	27.3	0.5	5.6	61.3	2.7	2.5	100.0(550)
무직, 은퇴	22.4	0.0	9.2	18.4	28.9	21.1	100.0(76)

2. 가족관계

1)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약간 만족이 50.5%, 매우 만족이 27.2%, 보통이 20.9% 순이었으며, 이는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77.7%가 가족관계에 만족(매우 만족, 약간 만족)하고 있으며, 5점 만점 평균 4.03점으로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수준이다. 이는 대전 시민 전체보다 높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4.10점, 여성은 3.97점으로 상대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만족도가 높으며, 출생년도에 따라서는 후기 베이비부머가 4.08점으로 전기 베이비부머 3.99점보다 높았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중졸 이하 3.84점, 고졸 3.97점, 초대졸 이상 4.21점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구에 따라서는 대덕구가 4.16점으로 가장 높고, 동구와 중구가 3.97점으로 가장 낮았다.

44) 귀댁은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하고 계시는지요? (3번)

45) 귀댁은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하고 계시는지요? (3번)

〈 표 2-4-6 〉 가족관계 만족도(2013년)

(단위 : %, 명)

구분 ⁴⁶⁾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전체		27.2(512)	50.5(950)	20.9(393)	1.2(23)	0.2(4)	100.0(1,882)
성별	남성	32.0	47.1	19.5	1.1	0.2	100.0(893)
	여성	22.9	53.5	22.1	1.3	0.2	100.0(989)
출생년도	1955~1959	24.7	50.8	23.1	1.3	0.1	100.0(1,000)
	1960~1963	30.0	50.1	18.4	1.1	0.3	100.0(882)
교육수준	중졸 이하	19.5	47.2	31.8	1.1	0.4	100.0(267)
	고졸	23.0	53.7	21.3	1.7	0.3	100.0(1,008)
	초대졸 이상	37.6	46.6	15.3	0.5	0.0	100.0(607)
구	동구	24.4	49.6	24.9	1.0	0.0	100.0(381)
	중구	21.6	55.2	22.4	0.6	0.3	100.0(348)
	서구	29.2	46.6	21.7	2.2	0.2	100.0(489)
	유성구	21.9	61.6	15.2	1.0	0.3	100.0(310)
	대덕구	37.6	42.4	18.9	0.8	0.3	100.0(354)

〈 표 2-4-7 〉 가족관계 만족도 차이(2013년)

구분 ⁴⁷⁾		n	평균	S. D.	t/F
전체		1,882	4.03	0.740	
성별	남성	893	4.10	0.756	3.560***
	여성	989	3.97	0.722	
출생년도	1955~1959	1,000	3.99	0.734	-2.836**
	1960~1963	882	4.08	0.744	
교육수준	중졸 이하(a)	267	3.84	0.754	30.788*** [a<b<c]
	고졸(b)	1,008	3.97	0.733	
	초대졸 이상(c)	607	4.21	0.710	
구	동구(a)	381	3.97	0.732	3.905** [e>a, b]
	중구(b)	348	3.97	0.699	
	서구(c)	489	4.02	0.786	
	유성구(d)	310	4.04	0.662	
	대덕구(e)	354	4.16	0.775	

*p<.05, **p<.01, ***p<.001

2) 가족 간의 식사

베이비부머의 가족 간의 식사 횟수를 알아본 결과, 매일 1끼 이상이 44.5%로 가장 많았고, 1주일에 2~3회가 26.1%, 1달에 2~3회 8.5%, 거의 없음이 8.3% 순이었다. 이를 좀

46) 귀하는 가족관계에 있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4번)

47) 귀하는 가족관계에 있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4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 매일 1끼 이상이 남성은 48.1%, 여성은 34.0%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매끼, 매일 1끼 이상, 1주일에 2~3회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구별로는 매일 1끼 이상을 서구가 50.4%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4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표 2-4-8 〉 가족 간의 식사횟수(2014년)

(단위 : %, 명)

구분 ⁴⁸⁾		매끼	매일 1끼 이상	1주일에 2~3회	1주일에 1회	1달에 2~3회	거의 없음	전체
전체		4.8(48)	44.5(449)	26.1(263)	7.7(78)	8.5(86)	8.3(84)	100.0(1,008)
성별	남성	5.2	48.1	26.6	6.9	6.9	6.4	100.0(755)
	여성	3.6	34.0	24.5	10.3	13.4	14.2	100.0(253)
출생년도	1955~1959	4.7	45.1	24.6	7.3	9.2	9.0	100.0(532)
	1960~1963	4.8	43.9	27.7	8.2	7.8	7.6	100.0(476)
교육수준	중졸 이하	3.9	41.3	22.6	9.1	8.7	14.3	100.0(230)
	고졸	3.4	43.0	27.1	8.6	9.8	8.1	100.0(409)
	초대졸 이상	6.8	48.2	27.1	6.0	7.0	4.9	100.0(369)
구	동구	3.6	42.8	19.3	8.4	14.5	11.4	100.0(166)
	중구	6.7	40.5	26.7	10.8	7.2	8.2	100.0(195)
	서구	4.3	50.4	26.4	5.1	7.1	6.7	100.0(254)
	유성구	5.3	46.0	27.3	5.9	9.1	6.4	100.0(187)
	대덕구	3.9	41.3	29.6	9.2	6.3	9.7	100.0(206)

48) 귀댁은 얼마나 자주 가족과 함께 모여(최소2명 이상)식사(아침, 점심, 저녁)를 하십니까? (30번)

제5절 교육 및 여가생활

1. 평생교육

1) 교육기회 충족도

분석대상 베이비부머 중 자신이 원하는 수준까지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63.3%,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 받았다는 응답은 9.6%인 반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였다는 비율은 27.2%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교육기회를 충족하였다는 의견이 69.9%, 원하는 만큼 교육기회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 22.1%를 차지하였지만, 여성의 57.3%는 자신이 원하는 수준까지 교육기회를 충족하였고, 31.7%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교육기회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여 남성의 교육기회 충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출생년도별로 살펴보면, 전기 베이비부머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교육기회를 충족하였다는 응답이 59.9%, 원하는 만큼 교육받지 못하였다는 응답은 30.0%였고 후기 베이비부머는 자신이 원하는 수준까지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67.1%, 자신이 원하는 만큼 교육받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23.9%로 연령이 낮은 후기 베이비부머가 전기 베이비부머보다 자신이 원하는 교육기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자신이 원하는 수준까지 교육기회를 충족하였다는 의견은 중졸 이하 30.3%, 고졸 58.1%, 초대졸 이상 86.3%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교육기회 충족도 역시 높아졌다. 특히 중졸이하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만큼 교육 받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59.6%로 50%가 넘었다.

구별로 살펴보면, 교육기회 충족도는 유성구 70.3%, 동구 68.8%, 대덕구 68.4%, 서구 61.1%, 중구 48.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구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30.2%,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 받았다는 응답이 21.0%로 다른 구보다 높았다.

〈 표 2-5-1 〉 교육기회 충족도(2013년)

(단위 : %, 명)

구분 ⁴⁹⁾		그렇다	원하는 것보다 더 받고 있거나, 받았다	원하는 만큼 못 받았다	전체
전체		63.3(1,191)	9.6(180)	27.2(511)	100.0(1,882)
성별	남성	69.9	8.1	22.1	100.0(893)
	여성	57.3	10.9	31.7	100.0(989)
출생년도	1955~1959	59.9	10.1	30.0	100.0(1,000)
	1960~1963	67.1	9.0	23.9	100.0(882)
교육수준	중졸 이하	30.3	10.1	59.6	100.0(267)
	고졸	58.1	11.6	30.3	100.0(1,008)
	초대졸 이상	86.3	5.9	7.7	100.0(607)
구	동구	68.8	3.4	27.8	100.0(381)
	중구	48.9	21.0	30.2	100.0(348)
	서구	61.1	10.8	28.0	100.0(489)
	유성구	70.3	9.0	20.6	100.0(310)
	대덕구	68.4	3.7	28.0	100.0(354)

원하는 수준까지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학비 마련의 어려움이 44.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모의 전근대적 교육관 때문에 24.5%, 입학시험 실패 또는 학업부진 18.4%, 본인이 가사를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8.0%, 가까운 곳에 학교가 없어서 3.3%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남성 49.2%, 여성 42.0%) 학비 마련의 어려움을 교육기회 미충족 이유라고 응답하였다. 여성은 부모의 전근대적 교육관 때문에 교육기회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29.0%로 남성 17.3%보다 10%이상 높게 나타나, 과거 우리의 전근대적인 교육관이 여성의 교육기회를 저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출생년도별로 살펴보면, 전기 베이비부머 45.3%, 후기 베이비부머 44.1% 모두 학비 마련의 어려움을 교육기회 미충족 이유로 들었다. 특히, 전기 베이비부머는 부모의 전근대적 교육관 때문에 교육기회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28.3%로 후기 베이비부머 19.0%보다 높아서 우리의 전근대적인 교육관으로 인해 연령대가 높은 전기 베이비부머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교육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모든 집단에서 학비 마련의 어려움으로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으며, 그 비율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초대졸

49) 귀하는 원하는 수준까지의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15번)

이상 고학력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경제적 여건만 허락한다면 더 많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부모의 전근대적 교육관으로 인해 교육기회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구별로 교육기회 미충족 이유를 살펴보면, 모든 구에서 학비 마련의 어려움을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한 주된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유성구는 학비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충분한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65.6%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2-5-2 〉 교육기회 미충족 이유(2013년)

(단위 : %, 명)

구분 ⁵⁰⁾		학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서	가까운 곳에 학교가 없어서	입학시험 실패 또는 학업부진으로	부모 및 가족의 전근대적 교육관, 사고방식 때문에	본인이 가사를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 때문에	기타	전체
전체		44.8(229)	3.3(17)	18.4(94)	24.5(125)	8.0(41)	0.4(2)	0.6(3)	100.0(511)
성별	남성	49.2	3.6	20.3	17.3	9.1	0.0	0.5	100.0(197)
	여성	42.0	3.2	17.2	29.0	7.3	0.6	0.6	100.0(314)
출생 년도	1955~1959	45.3	2.0	14.3	28.3	9.0	0.3	0.7	100.0(300)
	1960~1963	44.1	5.2	24.2	19.0	6.6	0.5	0.5	100.0(21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4.7	3.1	9.4	30.8	10.7	0.6	0.6	100.0(159)
	고졸	44.9	3.0	22.0	22.0	7.5	0.3	0.3	100.0(305)
	초대졸 이상	44.7	6.4	25.5	19.1	2.1	0.0	2.1	100.0(47)
구	동구	36.8	3.8	26.4	30.2	2.8	0.0	0.0	100.0(106)
	중구	46.7	2.9	9.5	28.6	9.5	1.0	1.9	100.0(105)
	서구	43.1	1.5	14.6	28.5	12.4	0.0	0.0	100.0(137)
	유성구	65.6	6.3	12.5	10.9	4.7	0.0	0.0	100.0(64)
	대덕구	40.4	4.0	28.3	17.2	8.1	1.0	1.0	100.0(99)

2) 평생교육 참여실태 및 희망강좌

(1) 평생교육 참여실태

지난 1년 간 받은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63.2%를 차지하였다. 지난 1년 간 받아본 평생교육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직장에서 받은 교육 및

50) 원하는 수준까지 교육을 못 받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 15-1번)

훈련(18.0%)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공공기관의 평생교육원 강좌 8.6%, 지역 및 백화점 문화센터 강좌 7.1%의 순이었다.

2순위 중에서는 지역 및 백화점 문화센터 강좌가 2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공공기관의 평생교육원 강좌 22.2%, 사설학원 17.5%, 직장에서 받은 교육 및 훈련 12.0%, TV 및 인터넷 학습강좌 11.4%, 개인과외·스터디클럽·동호회 10.2%의 순이었다.

〈 표 2-5-3 〉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이용실태(2013년)

구분 ⁵¹⁾	1순위		2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직장에서 받은 교육, 훈련	338	18.0	39	12.0
공공기관의 평생교육원 강좌	161	8.6	72	22.2
사설학원	33	1.8	57	17.5
지역문화센터, 백화점문화센터 강좌	133	7.1	86	26.5
TV 및 인터넷 학습 강좌	12	0.6	37	11.4
개인과외, 스터디클럽, 동호회 등	15	0.8	33	10.2
기타	1	0.1	1	0.3
받아본 적이 없다	1,189	63.2	0	0.0

성별에 따른 평생교육 경험을 살펴보면,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여성 65.6%, 남성 60.6%로 남성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장에서 받은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여성(9.9%)보다 남성(26.9%)이 많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지역 및 백화점 문화센터 강좌(남성 1.6%, 여성 12.0%)와 공공기관의 평생교육원 강좌(남성 7.3%, 여성 9.7%) 참여율이 더 높았다.

출생년도별로 보면, 전기 및 후기 베이비부머 모두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67.4%, 58.4%로 가장 많았고 평생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전기 및 후기 베이비부머 모두 직장에서 받은 교육 및 훈련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은 전기 베이비부머가 평생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평생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평생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중졸 이하 76.8%, 고졸 67.1%, 초대졸 이상 50.7%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평생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51) 귀하는 지난 1년(2012. 9. 1~2013. 8. 31.)간 평생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문항 17번)

구별로 살펴보면, 모든 구에서 평생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동구는 평생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9.8%로 다른 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2-5-4 〉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이용실태 1순위(2013년)

(단위 : %, 명)

구분 ⁵²⁾	직장에서 받은 교육, 훈련	공공 기관의 평생교육 원 강좌	사설 학원	지역문화 센터, 백화점 문화센터 강좌	TV 및 인터넷 학습 강좌	개인과의, 스터디 클럽, 동호회 등	기타	받아본 적이 없다	전체
전체	18.0(338)	8.6(161)	1.8(33)	7.1(133)	0.6(12)	0.8(15)	0.1(1)	63.2(1,189)	100.0(1,882)
성별									
남성	26.9	7.3	1.9	1.6	0.7	1.1	0.0	60.6	100.0(893)
여성	9.9	9.7	1.6	12.0	0.6	0.5	0.1	65.5	100.0(989)
출생 년도									
1955~1959	15.3	9.2	1.3	5.3	0.7	0.8	0.0	67.4	100.0(1,000)
1960~1963	21.0	7.8	2.3	9.1	0.6	0.8	0.1	58.4	100.0(88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9.0	8.2	0.0	4.9	0.4	0.7	0.0	76.8	100.0(267)
고졸	14.0	8.0	1.9	8.1	0.2	0.7	0.0	67.1	100.0(1,008)
초대졸 이상	28.5	9.6	2.3	6.3	1.5	1.0	0.2	50.7	100.0(607)
구									
동구	17.3	5.0	1.3	5.5	0.5	0.5	0.0	69.8	100.0(381)
중구	22.1	7.5	3.4	4.9	0.6	0.3	0.3	60.9	100.0(348)
서구	16.2	9.4	2.0	8.8	1.0	1.8	0.0	60.7	100.0(489)
유성구	18.4	9.4	0.3	7.7	0.3	0.0	0.0	63.9	100.0(310)
대덕구	16.7	11.6	1.4	7.9	0.6	0.8	0.0	61.0	100.0(354)

(2) 평생교육 희망강좌

향후 희망하는 평생교육의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취미·문화·교양·여가선용 관련 교육(38.3%)이었다. 그 다음은 받고 싶은 교육이 없음 27.6%, 컴퓨터 교육 14.7%, 어학 교육 8.4% 등의 순으로 나타나,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베이비부머 중에서는 여가 관련 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을 보여주었다.

2순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 역시 취미·문화·교양·여가선용 관련 교육(26.4%)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봉사 교육 22.8%, 일반 직업기술교육 17.8%, 컴퓨터 교육 17.1% 등의 순이었다.

52) 귀하는 지난 1년(2012. 9. 1~2013. 8. 31.)간 평생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문항 17번)

〈 표 2-5-5 〉 향후 평생교육 희망강좌(2013년)

분야 ⁵³⁾	1순위		2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컴퓨터 교육	277	14.7	179	17.1
어학 교육	158	8.4	165	15.8
취미·문화·교양·여가선용 교육	720	38.3	276	26.4
일반 직업기술교육	117	6.2	186	17.8
사회봉사 교육	90	4.8	238	22.8
기타	0	0.0	0	0.0
받고 싶은 교육이 없다	519	27.6	0	0.0
무응답	1	0.1	0	0.0

성별에 따른 향후 평생교육 희망강좌를 살펴보면, 남성은 받고 싶은 교육이 없다는 응답이 32.7%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취미·문화·교양·여가선용 관련 평생교육을 받고 싶다는 응답이 45.1%로 가장 많았다.

출생년도별로 보면, 전기 및 후기 베이비부머 모두 향후 희망하는 평생교육으로 취미·문화·교양·여가선용 관련 교육을 가장 선호하였지만, 전기 베이비부머는 ‘받고 싶은 교육이 없다’라는 응답이 30.0%로 후기 베이비부머보다 높았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향후 희망하는 교육으로 취미·문화·교양·여가선용 관련 교육을 선호하였다. 향후 받고 싶은 교육이 없다는 의견은 중졸 이하 32.2%, 고졸 27.1%, 초대졸 이상 26.4%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향후 희망하는 평생교육이 없다는 비율 역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어학교육에 대해서는 초대졸 이상(11.9%)의 고학력군이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보다 높은 욕구를 나타냈다.

구별로 살펴보면, 모든 구에서 취미·문화·교양·여가선용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유성구가 48.4%로 가장 높았다. 받고 싶은 교육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구(32.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컴퓨터 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은 대덕구가 20.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53) 귀하가 앞으로 받고 싶은 평생교육은 무엇입니까? (문항 18번)

〈 표 2-5-6 〉 향후 평생교육 희망강좌 1순위(2013년)

(단위 : %, 명)

구분 ⁵⁴⁾		컴퓨터 교육	어학교육	취미·문화· 교양·여가선용 교육	일반 직업기술 교육	사회봉사 교육	받고 싶은 교육이 없다	무응답	전체
전체		14.7(277)	8.4(158)	38.3(720)	6.2(117)	4.8(90)	27.6(519)	0.1(1)	100.0(1,882)
성별	남성	15.3	9.4	30.7	7.1	4.8	32.7	0.0	100.0(893)
	여성	14.2	7.5	45.1	5.5	4.8	23.0	0.1	100.0(989)
출생 년도	1955~1959	14.9	6.6	36.6	6.5	5.3	30.0	0.1	100.0(1,000)
	1960~1963	14.5	10.4	40.1	5.9	4.2	24.8	0.0	100.0(88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7	4.5	36.7	6.7	4.1	32.2	0.0	100.0(267)
	고졸	13.3	7.3	40.9	6.7	4.6	27.1	0.1	100.0(1,008)
	초대졸 이상	16.6	11.9	34.6	5.1	5.4	26.4	0.0	100.0(607)
구	동구	12.9	6.3	37.0	8.9	6.6	28.3	0.0	100.0(381)
	중구	14.7	10.1	34.8	4.3	3.7	32.5	0.0	100.0(348)
	서구	15.7	9.6	35.0	8.6	5.1	25.8	0.2	100.0(489)
	유성구	9.0	6.8	48.4	4.2	4.8	26.8	0.0	100.0(310)
	대덕구	20.3	8.8	38.7	3.7	3.4	25.1	0.0	100.0(354)

주) 기타항목은 0%로 제외함.

2. 문화예술 활동 및 여가생활

1) 문화예술 활동

분석대상 베이비부머가 가장 많이 참여한 문화예술관련 활동은 영화관 48.6%(평균 참여 횟수 4.08회)이었다. 그밖에 연주회·무용·연극 등 공연장 11.3%(평균 참여 횟수 2.52회), 스포츠 경기 관람 9.4%(평균 참여 횟수 2.60회), 미술전시회·미술관 9.1%(평균 참여 횟수 1.80회), 박물관 8.2%(평균 참여 횟수 1.86회) 등은 매우 저조하여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문화예술 활동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54) 귀하가 앞으로 받고 싶은 평생교육은 무엇입니까? (문항 18번)

〈 표 2-5-7 〉 지난 1년간 문화예술 활동 참여(2014년)

구분 ⁵⁵⁾	참여함(가봄)		참여하(가보)지 않음		전체		횟수(회)*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문화예술관련 동호회 활동	58	3.3	1,702	96.7	1,760	100.0	7.55
문화예술관련 자원봉사	47	2.7	1,713	97.3	1,760	100.0	3.26
박물관	145	8.2	1,615	91.8	1,760	100.0	1.86
미술전시회, 미술관	160	9.1	1,600	90.9	1,760	100.0	1.80
연주회, 무용, 연극 등 공연장	198	11.3	1,562	88.8	1,760	100.0	2.52
대중음악 콘서트장	139	7.9	1,621	92.1	1,760	100.0	2.00
영화관	855	48.6	905	51.4	1,760	100.0	4.08
스포츠 경기 관람	164	9.3	1,596	90.7	1,760	100.0	2.60

*해당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참여 횟수

분석대상 베이비부머 중 83.7%가 학교교육 이외의 강좌강습을 받아본 적 없다고 응답하여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문화활동 참여율이 매우 저조함을 보여주었다.

〈 표 2-5-8 〉 학교교육 이외의 강좌·강습 참여종류(2014년) (다중응답)

구분 ⁵⁶⁾	빈도	백분율
문학	18	1.0
미술(사진·서예·디자인·건축 포함)	26	1.4
서양음악	13	0.7
전통예술	12	0.7
무용	6	0.3
연극	7	0.4
영화/비디오	50	2.7
대중가요/연예	24	1.3
만화(캐릭터, 애니메이션 포함)	5	0.3
역사문화유산	31	1.7
생활/여가문화(공예, 댄스)	77	4.2
기타	31	1.7
받아본 적 없다	1,535	83.7

2) 여가활용 종류

분석대상 베이비부머가 주말·휴일 여가를 활용하는 방법 1순위로는 TV 및 DVD 시청이 3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가사(장보기, 청소 포함) 14.1%, 종교활동 13.1%, 휴식(수면, 사우나 등) 12.6% 등의 순이었다.

55) 귀하는 지난 1년(2013. 9. 1~2014. 8. 31)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 및 장소에 몇 번이나 참여하(가보)셨습니까? (문항 12번)

56) 귀하는 1년(2013. 9. 1~2014. 8. 31) 동안 학교교육 이외에 강좌나 강습을 받아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문항 13번)

2순위 중에서는 휴식(수면, 사우나 등)이 25.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TV 및 DVD시청 22.9%, 가사(장보기, 청소 포함) 17.2%, 사고 관련(친구, 친가방문, 동창회 등) 7.9% 등이었다.

3순위 중에서는 2순위와 마찬가지로 휴식(수면, 사우나 등)이 3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TV 및 DVD 시청 20.5%, 사고 관련(친구, 친가방문, 동창회 등) 11.3%, 가사(장보기, 청소 포함) 10.6% 등의 순이었다.

1순위에 3점, 2순위에 2점, 3순위에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한 총점에 따르면, TV 및 DVD 시청이 1위였고, 그 다음으로는 휴식(수면, 사우나 등), 가사(장보기, 청소 포함), 종교 활동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는 주말·휴일 등 여가시간을 TV 및 DVD 시청이나 휴식과 같은 정적인 활동을 주로 하며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2-5-9 〉 주말·휴일 여가활동 종류(2014년)

특성 ⁵⁷⁾	1순위		2순위		3순위		총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총점	순위
TV 및 DVD 시청	574	32.6	369	22.9	250	20.5	2,710	1
여행	128	7.3	116	7.2	68	5.6	684	5
문화예술 관람	8	0.5	24	1.5	41	3.4	113	11
스포츠 관람	20	1.1	27	1.7	24	2.0	138	9
스포츠 활동	145	8.2	94	5.8	53	4.3	676	6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12	0.7	32	2.0	36	2.9	136	10
창작적 취미(미술, 독서, 악기 등)	17	1.0	22	1.4	11	0.9	106	12
자기개발(어학, 자격증 등)	8	0.5	17	1.1	10	0.8	68	14
봉사활동	8	0.5	21	1.3	22	1.8	88	13
종교활동	231	13.1	62	3.8	41	3.4	858	4
가사(장보기, 청소 포함)	248	14.1	277	17.2	130	10.6	1,428	3
휴식(수면, 사우나 등)	221	12.6	410	25.4	385	31.5	1,868	2
사고 관련(친구, 친가방문, 동창회 등)	81	4.6	128	7.9	138	11.3	637	7
기타	59	3.4	15	0.9	13	1.1	220	8

*총점=(1순위 빈도×3점)+(2순위 빈도×2점)+(3순위 빈도×1점)

성별에 따른 주말·휴일 여가활동 종류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TV 및 DVD 시청을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 남성 38.5%, 여성 27.2%로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TV 및 DVD 시청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보다 동적인 스포츠 활동에서는 남성 11.8%, 여성 4.9%로 남성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면, 가사(장보기, 청소 포함)활동의 경우

57) 귀하는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무엇을 하며 여가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문항 14번)

남성 2.6%, 여성 24.7%로 나타나 주말 및 휴일에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았다. 종교활동의 경우에도 남성 9.3%, 여성 16.6%로 나타나 여성의 참여율이 높았다.

출생년도별로 살펴보면, 전기 및 후기 베이비부머 모두 주말 및 휴일에 TV 및 DVD를 시청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여행, 가사, 휴식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후기 베이비부머에서, 종교 활동, 사교관련 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기 베이비부머에서 더 높았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TV 및 DVD 시청이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TV 및 DVD 시청은 중졸 이하 37.9%, 고졸 33.0%, 초대졸 이상 27.0%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졌고 가사(장보기, 청소 포함)나 휴식(수면, 사우나 등)과 같은 활동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졌다.

구별로 살펴보면, 모든 구에서 TV 및 DVD 시청이 가장 높았다. 동구는 TV 및 DVD 시청이 37.1%로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행은 대덕구가 12.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스포츠 활동은 유성구가 11.1%로 다른 구보다 높았다. 종교 활동 응답은 서구와 유성구가 15.8%로 동일하게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사(장보기, 청소 포함) 활동으로 주말 및 휴일 여가를 활용한다는 응답은 서구가 16.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휴식(수면, 사우나 등)으로 주말 및 휴일 여가를 보낸다는 응답은 중구가 17.0%로 다른 자치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2-5-10 > 주말·휴일 여가활동 종류 1순위(2014년)

(단위 : %, 명)

구분 ⁵⁸⁾	TV 및 DVD 시청	여행	문화 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컴퓨터	창작적 취미	자기 개발	봉사 활동	종교 활동	가사	휴식	사교 관련	기타	전체
전체	32.6 (574)	7.3 (128)	0.5 (8)	1.1 (20)	8.2 (145)	0.7 (12)	1.0 (17)	0.5 (8)	0.5 (8)	13.1 (231)	14.1 (248)	12.6 (221)	4.6 (81)	3.4 (59)	100.0 (1,760)
성별	남성	38.5	7.8	0.5	2.2	11.8	1.2	0.7	0.6	9.3	2.6	15.1	5.0	4.3	100.0 (845)
	여성	27.2	6.8	0.4	0.1	4.9	0.2	1.2	0.3	16.6	24.7	10.2	4.3	2.5	100.0 (915)
출생 년도	1955~1959	32.8	6.4	0.6	1.0	8.2	0.5	0.8	0.6	14.4	13.7	11.2	5.4	3.5	100.0 (943)
	1960~1963	32.4	8.3	0.2	1.3	8.3	0.9	1.1	0.2	11.6	14.6	14.1	3.7	3.2	100.0 (81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7.9	2.6	0.4	0.6	4.2	0.4	0.8	0.4	10.9	19.2	13.2	5.7	3.6	100.0 (506)
	고졸	33.0	8.7	0.1	1.1	6.3	0.1	0.8	0.3	12.8	15.3	13.1	4.3	3.2	100.0 (725)
	초대졸 이상	27.0	9.8	0.9	1.7	14.7	1.7	1.3	0.8	15.7	7.6	11.2	4.0	3.4	100.0 (529)
구	등구	37.1	5.2	0.7	0.7	6.8	1.0	1.0	0.7	10.1	14.7	13.4	3.9	4.9	100.0 (307)
	중구	32.8	5.9	0.3	1.5	6.5	0.9	0.3	0.3	13.8	13.8	17.0	4.4	2.6	100.0 (341)
	서구	28.1	5.3	0.7	0.9	9.5	0.7	1.5	0.4	15.8	16.0	11.6	6.2	2.6	100.0 (455)
	유성구	32.2	8.7	0.6	1.5	11.1	0.3	0.6	0.9	15.8	11.5	10.2	3.4	3.1	100.0 (323)
	대덕구	34.7	12.0	0.0	1.2	6.9	0.6	1.8	0.3	9.0	13.8	10.8	4.5	3.9	100.0 (334)

3) 여가생활 만족도

분석대상 베이비부머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09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3.11점, 여성은 3.07점으로 남녀 모두 ‘보통’ 수준이었다. 출생년도별로 살펴보면, 전기 베이비부머는 3.10점, 후기 베이비부머는 3.08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 2.95점, 고졸 3.03점, 초대졸 이상 3.31점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구가 3.20점으로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구가 2.90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58) 귀하는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무엇을 하며 여가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문항 14번)

〈 표 2-5-11 〉 여가생활 만족도(2014년)

(단위 : %, 명, 점)

구분 ⁵⁹⁾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이다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5점 평균*
전체		4.5(80)	20.6(363)	57.8(1,017)	13.5(237)	3.6(63)	100.0(1,760)	3.09
성별	남성	4.5	21.3	58.3	12.3	3.6	100.0(845)	3.11
	여성	4.6	20.0	57.3	14.5	3.6	100.0(915)	3.07
출생년도	1955~1959	4.8	20.6	57.8	13.5	3.4	100.0(943)	3.10
	1960~1963	4.3	20.7	57.8	13.5	3.8	100.0(817)	3.08
교육수준	중졸 이하	2.8	14.8	60.7	18.2	3.6	100.0(506)	2.95
	고졸	4.0	19.0	57.8	14.3	4.8	100.0(725)	3.03
	초대졸 이상	7.0	28.4	55.0	7.8	1.9	100.0(529)	3.31
구	동구	4.2	17.3	60.9	15.0	2.6	100.0(307)	3.06
	중구	3.8	17.0	51.6	20.5	7.0	100.0(341)	2.90
	서구	3.7	26.2	58.2	10.3	1.5	100.0(455)	3.20
	유성구	5.0	22.0	62.2	8.4	2.5	100.0(323)	3.19
	대덕구	6.3	18.6	56.3	14.1	4.8	100.0(334)	3.07

*매우 만족은 5점, 약간 만족은 4점, 보통이다는 3점, 약간 불만족은 2점, 매우 불만족은 1점으로 환산.

분석대상 베이비부머의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경제적 부담(42.0%)’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시간 부족 38.3%, 체력이나 건강 문제 7.3%, 여가 활동에 대한 능숙한 기술 부족 4.3%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여가생활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문제가 남녀 베이비부머 모두에게 여가생활 만족도를 낮추는 주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경제적 부담이 여가생활 불만족의 주된 이유라고 답한 비율은 남성 41.8%, 여성 42.2%로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가생활에 불만족 하는 비율은 남성 6.0%, 여성 1.8%로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여가를 함께 즐길만한 주변인이 부족하다고 느껴 여가생활에 불만족하는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출생년도별로 살펴보면, 전기 베이비부머는 ‘경제적 부담’이 46.5%, 후기 베이비부머는 ‘시간 부족’이 41.1%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은퇴시기가 시작된 전기 베이비부머는 시간보다는 경제적 부담에 의해 여가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늘어남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은 중졸 이하에서 가장 많았고, 시간 부족은 초대졸 이상에서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문제가 여가생활 불만족의 주요인이 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부담보다는 시간 부족으로 인한 여가생활 불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9) 귀하는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문항 15번)

구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동구가 51.9%로 가장 높았고 서구가 29.6%로 가장 낮았다.

〈 표 2-5-12 〉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2014년)

(단위 : %, 명)

구분 ⁶⁰⁾		시간이 부족하여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여가시설이 부족하여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여가활동에 대한 능숙한 기술 부족	전체
전체		38.3(115)	42.0(126)	2.7(8)	1.7(5)	3.7(11)	7.3(22)	4.3(13)	100.0(300)
성별	남성	38.8	41.8	1.5	1.5	6.0	6.7	3.7	100.0(134)
	여성	38.0	42.2	3.6	1.8	1.8	7.8	4.8	100.0(166)
출생 년도	1955~1959	35.8	46.5	3.1	0.0	3.8	8.8	1.9	100.0(159)
	1960~1963	41.1	36.9	2.1	3.5	3.5	5.7	7.1	100.0(14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2.7	49.1	0.9	0.9	2.7	11.8	1.8	100.0(110)
	고졸	41.0	43.2	4.3	0.0	2.9	5.0	3.6	100.0(139)
	초대졸 이상	43.1	23.5	2.0	7.8	7.8	3.9	11.8	100.0(51)
구	동구	29.6	51.9	3.7	1.9	3.7	7.4	1.9	100.0(54)
	중구	43.6	43.6	2.1	2.1	2.1	6.4	0.0	100.0(94)
	서구	35.2	29.6	1.9	0.0	3.7	14.8	14.8	100.0(54)
	유성구	45.7	37.1	2.9	2.9	0.0	2.9	8.6	100.0(35)
	대덕구	36.5	44.4	3.2	1.6	7.9	4.8	1.6	100.0(63)

4) 생활시간 압박 정도

분석대상 베이비부머의 평일과 주말의 생활시간 압박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일은 전체 응답자의 64.8%, 주말은 55.9%가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평일에는 남성 67.4%, 여성 62.4%가 생활시간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주말에는 역시 남성 56.0%, 여성 55.7%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출생년도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평일은 중졸 이하 62.0%, 고졸 63.8%, 초대졸 이상 68.8%이었고, 주말은 중졸 이하 53.2%, 고졸 56.3%, 초대졸 이상 57.9%로 교육수준별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구별로 살펴보면, 평일은 중구 71.8%, 동구 67.4%, 대덕구 64.1%, 서구 62.5%, 유성

60)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 15-1번)

구 59.1%, 주말의 경우 중구 64.2%, 동구 60.3%, 대덕구 57.8%, 유성구 52.6%, 서구 47.4%로 나타나 평일과 주말 모두 중구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가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 표 2-5-13 〉 평소 시간부족을 느끼는 정도 - 평일(2014년)

(단위 : %, 명)

구분 ⁶¹⁾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체	χ^2
전체		7.2(127)	28.0(492)	41.8(736)	23.0(405)	100.0(1,760)	
성별	남성	6.7	25.8	43.4	24.0	100.0(845)	4.936
	여성	7.7	29.9	40.3	22.1	100.0(915)	
출생년도	1955~1959	7.7	29.0	41.7	21.6	100.0(943)	3.184
	1960~1963	6.6	26.8	42.0	24.6	100.0(817)	
교육수준	중졸 이하	9.7	28.3	39.3	22.7	100.0(506)	11.931
	고졸	7.3	28.8	41.9	21.9	100.0(725)	
	초대졸 이상	4.7	26.5	44.0	24.8	100.0(529)	
구	동구	9.1	23.5	40.7	26.7	100.0(307)	31.048**
	중구	7.9	20.2	42.8	29.0	100.0(341)	
	서구	6.4	31.2	41.8	20.7	100.0(455)	
	유성구	7.7	33.1	40.2	18.9	100.0(323)	
	대덕구	5.4	30.5	43.4	20.7	100.0(334)	

*p<.05, **p<.01, ***p<.001

〈 표 2-5-14 〉 평소 시간부족을 느끼는 정도 - 주말(2014년)

(단위 : %, 명)

구분 ⁶²⁾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체	χ^2
전체		8.4(147)	35.8(630)	39.8(700)	16.1(283)	100.0(1,760)	
성별	남성	8.4	35.6	40.6	15.4	100.0(845)	0.781
	여성	8.3	36.0	39.0	16.7	100.0(915)	
출생년도	1955~1959	8.2	37.1	38.1	16.6	100.0(943)	2.964
	1960~1963	8.6	34.3	41.7	15.4	100.0(817)	
교육수준	중졸 이하	11.9	35.0	37.0	16.2	100.0(506)	12.598
	고졸	7.0	36.7	40.0	16.3	100.0(725)	
	초대졸 이상	6.8	35.3	42.2	15.7	100.0(529)	
구	동구	9.8	30.0	40.4	19.9	100.0(307)	60.764***
	중구	8.8	27.0	39.0	25.2	100.0(341)	
	서구	10.1	42.4	36.0	11.4	100.0(455)	
	유성구	7.7	39.6	39.3	13.3	100.0(323)	
	대덕구	4.8	37.4	45.5	12.3	100.0(334)	

*p<.05, **p<.01, ***p<.001

61) (평일)평소에 얼마나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문항 16번)

3. 노후생활 계획

노후생활 계획에 대해서는 2013년과 2014년 모두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활동을 하면서 보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⁶³⁾.

조사년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활동을 하면서 보내겠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많았고, 학습과 같은 자아 개발을 위한 활동이 19.3%,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득 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17.5%,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가 14.3%의 순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보내겠다는 응답은 남성(12.2%)보다 여성(16.3%)이 높은 반면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득 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보내겠다는 응답은 남성(20.7%)이 여성(14.6%)보다 높았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활동을 하면서 보내겠다는 응답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득 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보내겠다는 응답이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습과 같은 자아 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보내겠다는 응답과 종교 활동에 전념하면서 보내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구별로 살펴보면, 중구는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활동을 하면서 보내겠다가 49.1%로 5개 구 중 가장 높은 반면에 학습과 같은 자아개발을 위한 활동을 보내겠다는 응답은 16.1%로 가장 낮았다. 동구는 학습과 같은 자아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가 22.6%,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가 17.6%로 5개 구 중 가장 높았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득 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보내겠다가 13.4%로 가장 낮았다. 대덕구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득 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보내겠다가 24.3%로 가장 높았고,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보내겠다가 10.5%로 가장 낮았다.

2014년에는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활동을 하면서 보내겠다는 응답이 37.2%로 가장 높았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득 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보내겠다가 34.3%,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보내겠다가 17.3%, 학습과 같은 자아 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보내겠다가 5.7%였다. 성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 것은 종교 활동에 전념하면서 보내겠다는 응답이 남성 3.2%, 여성 6.1%로 여성이 높았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득 창

62) (주말)평소에 얼마나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문항 16번)

6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0년에 실시한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 희망하는 노후생활 유형을 알아본 결과와 유사하다. 그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부머가 선호하는 노년기 활동으로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이 4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득창출 19.0%, 자원봉사 등 사회적 기여활동 17.0%, 종교 활동 9.4%, 학습 등 자기계발 활동 7.2%의 순이었다.

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보내겠다는 응답이 남성 36.9%, 여성 31.9%로 남성이 5.0%p 높았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득 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보내겠다는 응답이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습과 같은 자아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와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보내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구별로 살펴보면, 동구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득 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보내겠다는 의견이 40.7%로 가장 높았고,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보내겠다는 응답이 14.7%로 가장 낮았다. 유성구는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활동을 하면서 보내겠다는 응답이 31.3%로 가장 높았고,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가 22.0%로 가장 낮았으며, 대덕구는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활동을 하면서 보내겠다는 응답이 46.1%로 가장 높았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득 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보내겠다는 응답이 25.1%로 가장 낮았다.

2014년도 조사에서는 2013년도보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득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가 17.5%에서 34.3%로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활동을 하면서와 학습과 같은 자아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는 줄어들었다.

〈 표 2-5-15 〉 노후생활 계획

구분 ⁶⁴⁾	2013		201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활동을 하면서	818	43.5	655	37.2
학습과 같은 자아 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363	19.3	101	5.7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270	14.3	304	17.3
종교 활동에 전념하면서	98	5.2	83	4.7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득 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329	17.5	604	34.3
기타	1	0.1	13	0.7
잘 모름	3	0.2	0	0.0
전체	1,882	100.0	1,760	100.0

64) 귀하는 노후(여생)를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2013년 문항 23번, 2014년 문항 10번)

〈 표 2-5-16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후생활 계획 1순위

(단위 : %, 명)

구분 ⁶⁵⁾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활동 을 하면서	학습과 같은 자아 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자원봉사 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종교 활동에 전념하 면서	건강이 허락하 는 소득 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기타	잘 모름	전체	χ^2	
2013	전체		43.5 (818)	19.3 (363)	14.3 (270)	5.2 (98)	17.5 (329)	0.1 (1)	0.2 (3)	100.0(1,882)	
	성별	남성	43.1	19.4	12.2	4.3	20.7	0.1	0.2	100.0(893)	20.165**
		여성	43.8	19.2	16.3	6.1	14.6	0.0	0.1	100.0(989)	
	출생 년도	1955~1959	43.5	18.3	14.3	5.4	18.3	0.0	0.2	100.0(1,000)	3.408
		1960~1963	43.4	20.4	14.4	5.0	16.6	0.1	0.1	100.0(88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7.6	12.0	12.7	4.5	22.5	0.4	0.4	100.0(267)	25.955*
		고졸	43.3	19.4	15.0	4.9	17.4	0.0	0.1	100.0(1,008)	
		초대졸 이상	42.0	22.2	14.0	6.1	15.5	0.0	0.2	100.0(607)	
	구	동구	41.2	22.6	17.6	5.2	13.4	0.0	0.0	100.0(381)	48.205**
		중구	49.1	16.1	12.4	3.7	18.7	0.0	0.0	100.0(348)	
		서구	45.0	18.8	14.9	6.5	14.5	0.0	0.2	100.0(489)	
		유성구	39.4	21.6	16.1	4.5	18.1	0.3	0.0	100.0(310)	
		대덕구	41.8	17.5	10.5	5.4	24.3	0.0	0.6	100.0(354)	
2014	전체		37.2 (655)	5.7 (101)	17.3 (304)	4.7 (83)	34.3 (604)	0.7 (13)	0.0 (0)	100.0(1,760)	
	성별	남성	36.2	6.6	16.6	3.2	36.9	0.5	0.0	100.0(845)	15.875**
		여성	38.1	4.9	17.9	6.1	31.9	1.0	0.0	100.0(915)	
	출생 년도	1955~1959	37.3	4.8	16.1	4.9	36.1	0.8	0.0	100.0(943)	7.111
		1960~1963	37.1	6.9	18.6	4.5	32.3	0.6	0.0	100.0(81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6.4	4.2	13.6	4.3	40.9	0.6	0.0	100.0(506)	32.077***
		고졸	37.9	4.8	17.7	4.3	34.3	1.0	0.0	100.0(725)	
		초대졸 이상	37.1	8.5	20.2	5.7	28.0	0.6	0.0	100.0(529)	
	구	동구	32.9	5.5	14.7	5.2	40.7	1.0	0.0	100.0(307)	63.920***
		중구	35.2	5.3	14.7	5.9	39.0	0.0	0.0	100.0(341)	
		서구	39.3	6.2	18.7	4.6	31.2	0.0	0.0	100.0(455)	
		유성구	31.3	6.2	22.0	3.1	37.2	0.3	0.0	100.0(323)	
		대덕구	46.1	5.4	15.9	4.8	25.1	2.7	0.0	100.0(334)	

*p<.05, **p<.01, ***p<.001

65) 귀하는 노후(여생)를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2013년 문항 23번, 2014년 문항 10번)

제6절 사회참여 및 공동체

1. 자원봉사·기부

1)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은 2013년과 2014년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는 활동(2013년 42.1%, 2014년 40.6%)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자신의 기술, 물질, 시간을 활용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2013년 32.2%, 2014년 39.5%),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2013년 13.0%, 2014년 7.5%),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의미 있는 여가활동(2013년 12.5%, 2014년 11.7%)의 순이었다.

특히, 자신의 기술, 물질, 시간을 활용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2013년에 32.2%에서 2014년은 39.5%로 가장 큰 폭으로 7.3%p 증가하였다.

〈 표 2-6-1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단위 : %, 명)

구분 ⁶⁶⁾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는 활동	자신의 기술, 물질, 시간을 활용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의미있는 여가활동	기타	전체	χ^2
2013	전체	42.1(792)	32.2(606)	13.0(245)	12.5(236)	0.2(3)	100.0(1,882)	
	성별							12.270*
	남성	38.5	33.5	14.0	13.7	0.3	100.0(893)	
	여성	45.3	31.0	12.1	11.5	0.0	100.0(989)	
	출생 년도							2.562
	1955~1959	43.6	31.1	12.9	12.3	0.1	100.0(1,000)	
	1960~1963	40.4	33.4	13.2	12.8	0.2	100.0(882)	
	교육 수준							17.386*
	중졸 이하	45.3	25.8	11.6	16.9	0.4	100.0(267)	
	고졸	43.7	31.6	13.3	11.2	0.2	100.0(1,008)	
	초대졸 이상	38.1	35.9	13.2	12.9	0.0	100.0(607)	
구	동구	48.3	25.5	13.1	13.1	0.0	100.0(381)	77.000***
	중구	50.3	21.6	12.6	15.5	0.0	100.0(348)	
	서구	33.7	35.8	14.9	15.5	0.0	100.0(489)	
	유성구	40.6	37.7	9.7	11.6	0.3	100.0(310)	
	대덕구	40.1	40.1	13.6	5.6	0.6	100.0(354)	

구분 ⁶⁶⁾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는 활동	자신의 기술, 물질, 시간을 활용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의미있는 여가활동	기타	전체	χ^2	
2014	전체	40.6(714)	39.5(696)	7.5(132)	11.7(206)	0.7(12)	100.0(1,760)		
	성별	남성	37.0	43.6	7.2	11.5	0.7	100.0(845)	11.836*
		여성	43.8	35.8	7.8	11.9	0.7	100.0(915)	
	출생 년도	1955~1959	43.3	38.5	6.4	11.5	0.4	100.0(943)	9.804*
		1960~1963	37.5	40.8	8.8	12.0	1.0	100.0(81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0.6	26.3	7.1	15.2	0.8	100.0(506)	96.774***
		고졸	42.3	37.8	8.1	10.8	1.0	100.0(725)	
		초대졸 이상	28.5	54.6	7.0	9.6	0.2	100.0(529)	
	구	동구	43.3	33.9	12.1	10.1	0.7	100.0(307)	38.692**
		중구	47.8	31.7	7.6	11.7	1.2	100.0(341)	
		서구	38.5	41.5	5.9	13.4	0.7	100.0(455)	
		유성구	36.8	45.8	7.4	9.3	0.6	100.0(323)	
대덕구		37.1	44.0	5.4	13.2	0.3	100.0(334)		

*p<.05, **p<.01, ***p<.001

2) 기부참여 현황과 이유

기부참여 현황은 기부한 적 없다가 2013년에는 81.9%, 2014년에는 70.5%로 기부참여율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기부에 참여한 경우에는 2013년과 2014년 모두 현금(ARS, 계좌이체 등) 기부가 각각 11.4%, 16.0%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의 기부참여율이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금, 물품기부, 재능기부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다. 구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서구가 26.2%, 2014년에는 유성구가 35.7%로 기부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66)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013년 24번, 2014년 27번)

〈 표 2-6-2 〉 기부참여현황

(단위 : %, 명)

구분 ⁶⁷⁾		현금(ARS, 계좌이체 등)기부	물품기부	재능기부	노동(자원 봉사활동 등) 기부	기부한 적 없다	전체	χ^2	
2013	전체		11.4(215)	1.5(28)	1.3(25)	3.8(72)	81.9(1,542)	100.0(1,882)	46.061***
	성별	남성	16.0	1.0	1.6	2.4	79.1	100.0(893)	
		여성	7.3	1.9	1.1	5.2	84.5	100.0(989)	
	출생 년도	1955~1959	10.8	1.2	1.2	3.6	83.2	100.0(1,000)	2.881
		1960~1963	12.1	1.8	1.5	4.1	80.5	100.0(88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4	1.1	0.4	2.6	89.5	100.0(267)	85.525***
		고졸	7.7	0.9	1.3	5.3	84.8	100.0(1,008)	
		초대졸 이상	19.8	2.6	1.8	2.0	73.8	100.0(607)	
	구	동구	6.0	1.0	0.0	3.9	89.0	100.0(381)	63.456***
		중구	9.8	2.0	0.9	2.0	85.3	100.0(348)	
		서구	17.2	2.9	2.2	3.9	73.8	100.0(489)	
		유성구	12.9	1.0	2.3	3.5	80.3	100.0(310)	
		대덕구	9.6	0.0	1.1	5.6	83.6	100.0(354)	
2014	전체		16.0(281)	6.3(110)	2.0(36)	5.2(92)	70.5(1,241)	100.0(1,760)	12.347*
	성별	남성	17.9	5.2	1.7	4.0	71.2	100.0(845)	
		여성	14.2	7.2	2.4	6.3	69.8	100.0(915)	
	출생 년도	1955~1959	15.2	6.2	2.1	5.7	70.8	100.0(943)	1.905
		1960~1963	16.9	6.4	2.0	4.7	70.1	100.0(81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7.7	4.2	1.4	4.2	82.6	100.0(506)	115.325***
		고졸	13.2	5.7	1.8	6.1	73.2	100.0(725)	
		초대졸 이상	27.6	9.1	3.0	5.1	55.2	100.0(529)	
	구	동구	15.3	4.6	2.0	3.9	74.3	100.0(307)	33.251**
		중구	15.2	5.9	1.5	4.4	73.0	100.0(341)	
		서구	16.7	6.8	3.3	6.2	67.0	100.0(455)	
		유성구	22.3	5.3	2.2	5.9	64.4	100.0(323)	
		대덕구	10.2	8.4	0.9	5.4	75.1	100.0(334)	

*p<.05, **p<.01, ***p<.001

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부족해서가 2013년에 48.2%, 2014년에 62.5%로 가장 많았고, 관심이 없어서가 2013년에 20.4%, 2014년 17.3%로 동일하게 2순위로 나타났다. 반면 2013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16.2%로 3순위, 남을 돕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가 11.0%로 4순위이었던 반면에 2014년에는 남을 돕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가 8.9%로 3순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7.6%로 4순위였다.

67)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한 적이 있습니까? (2013년 25번, 2014년 28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2013년과 2014년 모두 남을 돕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와 관심이 없어서의 이유가 많았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부족해서의 이유가 많았다.

〈 표 2-6-3 〉 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명)

구분 ⁶⁸⁾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부족해서	남을 돕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관심이 없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참여 방법을 몰라서	기타	전체
2013	전체	48.2(743)	11.0(169)	20.4(314)	16.2(250)	4.2(64)	0.1(2)	100.0(1,542)
	성별							
	남성	48.3	12.0	20.7	14.9	4.0	0.1	100.0(706)
	여성	48.1	10.0	20.1	17.3	4.3	0.1	100.0(836)
	출생 년도							
	1955~1959	48.8	10.3	19.5	16.6	4.7	0.1	100.0(832)
	1960~1963	47.5	11.7	21.4	15.8	3.5	0.1	100.0(71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0.3	5.9	15.9	14.6	3.3	0.0	100.0(239)
	고졸	46.2	11.7	20.7	17.0	4.3	0.1	100.0(855)
	초대졸 이상	45.5	12.3	22.1	15.6	4.2	0.2	100.0(448)
	구							
	동구	55.8	14.2	10.3	16.2	3.5	0.0	100.0(339)
	중구	50.8	8.1	24.2	15.2	1.7	0.0	100.0(297)
2014	전체	62.5(776)	8.9(110)	17.3(215)	7.6(94)	3.1(39)	0.6(7)	100.0(1,241)
	성별							
	남성	58.8	9.8	20.3	7.1	3.7	0.3	100.0(602)
	여성	66.0	8.0	14.6	8.0	2.7	0.8	100.0(639)
	출생 년도							
	1955~1959	65.0	9.3	15.4	7.3	2.5	0.4	100.0(668)
	1960~1963	59.7	8.4	19.5	7.9	3.8	0.7	100.0(57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8.7	7.4	16.7	4.8	1.9	0.5	100.0(418)
	고졸	63.1	9.4	16.4	7.5	2.8	0.8	100.0(531)
	초대졸 이상	52.7	9.9	19.9	11.6	5.5	0.3	100.0(292)
	구							
	동구	58.8	14.5	18.9	5.3	1.8	0.9	100.0(228)
	중구	71.9	8.8	14.9	2.8	1.2	0.4	100.0(249)
	서구	61.3	7.5	15.4	10.2	5.2	0.3	100.0(305)
	유성구	58.2	5.8	20.2	11.5	3.8	0.5	100.0(208)
	대덕구	61.8	8.0	18.3	8.0	3.2	0.8	100.0(251)

기부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가 43.2%로 가장 많았고, 타인을 돕고 살아야 한다는 개인적 신념 때문인가 23.8%, 기부단체, 직장, 종교단체

68) 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3년 25-1번, 2014년 28-1번)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가 20.3%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이거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가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이거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부단체, 직장,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구별로 살펴보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가 대덕구에서 53.4%로 가장 높았고, 기부단체, 직장,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가 서구에서 가장 높았으며, 타인을 돕고 살아야한다는 개인적 신념 때문세가 중구에서 27.5%로 가장 높았다.

〈 표 2-6-4 〉 기부를 하는 이유(2013년)

(단위: %, 명)

구분 ⁶⁹⁾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	기부단체, 직장,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타인을 돕고 살아야 한다는 개인적 신념 때문에	종교적 신념 때문에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 때문에	지역사회나 국가에 기여하고 싶어서	기타	전체
전체		43.2(147)	20.3(69)	23.8(81)	4.1(14)	3.5(12)	4.7(16)	0.3(1)	100.0(340)
성별	남성	36.9	24.1	25.1	3.7	5.3	4.8	0.0	100.0(187)
	여성	51.0	15.7	22.2	4.6	1.3	4.6	0.7	100.0(153)
출생 년도	1955~1959	44.0	18.5	24.4	4.2	4.2	4.2	0.6	100.0(168)
	1960~1963	42.4	22.1	23.3	4.1	2.9	5.2	0.0	100.0(17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3.6	10.7	25.0	3.6	0.0	7.1	0.0	100.0(28)
	고졸	47.7	20.3	22.9	3.9	2.0	2.6	0.7	100.0(153)
	초대졸 이상	37.1	22.0	24.5	4.4	5.7	6.3	0.0	100.0(159)
구	동구	47.6	14.3	31.0	0.0	7.1	0.0	0.0	100.0(42)
	중구	41.2	21.6	27.5	3.9	0.0	5.9	0.0	100.0(51)
	서구	35.9	26.6	26.6	4.7	2.3	3.9	0.0	100.0(128)
	유성구	47.5	13.1	13.1	9.8	4.9	11.5	0.0	100.0(61)
	대덕구	53.4	17.2	20.7	0.0	5.2	1.7	1.7	100.0(58)

2. 사회적 관계

1) 사회적 신뢰

베이비부머의 일반인에 대한 신뢰수준을 지갑 분실시 회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측정한 결과, 2013년에 5점 만점 평균 1.91점, 2014년 1.79점으로 조금 낮은 부정 수준이었다.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가 42.0%,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고 38.8%에 이르러 사회적 신뢰 수준이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69) 귀하가 기부를 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3년 25-3번)

2013년과 2014년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대수준이 높았고, 전기 베이비부머가 후기 베이비부머보다 기대감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구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동구, 2014년에는 서구가 가장 높았다.

〈 표 2-6-5 〉 지갑 분실시 기대감

(단위 : %, 명, 점)

구분 ⁷⁰⁾		매우 기대한다	약간 기대한다	보통이다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전체	5점 평균*	
2013	전체		1.4(26)	8.0(151)	9.8(184)	42.0(790)	38.8(731)	100.0(1,882)	1.91
	성별	남성	1.1	8.2	9.1	41.1	40.5	100.0(893)	1.88
		여성	1.6	7.9	10.4	42.8	37.3	100.0(989)	1.94
	출생 년도	1955~1959	1.2	7.9	9.4	42.0	39.5	100.0(1,000)	1.89
		1960~1963	1.6	8.2	10.2	42.0	38.1	100.0(882)	1.9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	5.6	8.2	41.9	42.3	100.0(267)	1.83
		고졸	1.4	7.9	8.9	41.6	40.2	100.0(1,008)	1.89
		초대졸 이상	1.2	9.2	11.9	42.7	35.1	100.0(607)	1.99
	구	동구	2.6	13.4	10.2	40.4	33.3	100.0(381)	2.12
		중구	0.0	4.3	7.2	44.5	44.0	100.0(348)	1.72
		서구	1.8	9.4	12.9	41.3	34.6	100.0(489)	2.03
		유성구	0.3	7.4	11.0	50.0	31.3	100.0(310)	1.95
		대덕구	1.7	4.5	6.5	35.0	52.3	100.0(354)	1.68
2014	전체		1.0(18)	4.9(86)	9.3(163)	41.4(728)	43.5(765)	100.0(1,760)	1.79
	성별	남성	0.6	5.0	9.7	41.9	42.8	100.0(845)	1.79
		여성	1.4	4.8	8.9	40.9	44.0	100.0(915)	1.79
	출생 년도	1955~1959	0.7	4.5	9.2	43.4	42.2	100.0(943)	1.78
		1960~1963	1.3	5.4	9.3	39.0	44.9	100.0(817)	1.79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	4.5	7.1	37.2	50.2	100.0(506)	1.69
		고졸	0.8	3.7	10.5	40.3	44.7	100.0(725)	1.76
		초대졸 이상	1.3	6.8	9.6	46.9	35.3	100.0(529)	1.92
	구	동구	1.6	4.2	7.8	43.6	42.7	100.0(307)	1.79
		중구	0.3	2.6	5.9	42.5	48.7	100.0(341)	1.63
		서구	1.5	7.7	10.8	39.8	40.2	100.0(455)	1.91
		유성구	0.9	6.8	13.9	49.2	29.1	100.0(323)	2.01
		대덕구	0.6	2.1	7.5	32.6	57.2	100.0(334)	1.56

*매우 기대한다 5점, 약간 기대한다 4점, 보통이다 3점,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2점,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1점으로 환산.

70) 만약 귀하가 집근처에서 20만원이 든 지갑을 분실 했을 때, 돈이 있는 상태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2013년 26번, 2014년 37번)

2) 집단 간 소통

(1) 가족 간 소통

먼저 2013년 가족 간의 소통은 5점 만점 평균 4.03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그에 비해 약간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2014년에도 3.91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13년과 2014년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간의 소통 점수도 늘었다. 구별로도 대덕구의 점수가 2013년, 2014년 모두 높았다.

〈 표 2-6-6 〉 가족 간 소통

(단위 : %, 명, 점)

구분기)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	약간 이루어지고 있음	보통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전체	5점 평균*
2013	전체	29.6(550)	47.0(874)	20.6(384)	2.6(48)	0.2(4)	0.0(0)	100.0(1,860)	4.03
	성별	남성	31.2	45.4	21.5	1.7	0.2	100.0(881)	4.06
		여성	28.1	48.4	19.9	3.4	0.2	100.0(979)	4.01
	출생년도	1955~1959	27.4	48.2	21.5	2.5	0.3	100.0(985)	4.00
		1960~1963	32.0	45.6	19.7	2.6	0.1	100.0(875)	4.07
	교육수준	중졸 이하	23.9	47.1	23.6	5.0	0.4	100.0(259)	3.89
		고졸	28.6	47.6	21.1	2.5	0.2	100.0(1,000)	4.02
		초대졸 이상	33.6	45.9	18.6	1.7	0.2	100.0(601)	4.11
	구	동구	25.2	49.3	24.1	0.8	0.5	100.0(377)	3.98
		중구	24.3	53.9	18.8	2.9	0.0	100.0(345)	4.00
		서구	28.4	43.6	22.6	5.1	0.2	100.0(486)	3.95
		유성구	22.7	50.3	25.3	1.7	0.0	100.0(300)	3.94
		대덕구	46.9	39.5	11.9	1.4	0.3	100.0(352)	4.31
2014	전체	29.5(520)	34.9(615)	29.6(521)	3.4(60)	0.7(12)	1.8(32)	100.0(1,760)	3.91
	성별	남성	27.9	33.5	32.0	4.1	1.1	100.0(845)	3.84
		여성	31.0	36.3	27.4	2.7	0.3	100.0(915)	3.97
	출생년도	1955~1959	32.2	32.7	30.0	2.4	0.8	100.0(943)	3.95
		1960~1963	26.4	37.6	29.1	4.5	0.5	100.0(817)	3.87
	교육수준	중졸 이하	27.5	32.2	31.6	4.3	0.8	100.0(506)	3.84
		고졸	29.7	34.8	31.2	2.2	0.7	100.0(725)	3.92
		초대졸 이상	31.4	37.8	25.5	4.2	0.6	100.0(529)	3.96
	구	동구	34.2	31.9	26.4	2.9	1.3	100.0(307)	3.98
		중구	27.3	33.1	34.6	2.6	1.2	100.0(341)	3.84
		서구	22.6	38.0	32.3	5.3	0.2	100.0(455)	3.79
		유성구	21.4	40.2	35.0	2.5	0.0	100.0(323)	3.81
		대덕구	44.9	30.2	18.6	3.0	0.9	100.0(334)	4.18

주) 평균 점수는 해당사항 없음을 제외.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 5점, 약간 이루어지고 있음 4점, 보통 3점,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2점,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1점으로 환산.

71) 귀하는 다음 집단 간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3년 27-1번, 2014년 31-1번)

(2) 직장구성원 간 소통

직장구성원 간 소통은 5점 만점에 2013년 3.68점, 2014년 3.61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집단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약간 이루어지고 있다)에 남성이 여성보다, 후기 베이비부머가 전기 베이비부머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구별로는 대덕구의 점수가 2013년, 2014년 모두 가장 높았고, 2013년에는 서구(50.9%), 2014년에는 중구와 서구(각각 31.7%)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 표 2-6-7 〉 직장구성원 간 소통

(단위 : %, 명, 점)

구분 ⁷²⁾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	약간 이루어지고 있음	보통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전체	5점 평균*
2013	전체	15.8(177)	42.3(474)	35.8(401)	5.8(65)	0.3(3)	0.0(0)	100.0(1,120)	3.68
	성별	남성	16.9	43.1	34.0	5.9	0.1	100.0(715)	3.71
		여성	13.8	41.0	39.0	5.7	0.5	100.0(405)	3.62
	출생 년도	1955~1959	14.3	40.5	38.6	6.6	0.0	100.0(560)	3.63
		1960~1963	17.3	44.1	33.0	5.0	0.0	100.0(560)	3.7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4	32.2	50.4	7.0	0.0	100.0(115)	3.46
		고졸	15.7	41.2	36.9	6.2	0.0	100.0(548)	3.66
		초대졸 이상	17.3	46.2	30.9	5.0	0.0	100.0(457)	3.74
	구	동구	11.5	43.3	38.0	6.7	0.5	100.0(208)	3.59
		중구	14.0	42.0	40.1	3.9	0.0	100.0(207)	3.66
		서구	12.2	38.7	40.8	7.7	0.7	100.0(287)	3.54
		유성구	9.3	47.9	35.6	7.2	0.0	100.0(194)	3.59
		대덕구	31.7	41.5	23.7	3.1	0.0	100.0(224)	4.02
2014	전체	13.6(239)	22.7(400)	35.6(626)	2.8(49)	0.5(8)	24.9(438)	100.0(1,760)	3.61
	성별	남성	15.6	28.5	40.8	2.7	0.5	100.0(845)	3.64
		여성	11.7	17.4	30.7	2.8	0.4	100.0(915)	3.59
	출생 년도	1955~1959	13.6	19.9	34.9	2.7	0.3	100.0(943)	3.61
		1960~1963	13.6	25.9	36.4	2.9	0.6	100.0(817)	3.6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2.1	16.4	33.6	2.6	0.8	100.0(506)	3.56
		고졸	12.6	20.7	37.8	2.8	0.4	100.0(725)	3.57
		초대졸 이상	16.4	31.6	34.4	3.0	0.2	100.0(529)	3.71
	구	동구	19.5	21.8	25.7	2.3	1.0	100.0(307)	3.81
		중구	12.6	19.1	38.1	4.1	0.3	100.0(341)	3.53
		서구	9.9	21.8	37.4	2.6	0.4	100.0(455)	3.53
		유성구	11.5	23.8	44.9	2.5	0.6	100.0(323)	3.52
		대덕구	16.2	27.5	30.5	2.4	0.0	100.0(334)	3.75

주) 평균 점수는 해당사항 없음을 제외.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 5점, 약간 이루어지고 있음 4점, 보통 3점,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2점,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1점으로 환산.

72) 귀하는 다음 집단간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3년 27-2번, 2014년 31-2번)

(3) 이웃 간 소통

이웃 간 소통은 5점 만점에 2013년 2.99점, 2014년 2.95점으로 보통 이하의 수준을 보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전기 베이비부머가 후기 베이비부머보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구별로는 대덕구의 점수가 2013년, 2014년 모두 가장 높았고, 2013년에는 중구, 2014년에는 유성구가 가장 낮았다.

〈 표 2-6-8 〉 이웃 간 소통

(단위 : %, 명, 점)

구분 ⁷³⁾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	약간 이루어지고 있음	보통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전체	5점 평균*	
2013	전체	4.4(82)	24.9(467)	41.4(778)	23.7(445)	5.6(106)	0.0(0)	100.0(1,878)	2.99	
	성별	남성	4.3	21.0	42.3	25.9	6.6	0.0	100.0(892)	2.90
		여성	4.5	28.4	40.7	21.7	4.8	0.0	100.0(986)	3.06
	출생년도	1955~1959	4.2	25.8	41.3	22.9	5.7	0.0	100.0(999)	3.00
		1960~1963	4.6	23.8	41.5	24.6	5.6	0.0	100.0(879)	2.97
	교육수준	중졸 이하	4.5	28.2	39.1	21.1	7.1	0.0	100.0(266)	3.02
		고졸	5.1	24.3	42.6	22.6	5.4	0.0	100.0(1,007)	3.01
		초대졸 이상	3.1	24.3	40.5	26.6	5.5	0.0	100.0(605)	2.93
	구	동구	4.0	28.0	51.6	13.0	3.4	0.0	100.0(378)	3.16
		중구	3.7	22.8	42.7	25.6	5.2	0.0	100.0(347)	2.94
		서구	5.1	21.5	37.0	29.4	7.0	0.0	100.0(489)	2.88
		유성구	0.6	26.5	37.4	29.7	5.8	0.0	100.0(310)	2.86
		대덕구	7.6	26.8	39.0	20.1	6.5	0.0	100.0(354)	3.09
2014	전체	8.6(151)	15.9(279)	43.9(773)	24.2(426)	6.8(119)	0.7(12)	100.0(1,760)	2.95	
	성별	남성	6.3	10.7	45.1	29.0	8.3	0.7	100.0(845)	2.77
		여성	10.7	20.7	42.8	19.8	5.4	0.7	100.0(915)	3.12
	출생년도	1955~1959	8.8	17.9	46.4	20.9	5.4	0.5	100.0(943)	3.04
		1960~1963	8.3	13.5	41.0	28.0	8.3	0.9	100.0(817)	2.85
	교육수준	중졸 이하	10.7	22.7	43.7	16.0	5.9	1.0	100.0(506)	3.16
		고졸	8.0	14.1	47.7	24.0	5.5	0.7	100.0(725)	2.95
		초대졸 이상	7.4	11.7	38.9	32.3	9.3	0.4	100.0(529)	2.76
	구	동구	10.4	19.9	37.5	25.1	6.5	0.7	100.0(307)	3.03
		중구	8.5	14.4	41.9	27.3	6.5	1.5	100.0(341)	2.91
		서구	6.4	15.2	42.2	27.3	8.8	0.2	100.0(455)	2.83
		유성구	4.0	13.9	51.4	23.5	6.5	0.6	100.0(323)	2.85
		대덕구	14.4	16.5	47.0	16.8	4.8	0.6	100.0(334)	3.19

주) 평균 점수는 해당사항 없음을 제외.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 5점, 약간 이루어지고 있음 4점, 보통 3점,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2점,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1점으로 환산.

73) 귀하는 다음 집단 간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3년 27-3번, 2014년 31-3번)

(4) 세대 간 소통

세대 간 소통은 5점 만점에 2013년 3.07점, 2014년 3.17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2013년도 조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후기 베이비부머가 전기 베이비부머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세대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구별로는 대덕구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서구가 가장 낮았다.

2014년 조사에서는, 2013년과는 달리 여성이 남성보다, 후기 베이비부머보다 전기 베이비부머가 세대 간 소통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2013년과 동일하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았다. 구별로는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대덕구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유성구가 가장 낮았다.

〈 표 2-6-9 〉 세대 간 소통

(단위 : %, 명, 점)

구분 ⁷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	약간 이루어지고 있음	보통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전체	5점 평균*
2013	전체	4.9(92)	25.3(477)	45.3(853)	20.8(392)	3.6(68)	0.0(0)	100.0(1,882)	3.07
	성별								
	남성	5.7	26.4	43.2	20.5	4.1	0.0	100.0(893)	3.09
	여성	4.1	24.4	47.2	21.1	3.1	0.0	100.0(989)	3.05
	출생								
	년도								
	1955~1959	3.7	24.3	47.3	20.9	3.8	0.0	100.0(1,000)	3.03
	1960~1963	6.2	26.5	43.1	20.7	3.4	0.0	100.0(882)	3.1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2	22.1	46.4	22.8	3.4	0.0	100.0(267)	3.03
	고졸	4.8	25.1	45.9	20.3	3.9	0.0	100.0(1,008)	3.07
	초대졸 이상	4.9	27.2	43.8	20.8	3.3	0.0	100.0(607)	3.10
2014	구								
	동구	3.4	24.9	56.7	12.6	2.4	0.0	100.0(381)	3.14
	중구	4.9	23.0	38.8	27.9	5.5	0.0	100.0(348)	2.94
	서구	4.1	21.7	42.3	27.0	4.9	0.0	100.0(489)	2.93
	유성구	1.6	26.8	44.2	23.2	4.2	0.0	100.0(310)	2.98
	대덕구	10.5	31.9	44.6	12.1	0.8	0.0	100.0(354)	3.39
	전체	11.0(193)	19.7(346)	48.4(852)	15.6(274)	4.4(77)	1.0(18)	100.0(1,760)	3.17
	성별								
	남성	8.8	18.8	49.0	17.4	5.1	0.9	100.0(845)	3.09
	여성	13.0	20.4	47.9	13.9	3.7	1.1	100.0(915)	3.25
	출생								
	년도								
	1955~1959	11.6	19.5	49.1	14.4	4.1	1.3	100.0(943)	3.20
	1960~1963	10.3	19.8	47.6	16.9	4.7	0.7	100.0(817)	3.14
201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7	20.0	48.8	13.6	5.7	1.2	100.0(506)	3.16
	고졸	10.5	19.6	49.8	15.4	3.3	1.4	100.0(725)	3.19
	초대졸 이상	11.9	19.5	46.1	17.6	4.5	0.4	100.0(529)	3.17
	구								
	동구	16.3	17.3	46.6	12.7	6.2	1.0	100.0(307)	3.25
	중구	9.7	17.3	43.1	23.2	5.6	1.2	100.0(341)	3.02
	서구	7.5	19.1	52.1	17.8	3.3	0.2	100.0(455)	3.10
	유성구	5.6	17.3	55.1	16.1	5.3	0.6	100.0(323)	3.02
	대덕구	17.4	27.2	44.0	6.9	2.1	2.4	100.0(334)	3.52

주) 평균 점수는 해당사항 없음을 제외.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 5점, 약간 이루어지고 있음 4점, 보통 3점,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2점,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1점으로 환산.

〈 표 2-6-10 〉 세대 간 소통 차이

구분 ⁷⁴⁾		n	평균	S.D.	t
2013	전체	8,404	3.00	0.915	3.609***
	베이비부머	1,882	3.07	0.893	
	베이비부머 아랫세대	6,522	2.98	0.920	
2014	전체	7,619	3.07	0.991	4.814***
	베이비부머	1,742	3.17	0.973	
	베이비부머 아랫세대	5,877	3.04	0.994	

*p<.05, **p<.01, ***p<.001

주) 해당사항 없음을 제외.

3)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지로 측정하였다. 2013년도 조사에서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81.9%가 도움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65.6%가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89.2%가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가 평균 2.3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가 평균 2.07명,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평균 2.02명 순으로 높았다. 3가지 경우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2014년도 조사에서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74.1%가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48.1%가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 82.0%가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가 평균 2.65명으로 가장 많았고,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평균 2.03명,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평균 2.02명 순이었다. 3가지 경우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74) 귀하는 다음 집단 간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3년 27-4번, 2014년 31-4번)

75) 귀하는 가족관계에 있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4번)

〈표 2-6-11〉 사회적 관계망

(단위 : %, 명)

구분 ⁷⁶⁾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전체	사람 수* (평균)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2013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1,542	81.9	340	18.1	100.0(1,882)	2.07명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1,235	65.6	647	34.4	100.0(1,882)	2.02명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	1,679	89.2	203	10.8	100.0(1,882)	2.36명
2014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1,305	74.1	455	25.9	100.0(1,760)	2.03명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847	48.1	913	51.9	100.0(1,760)	2.02명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	1,443	82.0	317	18.0	100.0(1,760)	2.65명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례만 분석함.

〈 표 2-6-12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

(단위 : %, 명)

구분 ⁷⁷⁾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			
		있다	없다	χ^2	명 (평균)	있다	없다	χ^2	명 (평균)	있다	없다	χ^2	명 (평균)
2013	전체	81.9 (1,542)	18.1 (340)		2.07	65.6 (1,235)	34.4 (647)		2.02	89.2 (1,679)	10.8 (203)		2.36
	성별												
	남성	80.3	19.7	3.099	2.13	70.3	29.7	16.661***	2.12	90.5	9.5	2.839	2.40
	여성	83.4	16.6		2.02	61.4	38.6		1.91	88.1	11.9		2.32
	출생 년도												
	1955~1959	82.1	17.9	0.040	2.07	62.2	37.8	11.074**	2.04	89.3	10.7	0.017	2.38
	1960~1963	81.7	18.3		2.07	69.5	30.5		2.00	89.1	10.9		2.3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76.4	23.6	7.907*	1.93	46.8	53.2	59.167***	1.78	83.5	16.5	12.584**	2.28
	고졸	81.9	18.1		1.97	65.8	34.2		1.90	89.3	10.7		2.30
	초대졸 이상	84.3	15.7		2.29	73.6	26.4		2.27	91.6	8.4		2.48
2014	전체	74.1 (1,305)	25.9 (455)		2.03	48.1 (847)	51.9 (913)		2.02	82.0 (1,443)	18.0 (317)		2.65
	성별												
	남성	70.8	29.2	9.678**	1.98	48.9	51.1	0.367	2.00	78.3	21.7	14.627***	2.55
	여성	77.3	22.7		2.07	47.4	52.6		2.05	85.4	14.6		2.73
	출생 년도												
	1955~1959	75.7	24.3	2.606	2.02	47.5	52.5	0.310	2.00	81.1	18.9	1.028	2.58
	1960~1963	72.3	27.7		2.04	48.8	51.2		2.06	83.0	17.0		2.7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72.1	27.9	2.214	1.79	41.3	58.7	17.411***	1.88	81.0	19.0	1.601	2.44
	고졸	74.1	25.9		2.09	48.4	51.6		2.03	81.4	18.6		2.54
	초대졸 이상	76.2	23.8		2.15	54.3	45.7		2.12	83.7	16.3		2.98
2014	구												
	동구	69.7	30.3	14.491**	1.99	40.1	59.9	20.923***	2.20	78.8	21.2	12.196*	2.40
	중구	77.7	22.3		2.12	46.0	54.0		2.05	83.0	17.0		2.76
	서구	77.1	22.9		1.92	55.2	44.8		1.95	86.8	13.2		2.75
	유성구	76.5	23.5		1.83	51.7	48.3		1.87	78.9	21.1		2.32
	대덕구	68.3	31.7		2.33	44.6	55.4		2.15	80.2	19.8		2.91

*p<.05, **p<.01, ***p<.001

주) 평균 명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례만 분석함.

76) 귀하는 다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2013년 29번, 2014년 33번)

77) 귀하는 다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2013년 29번, 2014년 33번)

3. 지역사회 참여

1) 연대감

(1) 대전시민으로서의 자부심

대전시민으로서 자부심은 2013년에 5점 만점에 평균 3.78점, 2014년은 3.59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여성보다 남성이고, 후기 베이비부머보다 전기 베이비부머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았다. 구별로는 동구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유성구가 가장 낮았다.

2014년에는 여성의 점수가 약간 높았으나, 연령대별 경향은 비슷하여 전기 베이비부머가 후기 베이비부머의 점수보다 약간 높았다, 구별로는 동구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유성구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 표 2-6-13 〉 대전시민이라는 자부심

(단위 : %, 명, 점)

구분 ⁷⁸⁾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점 평균*
2013	전체	17.1(322)	47.7(897)	31.1(585)	3.9(74)	0.2(4)	100.0(1,882)	3.78
	성별							
	남성	17.8	49.4	29.1	3.5	0.2	100.0(893)	3.81
	여성	16.5	46.1	32.9	4.3	0.2	100.0(989)	3.74
	출생							
	년도							
	1955~1959	17.4	47.9	31.1	3.5	0.1	100.0(1,000)	3.79
	1960~1963	16.8	47.4	31.1	4.4	0.3	100.0(882)	3.7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9	45.3	31.8	5.6	0.4	100.0(267)	3.73
	고졸	16.1	48.7	31.3	3.8	0.2	100.0(1,008)	3.77
	초대졸 이상	18.9	47.0	30.5	3.5	0.2	100.0(607)	3.81
2014	구							
	동구	23.1	51.4	21.5	3.9	0.0	100.0(381)	3.94
	중구	16.1	56.0	26.7	0.9	0.3	100.0(348)	3.87
	서구	13.9	42.9	35.0	7.6	0.6	100.0(489)	3.62
	유성구	7.4	45.2	44.2	3.2	0.0	100.0(310)	3.57
	대덕구	24.6	44.1	28.8	2.5	0.0	100.0(354)	3.91
	전체	15.7(277)	35.2(620)	41.9(737)	6.5(115)	0.6(11)	100.0(1,760)	3.59
	성별							
	남성	15.0	35.4	42.0	6.9	0.7	100.0(845)	3.57
	여성	16.4	35.1	41.7	6.2	0.5	100.0(915)	3.61
	출생							
	년도							
	1955~1959	17.7	35.9	40.1	5.9	0.3	100.0(943)	3.65
	1960~1963	13.5	34.4	43.9	7.2	1.0	100.0(817)	3.52
201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0	36.0	42.3	5.7	1.0	100.0(506)	3.58
	고졸	16.7	33.1	42.3	7.6	0.3	100.0(725)	3.58
	초대졸 이상	15.1	37.4	40.8	5.9	0.8	100.0(529)	3.60
	구							
	동구	22.1	36.2	35.2	5.9	0.7	100.0(307)	3.73
	중구	13.5	32.8	48.1	5.3	0.3	100.0(341)	3.54
	서구	15.8	39.1	37.1	7.3	0.7	100.0(455)	3.62
	유성구	11.8	32.2	50.5	5.6	0.0	100.0(323)	3.50
	대덕구	15.9	34.4	39.8	8.4	1.5	100.0(334)	3.55

*매우 그렇다 5점, 약간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환산.

(2)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 참여 의향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으로 2013년에는 평균 3.21점, 2014년에는 평균 3.05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2013년에는 여성보다 남성의 참여의향이 약간 높았다. 출생년도별 차이는 크지 않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할 의향이 많았다. 구별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모두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2014년에는 성별, 출생년도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구별로는 서구와 유성구의 점수가 평균 3.13점과 평균 3.16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다.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2013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다소 낮아졌다.

〈 표 2-6-14 〉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 참여 의향

(단위 : %, 명)

구분 ⁷⁹⁾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2013	전체	6.6(124)	34.4(648)	37.8(711)	15.9(299)	5.3(100)	100.0(1,882)
	성별						
	남성	8.2	37.4	37.0	13.3	4.1	100.0(893)
	여성	5.2	31.7	38.5	18.2	6.4	100.0(989)
	출생						
	년도						
	1955~1959	6.9	34.5	38.1	15.6	4.9	100.0(1,000)
	1960~1963	6.2	34.4	37.4	16.2	5.8	100.0(88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5	28.1	38.6	19.5	9.4	100.0(267)
	고졸	6.2	36.2	37.9	15.1	4.7	100.0(1,008)
	초대졸 이상	8.2	34.3	37.2	15.7	4.6	100.0(607)
2014	구						
	동구	4.5	36.2	42.5	12.9	3.9	100.0(381)
	중구	10.6	39.1	35.9	9.5	4.9	100.0(348)
	서구	4.5	32.5	33.7	21.7	7.6	100.0(489)
	유성구	3.9	26.8	51.0	16.5	1.9	100.0(310)
	대덕구	10.2	37.3	28.5	16.9	7.1	100.0(354)
	전체	6.6(116)	25.8(454)	40.5(712)	20.7(365)	6.4(113)	100.0(1,760)
	성별						
	남성	6.4	25.1	40.6	22.1	5.8	100.0(845)
	여성	6.8	26.4	40.3	19.5	7.0	100.0(915)
	출생						
	년도						
	1955~1959	7.8	26.0	38.8	20.6	6.8	100.0(943)
	1960~1963	5.1	25.6	42.4	20.9	6.0	100.0(81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6	24.7	39.1	24.9	7.7	100.0(506)
	고졸	6.8	25.8	41.0	19.9	6.6	100.0(725)
	초대졸 이상	9.3	26.8	41.0	18.0	4.9	100.0(529)
	구						
	동구	6.5	23.1	39.1	24.8	6.5	100.0(307)
	중구	4.4	22.0	46.3	23.2	4.1	100.0(341)
	서구	8.8	28.4	35.2	22.9	4.8	100.0(455)
	유성구	5.3	27.6	48.3	16.1	2.8	100.0(323)
	대덕구	7.2	26.9	35.3	16.2	14.4	100.0(334)

*매우 그렇다 5점, 약간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환산.

78) 나는 대전 시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2013년 28-1번, 2014년 32-1번)

79)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민운동단체 등 건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한다. (2013년 28-2번, 2014년 32-2번)

〈 표 2-6-15 〉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 참여 의향 차이

구분 ⁸⁰⁾		n	평균	S.D.	t/F
2013	전체	1,882	3.21	0.967	
	성별	남성	893	3.32	4.734***
		여성	989	3.11	
	출생 년도	1955~1959	1,000	3.23	0.862
		1960~1963	882	3.19	
	교육 수준	중졸 이하(a)	267	2.99	8.338*** [a<b, c]
		고졸(b)	1,008	3.24	
		초대졸 이상(c)	607	3.26	
	구	동구(a)	381	3.24	8.142*** [b>c, d c<e]
		중구(b)	348	3.41	
		서구(c)	489	3.05	
		유성구(d)	310	3.14	
		대덕구(e)	354	3.27	
2014	전체	1,760	3.05	0.992	
	성별	남성	845	3.04	-0.510
		여성	915	3.07	
	출생 년도	1955~1959	943	3.08	0.974
		1960~1963	817	3.03	
	교육 수준	중졸 이하(a)	506	2.92	9.066*** [a<b, c]
		고졸(b)	725	3.06	
		초대졸 이상(c)	529	3.18	
	구	동구(a)	307	2.98	3.135**
		중구(b)	341	2.99	
		서구(c)	455	3.13	
		유성구(d)	323	3.16	
		대덕구(e)	334	2.96	

*p<.05, **p<.01, ***p<.001

(3) 지역행사에 대한 의견

우리 지역에 지역행사가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는 5점 만점에 평균 2.88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성별, 출생년도별, 교육수준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구별로는 유성구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80) 귀하는 가족관계에 있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4번)

< 표 2-6-16 > 지역행사가 많다는 생각 정도(2014년)

(단위 : %, 명, 점)

구분 ⁸¹⁾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점 평균*
전체		1.8(32)	19.1(336)	48.6(856)	25.7(453)	4.7(83)	100.0(1,760)	2.88
성별	남성	1.8	20.5	48.3	25.8	3.7	100.0(845)	2.91
	여성	1.9	17.8	49.0	25.7	5.7	100.0(915)	2.84
출생 년도	1955~1959	1.8	19.5	47.7	26.1	4.9	100.0(943)	2.87
	1960~1963	1.8	18.6	49.7	25.3	4.5	100.0(817)	2.8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0.8	16.8	47.4	27.7	7.3	100.0(506)	2.76
	고졸	1.9	17.7	50.8	25.2	4.4	100.0(725)	2.87
	초대졸 이상	2.6	23.3	46.9	24.6	2.6	100.0(529)	2.99
구	동구	0.3	16.0	47.2	30.9	5.5	100.0(307)	2.75
	중구	0.9	18.2	48.4	30.2	2.3	100.0(341)	2.85
	서구	2.4	23.3	42.6	23.5	8.1	100.0(455)	2.88
	유성구	3.7	21.1	54.8	18.0	2.5	100.0(323)	3.06
	대덕구	1.5	15.3	52.4	26.9	3.9	100.0(334)	2.84

*매우 그렇다 5점, 약간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환산.

지역주민이 지역행사에 활발히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평균 2.52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성별, 출생년도별, 교육수준별, 구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 표 2-6-17 > 지역주민들이 지역행사에 활발히 참여한다는 생각 정도(2014년)

(단위 : %, 명, 점)

구분 ⁸²⁾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점 평균*
전체		1.0(17)	10.7(189)	40.9(719)	34.6(609)	12.8(226)	100.0(1,760)	2.52
성별	남성	0.8	10.4	41.4	34.8	12.5	100.0(845)	2.52
	여성	1.1	11.0	40.3	34.4	13.1	100.0(915)	2.53
출생 년도	1955~1959	1.6	10.4	38.6	36.4	13.0	100.0(943)	2.51
	1960~1963	0.2	11.1	43.5	32.6	12.6	100.0(817)	2.5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4	7.7	38.9	37.2	14.8	100.0(506)	2.44
	고졸	1.1	11.3	40.8	34.2	12.6	100.0(725)	2.54
	초대졸 이상	0.4	12.9	42.7	32.7	11.3	100.0(529)	2.58
구	동구	0.3	6.5	37.5	41.0	14.7	100.0(307)	2.37
	중구	0.3	10.9	42.5	38.4	7.9	100.0(341)	2.57
	서구	1.1	11.2	36.7	32.5	18.5	100.0(455)	2.44
	유성구	1.9	13.6	48.9	31.0	4.6	100.0(323)	2.77
	대덕구	1.2	11.1	40.1	31.1	16.5	100.0(334)	2.49

*매우 그렇다 5점, 약간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환산.

81) 우리 지역에는 지역행사가 많다. (36-1번)

82) 지역주민들은 지역행사에 활발히 참여한다. (2014년 36-2번)

(4) 지역문제와 관련된 협력 정도

지역의 주민들이 공사소음, 쓰레기 배출문제, 도로시설 등의 지역문제가 있을 때 잘 협력하는가에 대해 알아본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2.94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성별, 출생년도별, 교육수준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구별로는 중구의 점수만이 평균 3.02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았다.

〈 표 2-6-18 〉 지역문제에 잘 협력한다는 생각 정도(2014년)

(단위 : %, 명, 점)

구분 ⁸³⁾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점 평균*
전체		5.8(102)	19.8(349)	41.9(738)	27.1(477)	5.3(94)	100.0(1,760)	2.94
성별	남성	4.1	20.2	42.4	28.4	4.9	100.0(845)	2.90
	여성	7.3	19.5	41.5	25.9	5.8	100.0(915)	2.97
출생 년도	1955~1959	7.0	19.9	40.2	28.0	4.9	100.0(943)	2.96
	1960~1963	4.4	19.7	43.9	26.1	5.9	100.0(817)	2.9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5	17.6	42.5	26.7	6.7	100.0(506)	2.91
	고졸	5.5	19.9	42.6	26.5	5.5	100.0(725)	2.93
	초대졸 이상	5.5	21.9	40.5	28.4	3.8	100.0(529)	2.97
구	동구	8.1	19.5	36.8	26.1	9.4	100.0(307)	2.91
	중구	5.9	20.2	46.9	24.0	2.9	100.0(341)	3.02
	서구	4.6	21.8	39.1	28.6	5.9	100.0(455)	2.91
	유성구	2.5	18.3	45.2	30.7	3.4	100.0(323)	2.86
	대덕구	8.4	18.6	42.2	25.7	5.1	100.0(334)	2.99

*매우 그렇다 5점, 약간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환산.

(5) 타인에 대한 배려

지역주민들이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5점 만점으로는 2.68점으로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가 42.9%로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 35.6%, 그렇다(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21.6%순으로 나타나 타인을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성별, 출생년도별, 교육수준별, 구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83) 공사소음, 쓰레기 배출문제, 도로시설 등의 지역문제가 있을 때 잘 협력한다. (2014년 36-3번)

< 표 2-6-19 >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생각 정도(2014년)

(단위 : %, 명, 점)

구분 ⁸⁴⁾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점 평균*
전체		4.8(84)	16.8(295)	35.6(626)	27.3(481)	15.6(274)	100.0(1,760)	2.68
성별	남성	4.7	16.6	35.9	28.4	14.4	100.0(845)	2.69
	여성	4.8	16.9	35.3	26.3	16.6	100.0(915)	2.67
출생 년도	1955~1959	4.2	17.3	34.0	28.3	16.1	100.0(943)	2.65
	1960~1963	5.4	16.2	37.3	26.2	14.9	100.0(817)	2.7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5	16.4	37.0	28.3	13.8	100.0(506)	2.70
	고졸	5.4	17.9	35.6	26.1	15.0	100.0(725)	2.73
	초대졸 이상	4.2	15.5	34.2	28.2	18.0	100.0(529)	2.60
구	동구	5.9	15.0	34.9	25.7	18.6	100.0(307)	2.64
	중구	3.8	17.6	36.7	25.5	16.4	100.0(341)	2.67
	서구	2.9	17.4	33.8	30.8	15.2	100.0(455)	2.62
	유성구	3.4	13.9	36.8	30.3	15.5	100.0(323)	2.59
	대덕구	8.7	19.5	36.2	23.1	12.6	100.0(334)	2.89

*매우 그렇다 5점, 약간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환산.

2)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 경제를 인지하고 있다가 47.9%, 모르고 있다가 52.2%로 나타났다. 이 중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가 26.2%로 가장 많았고, 어떤 것이라는 의미 정도만 이해한다 26.1%, 말은 들어보았으나 의미는 모르고 있다 26.0%, 말의 의미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있지는 않다 15.2%, 말의 의미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인 사례를 잘 알고 있다 6.6%순이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유형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협동조합을 21.8%로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기업 12.5%, 마을기업 9.9%, 자활기업 9.1% 순으로 인지도가 조사되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은 명칭 정도만 들어 보았다가 58.0%로 가장 많았고, 처음 들어본다 29.5%, 잘 알고 있다 12.5% 순이었으며, 협동조합은 명칭 정도만 들어보았다 58.1%로 가장 많았고, 잘 알고 있다 21.8%, 처음 들어본다 20.1% 순으로 조사되었다. 마을기업 역시 명칭 정도만 들어보았다가 48.2%로 가장 많았고, 처음 들어본다 41.9%, 잘 알고 있다 9.9%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84)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하거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주차를 아무렇게 하거나 등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 (2014년 36-4번)

로 자활기업은 처음 들어본다 45.6%로 가장 많았고, 명칭 정도만 들어 보았다 45.3%, 잘 알고 있다 9.1% 순이었다.

〈 표 2-6-20 〉 사회적 경제 인지도(2014년)

구분 ⁸⁵⁾		빈도	백분율
인지하고 있다	말의 의미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인 사례를 잘 알고 있다	116	6.6
	말의 의미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있지는 않다	267	15.2
	어떤 것이라는 의미정도만 이해한다	459	26.1
모르고 있다	말은 들어보았으나 의미는 모르고 있다	457	26.0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461	26.2
전체		1,760	100.0

〈 표 2-6-21 〉 사회적 경제 기업 유형 인지도(2014년)

(단위 : %, 명)

구분 ⁸⁶⁾	잘 알고 있다		명칭 정도만 들어 보았다		처음 들어본다		전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사회적 기업	220	12.5	1,021	58.0	519	29.5	100.0(1,760)
협동조합	384	21.8	1,023	58.1	353	20.1	100.0(1,760)
마을기업	174	9.9	848	48.2	738	41.9	100.0(1,760)
자활기업	161	9.1	797	45.3	802	45.6	100.0(1,760)

85) 귀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38번)

86) 귀하는 아래의 사회적 경제 기업 유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39번)

제7절 복지인식

1.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에 대한 인식

1) 자신의 노력에 의한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2013년도 조사에서는 ‘약간 그렇다’라는 응답이 45.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그저 그렇다’ 35.3%, ‘매우 그렇다’ 12.6%, ‘별로 그렇지 않다’ 5.8%, ‘전혀 그렇지 않다’ 1.3% 순이었다. 베이비부머의 57.6%가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7.1%는 열심히 노력해도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5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2점으로 긍정의 수준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61.3%)가 여성(54.2%)보다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출생년도별로는 전기 베이비부머(56.6%)보다 후기 베이비부머(58.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이 높게 나타났으며, 구별로는 대덕구(61.0%)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의 비율이 높았다. 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긍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100만 원 미만’의 소득에서는 긍정의 비율이 28.8%로 낮게 나타났다.

2014년도 베이비부머 개인의 노력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상관 정도를 살펴보면,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약간 그렇다’ 34.3%, ‘별로 그렇지 않다’ 13.8%, ‘매우 그렇다’ 10.6%, ‘전혀 그렇지 않다’ 3.4%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의 44.9%가 계층상승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17.2%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5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35점으로 다소 긍정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5.9%)이 여성(44.1%)에 비해 노력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출생년도별로는 전기 베이비부머(48.5%)가 후기 베이비부머(40.9%)보다 긍정의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의 응답이 높았으며, 서구(53.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의 비율을 보였다. 소득에 따라서 살펴보면, ‘600만 원 이상’의 소득(58.5%)에서 긍정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100만 원 미만’ 가구(25.0%)에서 부정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13년도와 2014년도를 비교해 보면 자신이 노력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크게 감소(12.7%p)하였다.

〈 표 2-7-1 〉 자신의 노력에 의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상관 정도

(단위 : %, 명)

구분 ⁸⁷⁾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2013	전체	12.6(237)	45.0(846)	35.3(664)	5.8(110)	1.3(25)	100.0(1,882)
	성별						
	남	15.5	45.8	32.6	5.5	0.7	100.0(893)
	여	10.0	44.2	37.7	6.2	1.9	100.0(989)
	출생						
	년도						
	1955~1959	12.1	44.5	36.5	5.9	1.0	100.0(1,000)
	1960~1963	13.2	45.5	33.9	5.8	1.7	100.0(88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0	33.3	48.7	10.5	1.5	100.0(267)
	고졸	13.1	43.7	37.2	4.7	1.4	100.0(1,008)
	초대졸 이상	14.7	52.2	26.2	5.8	1.2	100.0(607)
	구						
	동구	8.1	48.0	36.5	5.2	2.1	100.0(381)
	중구	16.7	41.1	35.9	5.7	0.6	100.0(348)
	서구	12.3	42.9	35.8	7.2	1.8	100.0(489)
	유성구	6.8	51.9	32.9	7.7	0.6	100.0(310)
	대덕구	18.9	42.1	34.7	3.1	1.1	100.0(354)
	소득						
	전체	14.7(161)	44.7(489)	34.1(373)	5.4(59)	1.1(12)	100.0(1,094)
2014	전체	10.6(187)	34.3(604)	37.8(666)	13.8(243)	3.4(60)	100.0(1,760)
	성별						
	남	10.8	35.1	38.2	12.8	3.1	100.0(845)
	여	10.5	33.6	37.5	14.8	3.7	100.0(915)
	출생						
	년도						
	1955~1959	11.9	36.6	34.6	13.7	3.3	100.0(943)
	1960~1963	9.2	31.7	41.6	14.0	3.5	100.0(81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7.7	30.4	39.5	16.6	5.7	100.0(506)
	고졸	10.9	34.9	37.7	13.0	3.6	100.0(725)
	초대졸 이상	13.0	37.2	36.5	12.3	0.9	100.0(529)
	구						
	동구	9.1	30.3	38.8	17.9	3.9	100.0(307)
	중구	6.5	33.7	40.8	15.5	3.5	100.0(341)
	서구	14.5	38.7	33.8	11.4	1.5	100.0(455)
	유성구	10.8	34.7	37.2	13.9	3.4	100.0(323)
	대덕구	10.8	32.3	40.1	11.4	5.4	100.0(334)
	소득						
	전체	11.6(117)	35.6(359)	36.3(366)	13.2(133)	3.3(33)	100.0(1,008)
	100만원 미만	9.3	30.6	35.2	19.4	5.6	100.0(108)
	200만원 미만	11.3	31.9	35.8	14.2	6.9	100.0(204)
	300만원 미만	10.1	32.1	39.0	14.7	4.1	100.0(218)
	400만원 미만	13.7	38.6	34.0	12.7	1.0	100.0(197)
	500만원 미만	13.6	39.0	36.4	9.3	1.7	100.0(118)
	600만원 미만	14.5	33.3	40.6	11.6	0.0	100.0(69)
	600만원 이상	9.6	48.9	34.0	7.4	0.0	100.0(94)

87)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3년 문항 28번, 2014년 문항 32번)

< 표 2-7-2 > 자신의 노력에 의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상관 정도 차이

구분 ⁸⁸⁾		n	평균	S. D.	t/F
2013	전체	1,882	3.62	0.828	
	성별				
	남성	893	3.70	0.819	4.121***
	여성	989	3.54	0.829	
	출생				
	년도				
	1955~1959	1,000	3.61	0.812	-0.467
	1960~1963	882	3.63	0.846	
	교육				
	수준				
	중졸 이하(a)	267	3.32	0.799	24.132*** [a<b<c]
	고졸(b)	1,008	3.62	0.821	
	초대졸 이상(c)	607	3.73	0.821	
	구				
2014	동구(a)	381	3.55	0.802	4.016** [e>a, c]
	중구(b)	348	3.68	0.839	
	서구(c)	489	3.57	0.864	
	유성구(d)	310	3.56	0.759	
	대덕구(e)	354	3.75	0.837	
	전체	1,094	3.67	0.831	
	소득				
	100만원 미만(a)	52	3.06	0.826	12.508*** [a<c, d, e, f, g b<d, e, f, g a<c<g]
	200만원 미만(b)	176	3.45	0.769	
	300만원 미만(c)	255	3.57	0.838	
	400만원 미만(d)	263	3.74	0.792	
	500만원 미만(e)	174	3.83	0.768	
	600만원 미만(f)	97	3.87	0.837	
	600만원 이상(g)	77	4.00	0.858	
	전체	1,760	3.35	0.960	
	성별				
	남성	845	3.38	0.944	1.180
	여성	915	3.32	0.974	
	출생				
	년도				
	1955~1959	943	3.40	0.974	2.424*
	1960~1963	817	3.29	0.939	
	교육				
	수준				
	중졸 이하(a)	506	3.18	0.989	14.193*** [a<b, c]
	고졸(b)	725	3.37	0.962	
	초대졸 이상(c)	529	3.49	0.903	
	구				
	동구(a)	307	3.23	0.977	6.619*** [c>a, b, e]
	중구(b)	341	3.24	0.914	
	서구(c)	455	3.53	0.928	
	유성구(d)	323	3.36	0.965	
	대덕구(e)	334	3.32	0.993	
	전체	1,008	3.39	0.965	
	소득				
	100만원 미만(a)	108	3.19	1.034	3.731**
	200만원 미만(b)	204	3.26	1.059	
	300만원 미만(c)	218	3.29	0.977	
	400만원 미만(d)	197	3.51	0.918	
	500만원 미만(e)	118	3.53	0.903	
	600만원 미만(f)	69	3.51	0.885	
	600만원 이상(g)	94	3.61	0.765	

*p<.05, **p<.01, ***p<.001

주) 매우 그렇다 5점, 약간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환산.

88) 귀하는 가족관계에 있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4번)

2) 자녀 세대

‘자녀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2013년도 조사에서는 ‘약간 그렇다’라는 응답이 49.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그저 그렇다’ 26.4%, ‘매우 그렇다’ 19.8%, ‘별로 그렇지 않다’ 4.0%, ‘전혀 그렇지 않다’ 0.3% 순이었다. 베이비부머의 69.4%가 계층상승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4.3%는 내 자녀가 열심히 노력해도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5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85점으로 긍정의 수준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69.8%)과 여성(69.1%)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후기 베이비부머(72.5%)가 전기 베이비부머(66.6%)보다 긍정의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별로는 대덕구(73.4%)에서 긍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 ‘500-600만 원 미만’의 가구(82.5%)에서 긍정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소득 ‘100만 원 미만’의 가구(11.5%)에서 부정의 비율이 높았다.

2014년도에도 ‘약간 그렇다’라는 응답이 42.4%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그저 그렇다’ 27.6%, ‘매우 그렇다’ 21.0%, ‘별로 그렇지 않다’ 6.8%, ‘전혀 그렇지 않다’ 2.3%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의 63.4%가 자녀의 노력에 따라 지위가 향상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9.1%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5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73점으로 긍정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64.1%)이, 출생년도별로는 전기 베이비부머(65.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의 비율이 높았으며, 구별로는 서구(76.3%)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의 비율이 높았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 ‘300-400만 원 미만’의 가구(69.6%)에서 긍정의 비율이 높은 반면, ‘100만 원 미만’의 가구(15.7%)에서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2013년도와 2014년도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자녀의 노력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은 감소(6.0%p)한 반면, 부정적인 생각은 증가(4.8%p)하였다.

〈 표 2-7-3 〉 자녀의 노력에 의한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

(단위 : %, 명)

구분 ⁸⁹⁾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2013	전체	19.8(373)	49.6(933)	26.4(496)	4.0(75)	0.3(5)	100.0(1,882)
	성별						
	남성	22.2	47.6	25.8	4.4	0.1	100.0(893)
	여성	17.7	51.4	26.9	3.6	0.4	100.0(989)
	출생						
	년도						
	1955~1959	19.1	47.5	29.1	4.2	0.1	100.0(1,000)
	1960~1963	20.6	51.9	23.2	3.7	0.5	100.0(88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3.1	40.1	39.3	6.7	0.7	100.0(267)
	고졸	19.4	50.2	26.6	3.7	0.1	100.0(1,008)
	초대졸 이상	23.4	52.7	20.3	3.3	0.3	100.0(607)
	구						
	동구	11.5	53.5	31.8	2.9	0.3	100.0(381)
2014	중구	20.4	46.3	29.0	4.0	0.3	100.0(348)
	서구	22.3	48.1	23.7	5.3	0.6	100.0(489)
	유성구	19.0	52.6	23.5	4.8	0.0	100.0(310)
	대덕구	25.4	48.0	24.0	2.5	0.0	100.0(354)
	전체	20.9(229)	48.4(530)	26.4(289)	3.8(42)	0.4(4)	100.0(1,094)
	소득						
	100만원 미만	3.8	40.4	44.2	7.7	3.8	100.0(52)
	200만원 미만	9.7	47.2	39.2	3.4	0.6	100.0(176)
	300만원 미만	18.4	50.2	26.7	4.7	0.0	100.0(255)
	400만원 미만	22.1	51.3	23.6	3.0	0.0	100.0(263)
	500만원 미만	27.6	47.1	20.1	4.6	0.6	100.0(174)
	600만원 미만	32.0	50.5	15.5	2.1	0.0	100.0(97)
	600만원 이상	33.8	41.6	22.1	2.6	0.0	100.0(77)
	전체	21.0(369)	42.4(746)	27.6(486)	6.8(119)	2.3(40)	100.0(1,760)
	성별						
	남성	19.6	43.0	28.3	6.5	2.6	100.0(845)
	여성	22.2	41.9	27.0	7.0	2.0	100.0(915)
	출생						
	년도						
	1955~1959	24.1	41.6	25.9	6.4	2.1	100.0(943)
	1960~1963	17.4	43.3	29.6	7.2	2.4	100.0(81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7.8	41.5	29.6	8.9	2.2	100.0(506)
	고졸	21.9	42.3	27.3	5.8	2.6	100.0(725)
	초대졸 이상	22.7	43.3	26.1	6.0	1.9	100.0(529)
	구						
	동구	22.8	38.1	28.7	8.5	2.0	100.0(307)
	중구	16.1	44.6	31.4	6.2	1.8	100.0(341)
	서구	27.5	48.8	17.8	5.1	0.9	100.0(455)
	유성구	17.0	39.3	31.3	8.7	3.7	100.0(323)
	대덕구	19.2	38.3	32.6	6.3	3.6	100.0(334)
	소득						
	전체	20.0(202)	42.8(431)	27.6(278)	6.7(68)	2.9(29)	100.0(1,008)
	100만원 미만	16.7	37.0	30.6	11.1	4.6	100.0(108)
	200만원 미만	19.6	41.7	27.9	6.4	4.4	100.0(204)
	300만원 미만	19.3	41.7	28.0	6.9	4.1	100.0(218)
	400만원 미만	19.3	50.3	23.4	5.1	2.0	100.0(197)
	500만원 미만	22.9	41.5	28.8	5.1	1.7	100.0(118)
	600만원 미만	20.3	43.5	27.5	8.7	0.0	100.0(69)
	600만원 이상	24.5	39.4	29.8	6.4	0.0	100.0(94)

89) 나는 내 자녀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3년 문항 28번, 2014년 문항 32번)

〈 표 2-7-4 〉 자녀의 노력에 의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상관 정도 차이

구분 ⁹⁰⁾			n	평균	S.D.	t/F
2013	전체		1,882	3.85	0.789	
	성별	남성	893	3.87	0.805	1.385
		여성	989	3.82	0.773	
	출생 년도	1955~1959	1,000	3.81	0.790	-1.992*
		1960~1963	882	3.89	0.785	
	교육 수준	중졸 이하(a)	267	3.58	0.829	21.467*** [a<b<c]
		고졸(b)	1,008	3.85	0.771	
		초대졸 이상(c)	607	3.96	0.773	
	구	동구(a)	381	3.73	0.708	4.089** [a<e]
		중구(b)	348	3.82	0.808	
		서구(c)	489	3.86	0.843	
		유성구(d)	310	3.86	0.775	
		대덕구(e)	354	3.96	0.772	
	소득	전체	1,094	3.86	0.800	10.489*** [a<c,d,e,f,g b<d,e,f,g]
		100만원 미만(a)	52	3.33	0.834	
		200만원 미만(b)	176	3.62	0.731	
		300만원 미만(c)	255	3.82	0.781	
		400만원 미만(d)	263	3.92	0.758	
		500만원 미만(e)	174	3.97	0.846	
		600만원 미만(f)	97	4.12	0.740	
		600만원 이상(g)	77	4.06	0.817	
2014	전체		1,760	3.73	0.943	
	성별	남성	845	3.71	0.942	-1.060
		여성	915	3.75	0.943	
	출생 년도	1955~1959	943	3.79	0.950	2.922**
		1960~1963	817	3.66	0.930	
	교육 수준	중졸 이하(a)	506	3.64	0.947	3.607* [a<c]
		고졸(b)	725	3.75	0.948	
		초대졸 이상(c)	529	3.79	0.926	
	구	동구(a)	307	3.71	0.975	11.082*** [c>a,b,d,e]
		중구(b)	341	3.67	0.880	
		서구(c)	455	3.97	0.857	
		유성구(d)	323	3.57	0.992	
		대덕구(e)	334	3.63	0.980	
	소득	전체	1,008	3.70	0.958	1.733
		100만원 미만(a)	108	3.50	1.046	
		200만원 미만(b)	204	3.66	1.007	
		300만원 미만(c)	218	3.65	1.001	
		400만원 미만(d)	197	3.80	0.880	
		500만원 미만(e)	118	3.79	0.914	
		600만원 미만(f)	69	3.75	0.881	
		600만원 이상(g)	94	3.82	0.879	

*p<.05, **p<.01, ***p<.001

주) 매우 그렇다 5점, 약간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환산.

90) 귀하는 가족관계에 있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4번)

〈 표 2-7-5 〉 자신과 자녀의 노력에 의한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대응표본 t검정)

구분	2013				2014			
	n	평균	S.D.	t	n	평균	S.D.	t
자신	1,882	3.62	0.828	-14.063***	1,760	3.35	0.960	-20.392***
자녀	1,882	3.85	0.789		1,760	3.73	0.943	

*p<.05, **p<.01, ***p<.001

2. 대상별 복지인식

1) 여성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여성복지서비스 선호도를 1, 2순위 총점으로 살펴보면 여성 일자리 확대가 1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여성 문화·여가 활동 지원, 육아 및 출산 지원, 여성의 사회적 보호 순이었다.

〈 표 2-7-6 〉 여성복지서비스 선호도(2014년)

구분 ⁹¹⁾	1순위		2순위		총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총점	순위
여성 문화·여가 활동 지원(교양강좌, 헬스, 요가 등)	496	28.2	331	22.3	1,323	2
여성 일자리 확대(취업 및 교육 지원)	798	45.3	419	28.3	2,015	1
육아 및 출산 지원(보육 지원)	311	17.7	450	30.4	1,072	3
여성의 사회적 보호(성폭력, 싱글맘 등)	151	8.6	279	18.8	581	4
기타	4	0.2	2	0.1	10	5

*총점=(1순위 빈도×2점)+(2순위 빈도×1점)

베이비부머의 여성복지서비스 선호도를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은 여성 문화·여가 활동 지원(29.9%)에 대한 정책 선호가 높았으며, 남성은 육아 및 출산 지원(19.2%)과 여성의 사회적 보호(9.5%)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출생년도별로는 전기 베이비부머에 비해 후기 베이비부머가 여성 문화·여가 활동 지원(28.5%)과 여성 일자리 확대(46.6%)를 더 선호하였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성 문화·여가 활동 지원을 더 선호하였고, 중학교 졸업 이하는 육아 및 출산 지원(19.4%)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모든 구에서 여성 일자리 확대에 대한 선호 비율이 높았으며, 대덕구(32.6%)에서 여성 문화·여가 활동 지원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득별로 보면, ‘100만

91) 귀하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6번)

원 미만' 가구(35.2%)에서 여성 문화여가 활동 지원에 대한 선호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400~500만 원 미만' 가구(15.3%)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보호를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2-7-7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성복지서비스 선호도 1순위(2014년)

(단위 : %, 명)

구분		여성 문화 여가 활동 지원	여성 일자리 확대	육아 및 출산 지원	여성의 사회적 보호	기타	전체	χ^2
전체		28.2(496)	45.3(798)	17.7(311)	8.6(151)	0.2(4)	100.0(1,760)	
성별	남성	26.3	45.1	19.2	9.5	0.0	100.0(845)	9.386
	여성	29.9	45.6	16.3	7.8	0.4	100.0(915)	
출생 년도	1955~1959	27.9	44.2	18.8	8.7	0.4	100.0(943)	5.511
	1960~1963	28.5	46.6	16.4	8.4	0.0	100.0(81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6.3	45.5	19.4	8.3	0.6	100.0(506)	15.376
	고졸	26.9	48.8	16.0	8.3	0.0	100.0(725)	
	초대졸 이상	31.8	40.5	18.3	9.3	0.2	100.0(529)	
구	동구	29.0	48.5	13.7	8.1	0.7	100.0(307)	28.588*
	중구	24.6	46.0	20.8	8.5	0.0	100.0(341)	
	서구	25.3	44.6	20.4	9.7	0.0	100.0(455)	
	유성구	30.7	42.7	15.8	10.8	0.0	100.0(323)	
	대덕구	32.6	45.2	16.2	5.4	0.6	100.0(334)	
소득	전체	26.6(268)	45.5(459)	19.1(193)	8.5(86)	0.2(2)	100.0(1,008)	29.039
	100만 원 미만	35.2	40.7	18.5	4.6	0.9	100.0(108)	
	200만 원 미만	25.5	45.6	16.7	12.3	0.0	100.0(204)	
	300만 원 미만	28.4	45.4	18.8	7.3	0.0	100.0(218)	
	400만 원 미만	23.9	48.2	20.8	6.6	0.5	100.0(197)	
	500만 원 미만	22.9	41.5	20.3	15.3	0.0	100.0(118)	
	600만 원 미만	20.3	50.7	23.2	5.8	0.0	100.0(69)	
	600만 원 이상	29.8	46.8	18.1	5.3	0.0	100.0(94)	

*p<.05, **p<.01, ***p<.001

2) 장애인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선호도를 1, 2순위 총점으로 살펴보면, 생활 안정이 1순위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자리지원, 의료재활, 장애인이용시설, 가족지원 등의 순이었다.

< 표 2-7-8 > 장애인복지서비스 선호도(2014년)

구분 ⁹²⁾	1순위		2순위		총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총점	순위
생활안정	899	51.1	234	15.3	2,032	1
가족지원	78	4.4	154	10.1	310	5
의료재활	225	12.8	330	21.6	780	3
교육	56	3.2	69	4.5	181	6
장애인이용시설	196	11.1	251	16.4	643	4
문화여가	26	1.5	66	4.3	118	8
이동권보장	43	2.4	72	4.7	158	7
일자리지원	235	13.4	350	22.9	820	2
기타	2	0.1	0	0.0	4	9

*총점=(1순위 빈도×2점)+(2순위 빈도×1점)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선호도를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은 생활안정(51.7%)과 의료재활(13.4%)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남성은 교육(3.9%)과 장애인이용시설(12.2%)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출생년도별로는 전기 베이비부머는 후기 베이비부머에 비해 생활안정(53.0%)과 가족지원(4.7%)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난 반면, 후기 베이비부머는 장애인이용시설(11.4%)과 일자리지원(14.8%)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지원에 대한 선호가 높은 반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생활안정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모든 구에서 생활안정에 대한 선호 비율이 높았으며, 대덕구(17.1%)에서 의료재활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 '100만 원 미만'의 가구(62.0%)에서 생활안정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500~600만 원 미만'의 가구(20.3%)에서 장애인이용시설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92) 귀하는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7번)

〈 표 2-7-9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복지서비스 선호도 1순위(2014년)

(단위: %, 명)

구분		생활 안정	가족 지원	의료 재활	교육	장애인 이용시설	문화 여가	이동권 보장	일자리 지원	기타	전체	χ^2
전체		51.1 (899)	4.4 (78)	12.8 (225)	3.2 (56)	11.1 (196)	1.5 (26)	2.4 (43)	13.4 (235)	0.1 (2)	100.0(1,760)	
성별	남성	50.4	4.4	12.1	3.9	12.2	1.3	2.2	13.4	0.1	100.0(845)	5.685
	여성	51.7	4.5	13.4	2.5	10.2	1.6	2.6	13.3	0.1	100.0(915)	
출생 년도	1955~1959	53.0	4.7	12.3	3.5	10.9	1.4	2.0	12.1	0.1	100.0(943)	6.948
	1960~1963	48.8	4.2	13.3	2.8	11.4	1.6	2.9	14.8	0.1	100.0(81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2.8	5.9	11.5	4.0	10.7	1.4	2.0	11.7	0.2	100.0(506)	14.635
	고졸	50.8	3.4	14.2	3.2	11.0	1.8	2.6	12.8	0.1	100.0(725)	
	초대졸 이상	49.9	4.3	12.1	2.5	11.7	1.1	2.6	15.7	0.0	100.0(529)	
구	동구	56.4	2.9	12.1	1.3	10.4	1.0	3.6	12.1	0.3	100.0(307)	85.397***
	중구	53.7	2.3	10.0	2.6	11.7	1.2	3.2	15.2	0.0	100.0(341)	
	서구	42.6	5.3	14.1	4.8	13.4	3.5	1.8	14.5	0.0	100.0(455)	
	유성구	54.8	3.1	10.2	3.4	9.0	0.6	2.2	16.7	0.0	100.0(323)	
	대덕구	51.5	8.1	17.1	3.0	10.2	0.3	1.8	7.8	0.3	100.0(334)	
소득	전체	51.1 (515)	4.4 (44)	11.7 (118)	3.7 (37)	12.1 (122)	1.6 (16)	2.3 (23)	13.1 (132)	0.1 (1)	100.0(1,008)	59.049
	100만 원 미만	62.0	4.6	8.3	3.7	7.4	2.8	0.0	10.2	0.9	100.0(108)	
	200만 원 미만	54.4	2.9	10.3	2.9	10.3	1.5	4.4	13.2	0.0	100.0(204)	
	300만 원 미만	46.3	6.4	15.1	4.6	10.1	2.8	1.8	12.8	0.0	100.0(218)	
	400만 원 미만	50.3	4.1	12.7	4.1	12.2	0.0	2.5	14.2	0.0	100.0(197)	
	500만 원 미만	44.9	5.1	13.6	5.1	12.7	2.5	2.5	13.6	0.0	100.0(118)	
	600만 원 미만	53.6	1.4	4.3	1.4	20.3	0.0	0.0	18.8	0.0	100.0(69)	
	600만 원 이상	50.0	4.3	11.7	2.1	19.1	1.1	2.1	9.6	0.0	100.0(94)	

*p<.05, **p<.01, ***p<.001

3) 노인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가 인식하는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면, 2013년도 조사에서는 47.6%가 경제적 문제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외로움·고독의 문제 20.7%, 사회적 소외 10.2%, 소일거리 부족 8.4%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은 외로움·고독의 문제(22.1%)와 사회적 소외(10.8%)에서 높았으며, 남성은 경제적 문제(48.7%)와 소일거리 부족(9.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출생년도별로 보면, 후기 베이비부머는 외로움·고독의 문제(22.4%)와 건강문제(8.2%)에서, 전기 베이비부머는 사회적 소외(11.0%)와 소일거리 부족(9.3%)에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수준별로 경제적 문제는 중졸 이하(52.1%)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외로움·고독의

문제라는 응답은 고졸(21.3%)과 초대졸 이상(21.1%)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모든 구에서 경제적 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외로움·고독의 문제는 중구(24.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득별로 보면, '500~600만 원 미만'에서 외로움·고독의 문제(24.7%)와 소일거리 부족(17.5%)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4년도에는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경제적 문제라는 응답이 52.6%로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으로는 외로움·고독의 문제 19.0%, 건강문제 17.7%, 소일거리 부족 5.7%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은 건강문제(18.9%)에서 높았으며, 남성은 경제적 문제(53.3%)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출생년도별로는 전기 베이비부머는 후기 베이비부머에 비해 건강문제(19.7%)의 비율이 높았으며, 전기 베이비부머는 사회적 소외(3.4%)와 소일거리 부족(6.1%)의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외로움·고독의 문제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건강문제라는 응답이 많았다. 구별로는 경제적 문제라는 응답은 중구(58.4%)에서, 건강문제는 대덕구(24.3%)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소득별로 보면, 소득의 '100~200만 원 미만' 가구(56.4%)에서 경제적 문제가, '100만 원 미만'의 가구에서 건강문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표 2-7-10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 고충문제

(단위 : % 명)

구분(93)		경제적 문제	외로움·고 독의 문제	자녀와 의 갈등	건강문제	사회적 소외	소일거리 부족	기타	전체
2013	전체	47.6(895)	20.7(390)	5.0(95)	8.0(151)	10.2(192)	8.4(158)	0.1(1)	100.0(1,882)
	성별								
	남성	48.7	19.1	5.0	8.1	9.5	9.5	0.0	100.0(893)
	여성	46.5	22.1	5.1	8.0	10.8	7.4	0.1	100.0(989)
	출생 년도								
	1955~1959	46.7	19.2	5.9	7.9	11.0	9.3	0.0	100.0(1,000)
	1960~1963	48.5	22.4	4.1	8.2	9.3	7.4	0.1	100.0(88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2.1	17.6	5.2	9.0	5.6	10.5	0.0	100.0(267)
	고졸	47.7	21.3	5.0	7.0	11.0	7.8	0.1	100.0(1,008)
	초대졸 이상	45.3	21.1	5.1	9.2	10.9	8.4	0.0	100.0(607)
	구								
	동구	49.3	20.2	4.2	7.6	13.9	4.7	0.0	100.0(381)
	중구	51.1	24.4	3.4	5.2	7.8	8.0	0.0	100.0(348)
	서구	46.2	21.1	5.9	8.4	10.8	7.6	0.0	100.0(489)
	유성구	39.7	18.7	8.1	9.7	11.6	11.9	0.3	100.0(310)
	대덕구	50.8	18.9	3.7	9.3	6.5	10.7	0.0	100.0(354)
	소득								
	전체	50.2(549)	19.5(213)	5.1(56)	8.1(89)	9.0(98)	8.0(88)	0.1(1)	100.0(1,094)
	100만원 미만	55.8	23.1	1.9	9.6	1.9	7.7	0.0	100.0(52)
	200만원 미만	57.4	15.9	4.5	10.2	4.5	7.4	0.0	100.0(176)
	300만원 미만	53.7	20.8	5.9	6.7	7.8	5.1	0.0	100.0(255)
	400만원 미만	50.2	16.3	6.5	8.0	10.6	8.0	0.4	100.0(263)
	500만원 미만	44.3	21.8	5.2	8.6	12.6	7.5	0.0	100.0(174)
	600만원 미만	37.1	24.7	5.2	4.1	11.3	17.5	0.0	100.0(97)
	600만원 이상	48.1	19.5	1.3	11.7	10.4	9.1	0.0	100.0(77)

구분 ⁹³⁾		경제적 문제	의료·고 독의 문제	자녀와 의 갈등	건강문제	사회적 소외	소일거리 부족	기타	전체
2014	전체	52.6(925)	19.0(335)	2.6(46)	17.7(311)	2.3(41)	5.7(101)	0.1(1)	100.0(1,760)
	성별								
	남성	53.3	19.3	2.8	16.3	2.4	5.8	0.1	100.0(845)
	여성	51.9	18.8	2.4	18.9	2.3	5.7	0.0	100.0(915)
	출생 년도								
	1955~1959	52.0	19.5	2.0	19.7	1.4	5.4	0.0	100.0(943)
	1960~1963	53.2	18.5	3.3	15.3	3.4	6.1	0.1	100.0(81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3.0	15.4	2.8	21.5	0.8	6.5	0.0	100.0(506)
	고졸	53.5	17.8	3.2	17.9	2.3	5.2	0.0	100.0(725)
	초대졸 이상	50.9	24.2	1.7	13.6	3.8	5.7	0.2	100.0(529)
	구								
	동구	51.5	16.0	2.0	18.9	1.3	10.4	0.0	100.0(307)
	중구	58.4	16.7	2.3	15.5	1.8	5.0	0.3	100.0(341)
	서구	52.3	19.6	4.0	16.5	3.1	4.6	0.0	100.0(455)
	유성구	55.1	21.4	1.9	13.6	2.8	5.3	0.0	100.0(323)
	대덕구	45.5	21.3	2.4	24.3	2.4	4.2	0.0	100.0(334)
	소득								
	전체	53.2(536)	19.3(195)	2.6(26)	16.3(164)	1.9(19)	6.6(67)	0.1(1)	100.0(1,008)
	100만원 미만	47.2	15.7	1.9	25.9	2.8	6.5	0.0	100.0(108)
	200만원 미만	56.4	15.7	4.4	16.7	0.5	6.4	0.0	100.0(204)
	300만원 미만	53.2	21.1	2.3	15.1	1.4	6.4	0.5	100.0(218)
	400만원 미만	55.3	22.3	3.0	12.2	1.0	6.1	0.0	100.0(197)
	500만원 미만	50.0	23.7	0.8	16.1	3.4	5.9	0.0	100.0(118)
	600만원 미만	55.1	17.4	2.9	15.9	2.9	5.8	0.0	100.0(69)
	600만원 이상	51.1	17.0	1.1	16.0	4.3	10.6	0.0	100.0(94)

주) 기타는 잘 모름을 포함한 값임.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노인복지서비스 선호도를 1, 2순위 총점으로 살펴보면,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가 1순위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인일자리 제공,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가취미 프로그램 확대, 소외노인지원강화 등의 순이었다.

〈 표 2-7-11 〉 노인복지서비스 선호도(2014년)

특성 ⁹⁴⁾	1순위		2순위		총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총점	순위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	749	42.6	325	22.2	1,823	1
노인문화예술축제 활성화	31	1.8	43	2.9	105	7
노인일자리 제공	655	37.2	358	24.5	1,668	2
소외노인지원강화(가정도우미, 밑반찬 배달사업 등)	117	6.6	200	13.7	434	4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가취미 프로그램 확대	108	6.1	228	15.6	444	3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복지관, 실버복지센터, 경로당 등)	61	3.5	196	13.4	318	5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컴퓨터 교실 등)	12	0.7	48	3.3	72	8
공원 등에 노인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설치 확대	26	1.5	62	4.2	114	6
기타	1	0.1	2	0.1	4	9

*총점=(1순위 빈도×2점)+(2순위 빈도×1점)

93) 귀하는 노인들이 겪는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문항 8번)

94) 귀하는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9번)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은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43.4%), 남성은 노인일자리 제공(38.7%)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출생년도별로 전기 베이비부머는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43.9%)와 노인일자리 제공(37.9%)에서 높았으며, 후기 베이비부머의 경우 소외노인 지원강화(7.5%)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가취미 프로그램 확대(7.0%)에서 높았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가취미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중졸 이하에서는 노인일자리 제공(39.3%)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모든 구에서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유성구에서 노인일자리 제공을 선호하는 비율(43.7%)이 가장 높았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가구 49.1%가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를 선호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이 '400~500만원 미만' 가구는 소외노인 지원강화를 선호하는 비율(10.2%)이 높았다.

〈 표 2-7-12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선호도 1순위(2014년)

(단위 : %, 명)

구분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	노인문화예술 축제 활성화	노인일자리 제공	소외노인 지원 강화	여가, 취미 프로그램 확대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공원 등에 노인들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 설치 확대	기타	전체	χ^2
전체	42.6 (749)	1.8 (31)	37.2 (655)	6.6 (117)	6.1 (108)	3.5 (61)	0.7 (12)	1.5 (26)	0.1 (1)	100.0(1,760)	
성별											
남성	41.7	2.2	38.7	6.2	6.2	3.1	0.5	1.5	0.0	100.0(845)	6.766
여성	43.4	1.3	35.8	7.1	6.1	3.8	0.9	1.4	0.1	100.0(915)	
출생년도											
1955~1959	43.9	1.4	37.9	5.9	5.4	3.1	1.0	1.4	0.1	100.0(943)	10.180
1960~1963	41.0	2.2	36.5	7.5	7.0	3.9	0.4	1.6	0.0	100.0(817)	
교육수준											
중졸 이하	43.3	0.6	39.3	7.1	4.0	4.0	0.6	1.2	0.0	100.0(506)	19.527
고졸	42.6	2.3	35.6	7.0	6.6	3.0	1.0	1.8	0.0	100.0(725)	
초대졸 이상	41.8	2.1	37.4	5.7	7.6	3.6	0.4	1.3	0.2	100.0(529)	
구											
동구	45.0	1.6	34.5	7.5	6.8	2.3	1.6	0.7	0.0	100.0(307)	69.115***
중구	42.8	0.3	39.9	7.9	3.5	4.4	0.3	0.9	0.0	100.0(341)	
서구	38.0	2.0	36.5	6.6	9.5	4.6	0.7	2.2	0.0	100.0(455)	
유성구	37.2	2.5	43.7	8.4	4.6	2.5	0.3	0.9	0.0	100.0(323)	
대덕구	51.5	2.4	31.7	3.0	5.1	3.0	0.6	2.4	0.3	100.0(334)	
소득											
전체	41.0 (413)	1.7 (17)	39.5 (398)	6.2 (62)	6.2 (62)	3.4 (34)	0.7 (7)	1.4 (14)	0.1 (1)	100.0(1,008)	48.722
100만원 미만	49.1	1.9	37.0	3.7	2.8	1.9	0.9	1.9	0.9	100.0(108)	
200만원 미만	39.7	2.0	42.6	7.8	3.4	2.9	0.5	1.0	0.0	100.0(204)	
300만원 미만	46.3	0.9	37.2	5.0	6.0	2.8	0.5	1.4	0.0	100.0(218)	
400만원 미만	34.5	2.0	42.1	7.1	7.6	5.6	0.5	0.5	0.0	100.0(197)	
500만원 미만	41.5	1.7	31.4	10.2	9.3	3.4	0.8	1.7	0.0	100.0(118)	
600만원 미만	37.7	2.9	42.0	4.3	7.2	4.3	0.0	1.4	0.0	100.0(69)	
600만원 이상	37.2	1.1	43.6	2.1	8.5	2.1	2.1	3.2	0.0	100.0(94)	

*p<.05, **p<.01, ***p<.001

3. 사회적 포용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포용 정도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우자나 친구로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가를 통해 측정하였다.

2013년도 조사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장애인은 2.5%, 결혼가정의 자녀 2.6%,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는 8.0%에 그쳤고 북한이탈 주민은 15.1%였으나, 전과자와 동성애자는 각각 71.4%와 62.6%에 이르렀다.

2014년도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전과자와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각각 72.3%, 73.3%로 매우 높았다.

2013년도에 비해 2014년도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저학력 베이비부머 표집이 늘어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표 2-7-13 〉 사회적 포용

(단위 : %, 명)

구분 ⁹⁵⁾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나의 이웃이 되는 것	받아들일 수 없음	전체
2013	장애인	2.1(40)	22.1(415)	27.0(509)	46.3(871)	2.5(47)	100.0(1,882)
	결손가정의 자녀	2.4(45)	23.6(445)	30.5(574)	40.9(770)	2.6(48)	100.0(1,882)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0.9(17)	10.7(201)	31.2(588)	49.2(926)	8.0(150)	100.0(1,882)
	전과자	0.1(1)	1.8(34)	5.2(98)	21.5(405)	71.4(1,344)	100.0(1,882)
	동성애자	0.1(1)	1.8(34)	6.4(120)	29.1(548)	62.6(1,179)	100.0(1,882)
	북한이탈주민	0.5(10)	7.6(143)	21.3(400)	55.5(1,044)	15.1(285)	100.0(1,882)
2014	장애인	1.8(32)	17.6(310)	17.0(300)	56.7(998)	6.8(120)	100.0(1,760)
	결손가정의 자녀	2.6(46)	20.1(354)	18.5(326)	52.2(919)	6.5(115)	100.0(1,760)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1.1(19)	12.8(225)	23.5(414)	50.6(890)	12.0(212)	100.0(1,760)
	전과자	0.1(1)	1.5(27)	4.7(83)	21.4(376)	72.3(1,273)	100.0(1,760)
	동성애자	0.1(2)	1.9(34)	5.2(91)	19.5(343)	73.3(1,290)	100.0(1,760)
	북한이탈주민	1.0(17)	10.8(190)	16.0(281)	52.4(923)	19.8(349)	100.0(1,760)

95) 귀하는 다음의 구성원들을 어떤 관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각 항목별로 한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2013년 문항 30번, 2014년 문항 34번)

〈 표 2-7-14 〉 사회적 포용 - 장애인

(단위 : %, 명)

구분 ⁹⁶⁾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나의 이웃이 되는 것	받아들일 수 없음	전체	χ^2	
2013	전체		2.1(40)	22.1(415)	27.0(509)	46.3(871)	2.5(47)	100.0(1,882)	
	성별	남성	2.2	23.2	30.1	42.6	1.9	100.0(893)	14.537**
		여성	2.0	21.0	24.3	49.6	3.0	100.0(989)	
	출생 년도	1955~1959	2.5	20.7	28.4	46.8	1.6	100.0(1,000)	11.626*
		1960~1963	1.7	23.6	25.5	45.7	3.5	100.0(88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6	19.1	22.5	52.8	3.0	100.0(267)	8.453
		고졸	2.2	23.1	27.3	44.8	2.6	100.0(1,008)	
		초대졸 이상	1.8	21.6	28.7	45.8	2.1	100.0(607)	
	구	동구	1.8	25.5	19.4	49.9	3.4	100.0(381)	67.554***
		중구	1.1	15.8	34.5	47.7	0.9	100.0(348)	
		서구	2.0	19.2	24.7	49.7	4.3	100.0(489)	
		유성구	4.2	23.2	32.6	37.4	2.6	100.0(310)	
		대덕구	1.7	27.4	26.3	44.1	0.6	100.0(354)	
2014	전체		1.8(32)	17.6(310)	17.0(300)	56.7(998)	6.8(120)	100.0(1,760)	
	성별	남성	2.1	17.4	19.3	54.1	7.1	100.0(845)	7.878
		여성	1.5	17.8	15.0	59.1	6.6	100.0(915)	
	출생 년도	1955~1959	1.8	17.2	15.1	59.0	7.0	100.0(943)	6.847
		1960~1963	1.8	18.1	19.3	54.1	6.6	100.0(81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0	17.8	11.7	60.3	8.3	100.0(506)	20.879**
		고졸	1.8	18.1	17.2	56.4	6.5	100.0(725)	
		초대졸 이상	1.7	16.8	21.9	53.7	5.9	100.0(529)	
	구	동구	1.6	18.2	16.6	57.7	5.9	100.0(307)	85.182***
		중구	1.2	17.9	15.0	62.5	3.5	100.0(341)	
		서구	1.5	18.0	24.8	52.7	2.9	100.0(455)	
		유성구	1.2	15.5	16.4	57.6	9.3	100.0(323)	
		대덕구	3.6	18.3	9.6	54.5	14.1	100.0(334)	

*p<.05, **p<.01, ***p<.001

96) 귀하는 노인들이 겪는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문항 8번)

〈 표 2-7-15 〉 사회적 포용 - 결손가정의 자녀

(단위: %, 명)

구분 ⁹⁷⁾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나의 이웃이 되는 것	받아들일 수 없음	전체	χ^2	
2013	전체		2.4(45)	23.6(445)	30.5(574)	40.9(770)	2.6(48)	100.0(1,882)	19.119**
	성별	남성	2.7	23.5	34.7	37.2	1.9	100.0(893)	
		여성	2.1	23.8	26.7	44.3	3.1	100.0(989)	
	출생 년도	1955~1959	2.3	22.9	30.8	41.9	2.1	100.0(1,000)	2.843
		1960~1963	2.5	24.5	30.2	39.8	3.1	100.0(88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1	24.7	25.1	41.6	4.5	100.0(267)	15.840*
		고졸	2.1	24.5	29.7	41.5	2.3	100.0(1,008)	
		초대졸 이상	2.1	21.7	34.3	39.7	2.1	100.0(607)	
	구	동구	1.8	23.4	24.7	46.2	3.9	100.0(381)	80.131***
		중구	1.4	14.9	34.2	46.6	2.9	100.0(348)	
		서구	3.9	26.0	23.5	43.6	3.1	100.0(489)	
		유성구	2.9	22.3	35.8	36.8	2.3	100.0(310)	
		대덕구	1.4	30.5	38.1	29.7	0.3	100.0(354)	
2014	전체		2.6(46)	20.1(354)	18.5(326)	52.2(919)	6.5(115)	100.0(1,760)	5.391
	성별	남성	2.2	19.6	19.9	50.8	7.5	100.0(845)	
		여성	3.0	20.5	17.3	53.6	5.7	100.0(915)	
	출생 년도	1955~1959	2.4	19.1	17.7	54.4	6.4	100.0(943)	3.973
		1960~1963	2.8	21.3	19.5	49.7	6.7	100.0(81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8	19.4	16.0	53.0	7.9	100.0(506)	9.595
		고졸	2.3	19.4	19.4	52.6	6.2	100.0(725)	
		초대졸 이상	1.9	21.7	19.7	51.0	5.7	100.0(529)	
	구	동구	2.3	24.4	16.9	52.1	4.2	100.0(307)	122.197***
		중구	2.6	15.2	19.6	58.7	3.8	100.0(341)	
		서구	2.2	26.6	24.0	45.1	2.2	100.0(455)	
		유성구	1.5	16.7	18.0	56.3	7.4	100.0(323)	
		대덕구	4.5	15.6	12.0	51.5	16.5	100.0(334)	

*p<.05, **p<.01, ***p<.001

97) 귀하는 노인들이 겪는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문항 8번)

< 표 2-7-16 > 사회적 포용 -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단위 : %, 명)

구분 ⁹⁸⁾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나의 이웃이 되는 것	받아들일 수 없음	전체	χ^2	
2013	전체		0.9(17)	10.7(201)	31.2(588)	49.2(926)	8.0(150)	100.0(1,882)	
	성별	남성	1.2	11.5	32.8	47.7	6.7	100.0(893)	8.641
		여성	0.6	9.9	29.8	50.6	9.1	100.0(989)	
	출생 년도	1955~1959	0.9	11.1	28.5	51.8	7.7	100.0(1,000)	8.613
		1960~1963	0.9	10.2	34.4	46.3	8.3	100.0(88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	12.0	30.7	44.2	11.6	100.0(267)	9.537
		고졸	0.8	9.9	31.5	50.1	7.6	100.0(1,008)	
		초대졸 이상	0.8	11.4	31.0	49.9	6.9	100.0(607)	
	구	동구	0.3	8.9	26.0	52.8	12.1	100.0(381)	70.291***
		중구	0.0	6.9	27.6	56.0	9.5	100.0(348)	
		서구	2.0	10.8	30.9	47.6	8.6	100.0(489)	
		유성구	0.6	14.8	31.0	47.7	5.8	100.0(310)	
		대덕구	1.1	12.4	41.2	42.1	3.1	100.0(354)	
2014	전체		1.1(19)	12.8(225)	23.5(414)	50.6(890)	12.0(212)	100.0(1,760)	
	성별	남성	1.5	12.4	25.0	48.8	12.3	100.0(845)	5.929
		여성	0.7	13.1	22.2	52.2	11.8	100.0(915)	
	출생 년도	1955~1959	1.2	12.2	22.4	52.4	11.9	100.0(943)	3.206
		1960~1963	1.0	13.5	24.8	48.5	12.2	100.0(81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4	12.5	20.0	51.2	15.0	100.0(506)	18.968*
		고졸	0.6	11.3	24.8	51.0	12.3	100.0(725)	
		초대졸 이상	1.5	15.1	25.1	49.3	8.9	100.0(529)	
	구	동구	1.3	14.3	20.2	53.4	10.7	100.0(307)	86.824***
		중구	0.6	9.7	23.8	55.7	10.3	100.0(341)	
		서구	0.7	19.1	25.3	48.1	6.8	100.0(455)	
		유성구	0.6	10.8	24.1	53.3	11.1	100.0(323)	
		대덕구	2.4	7.8	23.4	43.4	23.1	100.0(334)	

*p<.05, **p<.01, ***p<.001

98) 귀하는 노인들이 겪는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문항 8번)

〈 표 2-7-17 〉 사회적 포용 - 전과자

(단위 : %, 명)

구분 ⁹⁹⁾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나의 이웃이 되는 것	받아들일 수 없음	전체	χ^2
2013	전체	0.1(1)	1.8(34)	5.2(98)	21.5(405)	71.4(1,344)	100.0(1,882)	
	성별	남성	0.1	1.9	6.4	23.1	68.5	100.0(893)
		여성	0.0	1.7	4.1	20.1	74.0	100.0(989)
	출생 년도	1955~1959	0.0	1.9	5.1	22.2	70.8	100.0(1,000)
		1960~1963	0.1	1.7	5.3	20.7	72.1	100.0(88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0.0	2.2	7.1	19.9	70.8	100.0(267)
		고졸	0.1	1.6	4.8	21.3	72.2	100.0(1,008)
		초대졸 이상	0.0	2.0	5.1	22.6	70.3	100.0(607)
	구	동구	0.3	1.3	3.4	17.1	78.0	100.0(381)
		중구	0.0	1.1	7.2	17.5	74.1	100.0(348)
		서구	0.0	1.8	4.5	19.6	74.0	100.0(489)
		유성구	0.0	1.3	6.1	32.3	60.3	100.0(310)
		대덕구	0.0	3.4	5.4	23.4	67.8	100.0(354)
2014	전체	0.1(1)	1.5(27)	4.7(83)	21.4(376)	72.3(1,273)	100.0(1,760)	
	성별	남성	0.0	1.8	5.3	24.7	68.2	100.0(845)
		여성	0.1	1.3	4.2	18.3	76.2	100.0(915)
	출생 년도	1955~1959	0.1	1.5	4.3	22.5	71.6	100.0(943)
		1960~1963	0.0	1.6	5.1	20.1	73.2	100.0(81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0.2	1.0	3.8	18.4	76.7	100.0(506)
		고졸	0.0	1.5	4.6	19.6	74.3	100.0(725)
		초대졸 이상	0.0	2.1	5.9	26.7	65.4	100.0(529)
	구	동구	0.3	1.6	3.3	14.3	80.5	100.0(307)
		중구	0.0	0.3	5.3	20.2	74.2	100.0(341)
		서구	0.0	0.4	2.2	24.6	72.7	100.0(455)
		유성구	0.0	2.8	8.4	23.5	65.3	100.0(323)
		대덕구	0.0	3.0	5.4	22.5	69.2	100.0(334)

*p<.05, **p<.01, ***p<.001

99) 귀하는 노인들이 겪는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문항 8번)

〈 표 2-7-18 〉 사회적 포용 - 동성애자

(단위 : %, 명)

구분 ¹⁰⁰⁾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나의 이웃이 되는 것	받아들일 수 없음	전체	χ^2	
2013	전체		0.1(1)	1.8(34)	6.4(120)	29.1(548)	62.6(1,179)	100.0(1,882)	
	성별	남성	0.1	1.8	7.8	31.1	59.1	100.0(893)	12.536*
		여성	0.0	1.8	5.1	27.3	65.8	100.0(989)	
	출생 년도	1955~1959	0.0	2.1	6.2	26.8	64.9	100.0(1,000)	7.922
		1960~1963	0.1	1.5	6.6	31.7	60.1	100.0(88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0.4	3.0	6.4	26.6	63.7	100.0(267)	11.050
		고졸	0.0	1.3	6.2	29.8	62.8	100.0(1,008)	
		초대졸 이상	0.0	2.1	6.8	29.2	61.9	100.0(607)	
	구	동구	0.0	0.8	6.6	25.7	66.9	100.0(381)	61.502***
		중구	0.0	1.7	6.0	24.1	68.1	100.0(348)	
		서구	0.0	1.8	3.7	25.4	69.1	100.0(489)	
		유성구	0.0	2.6	11.0	37.7	48.7	100.0(310)	
		대덕구	0.3	2.3	6.2	35.3	55.9	100.0(354)	
2014	전체		0.1(2)	1.9(34)	5.2(91)	19.5(343)	73.3(1,290)	100.0(1,760)	
	성별	남성	0.1	1.8	5.2	19.9	73.0	100.0(845)	0.360
		여성	0.1	2.1	5.1	19.1	73.6	100.0(915)	
	출생 년도	1955~1959	0.2	1.4	5.0	18.7	74.8	100.0(943)	6.393
		1960~1963	0.0	2.6	5.4	20.4	71.6	100.0(81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0.0	1.6	5.1	15.8	77.5	100.0(506)	14.928
		고졸	0.1	1.7	4.7	19.2	74.3	100.0(725)	
		초대졸 이상	0.2	2.6	5.9	23.4	67.9	100.0(529)	
	구	동구	0.0	2.3	3.9	14.0	79.8	100.0(307)	31.876*
		중구	0.0	2.1	6.7	24.3	66.9	100.0(341)	
		서구	0.2	2.2	2.6	17.4	77.6	100.0(455)	
		유성구	0.3	1.5	5.9	20.7	71.5	100.0(323)	
		대덕구	0.0	1.5	7.5	21.3	69.8	100.0(334)	

*p<.05, **p<.01, ***p<.001

100) 귀하는 노인들이 겪는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문항 8번)

〈 표 2-7-19 〉 사회적 포용 - 북한이탈주민

(단위 : %, 명)

구분 ¹⁰¹⁾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나의 이웃이 되는 것	받아들일 수 없음	전체	χ^2	
2013	전체	0.5(10)	7.6(143)	21.3(400)	55.5(1,044)	15.1(285)	100.0(1,882)		
	성별	남성	0.9	7.7	23.2	55.7	12.5	100.0(893)	14.857**
		여성	0.2	7.5	19.5	55.3	17.5	100.0(989)	
	출생 년도	1955~1959	0.7	8.0	21.0	55.3	15.0	100.0(1,000)	1.701
		1960~1963	0.3	7.1	21.5	55.7	15.3	100.0(88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	11.6	17.2	50.9	18.7	100.0(267)	19.070*
		고졸	0.5	6.8	22.0	56.1	14.6	100.0(1,008)	
		초대졸 이상	0.2	7.1	21.7	56.5	14.5	100.0(607)	
	구	동구	0.0	4.5	18.4	55.4	21.8	100.0(381)	64.951***
		중구	0.3	6.6	16.1	62.1	14.9	100.0(348)	
		서구	0.4	8.2	22.3	54.2	14.9	100.0(489)	
		유성구	0.0	7.1	26.5	52.3	14.2	100.0(310)	
		대덕구	2.0	11.6	23.4	53.7	9.3	100.0(354)	
2014	전체	1.0(17)	10.8(190)	16.0(281)	52.4(923)	19.8(349)	100.0(1,760)		
	성별	남성	1.1	11.4	17.5	49.3	20.7	100.0(845)	6.692
		여성	0.9	10.3	14.5	55.3	19.0	100.0(915)	
	출생 년도	1955~1959	1.0	10.6	14.6	53.7	20.1	100.0(943)	3.004
		1960~1963	1.0	11.0	17.5	51.0	19.5	100.0(81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	10.3	13.6	52.6	22.5	100.0(506)	17.516*
		고졸	0.7	9.2	16.1	52.7	21.2	100.0(725)	
		초대졸 이상	1.3	13.4	18.0	52.0	15.3	100.0(529)	
	구	동구	1.3	10.7	17.6	53.1	17.3	100.0(307)	94.183***
		중구	1.2	8.8	15.0	61.6	13.5	100.0(341)	
		서구	1.5	16.0	20.4	46.6	15.4	100.0(455)	
		유성구	0.3	9.0	13.9	56.7	20.1	100.0(323)	
		대덕구	0.3	7.5	11.4	46.4	34.4	100.0(334)	

101) 귀하는 노인들이 겪는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문항 8번)

4. 가족정책에 대한 인식

1)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가 생각하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1, 2순위 총점으로 살펴보면,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가 1순위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임신·출산 지원 확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유연근무제 확산, 직장 내 보육·교육시설 설치 활성화 순이었다.

〈 표 2-7-20 〉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2013년)

구분 ¹⁰²⁾	1순위		2순위		총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총점	순위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468	24.9	219	11.7	1,155	1
임신·출산 지원 확대	366	19.4	249	13.3	981	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333	17.7	300	16.1	966	3
유연근무제 확산	282	15.0	340	18.2	904	4
직장 내 보육·교육시설 설치 활성화	179	9.5	239	12.8	597	5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	104	5.5	211	11.3	419	7
출산·육아휴직 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109	5.8	221	11.8	439	6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40	2.1	86	4.6	166	8
기타	1	0.1	2	0.1	4	9

*총점=(1순위 빈도×2점)+(2순위 빈도×1점)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1순위로는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확대가 가장 많이 나왔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전기 베이비부머보다는 후기 베이비부머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선호도가 더 높았다. 구별로는 대덕구가 33.6%로 가장 높고, 서구가 18.4%로 가장 낮았다. 반면 임신·출산지원 확대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유연근무제 확산, 직장 내 보육·교육시설 설치 활성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았다.

102) 귀하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지원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번)

〈 표 2-7-21 〉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1순위(2013년)

(단위: %, 명)

구분 ¹⁰³⁾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	임신· 출산 지원 확대	육아휴 직제도 활성화	유연 근무제 확산	직장 내 보육· 교육시 설 설치 활성화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	출산· 육아휴직 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기타	전체	χ^2
전체		24.9 (468)	19.4 (366)	17.7 (333)	15.0 (282)	9.5 (179)	5.5 (104)	5.8 (109)	2.1 (40)	0.1 (1)	100.0(1,882)	
성별	남성	24.4	19.9	17.5	14.6	10.2	5.9	5.3	2.1	0.1	100.0(893)	3.868
	여성	25.3	19.0	17.9	15.4	8.9	5.2	6.3	2.1	0.0	100.0(989)	
출생 년도	1955~1959	24.2	20.2	17.3	16.0	9.5	4.8	5.6	2.3	0.1	100.0(1,000)	6.020
	1960~1963	25.6	18.6	18.1	13.8	9.5	6.3	6.0	1.9	0.0	100.0(88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4.1	15.7	15.0	14.2	7.9	4.5	6.0	2.6	0.0	100.0(267)	21.340
	고졸	24.1	19.6	17.9	15.5	9.7	5.6	6.0	1.7	0.0	100.0(1,008)	
	초대졸 이상	22.1	20.8	18.6	14.5	9.9	5.9	5.4	2.6	0.2	100.0(607)	
구	동구	29.4	22.0	13.9	13.6	7.6	4.7	7.9	0.8	0.0	100.0(381)	112.900***
	중구	20.1	12.6	17.8	18.4	12.4	9.5	6.0	3.2	0.0	100.0(348)	
	서구	18.4	18.4	21.1	15.7	12.1	4.9	6.3	2.9	0.2	100.0(489)	
	유성구	24.8	22.3	24.5	9.7	8.1	4.2	3.9	2.6	0.0	100.0(310)	
	대덕구	33.6	22.3	11.0	16.7	6.5	4.5	4.2	1.1	0.0	100.0(354)	

*p<.05, **p<.01, ***p<.001

2) 다문화 가구원 지원방안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가 생각하는 다문화 가구원을 위한 지원방안을 1, 2순위 총점으로 살펴보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1순위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등 경제적 지원, 사회 적응을 위한 한글문화교육 서비스, 다문화 가구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분위기 조성의 순이었다.

〈 표 2-7-22 〉 다문화 가구원을 위한 지원(2013년)

구분 ¹⁰⁴⁾	1순위		2순위		총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총점	순위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645	34.3	296	16.1	1,586	1
기초생활보장 등 경제적 지원	528	28.1	298	16.2	1,354	2
사회 적응을 위한 한글·문화교육 서비스	326	17.3	475	25.8	1,127	3
다문화 가구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분위기 조성	305	16.2	509	27.6	1,119	4
다문화 가구 아동의 학교 적응을 위한 노력	74	3.9	264	14.3	412	5
기타	2	0.1	1	0.1	5	6
잘 모름	2	0.1	0	0.0	4	7

*총점=(1순위 빈도×2점)+(2순위 빈도×1점)

103) 귀하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지원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1순위, 2순위(5번)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과 다문화가구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더 많이 1순위로 선택했고, 여성은 경제적 지원과 한글·문화교육 서비스, 다문화가구 아동의 학교 적응을 위한 노력을 더 많이 1순위로 선택하였다.

〈 표 2-7-23 〉 다문화 가구원을 위한 지원 1순위(2013년)

(단위 : %, 명)

구분 ¹⁰⁵⁾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기초 생활보장 등 경제적 지원	사회 적응을 위한 한글/문화 교육 서비스	다문화 가구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분위기 조성	다문화 가구 아동의 학교 적응을 위한 노력	기타	잘 모름	전체	χ^2
전체		34.3(645)	28.1(528)	17.3(326)	16.2(305)	3.9(74)	0.1(2)	0.1(2)	100.0(1,882)	
성별	남성	34.7	27.8	16.9	17.1	3.5	0.0	0.0	100.0(893)	5.743
	여성	33.9	28.3	17.7	15.4	4.3	0.2	0.2	100.0(989)	
출생 년도	1955~1959	36.0	27.5	16.1	15.8	4.6	0.0	0.0	100.0(1,000)	11.107
	1960~1963	32.3	28.7	18.7	16.7	3.2	0.2	0.2	100.0(88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9.7	24.3	18.7	13.5	3.4	0.4	0.0	100.0(267)	15.870
	고졸	34.4	29.3	17.4	14.9	3.9	0.1	0.1	100.0(1,008)	
	초대졸 이상	31.6	27.7	16.6	19.6	4.3	0.0	0.2	100.0(607)	
구	동구	31.0	35.7	17.1	12.3	3.7	0.3	0.0	100.0(381)	34.754
	중구	34.5	29.9	16.1	15.5	3.7	0.0	0.3	100.0(348)	
	서구	32.9	23.7	21.1	17.6	4.5	0.0	0.2	100.0(489)	
	유성구	35.5	25.8	16.1	17.7	4.5	0.3	0.0	100.0(310)	
	대덕구	38.4	26.0	14.7	17.8	3.1	0.0	0.0	100.0(354)	

*p<.05, **p<.01, ***p<.001

104) 귀하는 다문화 가구원을 위해 지원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번)

105) 귀하는 다문화 가구원을 위해 지원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1순위, 2순위(6번)

제3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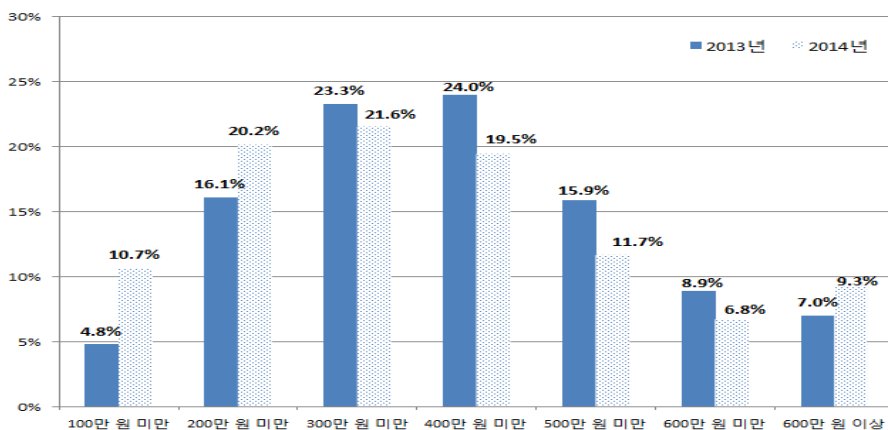
1. 소득 및 생활수준

1) 소득수준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소득수준은 월평균 소득 300~400만원에 주로 분포하고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베이비부머도 15% 이상(2013년 15%, 2014년 16%) 존재한다. 본인의 경제·사회적인 위치에 대한 평가도 80% 가까이가 중 또는 상이라고 응답하여 대전 시민 전체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하지만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도 상당수 존재한다. 연도별 차이는 있으나 베이비부머의 20% 이상(2013년 20.9%, 2014년 30.9%)이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으로 도시가구 월평균소득¹⁰⁶⁾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소득만을 올리고 있었다. 또한 2014년 조사결과에서는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도 10.7%가 나와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¹⁰⁷⁾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 베이비부머들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1]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1년 동안 월평균 가구소득



106) 2015년 2/4분기 기준 도시가구 평균소득은 1인 가구는 1,674,695원, 2인 가구는 3,109,488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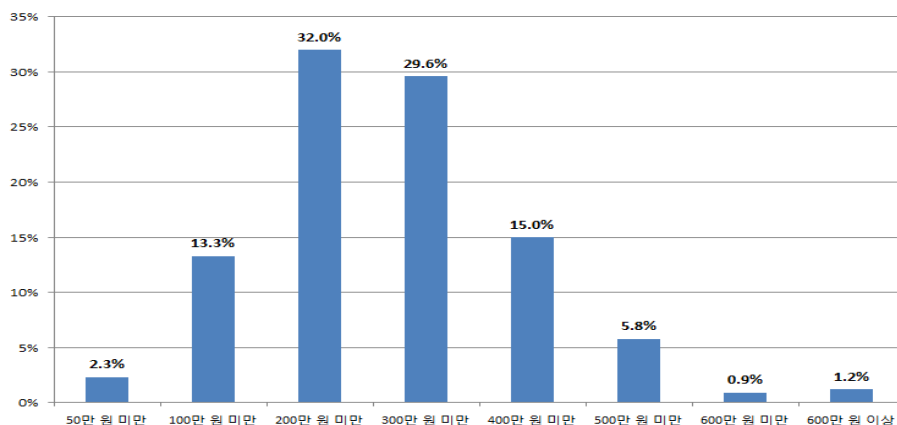
107) 2014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는 617,281원, 2인 가구는 1,051,048원이었다.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베이비부머의 빈곤문제가 베이비부머가 노령화되면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아서 노인들의 근로 소득 의존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은퇴가 본격화되면 베이비부머의 빈곤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OECD의 2011년 소득 불평등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근로소득 의존율은 58.4%로 OECD 평균인 21.4%의 2.7배에 이른다(이상구, 2014). 따라서 은퇴가 본격화되는 60대 이후부터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계소득이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국민연금 연구원이 제5차(2013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가계소득은 가구주가 50대일 때 가장 높다가 60대에 이후부터는 점차 줄어들어 70대 이상이 되면, 50대 소득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¹⁰⁸⁾.

소득이 적으면 그만큼 지출도 적은 베이비부머도 많았다. 2013년 기준으로 월평균 총소비 지출액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베이비부머가 거의 반수(47.6%)에 이르렀고, 15.6%는 1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베이비부머들은 교육비 등 자녀양육으로 인한 지출이 줄어드는 연령대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100만원 미만의 지출은 전국의 50대 이상 중고령자의 평균 지출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노후에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적정 생활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¹⁰⁹⁾.

[그림 3-1-2]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가구지출(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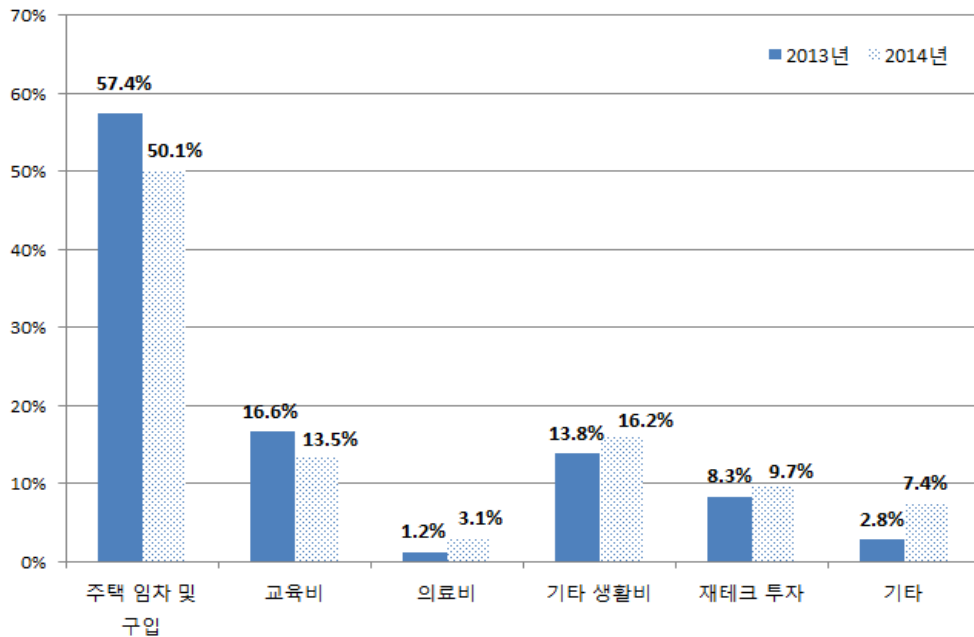
108) 50대 가구의 연간 가구소득은 4천7백만원이 넘지만, 60대에는 3천1백만원, 70대에는 3천1백만원 선으로 떨어진다(송현주 외, 2014).

109) 2013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전국 중고령자의 연평균 가계지출은 2천7백6십만원으로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2백3십만원 정도이고, 노후에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월 적정 생활비는 부부기준으로 225만원, 개인기준으로 142만원이었다(송현주 외, 2014).

2) 가계부채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가계부채율(2014년 기준 ‘부채가 있다’ 39.7%)은 대전시민 전체 가계부채율(38.6%)과 비슷한 수준으로, 30~40대 장년층에 비해서는 낮지만, 20대 청년층이나 60세 이상 노년층에 비해서는 높다. 가계부채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50.1%)는 주택 임차나 구입이었다. 가계부채의 규모는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이비부머 가구의 정확한 부채규모는 알 수 없으나 주로 주택 임차나 구입으로 인해 부채가 발생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규모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1-3] 부채이유



베이비부머의 가계부채 상황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대전지역 전체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도와 2014년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베이비부머의 가계부채율이 2013년 대비 4.4%p 증가하였다. 이는 황진영 외(2014)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전시의 가계부채는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증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두 번째는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황진영 외(2014)의 연구에 따르면 대전시에서는 지난 몇 년간 비은행예금기관의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도 다른 지역에 비해 급속히 증가했다. 또한 대전지역 가계부채의 많은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경기가 부진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더 커질 수 있다.

베이비부머는 은퇴에 의한 소득 급감기를 앞에 두고 있어,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 및 악성화 경향이 계속된다면 향후 가계부채에 의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기타 생활비나 의료비처럼 필수적인 지출 때문에 부채가 있는 베이비부머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점이다. 생활비를 벌린다는 것은 이미 현재의 소득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의미하며,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베이비부머들에게는 악성부채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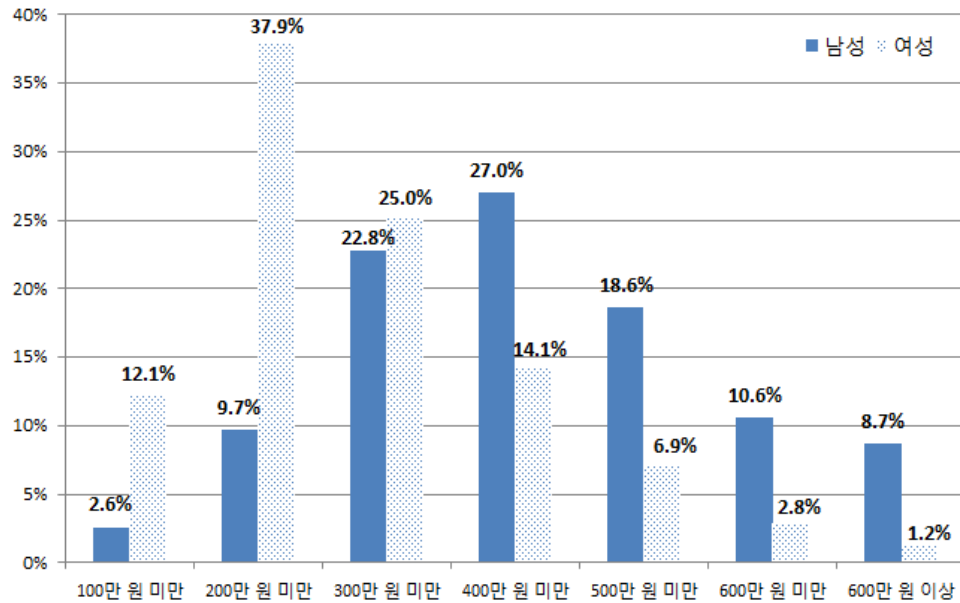
3) 여성빈곤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여성 베이비부머들의 빈곤 문제이다. 여성 고용율과 임금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소득수준이 낮고 빈곤율이 높은 현상은 어느 연령대에서나 나타난다. 특히 여성의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활동 참여율도 낮은 중고령층에서 성차는 더 크게 나타난다. 송현주 외(2014)의 연구에서도 여성이 가구주인 중고령자 가구의 가계소득은 남성의 50% 수준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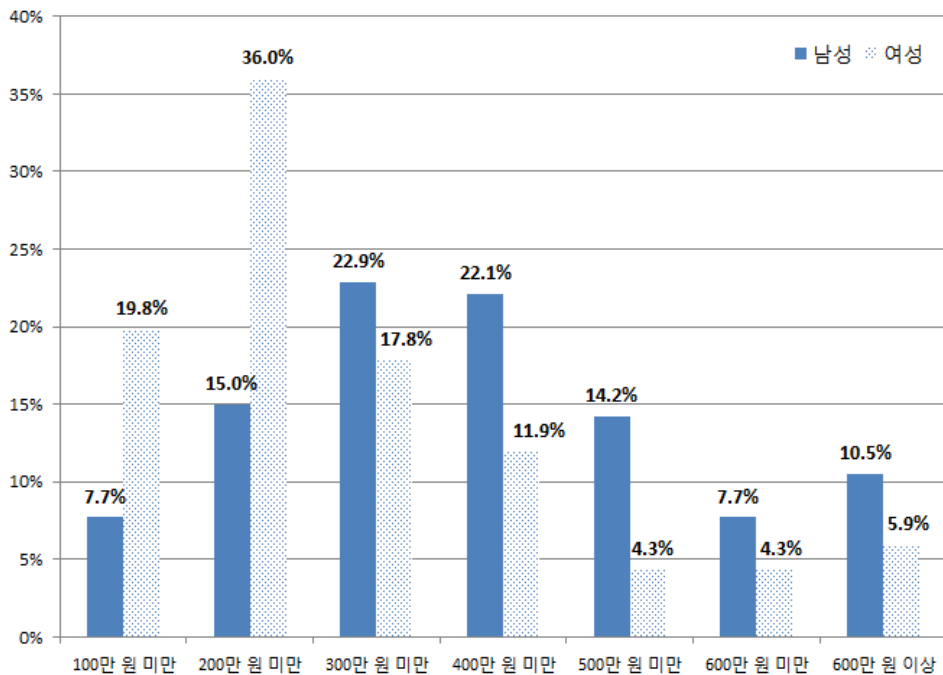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다. 2014년 기준으로 가계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비율은 남성은 22.7%였으나, 여성은 그 두 배가 넘는 55.8%였다. 2013년 자료에서는 이 차이는 더 커서 남성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비율이 12.5%였지만, 여성은 50%로 남성의 4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자료를 통해 여성 베이비부머의 빈곤율이 남성 베이비부머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우려할만한 지표는 여성 베이비부머의 부채상황이다. 여성이 부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남성보다 약간 낮지만, 기타생활비에 의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2013년과 2014년 모두 더 높았다. 이는 부동산 매각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성 베이비부머들의 부채상황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3-1-4] 성별에 따른 월평균 가구소득(2013년)



[그림 3-1-5] 성별에 따른 월평균 가구소득(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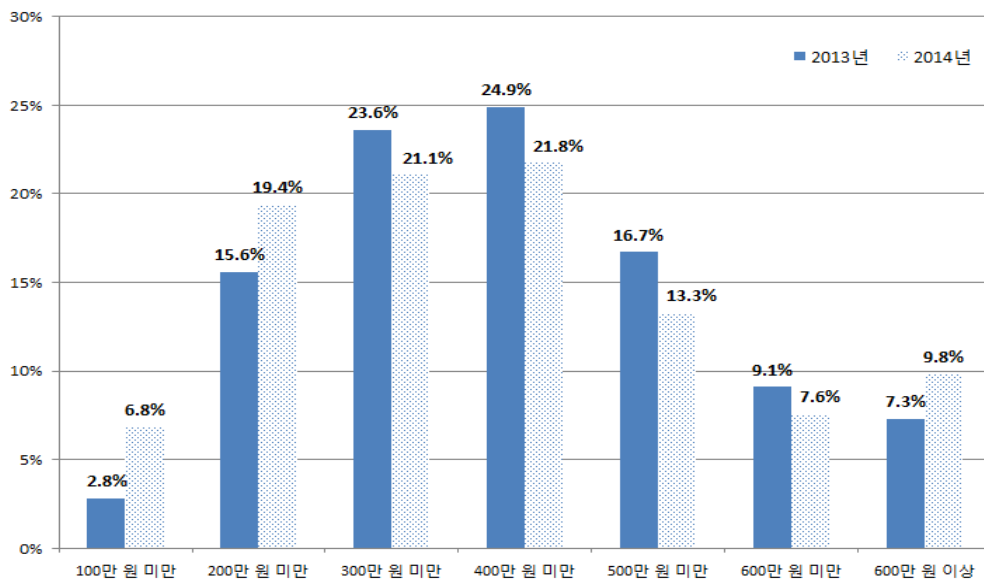
2. 경제활동 및 고용

1) 근로빈곤

베이비부머의 70% 가까이가 여전히 직업을 가지고 있고, 특히 남성 베이비부머들은 대다수(2013년 94.4%, 2014년 87.6%)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대전광역시의 2014년 전체 고용율인 59.4%¹¹⁰⁾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고용율은 30대부터 대폭 늘어나 40대를 정점으로 50대부터 다시 줄어들어 60대 이후부터는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통계청, 고용동향 참조). 대전광역시의 연령대별 고용율 변화경향도 이와 유사하다(대전의 사회지표 참조).

직업이 없어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도 문제이지만, 직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근로빈곤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베이비부머 중 50% 이상이 직업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베이비부머 중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2013년에는 2.8%, 2014년에는 6.8%였다.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까지 합치면, 2013년에는 18.4%, 2014년에는 26.4%에 이르러, 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이 매우 적은 베이비부머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6] 직업 있는 베이비부머의 월평균 가구소득



110)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고용율(시도)

이러한 베이비부머의 근로빈곤 상황과 관련하여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 대비 사업체수 비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으며, 특히 1~9명 규모의 소규모 사업체 수가 월등하게 많다(OECD, 2015). 이는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7.4%로 31개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았다(헤럴드경제, 2015).

문제는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생계수단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비자발적인 자영업자의 비율이 50대 이상 중고령층에서는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별한 기술이나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중고령자가 늘어나면서 빈곤층 자영업자도 함께 늘어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50대 이상 자영업자 중 약 45%가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근로빈곤 상태에 처해 있었다.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들의 자영업 비율도 매우 높다. 2014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이 있는 베이비부머의 32.9%가 자영업자라고 응답했다. 자영업에 준하는 소기업까지 포함하면 베이비부머의 60% 이상이 고용안정성이 낮은 소규모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베이비부머 중 대다수가 소기업 근무자이거나 자영업자라고 응답해서 이들의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2) 구직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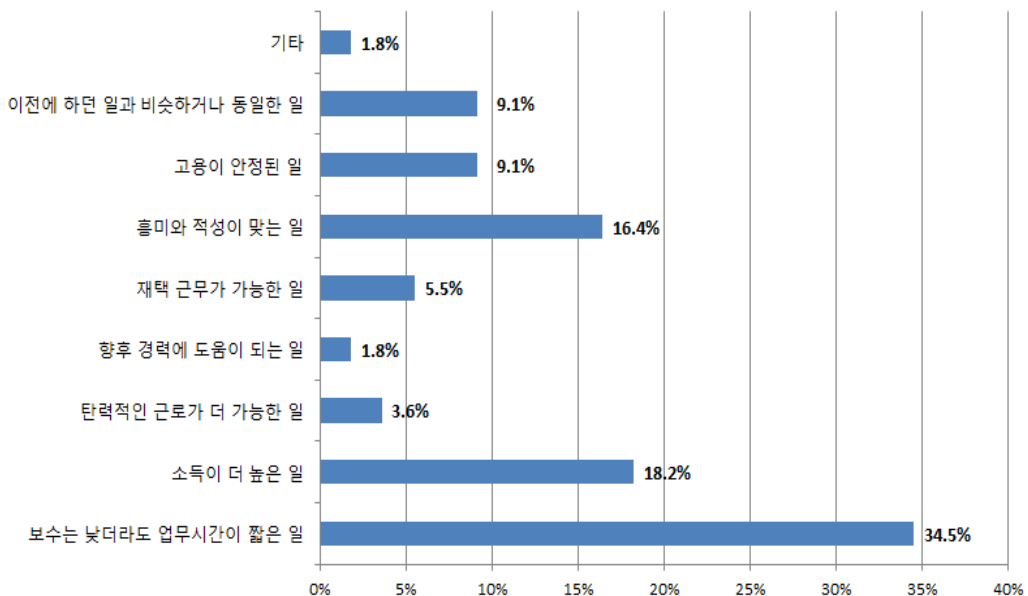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대다수(2013년 87.9%, 2014년 79.7%)가 주부라고 대답했다. 무직이나 은퇴라는 응답은 20%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남성 비경제활동 베이비부머의 경우에는 무직이나 은퇴라는 응답이 90% 이상이었다.

직장이 없는 베이비부머의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 비율은 8.8%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비경제활동 베이비부머의 대다수가 주부라는 ‘직업’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일을 해야 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베이비부머들은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베이비부머들은 실제로 일을 할 형편이 못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베이비부머 중 ‘대전 지역 내 일자리만 구해봤다’는 비율이 89.1%

로 지역 내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직 시 고려사항은 34.5%가 ‘보수는 낮더라도 업무시간이 짧은 일’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소득이 더 높은 일’ 18.2%, ‘흥미와 적성이 맞는 일’ 16.4%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이비부머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형태의 지역일자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소득보전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여가선용, 자아실현 등과 같은 비경제적인 이유에서 기인하는 취업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7] 구직 시 고려사항(2013년)



3. 생활만족도

1) 행복도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들은 주관적 행복감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 하는 일에 대한 가치에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였고 근심이나 우울감에서는 보통 이하의 점수를 보여서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긍정적인 지표는 점수가 떨어지고 부정적인 지표는 점수가 올라간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가족관계 만족도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들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점이 넘었고, 반수 가까이는 매일 1끼 이상 가족과 함께 식사한다고 응답했다. 가족 간 소통도 대다수가 보통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여성 베이비부머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남성보다 떨어지고 가족 간의 식사횟수도 적으며 가족 간 소통에 대한 평가도 낮은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평생교육 및 여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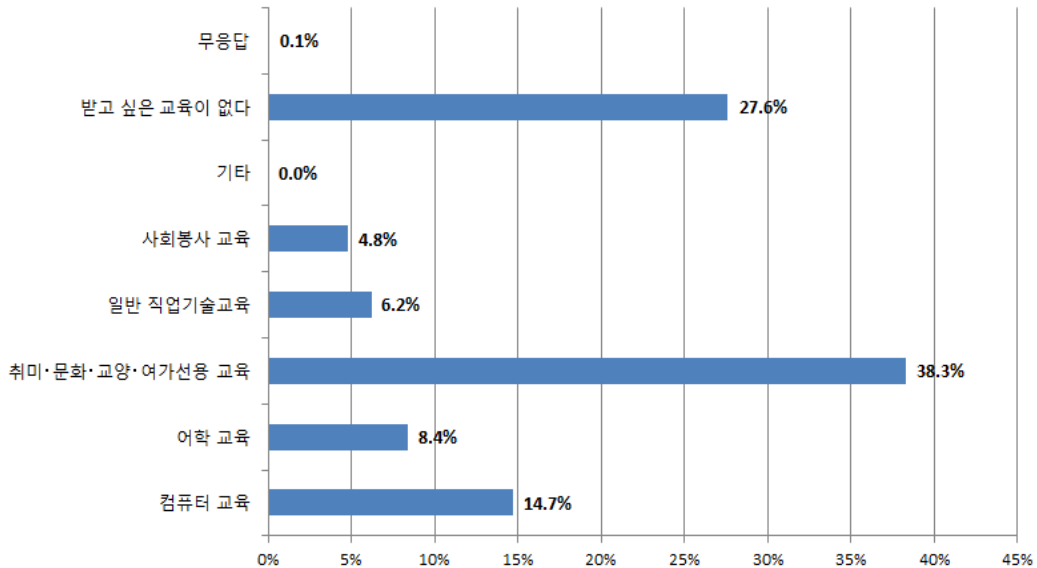
1) 평생교육 참여율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매우 낮았다.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들의 대다수인 83.7%(2014년)가 학교교육 이외의 강좌강습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고, 지난 1년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63.2%(2013년)에 이르렀다. 평생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반수 정도가 직장에서 받은 교육 및 훈련이라고 응답하여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평생교육 경험이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었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받고 싶은 평생교육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 ‘받고 싶은 교육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7.8%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100세 시대의 인생후반전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평생교육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30%에 가까운 베이비부머들이 필요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베이비부머들은 생애를 통해 ‘행복을 위한 배움, 삶을 통한 학습’이라는 평생교육의 정신을 이해할 기회를 가지기 힘들었다. 베이비부머들이 성장하던 시대에는 우리나라에 평생교육의 개념 자체가 널리 퍼지지 않았던 데다가, 고속경제성장 속에서 일상화된 장시간 근로를 하며 청장년기를 보내다보니 ‘교육=학교교육’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 자연히 교육은 힘든 것, 돈이 많이 드는 것, 시간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졌고, 교육은 즐거운 것, 나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베이비부머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1-8] 향후 평생교육 희망강좌 1순위(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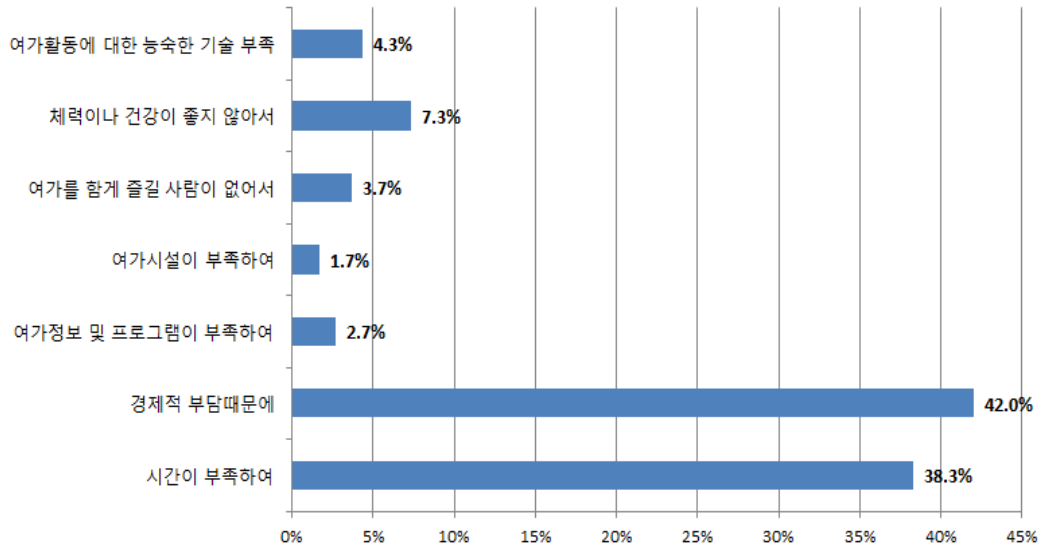
2) 여가생활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들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는 5점 만점에 3.09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나,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30% 가까이(약간 불만족, 13.5%, 매우 불만족 3.6%) 나왔다. 여가생활 불만족의 주요 요인은 ‘경제적 부담(42.0%)’과 ‘시간 부족(38.3%)’이었다.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들은 평일은 물론 주말이나 휴일까지도 반 수 이상이 시간부족을 느낄 정도(가끔 그렇다 39.8%, 항상 그렇다 16.1%)로 시간에 쫓기고 있으며, 충분치 않은 여가시간마저도 대다수가 주로 TV 및 DVD 시청(32.6%)이나 가사(14.1%), 종교 활동(13.1%), 휴식(12.6%)으로 보내고 있어, 진정한 의미에서 여가생활을 즐기는 경우는 드물다.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 대다수가 취업상태로 경제활동참여율이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이 베이비부머의 여가생활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있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위인 시간 부족은 은퇴와 함께 개선될 수 있으나, 경제적 부담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1-9]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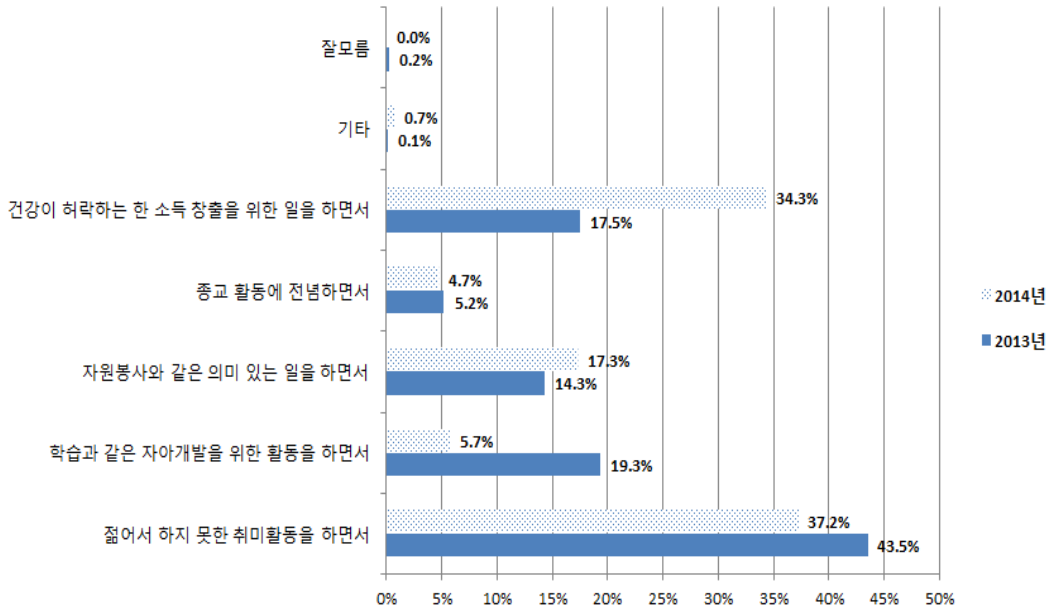


3) 노후생활 계획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들의 노후생활 계획은 2013년과 2014년 모두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활동을 하면서 보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2013년 43.5%, 2014년 37.2%). 여기에 학습과 같은 자아개발을 위한 활동(2013년 19.3%, 2014년 5.7%)과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2013년 14.3%, 2014년 17.3%)을 더하면 대다수의 베이비부머가 경제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을 하며 여유 있는 노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베이비부머가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가활동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40%가 넘게 나오는 상황에서, 경제적 상황에 대한 걱정 없이 원하는 활동을 하며 노년을 보낼 수 없는 베이비부머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10] 노후생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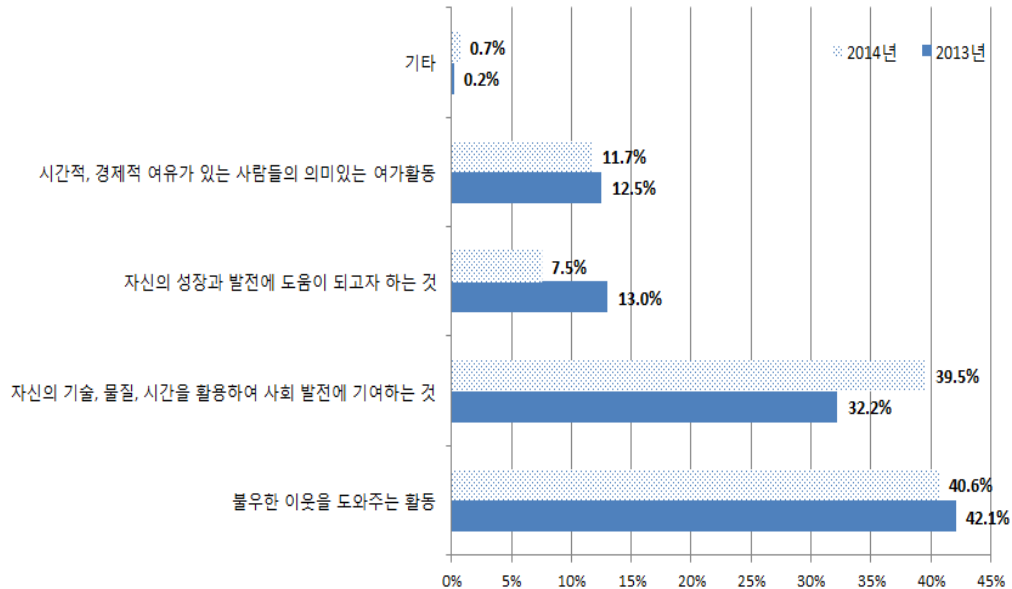
5. 사회참여 및 공동체

1)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

기부와 자원봉사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들의 자원봉사 참여율 또한 매우 낮았다. 자원봉사활동 등 노동기부에 참여해보았다는 응답은 3.8%, 재능기부에 참여해보았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으며, 현금이나 물품기부를 포함한 어떤 형태의 기부에도 참여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81.9%에 이르렀다.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상당수(2013년 48.2%, 2014년 62.5%)가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많은 수는 아니지만 베이비부머 10명 중의 한 명(2013년 12.5%, 2014년 11.7%) 정도는 자원봉사활동을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의미 있는 여가활동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자원봉사와 기부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나 기부가 시간적·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인식이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1-11]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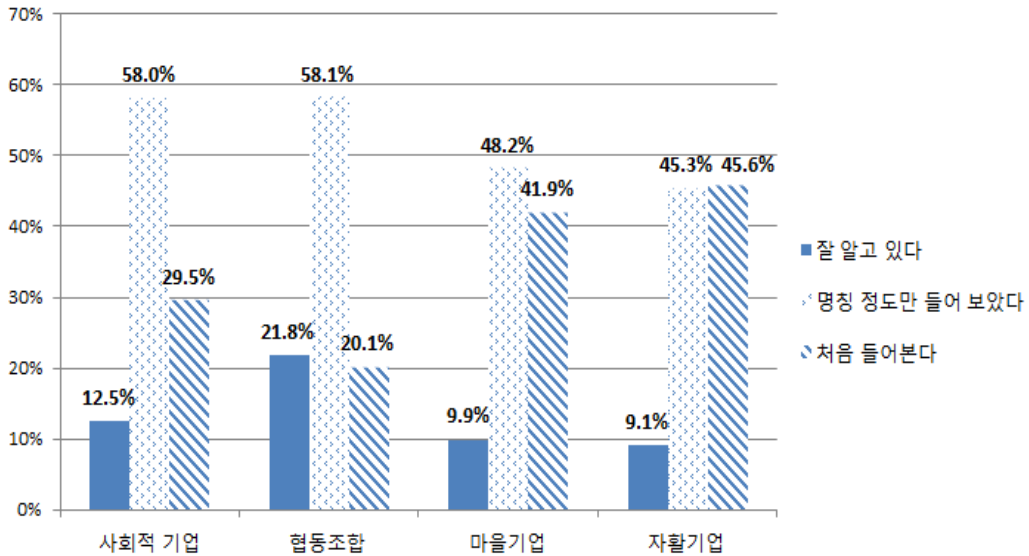


지역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더 낮아졌다. 2014년 기준으로 5점 만점에 평균 3.5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지만, 매우 그렇다 또는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0.0%를 약간 넘었다. 지역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강하더라도 여러 상황에 의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실제로 참여하는 비율은 아주 낮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베이비부머가 본인의 사회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인지도는 여전히 매우 낮았다.

말은 들어보았으나 의미는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26.0%,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는 응답도 26.2%로 사회적 경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10.0%에도 미치지 못하여 대다수가 마을기업에 대해 모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3-1-12]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 인지도(2014년)



2) 세대 간 소통

고령화 현상이 가속되면서 세대 갈등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들은 세대 간 소통을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세대 간 소통에 대한 베이비부머의 인식은 베이비부머보다 젊은 세대들에 비해 더 긍정적이어서 세대 통합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인식 전환이 더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3) 사회적 관계망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은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들은 대다수가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지만, 도움 받을 수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20% 안팎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망에서 소외되어 있는 베이비부머들에게 일상 생활 속의 위기상황에 함께 대처할 수 있는 이웃이나 지역사회 내의 관계망 형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6. 복지인식

1)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와 함께 계층 이동성이 약해지면서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 ‘높다’고 응답한 가구주는 28.2%였는데, 이는 2011년 조사에 비해 0.6%p 감소한 수치이다. 다음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39.9%가 높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011년 조사에 비해 1.8%p 감소한 수치이다.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들은 자신의 노력에 의한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해 반수 정도가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자녀의 노력에 의한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동일한 문항으로 측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위에서 언급한 통계청의 사회조사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대전광역시 베이부머들의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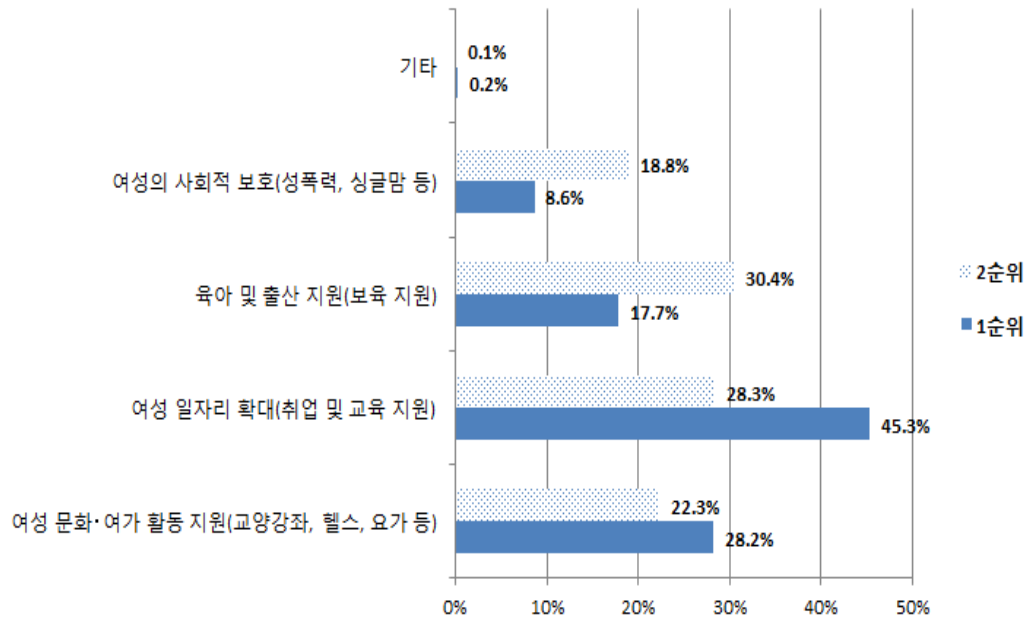
2)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호도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대상별로 가장 긴급한 복지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 여성은 일자리 확대, 장애인은 생활안정, 노인은 의료서비스 확대가 1순위로는 가장 많이 나와서, 여성고용 문제, 장애인 소득문제, 노인의 건강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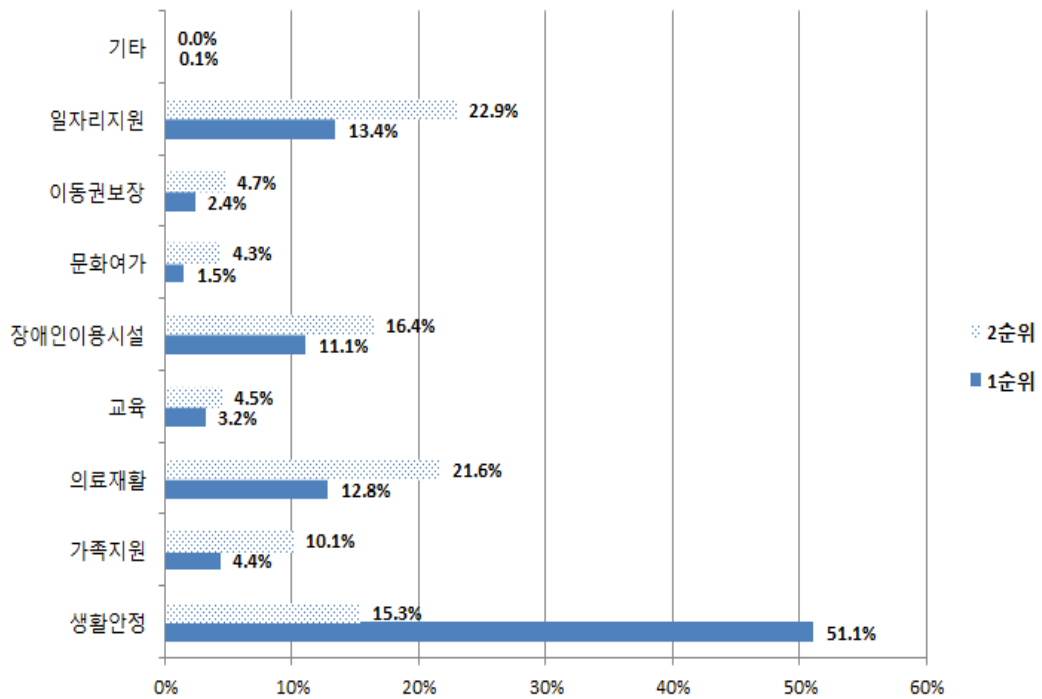
주목할 점은 장애인과 노인에 대해서도 일자리 지원이 1순위에서는 두 번째로, 2순위에서는 첫 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와서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전반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가장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것이 일자리 지원임을 보여주었다. 다문화 가구원을 위한 지원방안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서 필요한 지원의 1순위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장애인연금이나 노령연금이 취약한 상태에서 근로소득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노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확대라고 응답하면서도, 노인의 가장 큰 고충이 무엇이라고 보는 질문에는 경제적 문제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고 건강문제라는 응답은 8.0%에 그쳤다. 이는 노인일자리를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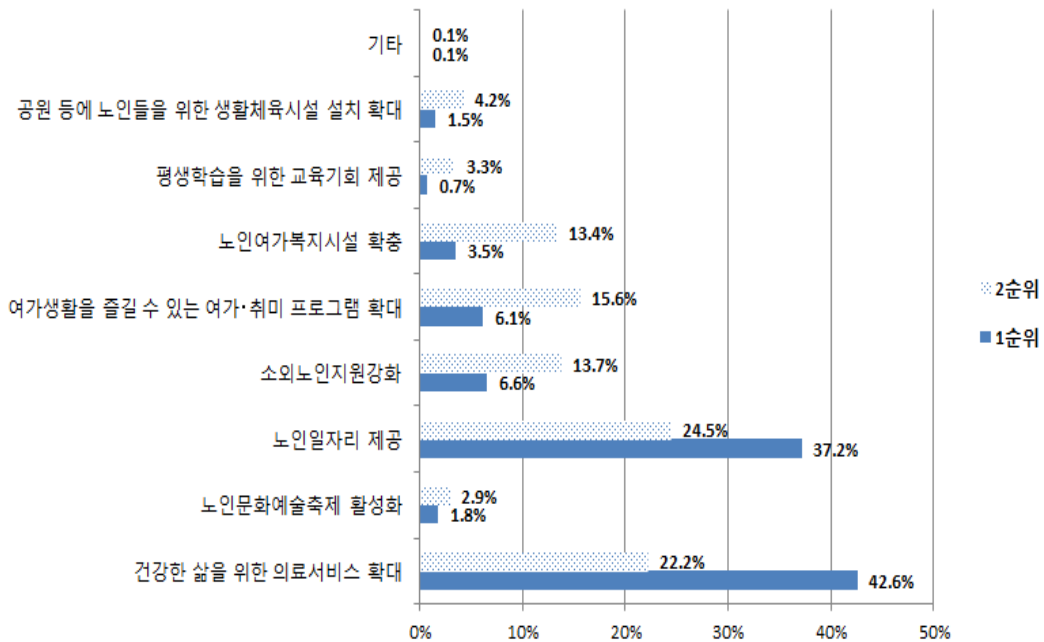
[그림 3-1-13] 여성복지서비스 선호도(2014년)



[그림 3-1-14] 장애인 복지서비스 선호도(2014년)



[그림 3-1-15] 노인 복지서비스 선호도(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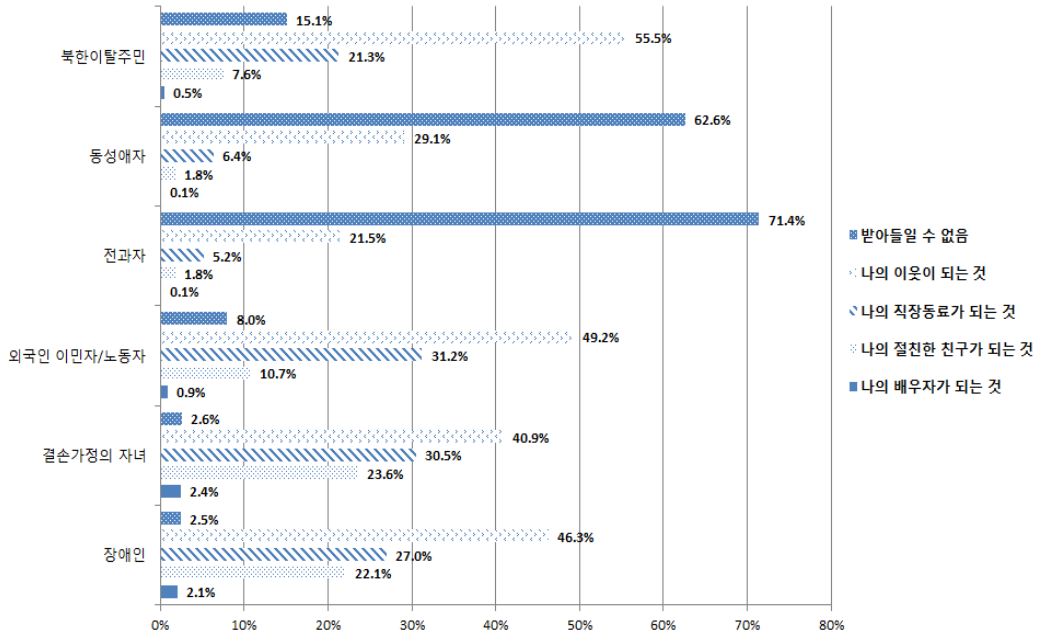


3) 사회적 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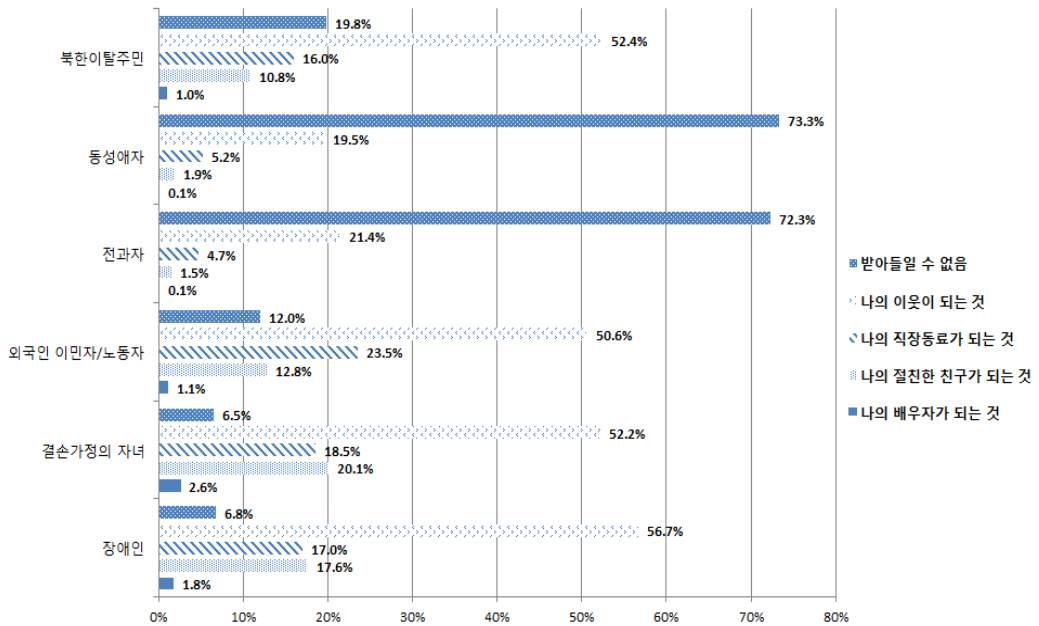
사회적 포용은 사회적 배제의 반대 개념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정도를 보여준다. 대전광역시 사회조사에서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 장애인, 결손가정의 자녀,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전과자, 동성애자, 북한이탈주민을 들었다. 2014년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동성애자, 전과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의 순으로 사회적 배제 정도가 강했고, 장애인이나 결손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제 정도가 약했다.

특히 동성애자나 전과자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70%를 넘어서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이 요청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사회적 배제 정도가 약한 장애인이나 결손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2014년 조사에서는 오히려 증가해 취약계층에 대한 더 적극적인 포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그림 3-1-16] 사회적 포용(2013년)



[그림 3-1-17] 사회적 포용(2014년)



제2절 베이비부머 지원정책의 방향

1. 고용 및 노후 설계 지원

1) 고령자 고용유지 정책 강화

베이비부머를 바라보는 흔한 관점은 ‘고령화를 이끄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2020년 들어 베이비부머들이 노년층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더욱 빨라져, 2026년경에는 65세 인구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남도나 경상북도 등 농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가 많은 대전의 고령화 속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3년 뒤인 2029년경에는 역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4). ‘노인=사회적 부담’이라는 시각 속에서 베이비부머의 노년층 진입은 ‘인구학적 시한폭탄’ 등의 용어와 결합되면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 의해 가려진 베이비부머의 인구학적 중요성이 있다. 베이비부머가 불과 몇 년 앞으로 다가온 인구절벽과 그에 뒤따르는 생산가능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귀중한 인적 자원이라는 점이다. UN 인구분과(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에서는 최근 발간한 「세계인구전망 보고서(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를 통해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2036년에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인구감소는 소비인구는 물론 생산인구의 감소도 함께 불러온다. 여전히 노동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떠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용역을 받아 올해 2월에 발간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재편 방향(손종철 외, 2015)」 보고서에서는, 2013년 수준의 연령별 고용률이 계속 유지된다면 2017년 이후에는 베이비부머가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취업자 규모가 줄어들면서 ‘일자리 부족’ 현상이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고용 증가율 둔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정년연장 및 고령자 친화적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중고령층의 고용률 제고를 들었다. 중고령층의 고용률을 2020년까지 일본과 비슷한 수준(2013년 기준)으로만 높여도 고용 증가율이 떨어지는 시점을 2020년으로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속적으로 고

용이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을 포함한 생산가능연령 인구 전반의 고용률을 높여야 하겠지만, 베이비부머들의 고용률만 높여도 인구변화의 충격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고령층의 고용율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현재 일하고 있는 중고령자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일단 직장을 떠난 중고령자가 비슷한 대우를 받는 다른 직장에 취직할 가능성은 낮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¹¹¹⁾, 인생이모작센터 등을 통해 중장년을 위한 취업 및 전직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취업이 되더라도 생애를 거쳐 쌓아온 경력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생애경력과는 별 상관없는 곳에 취직하는 경우에는 경력을 쌓기 위해 투자한 교육 및 훈련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별도의 전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비용효과성 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이다.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정년연장 논의도 이러한 맥락을 같이 한다. 이미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고령자고용법)」이 제정되면서 내년인 2016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나고, 2017년부터는 해당기관이 국가 및 지자체와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하게 된다. 더불어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에는 고용지원금이나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고령층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년연장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¹¹²⁾은 물론 북유럽¹¹³⁾ 등 이른바 복지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입한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의 연동 방침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와 논쟁이 한참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세계 유

111)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중장년 취업지원기관이다. 만40세 이상 중장년 퇴직자 또는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 지원, 취업알선, 사회 참여 기회제공 등의 종합 전직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노사발전재단과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은퇴자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각 지역 경영자총협회와 상공회의소 등이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전국 28개소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전에는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에서 1개소를 운영 중이다(장년 일자리 희망넷 홈페이지 http://www.4060job.or.kr/introduce/nosa_view.do 참조).

112) 일본 정부는 2004년에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4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고용의 확보를 보장하는 계속고용 의무가 모든 기업에 부과되었다. 계속고용 의무의 시행으로 고용주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조정되는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고용 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①정년 연장, ②계속고용제도의 도입, ③정년의 폐지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고령자에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해야 한다(김준영, 2010).

113) 스웨덴의 법적 정년은 65세이나 67세가 되어야 해고가 가능하다. 핀란드에서는 근로자가 67세까지 일할 권리가 있으며 연금개시연령도 63세에서 68세로 상향했다(조은영, 2014).

래 없는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으며, 이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손종철 외, 2015).

허울뿐인 정년연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년보장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년법제화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 같은 일부 직종에만 해당할 뿐 대다수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민간기업에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통계청에서 지난 7월 23일 발표한 ‘201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애 가장 오래 근무했던 직장에서의 평균연령은 49세¹¹⁴⁾였다(통계청, 2015).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조기퇴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전기베이비부머(1955~1959년생)들의 취업률은 62.9%(2013년)와 64.5%(2014년)로 후기베이비부머(1960~1963년생)의 취업률인 71.1%(2013년)와 72.7%(2014년)에 비해 10% 가까이 낮다. 이를 통해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60세에 이르지 않은 전기베이비부머들 중에서도 퇴직자가 많이 발생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은퇴한 근로자들의 대다수가 생계를 위해 다시 취업을 하여 실제 노동시장을 떠나는 유효 은퇴연령(2012년 기준)은 남성은 평균 71.1세, 여성은 평균 69.8세였다. 이는 OECD 평균(남성 64.2세, 여성 63.1세)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남성은 멕시코에 이어 2위, 여성은 1위다. 현재 정년은 물론 연장된 정년 60세와의 격차도 남성의 경우에는 11년이 넘는다.

문제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중고령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생계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초저임금만을 받는 ‘나쁜’ 일자리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다(경향신문, 2015). 본 연구에서도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인 베이비부머의 반수 이상이 직업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00만원 미만인 베이비부머의 대다수가 직업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베이비부머들이 직업을 통해 얻는 소득이 적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부머들이 현재 직장에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퇴직으로 인한 소득의 급격한 감소와 경력단절을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114) 기업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 전에 대량해고를 실시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비난을 의식하여, 기업인들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앙일보와 함께 이 자료를 다시 분석했다(중앙일보, 2015. 5. 6.). 40세 이후 퇴직자만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통계청 발표보다 3년이나 늦은 52세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현재 규정된 정년보다도 한참 이른 시기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이미 사실상 해고가 자유로운 민간기업에 고령자 고용유지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고령자고용법에서는 정년을 60세로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영상의 이유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보다도 훨씬 이른 시기에 공공연히 해고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상의 규정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개별 기업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고용 유지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신규일자리의 창출보다 더 적다. 재교육이나 구직·구인비용이 절감되고,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 유지 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중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머지않아 닥칠 숙련기술자 부족현상을 방지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생산직의 기술·숙련직 인력의 평균 연령은 50세경이다. 50세 초중반에 평생직장에서 퇴직하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오호영, 2013).

문제는 세계적으로 최장인 근무시간으로 상징되는 힘든 근무조건이 고령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구직활동을 해 본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가 구직시 고려사항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보수는 낮더라도 업무시간이 짧은 일(34.5%)이었다. 이는 소득이 더 높은 일(18.2%), 흥미와 적성에 맞는 일(16.4%)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로, 업무시간이 조정될 경우 현재 수준보다 낮은 급여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베이비부머가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방적으로 급여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건강이나 생활방식을 고려하여 제반 근무여건을 종합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고령자의 경험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주가 근로시간과 휴일을 정할 때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활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고령근로자 고용을 촉진한 일본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일본은 2006년부터 파트타임 정규직 시스템(part-time regular worker system)을 도입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2011년 기준으로 20.5%의 기업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49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하는 고령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였다고 한다(손종철 외, 2015).

궁극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법제 정비가 있어야 하겠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연령을 배려한 고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역 기업에 고령자 고용의 장점과 불가피성을 널리 알리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나 장애인과 같은 고용 약자들의 고용 확대를 위한 기존의 노력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 고용 확대가 청년 고용을 저해한다는 인식 또한 중요한 장애물이다. 청년실업이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청년고용이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제1순위 과제로 부상하고,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대전시에서도 지난 7월 27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청년인력관리센터를 개소하고 청년을 위한 일자리 상담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중고령층의 고용 유지 정책의 강화는 자칫 ‘중장년층이 청년 일자리를 뺏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논쟁이 계속되면서 일자리 문제가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의 일자리와 중고령층의 일자리가 분리되어 있어 실제로는 충돌하지 않는다는 실증적인 증거들은 많이 있으며, OECD도 청년층 실업 완화를 위해 조기 은퇴를 권고한 1994년 일자리 전략을 2005년 신일자리전략에서 공식 폐기했다고 한다(연합뉴스, 2013).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의 정년이 우리나라의 연장된 정년인 60세보다도 훨씬 높은 65세 안팎¹¹⁵⁾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고령층의 고용유지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가로 막는다는 것은 지나친 걱정일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많은 선진국들은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적 고령화(active ageing) 정책이 젊은 세대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유럽연합에서는 2012년을 ‘활동적 고령화와 세대 간 연대 강화의 해(The European Year for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로 정하고 고령자 고용 확대와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19가지 원칙¹¹⁶⁾을 발표한 바 있다(유럽연합, 2012). 이 중 나이에 따른 맞춤형 커리어 및 근

115) OECD 국가들의 공식 은퇴연령의 평균은 63.5세(2012년 기준)이며, 노르웨이(67세), 스웨덴(65세), 덴마크(65세), 핀란드(65세) 등 북유럽 국가들과 네덜란드(65세), 호주(65세), 캐나다(65세), 독일(65세) 등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국가들은 대개 65세 이상을 정년으로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5.6.2.).

116) 이 19가지 원칙(the guiding principles for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은 총 3가지 분야로 나뉜다. 고용 분야는 ①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 교육 및 훈련 지속, ② 근로자의 건강과 웰빙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③ 나이에 따른 맞춤형 커리어 및 근로 조건 조정을 통한 조기 은퇴 방지 등 노령화 관리 전략 확립, ④ 노인 인구를 위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⑤ 연령에 의한 차별 방지, ⑥ 고용친화적 세제(tax system) 및 복지서비스 체계수립, ⑦ 고령 근로자의 경험 전수 기회 증대, ⑧ 일과 돌봄에 대한 책임 양립이다. 사회참여 분야는 ⑨ 노인 인구의 소득 안정성 증대, ⑩ 노인에 대한 사회적 포용 증대, ⑪ 노인 주도 자원봉사활동 증설, ⑫ 평생교육기회 확대, ⑬ 노인 정책 의사결정 과정 참여 독려, ⑭ 비공식 보호자(가족 내 돌봄서비스 제공자) 지원이다. 독립적인 삶 분야에서는 ⑮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간 최대화 및 질병 예방, ⑯ 노인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주거 공간 및 서비스 제공, ⑰ 접근성이 좋고 저렴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⑱ 전 연령을 아우르는 환경, 재화, 서비스 창출, ⑲ 장기 돌봄서비스 수혜자의 자율성 최대화이다(European Year for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 홈페이지 <http://ec.europa.eu/archives/ey2012/> 참조).

로 조건을 통한 조기 은퇴 방지와 고령 근로자의 경험 전수 기회 증대 등이 특히 눈길을 끈다.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와 중고령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다르고, 청년층의 고용 문제와 중고령층의 고용 문제의 핵심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¹¹⁷⁾, 청년층 일자리와 중고령층 일자리는 경합이 아닌 상생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위에서도 언급한 고령자들의 임금 및 근무조건 조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자리를 잡는다면, 중고령층의 일자리는 중고령층의 경험이 청년층에게 전수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퇴직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되는 청년층을 위한 기술지도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중고령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본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김준영, 2010).

2) 전직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 및 지원 강화

베이비부머들은 1955년생을 필두로 2015년 이후 연 평균 50~60만 명씩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한다. 대전광역시에서도 올해부터 약 2만 명씩 은퇴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다수가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당분간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중에 충분한 전직교육을 받아 은퇴와 동시에 다른 직업이나 직장으로 이동하거나, 은퇴 직후부터 집중적인 재취업 교육을 받아 오랜 공백기 없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회적인 여건은 아직 미흡하다.

대전고용센터의 재직자 교육과정을 보면 중장년층을 위한 교육이 많이 부족하고, 시간 배정도 주로 평일 주간에 치우쳐 있어 재직자가 활용하는데 한계가 많다. 또한 60세 정년 의무화라는 변화에 적합하게 교육훈련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지만, 현재 직업훈련 참여현황을 보면 20~40대 위주로 50대 이상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대전고용센터 및 대전지역 내 폴리텍 대학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대전시민대학,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베이비부머 재취업 교육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며 중장년층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산업이나 틈새직업 등을 예측하여 이를 토대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수요를 매칭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귀촌이나 귀농을 원하는 베이비부머들이 있다면, 농촌생활을 미리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새일센터 등 이미 운영하고 있는 중장년층 대상 고용지원사업을

117) 청년층의 고용 문제는 미취업 상태 혹은 단기·임시 고용 상태에서 장기 및 상용직 고용의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문제인 반면, 중고령층은 반대로 장기 및 상용직 상태에서 단기·임시직 고용시장으로 전환하는 문제임(손종칠 외, 2015 p. 84)

변화하는 직업수요와 베이비부머들의 욕구에 맞추어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60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시니어인턴십사업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고용주와 노인에게 적극 홍보하여 베이비부머가 은퇴 직후부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 다양한 형태의 지역일자리 창출

이번 연구를 통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경제활동률은 65%를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점차 많은 수가 정년에 도달하면 경제활동률은 점차 떨어질 수 있으며,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경우에도 가장 오래 일했던 직장에서 퇴직한 후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처우가 낮은 일자리에서 근로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현격하게 경제활동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가 많아서 공적연금 가입률 또한 낮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노후준비가 더욱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이 없는 베이비부머의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 비율은 8.8%에 불과했고, 구직경험이 있는 베이비부머 중에서는 ‘대전 지역 내 일자리만 구해왔다’는 비율이 89.0%로 대다수가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중고령층의 특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건강 및 생활여건의 변화로 장거리 출퇴근이나 생활지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타지역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보수는 낮더라도 업무시간이 짧은 일’을 선호하는 경향도 상당부분 이런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면 직업을 위해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강화될 것이므로, 이전 세대보다 더 오랜 기간의 노년기를 보내야 하는 베이비부머의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대전지역 내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베이비부머는 기존의 노인 세대와 비교할 때 교육수준이 높고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이 풍부하므로 이들이 지닌 사회적 지식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50대 이상인 베이비부머들의 건강이나, 오랫동안 노동시장에서 떠나 있던 주부들을 위한 다양한 업무내용과 근로형태도 개발해야 한다. 베이비부머들의 노후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소득보전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여가선용, 자아실현 등과 같은 비경제적 이유에서도 상당부분 기인하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베이비부머가 선호하는 노

년기 활동으로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활동(41.6%)이 가장 많이 나왔고, 2순위인 소득창출(19.0%)에 이어 자원봉사 및 사회적 기여활동이 3순위(17.0%)로 나온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역일자리는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란 쉽지는 않다. 베이비부머의 지역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한 가지 대안은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공공분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취업유발효과가 매우 큰 분야이다. 취업취약계층의 긴급한 취업수요에 비교적 큰 비용 없이 대응할 수 있고, 다른 사업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로부터의 유입이 많아 타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효과도 적어 새로운 일자리 분야로서 주목을 받아왔다(김미현, 2013). 최근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13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 결과’에서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고용유발효과가 큰 산업분야로 지목되었다¹¹⁸⁾.

대전지역의 사회서비스 분야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지역사회서비스 예산만 해도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120억 원에서 170억 원으로 늘어났고, 제공기관은 59개소에서 458개소로 늘어났다. 늘어나는 제공기관의 질 관리와 서비스제공인력의 고용안정성 강화 등의 과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고령자 등 돌봄대상자가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필연적인 흐름이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도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사회서비스의 대표사업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서비스는 궁극적으로는 지자체가 주도해야 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역 내 복지수요가 늘어날수록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공급하는 서비스 또한 늘어나야 한다.

사회서비스는 사람이 사람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휴먼서비스로 수준 높은 사회서비스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것이 서비스 수준 향상의 핵심이다.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강한 베이비부머들을 사회서비스 인력으로 전환시킨다면 지역 내 고용창출은 물론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전시에서는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 협약식을 체결했다. 센터에서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창업, 재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 사회서비스 인력 양성 또한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지원과 양성된 인력을 잘 활용할

118)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고용유발계수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10억원당 16.9명으로 사업지원 서비스(10억원당 28명)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뉴스핌, 2015. 6. 2.).

수 있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지역에 기반을 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 것도 베이비부머를 위한 효과적인 지역일자리 창출 방안이 될 수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소득양극화가 날로 심해지면서 기존의 ‘차가운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분야로 협동조합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해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대전은 전통적으로 풀뿌리 시민운동이 활성화된 곳이다. 전국 최초의 지역화폐인 한밭레츠와 2002년에 설립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료생협으로 자리 잡은 민들레의료생협(현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대안적 경제 운동 또한 활발한 지역이다. 베이비부머의 높은 교육수준과 풍부한 사회경험을 이러한 전통과 결합하여 대전지역의 사회적·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활성화된다면, 베이비부머의 일자리 문제 해결은 물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대전시민대학에서 공동체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은 이렇게’ 등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 인생이모작센터, 여성가족원 등 베이비부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통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노후 재무설계 교육 강화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가 노동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경우 노동력 부족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대한 대처가 아직 부족한 사회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다수의 베이비부머가 본인의 소득이나 자녀들이 주는 용돈 등 사적 소득에 의존하여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노년층으로의 진입은 자녀 세대는 물론 사회적인 부양부담 또한 커지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효 은퇴연령이 70세에 이를 정도로 일하는 노인들이 많지만 일을 한다 해도 소득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자녀 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전복지재단에서 2014년 실시한 「대전광역시 노인실태조사」결과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75.1%가 사적이전소득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공적이전소득(87.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근로소득(36.4%)과 재산소득(13.8%)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사적 이전소득이 생활비 마련 방법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7%가 넘었고, 두 번째로 비중이 큰 항목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가 넘었다. 즉 대전광역시 노인들의 상당수가 자녀 세대의 소득에 의존하고 있었다(김기수 외, 2014a).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으로 진입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은 더 악화될 수가 있다. 현재 노인 세대에 비해 자녀수 자체가 적은데다가,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고용안정성이 나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녀 세대에게 기댈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에 들어서기 전에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경제적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만 한다.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경제적 대책은 직장에 계속 남아있거나 재취업을 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겠지만, 질 좋은 노인 일자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현하기 쉽지 않은 방법이다. 2013년 현재, 대전광역시 노인 경제활동참여율은 60세 이상이 32.6%, 65세 이상은 23.7%로 전국 수준(60세 이상 39.1%, 65세 이상 31.4%)보다 낮다(김기수 외, 2014b). 베이비부머가 노인세대가 되었을 때도 이러한 경향이 유지된다면, 근로소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더구나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평균연령이 49세인 상황에서는 많은 베이비부머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공식적인 노년기에 들어서기까지 상당기간의 소득 공백기를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노후대비를 위한 재무설계의 필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아직 소득이 있을 때 자산을 형성하여 소득 단절기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재무설계를 포함한 노후준비 전반에 대한 상담과 정보 등을 제공해 온 기존의 노후준비서비스(CSA; Consulting on Successful Aging)를 올 6월부터 발표된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전환하여 강화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인생이모작센터 등을 통해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재무설계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베이비부머들의 재무설계에서 중요한 점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자산을 생애 주기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들을 ‘현금 없이 은퇴하는 첫 번째 세대’로 불린다. 부동산붐, 아파트붐을 겪어 오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불패’ 신화에 젖어들었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다시 대출을 받아 집을 늘려가는 것으로 경제활동 기간의 대부분을 보냈다. 일반적으로 베이비부머들의 주택소유율은 30~40대 장년층보다

더 높다.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들도 대다수(2013년 72.4%, 2014년 74.5%)가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대전광역시 전체가구의 자가주택 점유율(50.8%,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의 총 자산 대비 부동산 자산 비율은 83%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치이자 스페인을 제외한 구미 선진국들의 2배 수준이고, 부동산 버블 붕괴를 겪으면서 자산을 대거 구조조정한 일본의 단카이 세대에 비해서도 2배 수준이다(KBS, 2015). 베이비부머의 대량 은퇴를 앞두고 이러한 기형적인 자산 구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을 조정하여 금융자산을 높이라는 권고가 많이 나오고 있다(곽영훈, 2015).

이번 연구를 통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반수 이상이 월평균 300만원 미만의 수입을 가지고 있으며, 48.9%가 소득의 10% 미만으로 저축을 하고 있어 저축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10가구 중 4가구가 주택임차 및 구입이나 교육비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가 있었다. 전 계층에 걸쳐 가계부채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특히 은퇴 등으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에게 가계부채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동산에 쏠린 자산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소득에 맞추어 지출을 조정하여 가계부채를 줄이지 않으면 노후에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의 금융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대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올 7월부터 운영 중이다. 대전광역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대전신용보증재단, 하나희망금융플라자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청년인력관리센터, 대전복지재단이 참여하고 있어, 시민들이 한자리에서 서민금융 종합상담과 심사 및 지원과 복지상담, 일자리 상담 및 취업알선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대출이나 신용회복 등 이미 발생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나, 앞으로 센터의 활동영역을 확장하여 저소득층은 물론 중고령층의 노후설계를 위한 재무설계와 재무교육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가계부채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령층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성 베이비부머들은 남성에 비해 소득이 낮고 금융이나 재무분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향이 있는데다가 기대수명도 길어서 ‘가난한 노후’를 장기간 보낼 가능성이 높다. 이미 대전시민대학에서 시행 중인 노후준비 및 금융 관련 강좌를 보다 확대하고, 여성가족원

등 여성 베이비부머들의 접근이 용이한 기관에 다양한 재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여성 베이비부머들이 노후설계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2. 평생교육 및 여가활동 활성화

1) 평생교육 참여 확대

평생교육은 개개인의 역량을 끊임없이 개발함으로써 개인의 성장과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을 돕는 삶의 중요한 영역이다. 특히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의 과업에서 벗어나 은퇴 후 삶을 대비하는 전환점에 서 있는 베이비부머에게 평생교육은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라 길어진 노후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적극적인 활동이다. 재취업 등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며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습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북유럽을 비롯한 선진복지국가들일수록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와 참여율이 높고,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나라들의 베이비부머 지원정책의 상당부분이 인생후반기를 대비한 평생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생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베이비부머들에게 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처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을 위해서는 평생학습의 가치와 즐거움을 깨달아 평생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베이비부머의 연령층인 50대는 직장을 떠나 지역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나이이며, 자녀의 교육, 결혼이나 취업 등에 의한 지역 간 이동도 줄어드는 나이이다. 마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고 지역사회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부머의 평생학습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책임지는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교육이나 여가문화 프로그램에서 소외되어 온 남성 베이비부머들을 고려한 교육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도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센터 등을 통해 여러 평생교육 프로

그램이 제공되고는 있다. 하지만 교육시간이나 내용이 은퇴자나 전업주부들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나 지금까지의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이모작을 준비하고 있는 남성 베이비부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례는 대전시민대학이다. 대전광역시는 대전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중심기관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2011년에 설립하고, 2013년부터 대전시민대학을 원도심에 개설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대전시민대학은 시민의 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생활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직업능력과 지역공동체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고 미래사회를 준비하도록 돕는 기구이다.

‘모든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모토로 취미교양 강좌는 물론 직업교육과 공동체까지 시민의 모든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베이비부머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2015년 여름학기를 기준으로 총 수강생의 30% 가까이가 베이비부머들을 포함한 50대이며, 특히 남성들의 참여율이 여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소외되기 쉬운 중장년층 남성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생활형태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배달강좌’ 프로그램 또한 운영 중이다. 5명 이상의 시민이 모여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가서 교육을 실시하는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교육비도 무료라서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진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들의 여가생활 불만족 주요인이 경제적 부담과 시간 부족임을 고려했을 때, 배달강좌는 베이비부머의 평생교육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시도이다. 평생교육은 일단 교육에 참여하여 그 효과와 즐거움을 경험해 보아야 그 이후에도 계속 참여할 의사가 생기게 된다. 배달강좌와 같은 시민밀착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널리 홍보가 되어, 평생교육에 접해본 경험이 없는 베이비부머들을 평생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베이비부머의 활동지역 내에 다양한 시간대에 학습을 선택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을 만들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센터, 구청, 평생학습센터, 지역도서관 등 공공건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교육청의 협조를 구하여 각급학교 내 교육자원을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에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둘째, 베이비부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의 이론적 기초를 이루는 성인교육학(andragogy)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교육학(pedagogy)과는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한다. 성인교육학에서는 교육참여자를 교육자가 짜 놓은 커리큘럼을 수동적으로 이수하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의 학습욕구에 따라 주도적으로 교육내용을 선택하고 스스로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 능동적으로 학습을 해나가는 교육의 ‘주체’로 바라본다. 특히 대다수가 장기간의 공식교육을 받았고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한 베이비부머를 위한 교육은 베이비부머들의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국내외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중고령층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관점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영국에서 50세 이상을 위한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University of the third age(U3A)¹¹⁹⁾’는 서로의 학습을 격려하고 촉진하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배우려고 하는 욕구만 있다면 장소나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학습집단을 만들어 참가할 수 있는데, 현재 영국 전역에서 820개 그룹의 27만 명의 학습자가 참여하고 있다.

U3A의 성공비결은 중고령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이를 통해 서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에 대한 부담 없이, 공통의 학습욕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U3A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 50+세대의 욕구에 잘 부응하고 있다.

일본 릿쿄대학의 ‘세컨드 스테이지 대학(Rikkyo Second Stage College, RSSC)¹²⁰⁾’은 좀 더 구조화된 형태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인 단카이 세대를 중심으로 한 장년층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양교육과 다면적인 학습을 제공한다. 본과 1년을 다닌 후 희망자는 전공과로 진학해 1년간 더 배울 수 있는데, 매년 본과에 100명 정도가 입학하고, 그 중에서 약 반수가 전공과로 진학한다.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제3기 인생대학’을 들 수 있다. 40대 이후의 일반 시민들이 노후를 새롭게 설계하여 건강하고 보람찬 제3기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과정이다. 2개 학기로 운영되며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년층이 대상이다.

서울시에서도 이미 운영 중인 인생이모작센터와는 별도로 50+캠퍼스를 만들어 2016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 기능을 중심으로 문화, 건강, 일자리 등의 기능을 연계한 50+캠퍼스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자립형·참여형 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¹²¹⁾.

119)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U3A 홈페이지 www.u3a.org.uk 참조

120)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RSSC 홈페이지 <http://korean.rikkyo.ac.jp/academics/lifelong/secondstage/> 참조

베이비부머들은 그들이 살아온 인생만큼이나 원하는 학습의 내용과 수준 또한 다양하다. 취미와 여가생활 차원에서 쉽고 가벼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부터 깊이 있는 지식과 학문을 접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까지, 그리고 예술이나 인문학 교육부터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까지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설될 필요가 있다.

셋째, 베이비부머의 눈높이에 맞춘 통합정보제공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대전지역에서도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원, 대전시민대학 등 공공기관은 물론 대학 부설기관, 백화점 문화센터 등 여러 기관에서 많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은 꾸준히 늘어나리라 예상된다. 베이비부머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꺼번에 접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수요가 많지 않은 교육까지 모든 교육기관에서 개설하여 운영하기는 불가능하다. 아직 활동적인 세대인 베이비부머들은 원하는 프로그램만 있다면 다른 동이나 자치구로 이동하여 교육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어디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정보 네트워크가 있다면 베이비부머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대전 지역의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하는 ‘대전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http://daejeon.damoa.dile.or.kr>)’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2015년 현재 953개 평생교육 기관과 26,400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소개되고 있으며, 배달강좌와 대전시민대학 등 대전시의 대표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도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원하는 강좌를 찾아볼 수 있는 기능과 상담기능도 있어 자신에게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활용도가 떨어지는 중고령층에게는 인지도가 높지 않고,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만이 모여 있어서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시민들만이 주로 접속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 평생교육은 물론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중고령자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정보제공 시스템을 만들어, 다른 정보를 얻기 위해 접속한 중고령자들이 자연스럽게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U3A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정보부터 중고령층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영국의 고령자서비스 홈페이지(www.ageuk.org.uk)는 중고령자를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의 성공적인 사례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니어포

121) 서울시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서울특별시, 2014. 4. 14.)

털인 ‘50+ 서울(senior, seoul, go, kr)’도 지자체 단위에서 운영하는 중고령층을 위한 정보시스템 사례로 참고할 만하다.

2) 일과 여가의 균형 추구

베이비부머는 고도성장기를 이끌며 어느 세대보다도 바쁘게 살아온 세대이다. 일 중심으로 살아왔고 아직도 경제활동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여가생활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은퇴 후 시간을 확보하게 되더라도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여가를 향유하기는 어렵다. 활동적으로 여가를 보내는 방법 또한 배우고 개발해야 하는 일종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여가설계가 노후설계의 중요한 영역으로 포함되는 이유(홍백의, 2012)도 여기에 있다.

즐기고자 하는 여가활동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은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전지역의 평생교육 기관에서는 다양한 취미, 예술, 건강 관련 강좌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에 개설 중이다. 평생교육 자체가 즐거움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여가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대전지역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공연장이나 전시장, 박물관 등 문화예술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문제는 문화예술 향유 경험이 부족한 베이비부머 입장에서는 이런 곳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선뜻 편안한 여가활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들이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중고령층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고령자들의 정서와 취향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중고령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홍보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중고령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들을 알리는 것도 효과적인 홍보방법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직원교육 및 복지제도를 확충하여 청장년기부터 문화예술 향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1)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개선과 수요처의 다양화

노년기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 무위(無爲)이다. 지난 6월에 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에서도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에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하는 일이 없음’을 의미하는 무위는 빈곤이나 질병만큼이나 노년기의 건강을 해치고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과거에 비해 은퇴가 빨라지고 갑작스럽게 많아진 빈 시간을 준비 없이 대면하게 된 베이비부머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노년기 무위의 문제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던 남성 베이비부머들에게 은퇴는 사회관계의 대부분을 단절하여 고독의 문제까지 일으키는 사건일 수 있다.

자원봉사와 지역활동 등을 통한 사회참여는 할 일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를 풍부하게 하여 노년기의 무위와 고독에 대처할 수 있게 해 주는 삶의 중요한 요소이다. 아울러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 나아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삶의 위험요소에 대비하도록 해 주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도 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의 사회참여는 여전히 저조하다.

자원봉사의 경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참여율이 낮다. 영국 65~74세의 공식 자원봉사율은 44%(2012~2013년 기준)에 이르고, 프랑스의 64~74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37%, 독일의 65~69세는 37%이며(2010년 기준), 미국의 65세 이상 자원봉사율 24.4%(2012년 기준)이다. 이에 못 미치지만 일본의 65~69세 중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비율도 18.1%(2010년 기준)이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3).

이에 비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자원봉사율은 6.2%에 불과하며(통계청, 2013), 베이비부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1.0%(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에 불과하고 베이비부머의 자원봉사단체 참여율도 7.3%(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에 그쳤다.

길어진 노년기를 보다 활기차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중고령층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자원봉사나 기부활동은 큰 활동이거나 거액의 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작은 소액기부나 자신의 주변에게 도움을 주는 작은 행위도 사회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생산적인 활동임을 알려주는 인식개선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봉사자 발굴, 프로그램 개발, 보상강화 등도 필요하지만 자원봉사 수요처를 다양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3). 우리나라 자원봉사 수요처는 대부분이 사회복지기관시설 또는 종교기관이다. 다른 나라 역시 사회복지기관이 주된 수요처이고 연계기관도 대부분 종교기관이기는 하지만 비영리단체(NGO)와 교육기관의 비율도 비교적 높다. 특히 미국에서 노인 자원봉사율이 높아진 것은 비영리기관의 전문적 고려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기관시설뿐만 아니라 경제, 예술, 교육 등으로 자원봉사의 수요처를 다양화하고 베이비부머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단순 봉사활동에서 더 나아가 전문적 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2)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참여 활성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현재 문화여가 향유 수준은 낮으나(1년 간 문화 활동 없음 52.2%), 은퇴 이후 여가생활을 중요(83.7%)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참여활동은 낮으나(자원봉사 참여율 7.3%) 은퇴 이후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49.5%)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10)

2014년 대전광역시 노인실태조사에서도 대전시 노인의 4.9%가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향후 자원봉사 희망의사는 10.5%로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김기수 외, 2014a). 이번 연구결과에서도 베이비부머들의 현재 자원봉사 참여율에 비해, 노후를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보내겠다는 응답(2013년 14.3%, 2014년 17.3%)이 훨씬 높아서, 베이비부머에게 적합한 자원봉사 영역을 개발한다면,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와 비슷한 일본의 단카이 세대¹²²⁾를 거치면서 이들의 사회참여 지원 정책을 앞서 실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여가 및 자원봉사 등을 원하는 은퇴자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쉽게 사회참여가 가능한 노인클럽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한 것이었다. 일본의 노인클럽(Senior Citizens Club)은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 활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수행하는 베이비붐세대 사회참여지원사업은 비영리기관(사회복지기관, 보건의료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생계보다는 사회공

122) 1946~1949년생으로 일본 인구의 5%인 680만명

헌을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의향을 가진 베이비부머들이 대상이다.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지원단이 참여자와 수요처를 발굴하고, 연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4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광주지역에 총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전국의 모든 베이비부머 또는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평범한 베이비부머를 대상에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베이비부머종합정보포털(<http://www.activebb.kr>)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노인클럽과 맥락을 같이 하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베이비부머종합정보포털에는 일자리, 재무, 건강, 교육, 여가, 자원봉사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사용자인 베이비부머가 관심있는 클럽에 가입하거나 본인인 클럽을 개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정보통신 기기를 다루는데 미숙한 베이비부머라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일본의 노인클럽 등과 같이 우리나라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참여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베이비부머와 그렇지 않은 베이비부머를 고려한 자원봉사 등의 사회참여 활동영역을 개발하고, 일원화된 운영체계를 가진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영훈(2015). 고령화와 가계의 금융자산 축적(주간하나금융포커스, 제5권 23호, 2015. 6. 15. ~6. 21 pp. 1~3)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김경아(2014). 우리나라의 세대별 노후준비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 베이비부머와 이전 및 이후세대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4호. pp. 7-30. 한국노인복지학회
- 김경아·김현수(2014).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보장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 김기수, 오인근, 오미애, 주은주, 김현진(2014a). 2014년 대전광역시 노인실태조사. 대전복지재단
- 김기수, 류진석, 손의성, 주은주(2014b). 대전광역시 노인 빈곤 및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대전복지재단
- 김미현(2013). 박근혜 정부의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서 정책과 서울시시범사업. 복지 이슈투데이 2013. 4월호(vol. 1). P. 7. 서울시복지재단
- 김준영(2010). 일본과 핀란드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연구 : 한국고용정보원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송현주, 이은영, 임란, 김호진(2014).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제5차 (2013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분석보고서. 국민연금연구원
- 손종철(2015).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재편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 OECD(2015).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 오호영(2013). 산업현장의 숙련단절이 다가온다. Trade Focus, vol 1. no. 51. 국제무역연구원
- 유럽연합(2012). European Year for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
- 유선아(2015). “메르스 사태가 보여준 공공의료서비스의 중요성”. WELFF 2015. 7월 (34호). 대전복지재단
- UN(2015). 세계인구전망 보고서(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 윤창훈(2014). 베이비부머 은퇴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P. 157참조. 충북발전연구원
- 장창수·윤경아·이윤화(2012). 고령사회 대비 대전지역 베이비부머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 정경희·손창균·박보미(2010a).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이소정·이윤경·김수봉·선우덕·오영희·김경래·박보미·유혜영·이은진(2010b).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남상호·오영희·이소정·이윤경·정홍원·이은진·김성숙·류건식·신현구·정정숙·천현숙·한정림(2011). 베이비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현황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오영희·이윤경·박보미(2011). 베이비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은영(2014). 북유럽 국가의 금융·재정위기 극복과 시사점. 경제현안분석, 제86호, 국회예산정책처
- 지은정, 원영희, 김영미, 김진, 손동기, 김현지(2013). 시니어 사회공헌활동 지원체계 구축 방안 I.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최민정(2014). 베이비부머의 계급이동. 사회복지정책 41권 4호 pp. 147-179.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3). 2013 한국 비은퇴 가구의 노후준비 실태
- 통계청(2015). 201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 통계청(2013). 사회조사
- 통계청(2010).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 행정자치부(2014). 주민등록인구현황
- 홍백의(2012). 노후준비 정도와 유형, 노후준비지표 민·관 합동 컨퍼런스(2012. 7. 16.) 자료집.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 황진영·이선호·안시온(2015). 대전충남 가계부채의 현황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언론 및 보도자료>

- 경향신문(2015. 7. 23). 한국인, 불안한 노후 '고된 노동 인생'... 49세 조기 퇴직, 재취업 후 71세에 은퇴. 2015. 7. 23. 보도
- 뉴스핌(2015. 6. 2). 취업자 절반 소비가 창출..사업지원·보건복지분야 고용유발효과 높다
- 서울특별시(2014. 4. 14). 서울시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
- 연합뉴스(2013. 12. 11). 아버지 정년연장은 딸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 연합뉴스(2015. 6. 2). OECD 회원국 유효·공식 은퇴연령 현황
- 이상구(2014). 노인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 40만 원, 자녀 허리도 된다. 프레시안. 2014. 02. 04 보도
- 중앙일보(2015. 5. 6). 퇴직은 52세, 10명 중 9명은 월평균 연금 25만 4000원
- KBS(2015). 700만 베이비부머, 기로에 서다(명견만리 2015. 6. 18 방송)
- 헤럴드경제(2015). 한국 GDP 대비 사업체수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아·다수가 비자발적 자영업

<포털사이트>

-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2014년 고용율(시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2List.jsp?vwcd=MT_GTITLE01&parmTabId=M_02_02_01#SubCont



대전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http://daejeon.damoa.dile.or.kr>

베이비부머종합정보포털 <http://www.activebb.kr>

RSSC 홈페이지 <http://korean.rikkyo.ac.jp/academics/lifelong/secondstage/>

영국의 고령자서비스 홈페이지 www.ageuk.org.uk

50+ 서울 홈페이지 <http://senior.seoul.go.kr/main/index.do>

유럽연합 홈페이지 <http://ec.europa.eu/archives/ey2012/>

U3A 홈페이지 www.u3a.org.uk

장년일자리 희망넷 홈페이지 http://www.4060job.or.kr/introduce/nosa_view.do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부록. 2013 대전광역시 사회조사(가구주) 설문지

It's daejeon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승인(협의)번호 제 20609 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사원이 작성하는 곳입니다.	일련번호	지역	조사구	가구번호	가구원 코 드	조사원 코 드	

2013 대전광역시 사회조사(가구주)

(가족, 주거·교통, 교육, 노동, 사회복지, 공동체, 소득·소비)

대전광역시에서는 시민 삶의 질과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시민의 생활수준 측정은 물론,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2013 대전광역시 사회조사」를 실시 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본 사회조사는 만 15세 이상(양력 1998년 8월 31일(음력 1998년 7월 10일) 이전 출생자)이 조사대상입니다.

주관기관	대전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	수행기관	(주)윌드리서치 (042)483-1555
------	---------------	------	------------------------

가구주 성명		성 별	① 남 ② 여	출생년도	19_____년
주 소	대전광역시 _____구 _____동 _____번지				
연 락 처		면접원 성명		면접원 연락처	
거처의 종류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 다세대주택 ④ 기타(오피스텔 등)				
점 유 형 태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월세 ④ 월세 ⑤ 무상 및 기타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상태	종교
① 가구주 ⑥ 부모(배우자 쪽 포함) ② 배우자 ⑦ 조부모(배우자 쪽 포함) ③ 미혼 자녀 ⑧ 미혼 형제자매 ④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⑨ 기타 친.인척 ⑤ 손자녀 및 배우자 ⑩ 기타 동거인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혼인신고는 하셨습니까? ① 하였다 ② 하지 않았다 ③ 사별 ④ 이혼	① 개신교 ⑥ 천도교 ② 불교 ⑦ 대종교 ③ 천주교 ⑧ 기타 _____ ④ 유교 ⑨ 없다 ⑤ 원불교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조사원이 작성하는 곳입니다.	구 분	인원수
	총 가구원	
	15세 미만	
15세 이상	불응·불능 조 사	

I

가족

1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사는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있습니까?

1 있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구분	국내·외 거주 여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 (보기1)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기간 (보기2)																			
	1. 배우자	① 국내 ② 국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2. 자녀1	① 국내 ② 국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3. 자녀2	① 국내 ② 국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4. 자녀3	① 국내 ② 국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table border="1"> <tr> <th colspan="2">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보기1)</th> <th colspan="2">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기간(보기2)</th> </tr> <tr> <td>① 직장(직업)</td> <td>⑤ 자녀교육 지원</td> <td>① 6개월 미만</td> <td>④ 3년 미만</td> </tr> <tr> <td>② 학업(학교, 취직준비 등)</td> <td>⑥ 군대</td> <td>② 12개월 미만</td> <td>⑤ 5년 미만</td> </tr> <tr> <td>③ 가족간 불화(별거 등)</td> <td>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td> <td>③ 2년 미만</td> <td>⑥ 5년 이상</td> </tr> <tr> <td>④ 건강상의 이유(요양 등)</td> <td></td> <td></td> <td></td> </tr> </table>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보기1)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기간(보기2)		① 직장(직업)	⑤ 자녀교육 지원	① 6개월 미만	④ 3년 미만	② 학업(학교, 취직준비 등)	⑥ 군대	② 12개월 미만	⑤ 5년 미만	③ 가족간 불화(별거 등)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③ 2년 미만	⑥ 5년 이상	④ 건강상의 이유(요양 등)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보기1)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기간(보기2)																					
① 직장(직업)	⑤ 자녀교육 지원	① 6개월 미만	④ 3년 미만																				
② 학업(학교, 취직준비 등)	⑥ 군대	② 12개월 미만	⑤ 5년 미만																				
③ 가족간 불화(별거 등)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③ 2년 미만	⑥ 5년 이상																				
④ 건강상의 이유(요양 등)																							
2 없다																							

2 귀댁에 미취학 자녀가 있습니까? ※ 미취학 자녀만6세 이하, 양력 2007년 1월 1일 음력 2006년 11월 13일 이후 출생자

1 있다	미취학 자녀가 있다면																						
	미취학 자녀구분	출생년도	보육방법(보기1)	보육시설 만족도(보기2)																			
	1. 첫째 아이	_____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2. 둘째 아이	_____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3. 셋째 아이	_____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table border="1"> <tr> <th colspan="2">보육방법(보기1)</th> <th colspan="2">보육시설 만족도(보기2)</th> </tr> <tr> <td>① 본인이나 배우</td> <td>⑤ 유치원</td> <td>① 매우 만족</td> <td>④ 약간 불만족</td> </tr> <tr> <td>② 부모님이나 친인척</td> <td>⑥ 학원</td> <td>② 약간 만족</td> <td>⑤ 매우 불만족</td> </tr> <tr> <td>③ 친인척 외에 개인</td> <td>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td> <td>③ 보통</td> <td></td> </tr> <tr> <td>④ 어린이집</td> <td></td> <td></td> <td></td> </tr> </table>				보육방법(보기1)		보육시설 만족도(보기2)		① 본인이나 배우	⑤ 유치원	① 매우 만족	④ 약간 불만족	② 부모님이나 친인척	⑥ 학원	② 약간 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③ 친인척 외에 개인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③ 보통		④ 어린이집			
보육방법(보기1)		보육시설 만족도(보기2)																					
① 본인이나 배우	⑤ 유치원	① 매우 만족	④ 약간 불만족																				
② 부모님이나 친인척	⑥ 학원	② 약간 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③ 친인척 외에 개인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③ 보통																					
④ 어린이집																							
2 없다																							

3 귀댁은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하고 계시는지요? (예 : 청소, 빨래, 음식 만들기, 노인 또는 어린이 돌보기 등)

- | | |
|-----------------|-----------------------------------|
| ①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 ④ 내가 주로하고 부인(남편)이 도와준다 |
| ②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 ⑤ 부인(남편)이 주로하고 내가 도와준다 |
| ③ 공평하게 분담한다 | ⑥ 해당없음(1인가구, 미혼가구, 동성으로 구성된 가구 등) |

4 귀하는 가족관계에 있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5 귀하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지원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순위 : _____), (2 순위 : _____)

- ①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② 임신·출산 지원 확대(난임부부 및 산모도우미 지원)
 ③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④ 유연근무제 확산(탄력근무, 시간제 근무 등)
 ⑤ 직장 내 보육·교육시설 설치 활성화
 ⑥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
 ⑦ 출산·육아휴직 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⑧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인구교육, 예비부모 강좌 등)
 ⑨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6 귀하는 다문화 가구원을 위해 지원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순위 : _____), (2 순위 : _____)

- ①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② 기초생활보장 등 경제적 지원
 ③ 사회적응을 위한 한글·문화교육 서비스
 ④ 다문화 가구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분위기 조성
 ⑤ 다문화 가구 아동의 학교적응을 위한 노력
 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II 주거·교통**7** 귀책은(귀하는) 지금 사는 곳 이전에 어느 지역에 살았나요? 앞으로 이사 계획이 있으면, 생각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주택형태도 같이 응답해 주십시오.

거주지	1. 이전 거주지(직전 거주지)	2. 향후 거주지
1) 지역	① 대전 지역 → ① 동구 ③ 서구 ⑤ 대덕구 ② 중구 ④ 유성구 ② 대전 외 충청권 지역 → ①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② 내포시(충남도청이전신도시) ③ 기타 충청 지역 ③ 서울 및 수도권 ④ 그 외 지역() ⑤ 계속 거주함	① 대전 지역 → ① 동구 ③ 서구 ⑤ 대덕구 ② 중구 ④ 유성구 ② 대전 외 충청권 지역 → ①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② 내포시(충남도청이전신도시) ③ 기타 충청 지역 ③ 서울 및 수도권 ④ 그 외 지역() ⑤ 이사계획이 없다
2) 주택 형태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 다세대주택 ④ 기타(오피스텔, 상가내 거처 등)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 다세대주택 ④ 기타(오피스텔, 상가내 거처 등)

8 귀하는 대전에 총 몇 년, 지금 사는 곳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대전에서 총 년 살았음

지금 사는 곳에서는 년 살았음



9 귀하는 거주지를 선택할 때 무엇을 고려하십니까?

(1 순위 : _____), (2 순위 : _____)

- | | |
|-----------------------|-----------------------|
| ① 사업상 또는 직장 | ⑥ 주택가격 등 경제적 가치 상승 기대 |
| ② 자녀의 양육 | ⑦ 교통편리 |
| ③ 자녀교육 또는 본인 학업 | ⑧ 옛날부터 살아와서 |
| ④ 근린생활시설(할인점, 문화센터 등) | ⑨ 경제적 능력에 맞추어서 |
| ⑤ 자연환경 | ⑩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10 귀하는 주거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1 귀하는 통근·통학 할 때 거리와 시간이 얼마나 걸리십니까?

① 통근·통학을 한다

집 에서 직장 또는 학교 까지의 거리

- | | |
|-----------|-----------|
| ① 2km 미만 | ④ 15km 미만 |
| ② 5km 미만 | ⑤ 20km 미만 |
| ③ 10km 미만 | ⑥ 20km 이상 |

집 에서 직장 또는 학교 까지 걸리는 시간

--	--	--

분

(작성예시) 1시간 30분은 90분으로 표시

② 통근·통학을 하지 않는다

12 귀하의 일상적인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1 순위 : _____), (2 순위 : _____)

- | | |
|--------------------|--------------------|
| ① 걸어서 | ⑤ 지하철 |
| ② 자전거 | ⑥ 택시 |
| ③ 자가용(승용차·소형승합차 등) | ⑦ 기차 |
| ④ 버스(시내, 시외, 마을) |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13 귀하는 대중교통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구 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용하지 않음
1. 버스	①	②	③	④	⑤	⑥
2. 지하철	①	②	③	④	⑤	⑥
3. 택시	①	②	③	④	⑤	⑥

III 교육

14 귀댁은 자녀의 교육비로 월평균 얼마를 지출하십니까?

구 분	자녀수	월 평균 공교육비	월 평균 사교육비
1. 미취학 자녀	명	(해당없음)	만원
2. 초등학교 자녀	명	(해당없음)	만원
3. 중학교 자녀	명	(해당없음)	만원
4. 고등학교 자녀	명	만원	만원
5. 대학생(대학원) 자녀	명	만원	만원

* 공교육비 (등록금, 납입금, 교재비, 야외학습비, 수학여행비 등)
사교육비 (학원비, 도서관 및 독서실 비용, 과외수업비, 어학연수비 등)

15 귀하는 원하는 수준까지의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원하는 것 보다 더 받고 있거나, 받았다)
③ 그렇지 않다(원하는 만큼 못 받았다) → (문15-1로)

15-1 원하는 수준까지 교육을 못 받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비를 마련하기 어려워
② 가까운 곳에 학교가 없어서
③ 입학시험 실패 또는 학업부진으로
④ 부모 및 가족의 전근대적 교육관, 사고방식 때문에
⑤ 본인이 가사를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⑥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 때문에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6 귀하의 거주 지역 교육환경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문 16-1로)

16-1 불만족하다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 ① 추가적인 학교 설립
② 학교 시설의 개·보수
③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정비
④ 지역내 다양한 사설학원의 설립
⑤ 도서관 설립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7 귀하는 지난 1년(2012년 9월 1일 ~ 2013년 8월 31일)간 평생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1 순위 : _____), (2 순위 : _____)

- ① 직장에서 받은 교육, 훈련
② 공공기관의 평생교육원 강좌
③ 사설학원
④ 지역문화센터, 백화점문화센터 강좌
⑤ TV 및 인터넷 학습 강좌
⑥ 개인과외, 스터디클럽, 동호회 등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⑧ 받아본 적이 없다

18 귀하가 앞으로 받고 싶은 평생교육은 무엇입니까?

(1 순위 : _____), (2 순위 : _____)

- ① 컴퓨터 교육
② 어학 교육
③ 취미·문화·교양·여가선용 교육
④ 일반 직업기술교육
⑤ 사회봉사 교육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⑦ 받고 싶은 교육이 없다

※ 평생학습(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개인의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직장, 개인, 학원, 단체, 매스컴 등을 통한 다양한 학습 또는 교육)

IV 노동

19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있음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⑤ 판매 종사자
-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⑧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⑨ 단순노무 종사자
- ⑩ 군인
- ⑪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② 없음

- ⑫ 학생
- ⑬ 주부
- ⑭ 무직(은퇴포함)

19-1-1 귀하의 직장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 ② 공기업
- ③ 민간기업
- ④ 비영리기관
- ⑤ 해당 없음

19-1-2 귀하의 직장에서 지위는 무엇입니까?

- ① 임금·봉급 근로자
-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
- ④ 무급 가족 종사자

19-2-1 귀하는 최근 한 달간(2013년 8월 1일 ~ 2013년 8월 31일) 일자리를 구해보셨습니까?

- ① 대전 지역내 일자리만 구해왔다
- ②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 일자리도 구해왔다
- ③ 타 지역의 일자리만 구해왔다
- ④ 구해본 적 없다 → (문 20으로)

19-2-2 귀하가 일자리를 구할 때 고려하는 것은?

- ① 보수는 낮더라도 업무시간이 짧은 일
- ② 소득이 더 높은 일
- ③ 탄력적인 근로가 더 가능한 일
- ④ 향후 경력에 도움이 되는 일
- ⑤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
- ⑥ 흥미와 적성이 맞는 일
- ⑦ 고용이 안정된 일(정년보장 등)
- ⑧ 이전에 하던 일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일
-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9-1-3 귀하가 다니는 직장의 근로여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구 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르겠다	해당없음
1. 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⑥	
2. 임금 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고용안전성	①	②	③	④	⑤	⑥	
4. 근무환경(안전, 위생상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⑤	⑥	

V

사외복지

20 귀하는 자녀 보육시설을 선택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순위 : _____), (2 순위 : _____) ① 보육(교육)시설의 교육내용 ⑥ 주변 환경 및 안전시설 ② 주위의 평판 ⑦ 국공립여부 ③ 운영시간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④ 비용 ⑨ 해당사항 없음 ⑤ 집과의 거리	21 귀하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② 수요에 맞는 보육(교육)시설 확충 ③ 보육(교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 ④ 보육(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⑤ 적정 아동수에 맞게 보육(교육)교사 확충 ⑥ 육아휴직제도 등의 정착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2 귀하는 노인들이 겪는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경제적 문제 ⑤ 사회적 소외 ② 외로움, 고독의 문제 ⑥ 소일거리 부족 ③ 자녀와의 갈등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④ 건강문제	23 귀하는 노후(여생)를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①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활동을 하면서 ② 학습과 같은 자아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③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있는 일을 하면서 ④ 종교활동에 전념하면서 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득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VI

공동체

24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①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는 활동 ②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물질, 시간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 ③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 ④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의미있는 여가활동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5 귀하는 지난 1년(2012년 9월 1일 ~ 2013년 8월 31일) 동안,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한 적이 있습니까?		
① 현금(ARS, 계좌이체 등)기부 ② 물품기부 ➡ (문25-2로) ③ 재능기부 ④ 노동(자원봉사활동 등) 기부 ⑤ 기부한 적 없다 ➡ (문25-1로)	※ 현금 기부시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종교단체 기부는 제외 ※ 재능기부란 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개인의 이익이나 기술개발에만 사용하지 않고 이를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부형태	
25-1 기부에 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서 ④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② 남을 돕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⑤ 참여방법을 몰라서 ③ 관심이 없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5-2 지난 1년(2012년 9월 1일 ~ 2013년 8월 31일) 동안 후원금(기부금)을 낸 경우 총 횟수와 금액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후원경로	횟수	연간 총금액
① 대상자(단체 등)에게 직접 후원	()회	()원
② 언론기관을 통한 후원(ARS 등)	()회	()원
③ 사회복지단체를 통한 후원	()회	()원
④ 종교단체를 통한 후원(헌금제외)	()회	()원
⑤ 기업(직장)을 통한 후원	()회	()원
⑥ 기타()	()회	()원

※ 후원금(기부금)이란 직접 관계없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금전이나 물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치후원금은 제외합니다.

25-3 귀하가 기부를 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 | ⑤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 때문에 |
| ② 기부단체, 직장,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 ⑥ 지역사회나 국가에 기여하고 싶어서 |
| ③ 타인을 돕고 살아가 한다는 개인적 신념 때문에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④ 종교적 신념 때문에 | |

26 만약 귀하가 집근처에서 20만원이 든 지갑을 분실 했을 때, 돈이 있는 상태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 | | |
|-----------|---------------|
| ① 매우 기대한다 | ④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
| ② 약간 기대한다 | ⑤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
| ③ 보통이다 | |

27 귀하는 다음 집단간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	약간 이루어지고 있음	보통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1. 가족 간 소통	①	②	③	④	⑤	⑦
2. 직장 구성원 간 소통	①	②	③	④	⑤	⑦
3. 이웃 간 소통	①	②	③	④	⑤	⑦
4. 세대 간 소통	①	②	③	④	⑤	⑦

28 귀하는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대전 시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2.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민운동단체 등 건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자녀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VII

소득·소비

33 귀댁의 지난 1년(2012년 9월 1일 ~ 2013년 8월 31일) 동안,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table style="width: 100%;"> <tr> <td>① 100만원 미만</td> <td>⑤ 500만원 미만</td> </tr> <tr> <td>② 200만원 미만</td> <td>⑥ 600만원 미만</td> </tr> <tr> <td>③ 300만원 미만</td> <td>⑦ 700만원 미만</td> </tr> <tr> <td>④ 400만원 미만</td> <td>⑧ 700만원 이상</td> </tr> </table> ※ 전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의 합계	① 1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미만	② 200만원 미만	⑥ 6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미만	⑦ 700만원 미만	④ 4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34 귀댁의 지난 1년(2012년 9월 1일 ~ 2013년 8월 31일) 동안, 월평균 저축률은 얼마입니까? <table style="width: 100%;"> <tr> <td>① 10% 미만</td> <td>④ 40% 미만</td> </tr> <tr> <td>② 20% 미만</td> <td>⑤ 50% 미만</td> </tr> <tr> <td>③ 30% 미만</td> <td>⑥ 50% 이상</td> </tr> </table> ※ 저축, 보험, 공적·사적 연금 등을 포함한 비중	① 10% 미만	④ 40% 미만	② 20% 미만	⑤ 50% 미만	③ 30% 미만	⑥ 50% 이상
① 1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미만														
② 200만원 미만	⑥ 6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미만	⑦ 700만원 미만														
④ 4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① 10% 미만	④ 40% 미만														
② 20% 미만	⑤ 50% 미만														
③ 30% 미만	⑥ 50% 이상														
35 귀댁의 지난 1년(2012년 9월 1일 ~ 2013년 8월 31일) 동안, 월평균 총 소비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table style="width: 100%;"> <tr> <td>① 50만원 미만</td> <td>⑥ 500만원 미만</td> </tr> <tr> <td>② 100만원 미만</td> <td>⑦ 600만원 미만</td> </tr> <tr> <td>③ 200만원 미만</td> <td>⑧ 700만원 미만</td> </tr> <tr> <td>④ 300만원 미만</td> <td>⑨ 700만원 이상</td> </tr> <tr> <td>⑤ 400만원 미만</td> <td></td> </tr> </table> ※ 소비지출액이란 저축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제외한 순수 소비지출액만 포함	① 50만원 미만	⑥ 5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미만	⑨ 700만원 이상	⑤ 400만원 미만		36 귀댁의 지난 1년(2012년 9월 1일 ~ 2013년 8월 31일) 동안, 월평균 경조사비, 통신비는 얼마입니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경조사비</td> <td style="width: 80%;">월평균 만원</td> </tr> <tr> <td>통신비</td> <td>월평균 만원</td> </tr> </table> ※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돌잔치 등 ※ 통신비 - 전화·휴대폰 구입 및 이용요금, 인터넷 이용료, TV수신료 등을 포함한 금액	경조사비	월평균 만원	통신비	월평균 만원
① 50만원 미만	⑥ 5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미만	⑨ 700만원 이상														
⑤ 400만원 미만															
경조사비	월평균 만원														
통신비	월평균 만원														
37 귀댁에 부채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부채가 있다 부채 이유 <table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① 주택 임차 및 구입 ② 교육비(자녀교육비, 사교육비 등) ③ 의료비 </td> <td style="width: 50%;"> ④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생활비 ⑤ 채테크 투자(주식, 부동산 등)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td> </tr> </table> ② 부채가 없다		① 주택 임차 및 구입 ② 교육비(자녀교육비, 사교육비 등) ③ 의료비	④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생활비 ⑤ 채테크 투자(주식, 부동산 등)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① 주택 임차 및 구입 ② 교육비(자녀교육비, 사교육비 등) ③ 의료비	④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생활비 ⑤ 채테크 투자(주식, 부동산 등)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38 귀하는 본인의 소득수준에 만족하십니까? <table style="width: 100%;"> <tr> <td>① 매우 만족</td> <td>④ 약간 불만족</td> </tr> <tr> <td>② 약간 만족</td> <td>⑤ 매우 불만족</td> </tr> <tr> <td>③ 보통이다</td> <td>⑥ 소득 없음</td> </tr> </table>	① 매우 만족	④ 약간 불만족	② 약간 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③ 보통이다	⑥ 소득 없음	39 귀하는 소비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table style="width: 100%;"> <tr> <td>① 매우 만족</td> <td>④ 약간 불만족</td> </tr> <tr> <td>② 약간 만족</td> <td>⑤ 매우 불만족</td> </tr> <tr> <td>③ 보통이다</td> <td></td> </tr> </table>	① 매우 만족	④ 약간 불만족	② 약간 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③ 보통이다			
① 매우 만족	④ 약간 불만족														
② 약간 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③ 보통이다	⑥ 소득 없음														
① 매우 만족	④ 약간 불만족														
② 약간 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③ 보통이다															
40 귀하는 지난 일주일(2013년 8월 25일 ~ 2013년 8월 31일) 동안 음식점을 몇 번 이용하였습니까? (배달음식 포함) ① 회 → (문40-1로) ② 음식점 이용 안함															
40-1 음식점을 이용하였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table style="width: 100%;"> <tr> <td>① 관계를 위해서(가족친화, 동료, 친구, 동호회 모임 등)</td> </tr> <tr> <td>② 미각의 즐거움을 위해(맛집 방문)</td> </tr> <tr> <td>③ 영양보충을 위해서</td> </tr> <tr> <td>④ 밥하기 귀찮아서</td> </tr> <tr> <td>⑤ 시간이 없어서</td> </tr> <tr> <td>⑥ 혼자 밥 먹기 애매해서</td> </tr> <tr> <td>⑦ 조리기구가 없어서</td> </tr> <tr> <td>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td> </tr> </table>		① 관계를 위해서(가족친화, 동료, 친구, 동호회 모임 등)	② 미각의 즐거움을 위해(맛집 방문)	③ 영양보충을 위해서	④ 밥하기 귀찮아서	⑤ 시간이 없어서	⑥ 혼자 밥 먹기 애매해서	⑦ 조리기구가 없어서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① 관계를 위해서(가족친화, 동료, 친구, 동호회 모임 등)															
② 미각의 즐거움을 위해(맛집 방문)															
③ 영양보충을 위해서															
④ 밥하기 귀찮아서															
⑤ 시간이 없어서															
⑥ 혼자 밥 먹기 애매해서															
⑦ 조리기구가 없어서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IX 만 65세 이상인 분들만

41 귀하는 주로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만 65세 이상(양력 1948년 8월 31일, 음력 7월 27일 이전 출생자)

① 본인 및 배우자 마련

→ <구체적 내용>

- 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② 재산소득(이자, 임대, 배당소득 등)
- ③ 연금(개인연금 포함), 퇴직급여
- ④ 예금(적금)

② 자녀 또는 친척 도움

→ <동거여부>

- ① 함께 살고 있음
- ② 함께 살고 있지 않음

③ 정부 및 사회단체(정부보조 등)

④ 기타(구체적으로: _____)

42 귀하는 주로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만 65세 이상(양력 1948년 8월 31일, 음력 7월 27일 이전 출생자)

- ① 집(본인, 가족, 이웃집 등 포함)
- ②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 ③ 교회, 절, 성당 등 종교기관
- ④ 노인대학, 노인교실, 평생교육관, 사회문화교실, 사설 문화센터, 동 주민자치센터 등
- ⑤ 근린공원, 산 등
- ⑥ 동호회 사무실 등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X 기타(응답자 특성)

4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안받았음
- ② 초등학교
- ③ 중학교
- ④ 고등학교
- ⑤ 대학(4년제 미만)
- ⑥ 대학교(4년제 이상)
- ⑦ 대학원 석사 과정
- ⑧ 대학원 박사 과정

- ① 졸 업
- ② 재 학
- ③ 수료
- ④ 유 학
- ⑤ 중 퇴

44 귀하가 졸업 또는 재학 중인 학교는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최종학력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① 국내

- ① 대전 ⑦ 대구 ⑬ 경남
- ② 충남 ⑧ 광주 ⑭ 전북
- ③ 충북 ⑨ 울산 ⑮ 전남
- ④ 서울 ⑩ 경기 ⑯ 제주
- ⑤ 인천 ⑪ 강원 ⑰ 세종
- ⑥ 부산 ⑫ 경북

② 해외

45 귀책에서 자신을 포함하여 다문화 가구원(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와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 등)이 있습니까?

① 있다 →

- ① 본인
- ② 배우자
- ③ 자녀(_____명)
- ④ 기타 가구원(_____명)

② 없다

46 귀하의 경제사회적인 위치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상 ② 상하 ③ 중상 ④ 중하 ⑤ 하상 ⑥ 하하

♣ 수고하셨습니다.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사원이 작성하는 곳입니다.	대체 여부	① 원표본(a) ② 대체표본(b)	면접 방법	① 타계식 조사 ② 자계식 조사 ③ 유치조사
	조사 일시	2013년 ____월 ____일	유치일	____월 ____일 회수일 ____월 ____일



부록. 2014 대전광역시 사회조사(가구주) 설문지

It's
Daejeon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승인(협의)번호
제 20609 호

조사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일련번호	지역	조사구	가구번호	가구원 코드	조사원 코드
	□□□□□	□□	□□□	□□□	□□	□□□

2014 대전광역시 사회조사(가구주)

[보건, 환경, 사회복지, 문화·여가, 과학기술, 안전, 소득·소비, 공동체]

귀택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전광역시는 매년 마다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시민의 생활수준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입니다. 조사결과는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수립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 본 설문조사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원이 조사 대상입니다.

(양력 : 1999년 8월 31일, 음력 : 1999년 7월 21일 이전 출생자)

시민중심의 대전광역시 정책 수립을 위해 바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 관 처	대전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	수 행 처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042)487-0118
-------	---------------	-------	----------------------------

가구주 성명		성 별	①남 ②여	출생년도	19____년
도로명 주소	대전광역시 _____구 _____로 _____ (중전 지번주소 : 대전광역시 _____구 _____동 _____번지)				
연 락 처		면접원 성명		면접원 연락처	
거처의 종류	① 단독주택(다가구포함) ② 아파트 ③ 연립/다세대주택 ④ 기타(오피스텔, 상가내 거처 등)				
점 유 형 태	① 자기집 ② 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월세 ⑤ 무상 및 기타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상태	종교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미혼 자녀 ④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⑤ 손자녀 및 그 배우자 ⑥ 부모(배우자 쪽 포함) ⑦ 조부모(배우자 쪽 포함) ⑧ 미혼 형제자매 ⑨ 기타 친·인척 ⑩ 기타 동거인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 혼인신고는 하셨습니까? ① 하였다 ② 하지 않았다 ③ 이혼/별거 ④ 사별	① 개신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원불교 ⑥ 천도교 ⑦ 대종교 ⑧ 기타____ ⑨ 없다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조사원이 작성하는 곳입니다.	구 분	인원수
	총 가구원	
	15세 미만	
	15세 이상	불응·불능 조 사

I 보건

1 지난 1주일 동안 평소보다 숨이 차거나 약간의 땀이 나는 정도의 운동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 단, 운동으로서 걷기는 해당되나 일상생활에서의 걷기는 제외)

- ① 일주일에 () 일, 1회에 () 분 정도 ➡ (문1-1로)
- ② 전혀 하지 않는다 ➡ (문1-2로)

1-1 [문1에서 ①응답자만]
평소에 주로 하시는 운동(체육활동)은 무엇입니까?

(1 순위 :), (2 순위 :)

- ① 걷기 ② 헬스, 에어로빅 ③ 등산
④ 달리기 ⑤ 수영 ⑥ 배드민턴, 테니스
⑦ 요가 ⑧ 자전거 ⑨ 인라인
⑩ 줄넘기, 훌라후프 ⑪ 축구 ⑫ 농구
⑬ 탁구 ⑭ 골프(연습 포함)
⑮ 기타 (구체적으로:)

1-2 [문1에서 ②응답자만]
그럼 운동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귀찮고 하기 싫어서
②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③ 가까운 체육시설이 없어서
④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어서
⑤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⑥ 건강문제로
⑦ 기타(구체적으로:)

2 귀하가 대전시 내에서 주로 이용하시는 의료시설은 무엇입니까?

- ① 종합병원 ② 병(의)원 ③ 치과 병(의)원
④ 한의원(한방병원) ⑤ 보건소 ⑥ 약국
⑦ 기타(구체적으로:)

2-1 주 이용 의료시설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 ➡ (문2-2로)
⑤ 매우 불만족

2-2 [문2-1에서 ④⑤ 응답자만]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순위 :), (2 순위 :)

- ① 불친절하다
② 의료비(약값)가 높다
③ 치료결과가 미흡하다
④ 진료가 불성실하다
⑤ 진료대기 및 입원대기 시간이 길다
⑥ 의료시설이 낙후되거나 미비하다
⑦ 필요이상으로 진료(검사 등)를 많이 한다
⑧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⑨ 기타(구체적으로:)

II 환경

3 귀하의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좋다	약간 좋다	보통이다	약간 나쁘다	매우 나쁘다
1. 대기	①	②	③	④	⑤
2. 수질	①	②	③	④	⑤
3. 토양(쓰레기, 폐기물로 인한 오염)	①	②	③	④	⑤
4. 소음, 진동	①	②	③	④	⑤
5. 녹지 환경(공원, 가로수 등)	①	②	③	④	⑤

4 귀하의 거주지 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환경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하천 수질오염 ② 대기오염 ③ 쓰레기 문제
 ④ 소음 및 진동 ⑤ 악취 ⑥ 녹지훼손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⑧ 특별히 없다

5 귀하는 향후 대전시 녹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녹지공간(공원, 산책로 등) 확대
 ② 가로수 및 가로 녹지대 확대
 ③ 산림 및 자연 휴양림 조성
 ④ 금강 및 3대 하천 주변 환경 관리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III 사회복지

6 귀하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순위 :), (2 순위 :)

- ① 여성 문화·여가 활동 지원(교양강좌, 헬스, 요가 등)
 ② 여성 일자리 확대(취업 및 교육 지원)
 ③ 육아 및 출산 지원(보육 지원)
 ④ 여성의 사회적 보호(성폭력, 성금암 등)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7 귀하는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순위 :), (2 순위 :)

- ① 생활안정 ② 가족지원
 ③ 의료재활 ④ 교육
 ⑤ 장애인이용시설 ⑥ 문화여가
 ⑦ 이동권보장 ⑧ 일자리지원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8 귀하는 노인들이 겪는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9 귀하는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제적 문제 ② 외로움, 고독의 문제 ③ 자녀와의 갈등 ④ 건강문제 ⑤ 사회적 소외 ⑥ 소일거리 부족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 순위 : _____), (2 순위 : _____) ①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 ② 노인문화예술축제 활성화 ③ 노인일자리 제공 ④ 소외노인지원강화(가정도우미, 밀반찬 배달사업 등) ⑤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가, 취미 프로그램 확대 ⑥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복지관, 실버복지센터, 경로당 등) ⑦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컴퓨터 교실 등) ⑧ 공원 등에 노인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설치 확대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0 귀하는 노후를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①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활동을 하면서 ③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있는 일을 하면서 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독장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② 학습과 같은 자아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④ 종교활동에 전념하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IV 문화·여가

11 귀하는 지난 1년(2013. 9. 1.~2014. 8.31.) 동안 대전시에서 열리는 문화행사 [축제포함]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여해 본 행사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1-1 [문11에서 ①응답자만] 대전시에서 열리는 문화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건우직녀축제 ② 대전효문화뿌리축제 ③ 한밭나눔대축제 ④ 대전오색빛축제 ⑤ 동촌당문화제 ⑥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⑦ 대전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 ⑧ 우암문화제 ⑨ 대전 프리페스티벌 ⑩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⑪ 참여해본 적이 없다 ➡ (문11-1로)	① 행사가 열리는 구체적 시간/장소를 몰라서 ② 알고 있었으나 시간이 없어서/시간대가 불편해서 ③ 관심이 없어서 ④ 편의시설이 불편해서(주차장, 교통수단 등) ⑤ 행사내용이 다양하지 못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2 귀하는 지난 1년(2013. 9. 1.~2014. 8. 31.)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 및 장소에 몇 번이나 참여해(가보)셨습니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항 목</th> <th style="width: 70%;">연간방문 및 활동횟수</th> </tr> </thead> <tbody> <tr><td>1. 문화예술관련 동호회 활동</td><td style="text-align: center;">회</td></tr> <tr><td>2. 문화예술관련 자원봉사</td><td style="text-align: center;">회</td></tr> <tr><td>3. 박물관</td><td style="text-align: center;">회</td></tr> <tr><td>4. 미술전시회, 미술관</td><td style="text-align: center;">회</td></tr> <tr><td>5. 연주회, 무용, 연극 등 공연장</td><td style="text-align: center;">회</td></tr> <tr><td>6. 대중음악 콘서트장</td><td style="text-align: center;">회</td></tr> <tr><td>7. 영화관</td><td style="text-align: center;">회</td></tr> <tr><td>8. 스포츠 경기 관람</td><td style="text-align: center;">회</td></tr> </tbody> </table>	항 목	연간방문 및 활동횟수	1. 문화예술관련 동호회 활동	회	2. 문화예술관련 자원봉사	회	3. 박물관	회	4. 미술전시회, 미술관	회	5. 연주회, 무용, 연극 등 공연장	회	6. 대중음악 콘서트장	회	7. 영화관	회	8. 스포츠 경기 관람	회	13 귀하는 지난 1년(2013. 9. 1.~2014. 8. 31.) 동안 학교교육 이외에 강좌나 강습을 받아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문학 ② 미술(사진·서예·디자인·건축 포함) ③ 서양음악 ④ 전통예술 ⑤ 무용 ⑥ 연극 ⑦ 영화/비디오 ⑧ 대중가요/연예 ⑨ 만화(카툰, 애니메이션 포함) ⑩ 역사문화유산 ⑪ 생활/여가문화(공예, 댄스) ⑫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⑬ 받아본 적 없다
항 목	연간방문 및 활동횟수																		
1. 문화예술관련 동호회 활동	회																		
2. 문화예술관련 자원봉사	회																		
3. 박물관	회																		
4. 미술전시회, 미술관	회																		
5. 연주회, 무용, 연극 등 공연장	회																		
6. 대중음악 콘서트장	회																		
7. 영화관	회																		
8. 스포츠 경기 관람	회																		

14 귀하는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무엇을 하며 여가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1 순위 :), (2 순위 :), (3 순위 :)

① TV 및 DVD 시청	② 여행	③ 문화예술 관람
④ 스포츠 관람	⑤ 스포츠 활동	⑥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⑦ 창작적 취미(미술, 독서, 악기 등)	⑧ 자기개발(어학, 자격증 등)	⑨ 봉사 활동
⑩ 종교 활동	⑪ 가사(장보기, 청소 포함)	⑫ 휴식(수면, 사우나 등)
⑬ 사교 관련(친구, 친가방문, 동창회 등)	⑭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5 귀하는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십니까?	15-1 [문15에서 ④⑤ 응답자만]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문15-1로)	① 시간이 부족하여 ② 경제적 부담 때문에 ③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④ 여가시설이 부족하여 ⑤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⑥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⑦ 여가활동에 대한 능숙한 기술 부족 ⑧ 기타(구체적으로:_____)

16 평소에 얼마나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여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평일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가끔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주말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가끔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V 과학기술

17 귀하는 대전시가 과학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8 귀하는 대전시가 과학도시로서 발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우수한 과학인력 육성 ② 과학관련 시설 및 기관 유치 ③ 과학기술 관련 기업 지원 사업 ④ 해외 유명 과학도시와의 교류 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① 대단히 가능성이 높다 ② 가능성이 있다 ③ 가능성이 희박하다 ④ 거의 불가능하다

19 귀하께서 주로 이용하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 SNS)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트위터	② 페이스북	③ 카카오톡	④ 밴드(BAND)
⑤ 싸이월드	⑥ 블로그	⑦ 카페	⑧ 티스토리
⑨ 텀블러(Tumblr)	⑩ 인스타그램(Instagram)	⑪ 링크나우(Linknow)	⑫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⑬ 이용하는 SNS 없음			

VI 안전

20 귀하는 대전시가 다음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1 귀하는 평소 각각 범죄에 대해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매우 안전</th> <th>약간 안전</th> <th>보통</th> <th>약간 불안</th> <th>매우 불안</th> </tr> </thead> <tbody> <tr><td>1. 자연재해(태풍, 지진, 폭염, 폭설 등)</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2. 건축물 및 시설물(주택, 교량붕괴 등)</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3. 교통사고</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4. 화재사고</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5. 식품안전(불량식품, 식중독 등)</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6. 정보보안(컴퓨터바이러스, 해킹 등)</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7. 의약품안전(마약, 부정불량약품 등)</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8. 신종 전염병(신종플루, 조류독감 등)</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9. 범죄(폭력, 절도 등)</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body> </table>		매우 안전	약간 안전	보통	약간 불안	매우 불안	1. 자연재해(태풍, 지진, 폭염, 폭설 등)	①	②	③	④	⑤	2. 건축물 및 시설물(주택, 교량붕괴 등)	①	②	③	④	⑤	3. 교통사고	①	②	③	④	⑤	4. 화재사고	①	②	③	④	⑤	5. 식품안전(불량식품, 식중독 등)	①	②	③	④	⑤	6. 정보보안(컴퓨터바이러스, 해킹 등)	①	②	③	④	⑤	7. 의약품안전(마약, 부정불량약품 등)	①	②	③	④	⑤	8. 신종 전염병(신종플루, 조류독감 등)	①	②	③	④	⑤	9. 범죄(폭력, 절도 등)	①	②	③	④	⑤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전혀 느끼지 않음</th> <th>별로 느끼지 않음</th> <th>보통</th> <th>약간 느낌</th> <th>매우 많이 느낌</th> </tr> </thead> <tbody> <tr><td>1. 절도</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2. 사기</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3. 강도</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4. 상해</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5. 성희롱, 성폭력</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6. 학교 폭력</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body> </table>		전혀 느끼지 않음	별로 느끼지 않음	보통	약간 느낌	매우 많이 느낌	1. 절도	①	②	③	④	⑤	2. 사기	①	②	③	④	⑤	3. 강도	①	②	③	④	⑤	4. 상해	①	②	③	④	⑤	5. 성희롱, 성폭력	①	②	③	④	⑤	6. 학교 폭력	①	②	③	④	⑤
	매우 안전	약간 안전	보통	약간 불안	매우 불안																																																																																																		
1. 자연재해(태풍, 지진, 폭염, 폭설 등)	①	②	③	④	⑤																																																																																																		
2. 건축물 및 시설물(주택, 교량붕괴 등)	①	②	③	④	⑤																																																																																																		
3. 교통사고	①	②	③	④	⑤																																																																																																		
4. 화재사고	①	②	③	④	⑤																																																																																																		
5. 식품안전(불량식품, 식중독 등)	①	②	③	④	⑤																																																																																																		
6. 정보보안(컴퓨터바이러스, 해킹 등)	①	②	③	④	⑤																																																																																																		
7. 의약품안전(마약, 부정불량약품 등)	①	②	③	④	⑤																																																																																																		
8. 신종 전염병(신종플루, 조류독감 등)	①	②	③	④	⑤																																																																																																		
9. 범죄(폭력, 절도 등)	①	②	③	④	⑤																																																																																																		
	전혀 느끼지 않음	별로 느끼지 않음	보통	약간 느낌	매우 많이 느낌																																																																																																		
1. 절도	①	②	③	④	⑤																																																																																																		
2. 사기	①	②	③	④	⑤																																																																																																		
3. 강도	①	②	③	④	⑤																																																																																																		
4. 상해	①	②	③	④	⑤																																																																																																		
5. 성희롱, 성폭력	①	②	③	④	⑤																																																																																																		
6. 학교 폭력	①	②	③	④	⑤																																																																																																		



22 귀하는 지난 1년(2013. 9. 1~2014. 8. 31.) 동안 귀하나 가구원 중 아래의 범죄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습니까?	23 귀하께서는 범죄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th> <th colspan="2">피해경험 여부</th> <th colspan="2">신고 여부</th> </tr> <tr> <th>없었다</th> <th>있었다</th> <th>신고함</th> <th>신고하지 않음</th> </tr> </thead> <tbody> <tr> <td>1. 사기(속임)로 인한 재산피해</td> <td>①</td> <td>②</td> <td>④</td> <td>⑤</td> </tr> <tr> <td>2. 물건을 도둑맞거나 빼앗김</td> <td>①</td> <td>②</td> <td>④</td> <td>⑤</td> </tr> <tr> <td>3. 집에 허락없이 들어옴</td> <td>①</td> <td>②</td> <td>④</td> <td>⑤</td> </tr> <tr> <td>4. 폭행이나 위협(협박)을 당함</td> <td>①</td> <td>②</td> <td>④</td> <td>⑤</td> </tr> <tr> <td>5. 고의적으로 재산이나 물건 파손</td> <td>①</td> <td>②</td> <td>④</td> <td>⑤</td> </tr> <tr> <td>6. 강제로 원치 않는 성적 접촉</td> <td>①</td> <td>②</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피해경험 여부		신고 여부		없었다	있었다	신고함	신고하지 않음	1. 사기(속임)로 인한 재산피해	①	②	④	⑤	2. 물건을 도둑맞거나 빼앗김	①	②	④	⑤	3. 집에 허락없이 들어옴	①	②	④	⑤	4. 폭행이나 위협(협박)을 당함	①	②	④	⑤	5. 고의적으로 재산이나 물건 파손	①	②	④	⑤	6. 강제로 원치 않는 성적 접촉	①	②	④	⑤	(1 순위 :), (2 순위 :) ① 호신술 또는 개인 호신장비 소지 ② 가족 또는 친구와의 행선지 공유, 위치 알림 등 ③ 야간 외출 자제 ④ 범죄 피해 사례 등 범죄 예방 교육 ⑤ 사이버범죄 피해 가능성이 있는 불법 유향사이트 접속 피함 ⑥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⑧ 별도의 조치 없음
		피해경험 여부		신고 여부																																				
	없었다	있었다	신고함	신고하지 않음																																				
1. 사기(속임)로 인한 재산피해	①	②	④	⑤																																				
2. 물건을 도둑맞거나 빼앗김	①	②	④	⑤																																				
3. 집에 허락없이 들어옴	①	②	④	⑤																																				
4. 폭행이나 위협(협박)을 당함	①	②	④	⑤																																				
5. 고의적으로 재산이나 물건 파손	①	②	④	⑤																																				
6. 강제로 원치 않는 성적 접촉	①	②	④	⑤																																				

VII 소득 · 소비

24 귀하는 본인의 소득수준에 만족하십니까?	25 귀하는 현재 소비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⑥ 소득 없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6 귀댁에는 현재 부채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부채가 있다 → (문26-1로) ② 부채가 없다 → (문27로) 26-1 부채 이유 <table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① 주택 임차 및 구입</td> <td style="width: 50%;">② 교육비(자녀교육비, 사교육비 등)</td> </tr> <tr> <td>③ 의료비</td> <td>④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생활비</td> </tr> <tr> <td>⑤ 채테크 투자(주식, 부동산 등)</td> <td>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td> </tr> </table>	① 주택 임차 및 구입	② 교육비(자녀교육비, 사교육비 등)	③ 의료비	④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생활비	⑤ 채테크 투자(주식, 부동산 등)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① 주택 임차 및 구입	② 교육비(자녀교육비, 사교육비 등)					
③ 의료비	④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생활비					
⑤ 채테크 투자(주식, 부동산 등)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VI 공동체

27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①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는 활동
- ②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물질, 시간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
- ③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
- ④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의미있는 여가활동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8 귀하는 지난 1년(2013. 9. 1.~2014. 8. 31.) 동안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한 적이 있습니까?

- ① 현금(ARS, 계좌이체 등)기부 ➡ (문28-2로)
- ② 물품기부
- ③ 재능기부 ➡ (문29로)
- ④ 노동(자원봉사활동 등) 기부
- ⑤ 기부한 적 없다 ➡ (문28-1로)

※ 현금 기부시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종교단체 기부는 제외
 ※ 재능기부란 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개인의 이익이나 기술개발에만 사용하지 않고 이를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부형태

28-1 기부에 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 후 문29로)

- 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서
- ②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 ③ 남을 돕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 ④ 참여 방법을 몰라서
- ⑤ 관심이 없어서
-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8-2 지난 1년(2013. 9. 1.~2014. 8. 31.) 동안 후원금(기부금)을 낸 경우 총 횟수와 금액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후원(기부) 경로	횟수	연간 총금액
① 대상자(단체 등)에게 직접 후원	()회	() 원
② 언론기관을 통한 후원(ARS 등)	()회	() 원
③ 사회복지단체를 통한 후원	()회	() 원
④ 종교단체를 통한 후원(현금제외)	()회	() 원
⑤ 기업(직장)을 통한 후원	()회	() 원
⑥ 기타()	()회	() 원

※ 후원금(기부금)이란 직접 관계없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금전이나 물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치후원금은 제외합니다.



29 귀하는 도시농업에 참여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반드시 참여하겠다 ☐ ➡ (문29-1로)
- ② 참여할 의사가 있는 편이다 ☐ ➡ (문29-1로)
- ③ 참여할 의사가 없는 편이다 ☐ ➡ (문29-2로)
- ④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 ☐ ➡ (문29-2로)

※ 도시농업은 주말 텃밭 무료 분양, 상자 텃밭 분양, 옥상 텃밭 조성교 초등학교의 원예활동 및 도시농업 교육지원 등이 포함

29-1 도시농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도심 내 쾌적성 증대
- ② 도시 열섬화 및 지구온난화 저감
- ③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 ④ 이웃간 · 세대간 소통
- ⑤ 일자리 창출
- 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29-2 참여 의사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간이 없어서
- ② 관심이 없어서
- ③ 사후관리가 어려워서
- ④ 도시농업의 내용을 몰라서
- ⑤ 작물재배법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 ⑥ 매연,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재배작물 오염이 우려되어
- ⑦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30 귀력은 얼마나 자주 가족과 함께 모여최소 2명 이상 식사아침, 점심, 저녁을 하십니까?

- ① 매일 ② 매일 1끼 이상 ③ 1주일에 2-3회 ④ 1주일에 1회 ⑤ 1달에 2-3회 ⑥ 거의 없음

31 귀하는 다음 집단 간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 이루어 지고 있음	약간 이루어지고 있음	보통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1. 가족간의 소통	①	②	③	④	⑤	⑥
2. 직장 구성원간의 소통	①	②	③	④	⑤	⑥
3. 이웃간의 소통	①	②	③	④	⑤	⑥
4. 세대간의 소통	①	②	③	④	⑤	⑥

32 귀하는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대전 시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2.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민운동단체 등 건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자녀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귀하는 다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있다	없다
1. 몸이 아파 집안 일을 부탁할 경우	①()명	②
2.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①()명	②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	①()명	②

34 귀하는 다음의 구성원들을 어떤 관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각 항목별로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나의 이웃이 되는 것	받아들일 수 없음
1.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2. 결손가정의 자녀(조손가정/한부모가정 등)	①	②	③	④	⑤
3.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①	②	③	④	⑤
4. 전과자	①	②	③	④	⑤
5. 동성애자	①	②	③	④	⑤
6. 북한이탈주민(탈북자/새터민)	①	②	③	④	⑤

35 귀하는 다음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그렇다					보통				전혀 그렇지 않다

평가 요소	응답
1.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셨습니까?	
3.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까?	
4.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5.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6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지역에는 지역행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지역주민들은 지역행사에 활발히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공사소음, 쓰레기 배출문제, 도로시설 등의 지역문제가 있을 때 잘 협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하거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주차를 아무렇게 하거나 등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7 만약 귀하가 집근처에서 20만원이 든 지갑을 분실 했을 때, 돈이 있는 상태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 ① 매우 기대한다 ② 약간 기대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⑤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 사회적 경제란?

‘구성원이나 공공을 위한 목표설정’,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수익배분에서 사람과 노동의 중시’라는 네 가지 원칙을 따르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활동을 지칭한다.

38 귀하는 ‘사회적 경제’ 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사회적 경제’라는 말의 의미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인 사례를 잘 알고 있다
 ② ‘사회적 경제’라는 말의 의미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있지는 않다
 ③ ‘사회적 경제’가 어떤 것이라는 의미정도만 이해한다
 ④ ‘사회적 경제’는 말은 들어보았으나 의미는 모르고 있다
 ⑤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39 귀하는 아래의 사회적 경제 기업 유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다	명칭 정도만 들어 보았다	처음 들어본다
1. 사회적 기업	①	②	③
2. 협동조합	①	②	③
3. 마을기업	①	②	③
4. 자활기업	①	②	③

IX 기타(응답자 특성)

40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안받았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4년제 미만)
 ⑥ 대학교(4년제 이상)
 ⑦ 대학원 석사 과정
 ⑧ 대학원 박사 과정

- ① 졸 업
 ② 재 학
 ③ 수 료
 ④ 휴 학
 ⑤ 중 퇴

41 귀하가 졸업 또는 재학 중인 학교는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최종학력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① 국내	① 대전	② 충남	③ 충북
	④ 서울	⑤ 부산	⑥ 대구
	⑦ 인천	⑧ 광주	⑨ 울산
	⑩ 세종	⑪ 경기	⑫ 강원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② 해외

4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있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없음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군인	⑪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⑫ 학생 ⑬ 주부 ⑭ 무직(은퇴포함)			

43 ※직업이 있는 경우만 귀하께서 일하는 직장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공무원(국, 공립교사 포함)	② 정부투자, 출연기관	③ 기타 공공기관
④ 대기업(300인 이상)	⑤ 중소기업(50~299인)	⑥ 소기업(49인 이하)
⑦ 자영업자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44 ※직업이 있는 경우만 귀하의 직업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① 고용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상용근로자	④ 임시 및 일용근로자
⑤ 무급가족종사자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45 귀댁에서 자신을 포함하여 다문화 가구원(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등)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자녀 (____명) ④ 기타 가구원(____명)
② 없다		

46 귀하의 경제·사회적인 위치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

47 귀댁의 지난 1년 동안(2013. 9. 1.~2014. 8. 31.)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총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전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의 합계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아래의 표는 조사원이 작성하여 주십시오.

조사일시	2014년 ____월 ____일	조사표본	① 원표본(a) ② 대체표본(b)
조사시간	____시 ____분 ~ ____시 ____분	면접방법	① 타계식 조사 ② 자계식 조사 ③ 유치조사
방문 차수 및 재방문 이유		유치일	____월 ____일 회수일 ____월 ____일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 2015-1]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발 행 일 : 2015년 7월

발 행 인 : 이 정 순

발 행 처 : 대전복지재단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0층 (우: 34917)

전 화 : 042-331-8910

팩 스 : 042-331-8924

홈페이지 : <http://www.dwf.kr>

ISBN 978-89-98568-22-1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에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0층(34917)
TEL : (042) 331-8910 FAX : (042) 331-8924 <http://dwf.kr>

